연구보고서 2021-07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방안: 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정희 • 손제희 • 진지혜 • 최윤정

GNWFF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2021-07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방안: 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책임: 이정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손제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초빙연구위원)
진지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초빙연구위원)
최윤정(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초빙연구위원)
연구지원: 박선영(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전문연구원)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발 간 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은 현재 1인가구 증가, 가족 규모 축소, 다양한 가족의 등장 등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가족문화 속에서 가족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을 민주적이고 평등한 문화로 바꾸는 것은 우리사회 전반의 문화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남의 가족형태와 가족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 가족이 지향해야 할 방향인 "평등 가족문화"로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등 가족문화"로 진전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수 있도록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향후 평등하고 민주적인 경남의 가족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기원하며, 더 나아가 성평등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일조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문가분들과 가족지원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남가족실태조사에 시간을 내어주신 경남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연구가 진행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경상남도 여성가족아동국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민 말 순

요약

Ⅰ. 서론

□ 연구 필요성

○ 1인가구 증가, 가족 규모의 축소, 다양한 가족의 등장 등 현재 가족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가족 가치관과 가족문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정책의 방향도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문화 관련 정책과제로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가족문화를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평등 가족문화”로 사용하며, “평등 가족문화”는 “가족 구성원 간 성별·연령별 차이로 인한 가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가족문화, 또한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족 형태를 서로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가족문화”로 폭넓게 정의하고자 함

□ 연구목적

○ 첫째, 각종 통계자료와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경남 가족형태의 변화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가족 관련 통계자료와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를 분석하고 경남 가족실태조사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함

○ 둘째, 경남가족실태에 대한 진단을 통해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와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칭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경남 가족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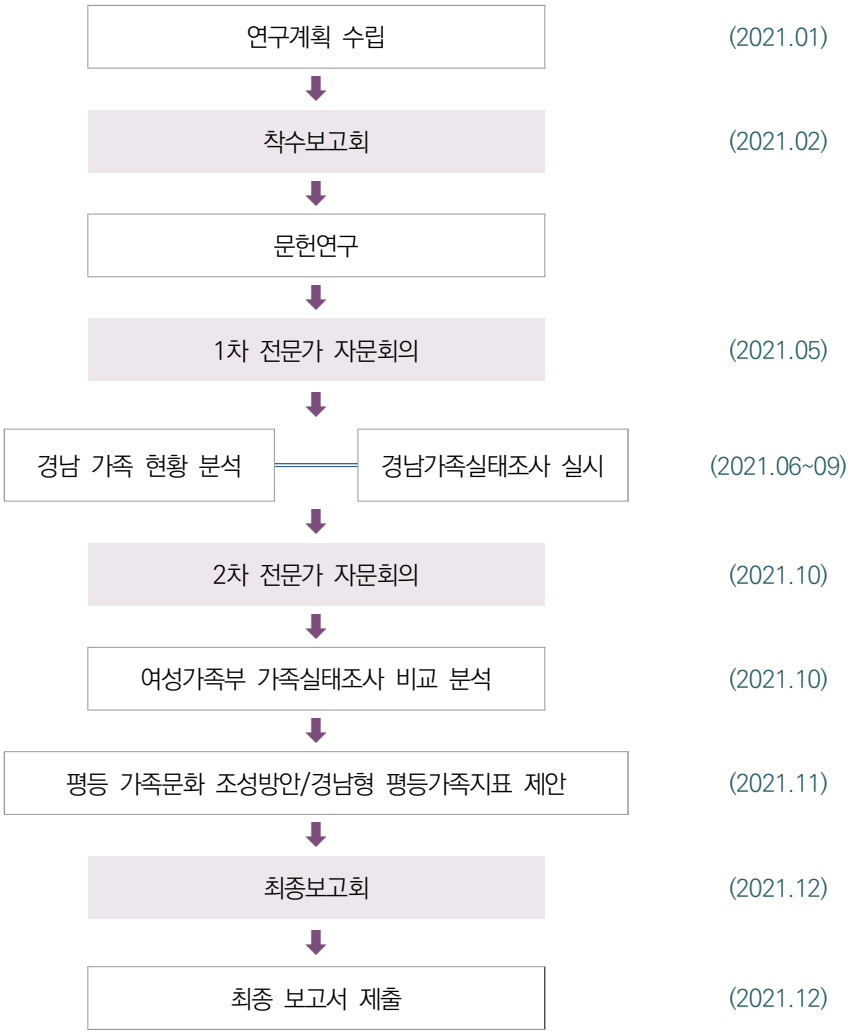
○ 전국과의 비교를 통한 경남 가족문화 특수성 분석

○ 경남 가족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방안 및 경남형 지표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각종 보고회의

□ 연구 추진절차



[그림 1] 연구 추진절차

Ⅱ. 가족정책 변화와 경남 가족 현황

□ 가족정책의 변화 방향

○ 한국 가족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족정책이라는 체계적인 틀 없이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주된 정책의 방향이다가 2004년에서야 가족정책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됨

○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 법 개정으로 1인가구를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추가됨

- 하지만 여전히 가족의 구성 요건을 혼인·혈연·입양으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건강가정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수립하고 있음

- 2021년부터 시행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를 모토로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음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과제 중 특히 가족문화와 관련한 과제로는 "1-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과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이 포함됨

○ 경상남도에서도 가족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계획〉(2021.2.15.)을 수립·발표함

- 〈2021년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계획〉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족, 가사부담 경감'의 3대 목표를 설정함
-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가족문화 개선 연구, 가족교육 강화, 가사부담 경감, 건강한 가족문화 홍보 등을 제시함

□ 경남 가족현황 분석

○ 가족형태 및 구조

- 경상남도 전체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평균 가구원 수는 감소하였고, 1인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함
- 경상남도의 세대구성별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보통 부부+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점차 감소세에 있고, 1세대 가구 비율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형성 및 해체

- 경남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혼건수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20년 기준 경남의 초혼연령은 여성 30.52세, 남성 33.06세로 성별 차이는 2.54세로 나타나며, 혼인, 이혼, 재혼의 평균 연령은 모두 상승함
- 경남 다문화 혼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10.0%를 차지하며, 다문화 이혼은 경남 전체의 7.7%, 다문화 출생은 경남 전체의 6.2%를 차지함

○ 출생 현황

- 2020년 경상남도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하여 2015년 대비 43.0% 감소하였는데 전국적으로 동일기간 동안 37.9% 감소한 것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임
-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4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0.95명이며, 이는 전국 평균 0.84명보다 조금 높은 수치임

○ 가족 가치관

- 결혼에 대한 견해에 대해 경남은 전국 평균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고, 부정적인 응답은 다소 낮게 나타나며 경남과 전국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혼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고, 재혼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전체의 60%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실제로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7.0%에 불과해 인식과 실태 사이의 괴리를 보임

○ 저출산에 대한 견해

-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요인에 대해 경남의 남녀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여성은 '결혼 가치관 변화', '자녀 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의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순으로 응답하고, 남성은 '경제 침체 및 직장 불안정', '결혼 가치관 변화', '자녀 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의 증대' 순으로 응답함
- 저출산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가족관계 만족도

- 경남도민의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여성 56.4%, 남성 64.1%로 남성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관계 만족도를 배우자, 자기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중 경남도민의 만족도가 높은 대상은 자녀, 배우자, 자기 부모 순으로 나타남

Ⅲ. 전국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경남 가족 특성

□ 〈2020 가족실태조사〉 개요

○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8년 법 개정으로 조사주기가 3년으로 변경됨

- 〈2020 가족실태조사〉는 제4차 가족실태조사에 해당하며, 전국의 10,997가구, 22,173명이 조사에 참여함

〈표 1〉〈2020 가족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가구 및 가구원	◦ 10,997가구 22,173명
조사대상	◦ 만 12세 이상 가구원
조사기간	◦ 2020년 9월 8일 ~ 9월 18일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
조사 및 분석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통계대행과)
조사영역 (가구대표용)	Ⅰ. 개인관련 사항 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Ⅲ. 가족형성과 변화 Ⅳ. 가족 관계 Ⅴ. 일 Ⅵ. 가족생활과 노후준비 Ⅶ. 정책에 대한 인식 Ⅷ. 가족돌봄 Ⅸ. 1인가구 Ⅹ. 가구 특성

출처) 여성가족부(2021a)

❑ 〈2020 가족실태조사〉 분석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가족의 범위에 대해 경남은 전국에 비해 혈연관계 위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는 가족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낮게 나타남
- 가족 가치관과 관련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특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남
-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거나,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거나, 가부장적 가족 호칭을 개선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경남은 전국에 비해 동의수준이 모두 낮게 나타나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이 전국 평균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 부모 책임에 대해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전국보다 더 높아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형성과 변화

- 경남은 유배우자 중에 혼인신고를 한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 중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응답은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 동거의 어려움에 대해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 지원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가족관계

- 배우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배우자와의 평균 대화시간이 더 길고, 의사소통 만족도와 자녀돌봄 분담 만족도가 더 높고, 배우자와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부간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전국과 동일하게 '가사 등 집안일', '생활비 지출', '자녀 교육'은 아내가 결정하고, '투자 및 자산관리', '취업, 직장 이동'은 남편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고, 대부분의 가사일은 아내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 1순위는 '경제적 문제'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모 입장에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도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고, 청소년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는 전국보다 상당히 높고,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관계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모 입장에서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주로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다는 응답이 높고, 연락 빈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로 사는 부모와의 관계를 나의 부모와 배우자 부모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나의 부모와는 주로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지만, 배우자 부모와는 주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고, 나의 부모와 비교하여 배우자 부모와는 친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 자녀 입장에서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배우자 어머니, 배우자 아버지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일·가족 및 노후 준비

- 경남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묻는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남
-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경남은 전국과 비교하여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생애 설계 관련하여 은퇴/노후 설계, 재무 설계, 여가 설계 모두 전국보다 준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노후에 지낼 곳에 대해서는 경남의 경우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라는 응답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노후를 집에서 보내야겠다는 인식이 전국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원 돌봄

- 영유아의 주 돌봄자에 대해 어머니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주 돌봄자는 아이 어머니라는 응답이 100.0%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육아 책임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긴급돌봄 조력자는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순으로 전국과 순위는 동일하지만,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다는 응답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는 전국적으로는 보호자가 있는 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경남은 학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국과 차이가 있음

❍ 정책에 대한 인식

- 2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족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가족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해, 경남의 경우 노인 돌봄 지원,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응답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노인 1인가구,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순으로 나타남. 경남의 경우 응답이 높은 순위는 전국과 동일하나 노인 1인가구라는 응답은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응답은 전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Ⅳ. 경남 가족실태조사 분석

□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 조사 기간 : 2021년 5월 20일~6월 11일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면접조사

❍ 조사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20~79세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성별(여성, 남성), 연령별(20·30대, 40·50대, 60·70대), 가족 유형(1인가구, 1세대 가족, 2세대 가족, 3세대 가족, 비친족 가족), 거주지역(시 지역, 군 지역)에 따라 비례할당을 두어 조사함

❍ 설문지 문항 구조 특징

- 여성가족부의 〈2020 가족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은 문항으로 구성하고, 경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항을 추가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문항을 신설함

❍ 2021년 경상남도 가족실태조사 조사내용 : A.응답자 특성, B.가구의 일반적 특성, C.가족 가치관, D.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E.일과 돌봄, F.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G.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 경남 가족실태조사 분석

○ 가족 가치관

-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에 대한 태도는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가 가장 평균 점수가 높아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태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 관련 제도 추진에 대한 동의 정도는 '이혼 후 양육비 불이행 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1인가구에 대한 지원강화'로 나타나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도의 추진 또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이성 간 데이트 및 혼인 시 주택 마련, 혼수, 예단 등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은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남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수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성별,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데이트 비용과 주택 마련은 남자가 주로 부담하고, 혼수, 예단의 경우 여자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 나타남

○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 가족 내 성평등 정도는 현재 가족이 평균 6.77점으로 원가족(5.12점)에 비해 높아 현재 가족이 원가족보다는 상대적으로 성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 내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어머니, 딸, 여자형제 순이고, 소통이 안 되는 가족 구성원은 '아무도 없음' 다음으로 아버지, 남자형제, 아들 순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임
- 가족 간 의사소통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대화', '딸과의 대화', '어머니와의 대화', '아들과의 대화' 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 간 의사소통 중요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88.7%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가족 간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으로는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그 다음으로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아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
- 가족 간 갈등 대처방식에 있어 딸, 아들과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갈

등 당사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응답이 가장 많지만, 어머니, 아버지와 갈등 시 '그냥 놔둔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부모-자녀 간 갈등 대처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에 대해 '자녀 교육'과 '가사 등 집안일'은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많고, '농지, 농기계, 선박 등 임대 및 매매', '농업 작목(어업 수산물) 결정', '농업(어업) 수확물 판매' 등은 남편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더 많음

❍ 일과 돌봄

- 일·생활 균형 정도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74점이며, 여성 2.79점, 남성 2.69점으로 여성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영아(만0~2세)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장애아동, 치매 노인, 장애가 있는 성인 순으로 나타남. 돌봄의 주체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돌본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돌봄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로 부담하고 가족이 일부 부담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가족 중에서 부모 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은 '모든 자녀가 골고루'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모님 스스로',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 '장남과 맏며느리' 순으로 나타남. 부모 부양의 책임에 대해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는데 특히 여성과 20~39세 집단의 경우 '부모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부모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공적 돌봄(정부 제공의 돌봄 서비스)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돌봄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다'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31.8년이며, 현재 시·군에는 '외지에서 태어나 이주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향후 5년 내에 이주 계획 의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가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상대적으로 비친족 가족, 저연령층, 시 지역 거주자, 고학력

집단, 미혼 집단일 경우 이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거주하는 시·군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99점이며, 전체의 81.9%가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함
- 평소에 이웃과 왕래하며 교류한다는 응답자는 50.9%이며, 이웃과 교류하는 형태는 '택배 수령, 음식 나누기, 생활정보 교류 등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받음'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웃과의 교류는 성별로는 여성, 고연령층, 비취업자 집단, 외벌이 가족,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마을(동네)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필요 없음'을 제외하면 '방범 및 안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운동 및 취미생활', '생활정보 공유 및 나눔', '음식 나눔 장보기' 순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의 경우 '방범 및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별로 20~39세 집단은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자신의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보육·돌봄 제도의 확대 보급', '부부상담, 자녀상담 등 가족관계 프로그램 제공'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 변화'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반면 '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캠핑, 여행 등)'은 감소했다는 응답이 더 많음
- 코로나19 이후 함께 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점은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증가' 순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은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이 가장 많음. 즉 코로나19 인한 집안일 증가가 여성에게 더 크게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는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함께 사는 자녀와 관계 변화 역시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전체의 8.6%만 활용했다고 응답해 활용도가 낮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재택근무'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가족 지원', '안전한 돌봄 지원' 순으로 나타남

V.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 경남 가족 현황 분석, 여성가족부 〈2020 가족실태조사〉와 경남 가족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정책 방향을 도출함

〈표 2〉 경남 가족현황 진단 시사점 및 정책 방향

구분	시사점	정책 방향
경남 가족현황 분석	◦ 가족 형태의 변화 ◦ 다양한 가족의 등장	◦ 1인가구, 비친족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적극적 가족정책 제시 필요
	◦ 저출생 원인에 대한 성별 차이 - 여성: 결혼 가치관 변화 - 남성: 경제 참체 및 직장 불안정	◦ 청년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반영된 결과이므로 청년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현실과의 차이	◦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잇기 때문에 실천방안 마련 필요
2020 가족실태 조사	◦ 혈연 중심 보수적 가족 가치관	◦ 가족 가치관의 변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등에 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구분	시사점	정책 방향
	◦ 친밀도와 만족도 높은 가족관계	◦ 가족 간 친밀도를 더욱 높이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강화 필요
	◦ 노후 준비 정도 미흡	◦ 노후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공 및 노인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하는 정책 필요
	◦ 어머니에게 집중된 영유아 돌봄	◦ 부부가 육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상호돌봄의 가치관 확대 필요
	◦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 필요	◦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과 같은 보편적 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연령별, 가족 형태별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 제시 필요
경남 가족실태조사: 가족 가치관	◦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가족 생계 책임자는 남성이지만, 남성 또한 육아 전담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 추진 필요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인식 확대, 가족 간 상호돌봄의 가치관 확대와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필요
	◦ 가족 범주의 변화: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보호자 또는 유족이 될 수 있다' 동의 정도 높음	◦ 기존에 결혼 또는 혈연으로 구성되는 가족 개념에서 비혈연, 동거가족까지 가족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 필요 (생활동반자법 등)
	◦ 데이트 및 혼인 비용 부담에 대한 전통적 인식 잔존	◦ 결혼과 같은 가족의례에 잔존하는 전통적 관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특히, 가족의례를 둘러싼 세대 간 인식 차이 해소 노력 필요
경남 가족실태조사: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 가족유형 및 가족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성평등 인식 차이 존재	◦ 지역, 연령, 가족 경제적 부양 방법 등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가족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 원가족의 성차별 요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여성에게 가사일이 편중됐다고 응답	◦ 가족 구성원으로서 기본 역할 및 상호돌봄 문화에 대한 교육 필요('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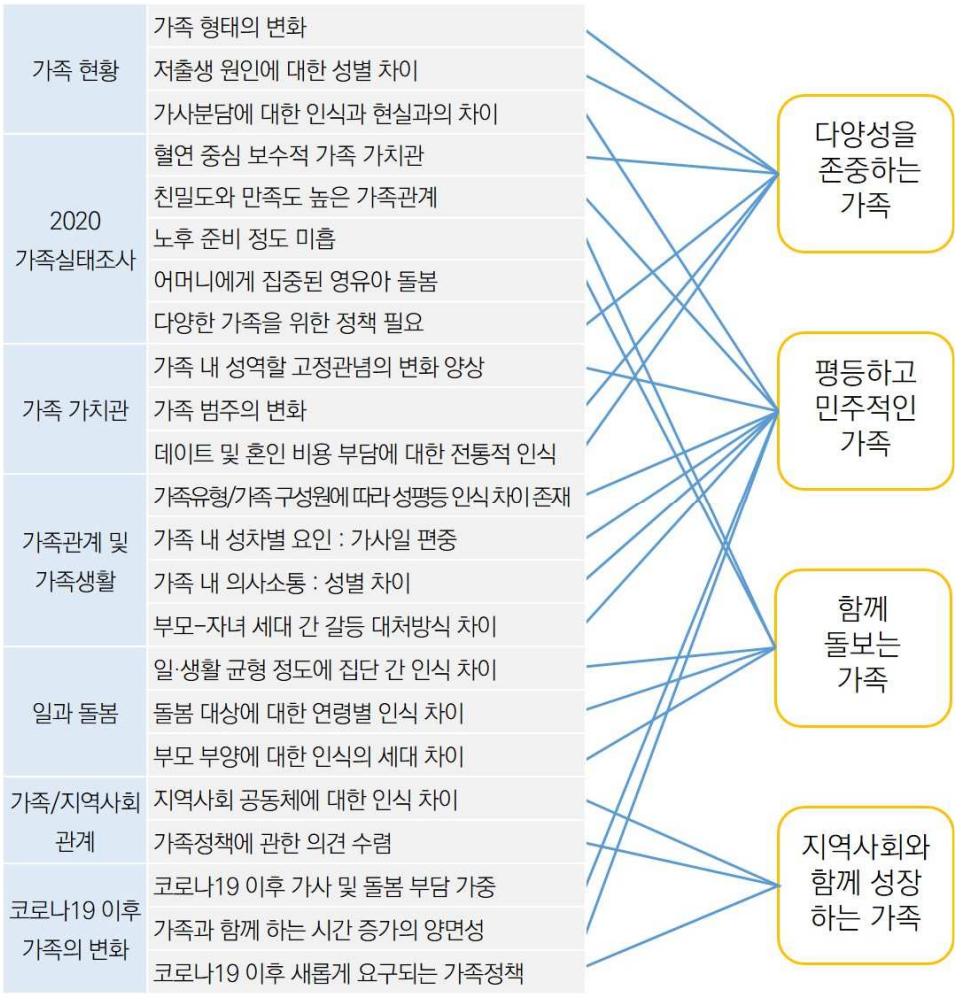
구분	시사점	정책 방향
	◦ 가족 내 의사소통 : 여성 가족과 만족도 높고 남성 가족과 만족도 낮음	◦ 가족 간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마련 ◦ 특히 가족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 부모-자녀 세대 간 갈등 대처 방식 차이 존재 - 부모는 '당사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자녀는 '그냥 놔둔다'	◦ 세대 간 소통 활성화 방안 마련 ◦ 가족갈등 해소 방법 및 갈등 해소를 통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안내 필요
경남 가족실태조사: 일과 돌봄	◦ 일·생활 균형 정도에 집단 간 인식 차이 - 여성, 군지역, 저연령, 고학력층에서 균형적이라고 인식	◦ 일 중심적인 삶, 장시간 노동시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 ◦ 스스로를 돌보고 가족 간 상호돌봄의 가치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 필요
	◦ 돌봄 대상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 - 20~39세는 영아>장애 아동>유아 순 - 60~79세는 영아>치매 노인>거동이 불편한 노인 순	◦ 주로 영유아 돌봄으로 인식되고 있는 돌봄 문화를 전 생애에 걸친 돌봄으로 확대 ◦ 노령층으로 갈수록 노인 돌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출 필요 있음
	◦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의 세대 차이: 모든 자녀가 골고루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20~39세 집단은 '부모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	◦ 부모 부양, 노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사회적 돌봄 확대 정책 필요 ◦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지역사회 내 공적 돌봄서비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안내와 홍보 확대 필요
경남 가족실태조사: 가족과 지역사회 관계	◦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 이웃과의 왕래는 여성이 더 많고, 마을(동네) 공동체로부터 여성은 방범 및 안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어 함 - 청년층의 경우 지역사회, 이웃, 마을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 지역사회 또는 마을(동네) 공동체에 부정적 인식을 지닌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지역사회 구심점이 없는 비친족 가족, 미혼 집단,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함께 할 수

구분	시사점	정책 방향
	인식 높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시적 안내 필요
	◦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라고 응답함	◦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캠페인 등 ◦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정책 실시 ◦ 가족정책 및 기관 인지도 및 이용률 확대 노력 필요
경남 가족실태조사: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여성에게 부가되는 가사 및 돌봄 부담	◦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제도 사용을 보다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필요
	◦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증가의 양면성 -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증가가 관계를 증진시키는 한편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족 간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평등 가족문화 조성 노력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	◦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불안 관리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방식으로 상시적 상담 시스템 마련 필요

□ 정책과제 도출

❍ 앞에서 살펴본 가족 현황 분석, 〈2020 가족실태조사〉 결과, 경남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 도출된 경남가족의 특징과 시사점을 정책으로 연결시키면 [그림 2]와 같음

- 즉, 소위 정상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가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가족 내 의사소통 증진과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가족에 부여된 돌봄 역할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함께 돌보는 가족', 마지막으로 가족의 범위를 지역사회 공동체까지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라는 네 가지 정책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2] 경남 평등 가족문화 정책과제 도출 개념도

❑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체계도

❍ ‘평등 가족문화’ 개념에는 가족 구성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민주적인 가족문화, 남녀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한 가족문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가족문화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 즉,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각자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비전으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경남 가족'(약칭 '소중 경남 가족')을 제안함

비전	소통하고 존중하는 경남 가족			
핵심 가치	다양성	소통	돌봄	공존

	영역(4개)	정책과제(16개)
영역별 과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1-1 아동·청소년 대상 가족 다양성 교육 1-2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 모니터링 1-3 명절·가족의례 성차별 해소를 위한 공모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2-1 경남 평등가족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2-2 가족 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상담서비스 확대 2-3 '평등가족 실천 약속문' 함께 읽기 캠페인 2-4 중·장년층을 위한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운영 2-5 가족 소통 향상을 위한 가족캠프 운영 2-6 경남 가족학교 운영
	함께 돌보는 가족	3-1 중장년층 남성을 위한 자기돌봄 학교 3-2 아빠 육아대학: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아빠 3-3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 확대 3-4 주거공간 개선 가사 지원사업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4-1 가족지원서비스 기관 홍보 강화 및 가족센터 확대 4-2 우리 마을 이웃사촌 프로젝트 4-3 마을과 함께 서로 돌봄 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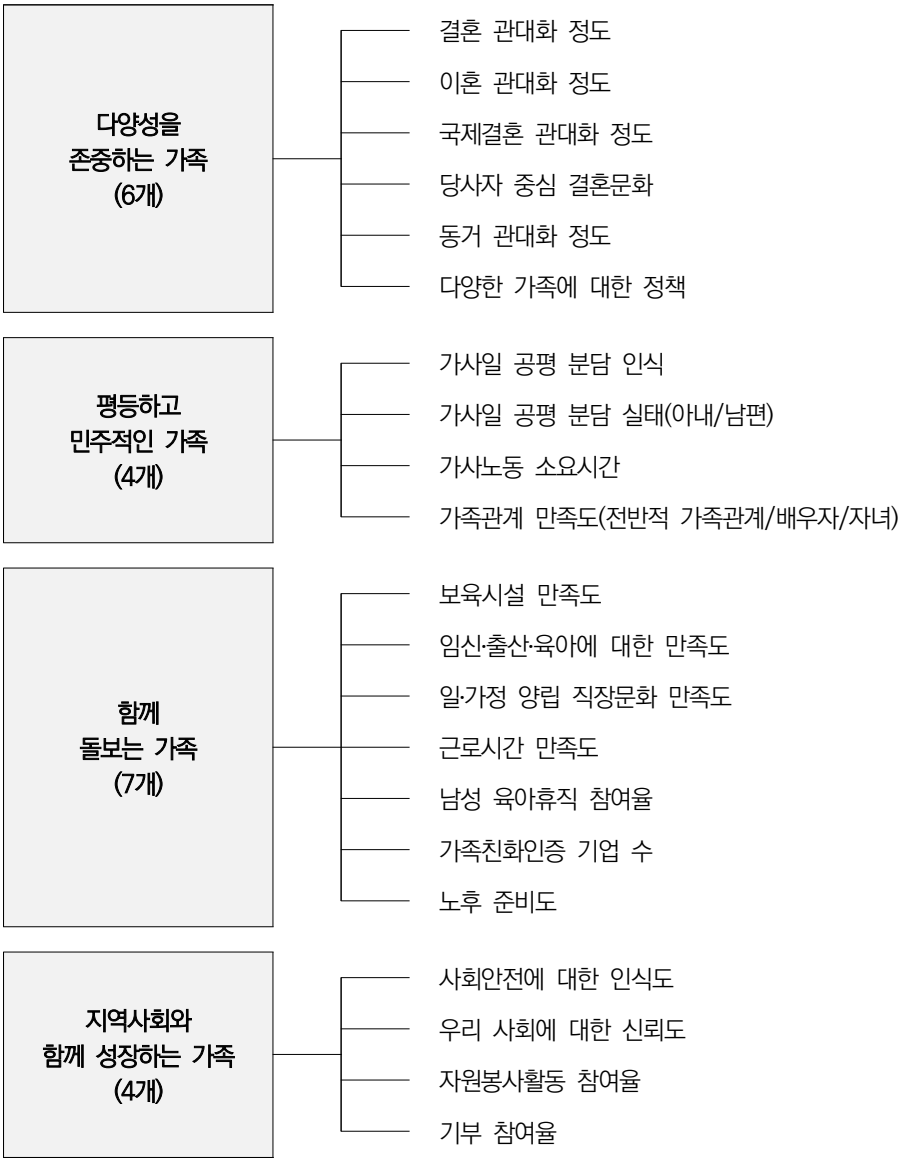
[그림 3]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 정책 체계도

○ '소통하고 존중하는 경남 가족'을 목표로 '다양성, 소통, 돌봄, 공존'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4개 영역 16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 4개 영역은 다양성, 소통, 돌봄,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함께 돌보는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으로 구성함

○ 앞에서 살펴본 가족 현황 분석, 〈2020 가족실태조사〉 결과, 경남 가족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와 연결시키면 [그림 4]와 같음

❑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안)



[그림 4]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안)

○ ‘소통하고 존중하는 경남 가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평등 가족문화 조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존의 통계지표들을 활용하여 “(가칭)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를 [그림 4]와 같이 제시함

○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는 정책과제와 연결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함께 돌보는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21개 세부지표로 구성됨

○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안) 활용방안

-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표를 업데이트하여 가족 관련 지표의 변화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경남형 가족문화 지표의 변화 정도에 대한 보도자료 발행(가칭 ‘올해 경남 가족’ 등)
- 가족문화 지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함으로써 가족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차 례

Ⅰ. 서론 ····· 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Ⅱ. 가족정책 변화와 경남 가족 현황 ····· 13

1. 가족정책의 변화 방향 ····· 13
2. 경남 가족 현황 분석 ····· 22
3. 소결 ····· 47

Ⅲ. 전국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경남 가족문화 특성 ····· 53

1. 〈2020 가족실태조사〉 개요 ····· 53
2. 〈2020 가족실태조사〉 조사내용 ····· 54
3. 소결 ····· 103

Ⅳ. 경남 가족실태조사 분석 ····· 109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 109
2. 가족실태조사 결과 분석 ····· 121
3. 소결 ····· 189

Ⅴ.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 197

1.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 197
2.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 212
3.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안) ····· 230

참고문헌 ····· 247

부록 Ⅰ. 교차분석표 ····· 251

부록 Ⅱ. 설문지 ····· 302

표 차례

〈표 Ⅰ-1〉 경남가족실태조사 추진현황 ····· 5
〈표 Ⅱ-1〉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변화 ····· 15
〈표 Ⅱ-2〉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영역별 정책과제 ····· 19
〈표 Ⅱ-3〉 전국·경남 가구 및 가구원 수 ····· 22
〈표 Ⅱ-4〉 전국·경남 연령별 1인가구 현황 ····· 24
〈표 Ⅱ-5〉 전국·경남 세대구성별 가구 ····· 26
〈표 Ⅱ-6〉 전국·경남 한부모가구 ····· 28
〈표 Ⅱ-7〉 전국·경남 혼인 및 이혼 ····· 29
〈표 Ⅱ-8〉 전국·경남 평균 혼인 및 이혼, 재혼 연령 ····· 31
〈표 Ⅱ-9〉 다문화 혼인·이혼·출생 ····· 33
〈표 Ⅱ-10〉 전국·경남 출생아 추이 ····· 34
〈표 Ⅱ-11〉 전국·경남 합계출산율 추이 ····· 35
〈표 Ⅱ-12〉 전국·경남 결혼에 대한 견해 ····· 36
〈표 Ⅱ-13〉 전국·경남 이혼에 대한 견해 ····· 38
〈표 Ⅱ-14〉 전국·경남 재혼에 대한 견해 ····· 39
〈표 Ⅱ-15〉 전국·경남 가사분담 견해 ····· 41
〈표 Ⅱ-16〉 전국·경남 가사분담 실태 ····· 42
〈표 Ⅱ-17〉 전국·경남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 43
〈표 Ⅱ-18〉 경상남도 저출산 주된 요인 ····· 44
〈표 Ⅱ-19〉 경상남도 저출산 해결방안 ····· 45
〈표 Ⅱ-20〉 전국·경남 가족관계 만족도 ····· 46
〈표 Ⅲ-1〉 〈2020 가족실태조사〉 개요 ····· 54
〈표 Ⅲ-2〉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 ····· 55
〈표 Ⅲ-3〉 가족의 정의 ····· 56
〈표 Ⅲ-4〉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 57
〈표 Ⅲ-5〉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 58
〈표 Ⅲ-6〉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 ····· 59

〈표 Ⅲ-7〉 성역할 태도 ····· 60
〈표 Ⅲ-8〉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 ····· 61
〈표 Ⅲ-9〉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 62
〈표 Ⅲ-10〉 평소 가족에 대한 생각 ····· 63
〈표 Ⅲ-11〉 혼인신고 여부 및 혼인신고 계획 ····· 64
〈표 Ⅲ-12〉 동거 사유 ····· 64
〈표 Ⅲ-13〉 동거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운 경험 ····· 65
〈표 Ⅲ-14〉 배우자와의 관계 ····· 66
〈표 Ⅲ-15〉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 67
〈표 Ⅲ-16〉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 68
〈표 Ⅲ-17〉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 68
〈표 Ⅲ-18〉 부부의 가사수행 ····· 69
〈표 Ⅲ-19〉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 ····· 70
〈표 Ⅲ-20〉 배우자와의 자녀돌봄 분담 만족도 ····· 71
〈표 Ⅲ-21〉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 유무 ····· 71
〈표 Ⅲ-22〉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 ····· 72
〈표 Ⅲ-23〉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 고민 여부 ····· 72
〈표 Ⅲ-24〉 배우자와의 문제 발생 시 취하는 행동 ····· 73
〈표 Ⅲ-25〉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 73
〈표 Ⅲ-26〉 청소년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 74
〈표 Ⅲ-27〉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 75
〈표 Ⅲ-28〉 의사결정 시 청소년 자녀 의사 존중 ····· 76
〈표 Ⅲ-29〉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77
〈표 Ⅲ-30〉 청소년 자녀의 아버지와의 관계 ····· 77
〈표 Ⅲ-31〉 청소년 자녀의 어머니와의 관계 ····· 78
〈표 Ⅲ-32〉 의사결정 시 아버지의 나의 의사 존중 ····· 79
〈표 Ⅲ-33〉 의사결정 시 어머니의 나의 의사 존중 ····· 80
〈표 Ⅲ-34〉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81

〈표 Ⅲ-35〉 성인 자녀와의 상호 도움 ····· 82
〈표 Ⅲ-36〉 성인 자녀와의 관계 ····· 83
〈표 Ⅲ-37〉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연락 빈도 ····· 84
〈표 Ⅲ-38〉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85
〈표 Ⅲ-39〉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빈도 ····· 85
〈표 Ⅲ-40〉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 86
〈표 Ⅲ-41〉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 87
〈표 Ⅲ-42〉 성인 자녀와 나의 부모님의 상호 도움 ····· 88
〈표 Ⅲ-43〉 성인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의 상호 도움 ····· 89
〈표 Ⅲ-44〉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 ····· 90
〈표 Ⅲ-45〉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91
〈표 Ⅲ-46〉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92
〈표 Ⅲ-47〉 가사노동 참여 여부 ····· 93
〈표 Ⅲ-48〉 가족 여가활동 ····· 93
〈표 Ⅲ-49〉 최근 6개월 가족 여가시간 ····· 94
〈표 Ⅲ-50〉 가족 여가시간 충분 여부 ····· 94
〈표 Ⅲ-51〉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 95
〈표 Ⅲ-52〉 생애 설계 준비 정도 ····· 95
〈표 Ⅲ-53〉 노후에 지낼 곳 및 같이 지낼 사람 ····· 96
〈표 Ⅲ-54〉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및 내용 ····· 96
〈표 Ⅲ-55〉 영유아 주 돌봄자 ····· 97
〈표 Ⅲ-56〉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주로 시간 보내는 곳 ····· 98
〈표 Ⅲ-57〉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 98
〈표 Ⅲ-58〉 가족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 99
〈표 Ⅲ-59〉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내용 ····· 100
〈표 Ⅲ-60〉 일·가정 조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 ····· 101
〈표 Ⅲ-61〉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족형태에 대한 의견 ····· 102
〈표 Ⅲ-6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추진 동의 여부 ····· 102

〈표 Ⅳ-1〉 2021년 가족실태조사 영역 및 내용 ····· 111
〈표 Ⅳ-2〉 응답자 지역별 성별 분포 ····· 113
〈표 Ⅳ-3〉 응답자 인적 사항 ····· 114
〈표 Ⅳ-4〉 가구원 수 ····· 115
〈표 Ⅳ-5〉 응답자 가족 유형 ····· 116
〈표 Ⅳ-6〉 세대에 따른 가족 유형표 ····· 117
〈표 Ⅳ-7〉 가족형태 ····· 117
〈표 Ⅳ-8〉 가구소득의 구성 ····· 118
〈표 Ⅳ-9〉 가구소득 ····· 119
〈표 Ⅳ-10〉 가구지출 ····· 120
〈표 Ⅳ-11〉 주관적 계층 인식 ····· 120
〈표 Ⅳ-12〉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 ····· 122
〈표 Ⅳ-13〉 가족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견해 ····· 124
〈표 Ⅳ-14〉 이성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 ····· 127
〈표 Ⅳ-15〉 가족 내 성평등 정도 ····· 130
〈표 Ⅳ-16〉 가족 내 성차별 유형 ····· 131
〈표 Ⅱ-17〉 응답자 특성별 가족 내 성차별 유형_현재 가족 ····· 132
〈표 Ⅱ-18〉 응답자 특성별 가족 내 성차별 유형_원가족 ····· 133
〈표 Ⅳ-19〉 소통이 잘 되는 가족 구성원 ····· 135
〈표 Ⅳ-20〉 성별·연령별 소통 잘 되는 가족 구성원 ····· 135
〈표 Ⅳ-21〉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족 구성원 ····· 136
〈표 Ⅳ-22〉 성별·연령별 소통 잘 안 되는 가족 구성원 ····· 137
〈표 Ⅳ-23〉 가족 간 의사소통 만족도 ····· 138
〈표 Ⅳ-24〉 가족 간 의사소통 중요도 ····· 141
〈표 Ⅳ-25〉 가족 간 의사소통 장애 요인 ····· 142
〈표 Ⅳ-26〉 연령별 가족 간 의사소통 장애 요인 ····· 142
〈표 Ⅳ-27〉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 ····· 143
〈표 Ⅳ-28〉 가족 간 갈등 있음 ····· 145

〈표 Ⅳ-29〉 가족 간 갈등 원인 ····· 146
〈표 Ⅳ-30〉 가족 간 갈등 대처방식 ····· 147
〈표 Ⅳ-31〉 가족 간 갈등 이후 관계 변화 ····· 147
〈표 Ⅳ-32〉 일·생활 균형 정도 ····· 148
〈표 Ⅳ-33〉 일·생활 균형 항목별 동의 정도 ····· 150
〈표 Ⅳ-34〉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 ····· 152
〈표 Ⅳ-35〉 성별·연령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 ····· 153
〈표 Ⅳ-36〉 돌봄 주체 ····· 154
〈표 Ⅳ-37〉 돌봄 비용 부담 ····· 155
〈표 Ⅳ-38〉 부모 부양 책임자 ····· 156
〈표 Ⅳ-39〉 성별·연령별 부모 부양 책임자 ····· 157
〈표 Ⅳ-40〉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 158
〈표 Ⅳ-41〉 현재 거주지 거주기간 ····· 160
〈표 Ⅳ-42〉 현재 거주지 이주시기 ····· 161
〈표 Ⅳ-43〉 향후 5년 내 이주 계획 유무 ····· 162
〈표 Ⅳ-44〉 이주하려는 이유 ····· 163
〈표 Ⅳ-45〉 이주 시 희망 거주지 ····· 164
〈표 Ⅳ-46〉 현재 거주지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 ····· 164
〈표 Ⅳ-47〉 이웃과 왕래 유무 ····· 165
〈표 Ⅳ-48〉 이웃과 교류 유형 ····· 167
〈표 Ⅳ-49〉 마을(동네) 공동체로부터 필요한 지원 ····· 168
〈표 Ⅳ-50〉 성별·연령별 필요로 하는 마을(동네) 공동체 지원 ····· 169
〈표 Ⅳ-51〉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170
〈표 Ⅳ-52〉 성별·연령별 이웃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170
〈표 Ⅳ-53〉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 171
〈표 Ⅳ-54〉 가족 유형별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 172
〈표 Ⅳ-55〉 경상남도 가족정책·기관 인지도 및 이용률 ····· 173
〈표 Ⅳ-56〉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 ····· 174

〈표 Ⅳ-57〉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관계에서 힘들었던 점 ····· 178
〈표 Ⅳ-58〉 성별·연령별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에서 힘들었던 점 ····· 179
〈표 Ⅳ-59〉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와의 관계 ····· 180
〈표 Ⅳ-60〉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와 관계 좋아진 이유 ····· 181
〈표 Ⅳ-61〉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와 관계 나빠진 이유 ····· 182
〈표 Ⅳ-62〉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녀와 관계 변화 ····· 183
〈표 Ⅳ-63〉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녀와 관계 좋아진 이유 ····· 184
〈표 Ⅳ-64〉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녀와 관계 나빠진 이유 ····· 184
〈표 Ⅳ-65〉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제도 이용 경험 ····· 186
〈표 Ⅳ-66〉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 187
〈표 Ⅳ-67〉 성별·연령별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 188
〈표 Ⅴ-1〉 경남 가족현황 진단 시사점 및 정책 방향 ····· 198
〈표 Ⅴ-2〉 〈2020 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경남 가족의 특성 진단과 정책 방향 ·· 200
〈표 Ⅴ-3〉 가족 가치관 관련 정책 방향 ····· 202
〈표 Ⅴ-4〉 가족 관계와 가족 생활 관련 정책방향 ····· 204
〈표 Ⅴ-5〉 일과 돌봄 관련 정책 방향 ····· 206
〈표 Ⅴ-6〉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관련 정책 방향 ····· 208
〈표 Ⅴ-7〉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관련 정책 방향 ····· 210
〈표 Ⅴ-8〉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표 ····· 231
〈표 Ⅴ-9〉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안) ····· 234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추진절차 ····· 9
[그림 Ⅱ-1]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의 개념 ····· 14
[그림 Ⅱ-2]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체계도 ····· 18
[그림 Ⅱ-3] 〈2021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계획〉 개념도 ····· 20
[그림 Ⅱ-4] 〈2021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추진방향 ····· 21
[그림 Ⅱ-5] 전국·경남 가구 및 가구원 수 ····· 23
[그림 Ⅱ-6] 전국·경남 연령별 1인가구 현황 ····· 25
[그림 Ⅱ-7] 전국·경남 세대구성별 가구 ····· 27
[그림 Ⅱ-8] 전국·경남 한부모가구 ····· 28
[그림 Ⅱ-9] 전국·경남 혼인 및 이혼 ····· 30
[그림 Ⅱ-10] 전국·경남 평균 혼인연령 ····· 32
[그림 Ⅱ-11] 전국·경남 다문화 혼인 ····· 33
[그림 Ⅱ-12] 전국·경남 출생아 추이 ····· 34
[그림 Ⅱ-13] 전국·경남 합계출산율 추이 ····· 35
[그림 Ⅱ-14] 전국·경남 결혼에 대한 견해 ····· 37
[그림 Ⅱ-15] 전국·경남 이혼에 대한 견해 ····· 38
[그림 Ⅱ-16] 전국·경남 가사분담 견해 ····· 41
[그림 Ⅱ-17] 전국·경남 가사분담 실태 ····· 42
[그림 Ⅱ-18] 전국·경남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 43
[그림 Ⅱ-19] 경상남도 저출산 주된 요인 ····· 44
[그림 Ⅱ-20] 경상남도 저출산 해결방안 ····· 45
[그림 Ⅱ-21] 전국·경남 가족관계 만족도 ····· 47
[그림 Ⅲ-1] 가족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 53
[그림 Ⅲ-2] 가족의 정의에 대한 동의 정도 ····· 56
[그림 Ⅲ-3]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동의 정도(1) ····· 58
[그림 Ⅲ-4]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동의 정도(2) ····· 59
[그림 Ⅲ-5]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동의 정도 ····· 60
[그림 Ⅲ-6] 성역할 태도에 대한 동의 정도 ····· 61

[그림 Ⅲ-7]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 ····· 62
[그림 Ⅲ-8]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 63
[그림 Ⅲ-9] 배우자와의 관계 동의 정도 ····· 67
[그림 Ⅲ-10]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 67
[그림 Ⅲ-11]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동의 정도 ····· 75
[그림 Ⅲ-12] 의사결정 시 청소년 자녀 의사 존중 동의 정도 ····· 76
[그림 Ⅲ-13] 청소년 자녀의 아버지와의 관계 동의 정도 ····· 78
[그림 Ⅲ-14] 청소년 자녀의 어머니와의 관계 동의 정도 ····· 79
[그림 Ⅲ-15] 의사결정 시 아버지의 나의 의사 존중 동의 정도 ····· 80
[그림 Ⅲ-16] 의사결정 시 어머니의 나의 의사 존중 동의 정도 ····· 81
[그림 Ⅲ-17] 청소년 자녀-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 ····· 81
[그림 Ⅲ-18] 성인 자녀와의 상호 도움 ····· 83
[그림 Ⅲ-19] 성인 자녀와의 관계 동의 정도 ····· 84
[그림 Ⅲ-20]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동의 정도 ····· 86
[그림 Ⅲ-21]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동의 정도 ····· 87
[그림 Ⅲ-22] 성인 자녀와 나의 부모님과의 상호 도움 정도 ····· 89
[그림 Ⅲ-23] 성인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과 상호 도움 정도 ····· 90
[그림 Ⅲ-24]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91
[그림 Ⅲ-25]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92
[그림 Ⅲ-26] 가족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 99
[그림 Ⅲ-27]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추진 동의 정도 ····· 103
[그림 Ⅳ-1] 설문지 문항 구조 비교 ····· 110
[그림 Ⅳ-2] 실사설계 모형도 ····· 112
[그림 Ⅳ-3] 가구원 수 ····· 115
[그림 Ⅳ-4] 가족 유형 ····· 116
[그림 Ⅳ-5] 가구소득 성별 비교 ····· 118
[그림 Ⅳ-6] 가구지출 성별 비교 ····· 120
[그림 Ⅳ-7] 주관적 계층 인식 ····· 121

[그림 Ⅳ-8]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 ····· 123
[그림 Ⅳ-9] 가족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견해 ····· 125
[그림 Ⅳ-10] 이성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 ····· 127
[그림 Ⅳ-11] 가족 내 성평등 정도 ····· 130
[그림 Ⅳ-12] 가족 내 성차별 유형 ····· 134
[그림 Ⅳ-13] 가족 간 의사소통 만족도 ····· 138
[그림 Ⅳ-14] 가족 간 의사소통 중요도 ····· 141
[그림 Ⅳ-15]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 ····· 144
[그림 Ⅳ-16] 가족 간 의사소통 중요도 ····· 149
[그림 Ⅳ-17] 일·생활 균형 항목별 동의 정도 ····· 151
[그림 Ⅳ-18] 돌봄 주체 ····· 154
[그림 Ⅳ-19] 돌봄 비용 부담 ····· 155
[그림 Ⅳ-20]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 158
[그림 Ⅳ-21] 현재 거주지 거주기간 ····· 160
[그림 Ⅳ-22] 향후 5년 내 이주 계획 유무 ····· 162
[그림 Ⅳ-23] 향후 5년 내 이주하려는 이유 ····· 163
[그림 Ⅳ-24] 현재 거주지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 ····· 165
[그림 Ⅳ-25] 이웃과 왕래 유무 ····· 166
[그림 Ⅳ-26] 이웃과 교류 유형 ····· 167
[그림 Ⅳ-27]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 ····· 176
[그림 Ⅳ-28]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관계에서 힘들었던 점 ····· 179
[그림 Ⅳ-29]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와의 관계 ····· 180
[그림 Ⅳ-30]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와 관계 좋아진 이유 ····· 181
[그림 Ⅳ-31]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와 관계 나빠진 이유 ····· 182
[그림 Ⅳ-32]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녀와의 관계 ····· 183
[그림 Ⅳ-33]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녀와 관계 좋아진 이유 ····· 184
[그림 Ⅳ-34]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녀와 관계 나빠진 이유 ····· 185
[그림 Ⅳ-35]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제도 이용 경험 ····· 186

[그림 Ⅳ-36]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 187
[그림 Ⅴ-1] 경남 평등 가족문화 정책과제 도출 개념도 ····· 211
[그림 Ⅴ-2]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 정책 체계도 ····· 213
[그림 Ⅴ-3]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 230
[그림 Ⅴ-4] 부산광역시 시민행복지표 지표체계 ····· 232
[그림 Ⅴ-5] 부산광역시 시민행복지표 “가족” 분야 예시 ····· 232
[그림 Ⅴ-6]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안) ····· 233
[그림 Ⅴ-7]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분야 지표(1) ····· 236
[그림 Ⅴ-8]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분야 지표(2) ····· 237
[그림 Ⅴ-9]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분야 지표(1) ····· 239
[그림 Ⅴ-10]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분야 지표(2) ····· 240
[그림 Ⅴ-11] ‘함께 돌보는 가족’ 분야 지표(1) ····· 242
[그림 Ⅴ-12] ‘함께 돌보는 가족’ 분야 지표(2) ····· 243
[그림 Ⅴ-13]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분야 지표(1) ····· 244
[그림 Ⅴ-14]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분야 지표(2) ····· 245

I

서 론

GNWFF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1인가구 증가, 가족 규모의 축소, 다양한 가족의 등장 등 현재 가족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1인가구 규모는 2015년 27.6%에서 2020년 30.9%로 증가한 반면, 경남 가족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15년 2.5명에서 2020년 2.3명으로 감소함
-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2015년 전체의 47.5%에서 2020년 43.7%로 감소한 반면, 주로 부부로만 구성된 1세대 가구 비율은 2015년 18.6%에서 2020년 20.4%로 증가함

❍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에 따라 가족 가치관과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음

- 결혼과 자녀 출산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하거나,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확장되어 비혼 출산이나 비혼 동거, 이혼과 재혼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여성가족부, 2021c: 3)
- 또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가사노동과 돌봄을 남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로 가사노동과 돌봄을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인식과 실천의 괴리로 인한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근 가족정책의 방향도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함

- 2021년 발표된 정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정책의 비전을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로 제시하고 “가족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를 주요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지향함

-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중 특히 가족문화 관련 세부 정책과제로는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됨

- 먼저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이라는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영역의 정책과제로는 “남녀 모두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제시하고 있음

❍ 가족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성평등 가족문화 또는 가족 내 성차별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음(임현정 외, 2018; 강은애 외, 2019; 김정란 외, 2020)

- 평등한 가족문화를 ‘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경우 성별 차이에 따른 가족 내 역할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가족 내 갈등이 성별뿐만 아니라 세대 간,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가족문화를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평등 가족문화”로 사용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평등 가족문화”라는 개념을 “가족 구성원 간 성별·연령별 차이로 인한 가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가족문화, 또한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족 형태를 서로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가족문화”라고 폭넓게 정의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통계자료,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남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 가족의 형태 변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등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형 지표인 “(가칭)경남형 평등가족지표”를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각종 통계자료와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경남 가족형태의 변화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는 것임

❍ 두 번째 목적은 가족형태와 가족인식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으로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앞으로도 평등 가족문화 조성 정도를 계속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가칭)경남 평등가족지표”를 제시하는 것임

❍ 먼저 본 연구는 경남 가족의 전반적 생활실태와 가족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 관련 통계자료와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를 분석하고, 경남 가족실태조사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함

-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05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제4차 조사가 시행되었는데,[1] 경남 가족실태조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거쳐 조사가 이루어짐

〈표 Ⅰ-1〉 경남가족실태조사 추진현황

구분	2013	2017	2021
발행기관 (연구 수행기관)	경상남도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 (한국재정분석연구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내용	◦ 가족 일반사항 ◦ 가구의 경제상태 ◦ 가족인식 및 가치관 ◦ 가족형성 ◦ 가족관계 및 가족문제 ◦ 일과 돌봄 ◦ 가족설계 및 생활양식 ◦ 서비스 욕구	◦ 가족 일반사항 ◦ 가구의 경제상태 ◦ 가족인식 및 가치관 ◦ 가족형성 ◦ 가족관계 및 가족문제 ◦ 일과 돌봄 ◦ 가족설계 및 생활양식 ◦ 가족건강 ◦ 가족정책	◦ 가구의 일반적 특성 ◦ 가족 가치관 ◦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 일과 돌봄 ◦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이후 가족실태조사 시행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2020 가족실태조사〉 설문 내용과 겹치지 않게 경남 가족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기존 경남 가족실태조사 문항 중에서 가족 가치관 및 가족문화에 관한 문항을 보강하고, 또한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 전반적인 경남 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함

- 이 외에도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사회조사 등 기존 가족에 관한 통계자료와 여성가족부의 〈2020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전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경남 가족의 특수성과 차이점을 부각하고자 함

○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경남가족실태에 대한 진단을 통해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와 이를 지속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칭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통적 가족문화에 내재된 성차별, 여성에게 부여되는 가사노동과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갈등,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 부재, 성별·연령·세대에 따른 가족 가치관 차이 등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문화를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

- 또한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서부터 민주적이고 평등한 문화가 조성되고, 가족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훈련되지 않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가족 안에서부터 민주적이고 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 관련 통계지표들로 구성된 "(가칭)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경남 가족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가족정책의 변화 방향 분석
- 경남 가족 현황 분석
  · 가족형태 및 구조, 가족 형성 및 해체, 출생 현황 등(인구총조사, 인구 동

향조사 등 통계자료 분석)

· 경남도민의 가족 가치관 분석(사회조사 등 통계자료 분석)

❍ 전국과의 비교를 통한 경남 가족문화 특수성 분석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0 가족실태조사〉 내용을 전국과 경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남 가족문화의 특수성을 분석함
- 특히 가족 가치관, 가족 인식 등 가족문화에 초점을 맞춰 경남 가족문화의 특수성을 밝히고 시사점을 도출함

❍ 경남 가족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2020 가족실태조사〉의 문항과는 구분되는 문항으로, 특히 가족 가치관 및 가족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를 반영한 문항을 추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

❍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방안 및 경남형 지표 제시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 관련 통계지표들로 구성된 “(가칭)경남 평등 가족문화 지표”를 제시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가족 관련 선행연구, 정책자료, 통계자료 등 분석

❍ 설문조사 : 경상남도 가족실태조사 실시

- 조사인원 : 20~79세 1,500명(성별·연령별·지역별·가족유형별 할당)
- 조사기간 : 2021.5.20.~6.11.
- 조사방법 : 전문 조사업체 의뢰, 성별·연령별·지역별·가족유형별 할당에 맞춰 조사대상자 선정 후 1:1 대면조사 실시)
- 조사항목 : 가구 일반적 특성, 가족 가치관,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일과 돌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등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각종 보고회의

① 착수보고

- 일시 : 2021.2.24.(수)
- 참석자 : 총 11명(전문가 1명, 공무원 4명, 연구진 6명)
- 주요 논의내용 : 연구보고서 제목 변경(성평등 가족문화→평등 가족문화), 연구 범위 관련 논의

②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 : 2021.5.3.(월)
- 참석자 : 총 8명(전문가 4명, 공무원 2명, 연구진 2명)
- 주요 논의내용 : 가족실태조사 설문 문항 검토

③ 2차 전문가 자문회의(중간보고)

- 일시 : 2021.10.8.(금)
- 참석자 : 총 15명(전문가 6명, 공무원 4명, 연구진 5명)
- 주요 논의내용 : 가족실태조사 결과 초안 검토, 정책과제 관련 논의

④ 최종보고

- 일시 : 2021.12.16.(목)
- 참석자 : 총 9명(공무원 5명, 연구진 4명)
- 주요 논의내용 : 최종연구보고서 검토

⑤ 공동연구진 간담회

- 일시 : 수시 개최
- 주요 논의내용 : 연구 진행상황 공유, 연구보고서 수정사항 검토

3) 연구 추진절차

❍ 본 연구의 추진절차는 [그림 Ⅰ-1]과 같음

연구계획 수립
(2021.01)
착수보고회
(2021.02)
문헌연구
1차 전문가자문회의
(2021.05)
경남 가족 현황 분석
경남가족실태조사 실시
(2021.06~09)
2차 전문가자문회의
(2021.10)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비교 분석
(2021.10)
평등 가족문화 조성방안/경남형 평등가족지표 제안
(2021.11)
최종보고회
(2021.12)
최종 보고서 제출
(2021.12)

[그림 Ⅰ-1] 연구 추진절차

II

가족정책의 변화와 경남 가족 현황

GNWFF

Ⅱ. 가족정책 변화와 경남 가족 현황

1. 가족정책의 변화 방향

1) 가족정책의 법적 근거[2)]

❍ 한국 가족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가족정책이라는 체계적인 틀 없이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주된 정책의 방향이었음

- 1950, 60년대는 가족정책이 부녀복지 차원에서 전쟁 직후 과부·고아 등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가, 1970년대는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 1980년대는 가족법 개정과 출산 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인구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 가족복지라는 체계적인 틀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장혜경 외, 2002: 219)

❍ 가족정책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 2004년에서야 비로소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2004.2.9. 제정, 2005.1.1. 시행), 「건강가정기본법」의 주된 목적은 가족 전체의 복지향상이 아니라 “가정의 위기”, 또는 “가족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었음

-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강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개인, 지역사회, 국가가 상호지원하고 선도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건전한 가정 생활문화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17-18)
-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 제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법제처의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유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2) 이 부분은 이정희 외(2021:107-111)의 내용을 요약함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2018년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1인가구를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문항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구성 요건을 혼인·혈연·입양으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건강가정기본법(2005.1.1.)	건강가정기본법(2020.5.1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018.1.16. 개정)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림 Ⅱ-1]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의 개념

2)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가족정책 변화과정

(1)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나타난 가족정책 변화

❍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의해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수립하고 있음

- 1차 계획부터 4차 계획까지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전, 정책목표, 정책과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표 Ⅱ-1〉과 같음
- 1차부터 3차 계획까지는 “행복한 사회”,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등 “행복”과 “건강” 등의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다면, 3차 보완계획부터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모든 가족을 존중하는 사회”와 같이 기본적인 용어가 바뀌었음
- 특히 1차, 2차, 3차 계획까지만 해도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과제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양한 소외가족” 또는 “취약가정”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었다면, 3차 보완계획 이후에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및 사회적 편견 개선”, “포용적 가족관”, “가족 다양성” 등과 같이 개념이 보다 보편·포괄적으로 확대되었음

〈표 Ⅱ-1〉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변화

구분	비전	정책목표	정책과제
제1차 (2006-2010)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 실현 ◦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	1. 가족돌봄의 사회화 2. 직장·가정의 양립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6.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제2차 (2011-2015)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1. 가족가치의 확산 2. 자녀 돌봄지원 강화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5.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제3차 (2016-2020)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	1.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2.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3.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4. 남성,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5.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6.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구분	비전	정책목표	정책과제
제3차 (보완) (2018-2020)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1.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2. 함께 돌봄 체계 구축 3.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4. 가족의 일삶삶의 균형 5. 가족정책 기반 조성
제4차 (2021-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 가족 다양성 인정 ◦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2)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정책

❍ 현재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으로, 여기에서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진단한 가족의 변화를 바탕으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함[3)]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진단한 가족의 변화

❍ 가족 형태의 변화

- 1인가구는 급격히 증가(2010년 23.9%, 2019년 30.2%)한 반면,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감소(2010년 37.0%, 2019년 29.8%)
- 이에 따라 주된 가구 유형도 2005년 4인 가족(27.0%)에서, 2010년 2인 가족(24.6%), 2015년과 2019년에는 1인가구(각각 27.2%, 30.2%)로 변화

❍ 가족을 둘러싼 인식의 변화

- 집단으로서의 가족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의 개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함. '결혼에서 가족관계보다 당사자가 우선'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9.4%로 증가하였고, 특히 20대에서는 56.8%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3)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4월 27일 발표한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가운데, 특히 20·30세대는 '일'과 '개인생활'을 다른 세대에 비해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기(20·30)의 경우 생애과업 비중 1순위로 '일(여 36.2%, 남 35.9%)', 2순위는 '개인생활(여 29.5%, 남 26.6%)'을 꼽았고, '자녀(여 12.6%, 남 14.1%)'은 가장 낮은 비중으로 선택함

❍ 가족 내 성역할 인식을 둘러싼 갈등

- 가족 내 성역할 인식은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선된 반면, 실제 가족 내 가사·돌봄 분담의 불평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부분이 남녀 갈등의 지속적 요인이 되고 있음

❍ 돌봄 부담 가중

- 가족의 돌봄·부양 기능은 예전보다 약화되었지만,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가족에게 주어지는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은 더욱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휴원기간 때 돌봄 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6.2%, 특히 맞벌이 가족 49.4%, 외벌이 가족 21.2%라고 응답해 특히 맞벌이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시간 근로가 당연시되는 조직문화,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족(주로 여성)의 돌봄 부담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하여 비용 지원을 받은 비율은 여성 62%, 남성 38%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주로 여성이 돌봄휴가 등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정책 체계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 원리에 바탕을 둔 가족정책을 제시함

- 먼저 다양성의 관점에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두 번째 보편성의 관점에서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였고, 세 번째 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한 정책 기조를 강화함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기본 모토는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로 정책의 비전은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이며 정책목표는 '가족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임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 체계도는 [그림 Ⅱ-2]와 같음

비전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목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영역별 과제	**영역 (4개)**	**정책과제 (11개)**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1.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권 보호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1.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3.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질적 강화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1.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2.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그림 Ⅱ-2]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체계도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지향함

- “모든 가족 존중”은 가족 간 평등의 개념이며, “모든 가족 구성원 존중”은 가족 내 구성원에 대한 평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특히 “모든 가족 구성원 존중”과 관련한 정책은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개념임

- 정책과제 중 특히 가족문화와 관련한 과제로는 “1-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과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이 해당함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4개 영역별 정책과제와 세부과제는 〈표 Ⅱ-2〉와 같음

〈표 Ⅱ-2〉〈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영역별 정책과제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1.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1-1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1.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2. 다양한 가족 구성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1-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1.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2.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1-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권 보호	1. 가족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정비 2.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발견 및 대응 강화 3.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 강화
2.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2-1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1. 가족변화를 반영한 생계비 등 급여 확대 2. 아동양육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3. 가족수요에 맞는 주거 지원
	2-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1.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강화 2.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 3. 다문화가족 자녀의 동등한 출발점 보장 4.위기·취약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
	2-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1. 통합적 가족서비스 기반 조성 2.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 3. 지역사회 기반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
3.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3-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1. 지역사회 자녀돌봄 지원 확대 2. 지역공동체 기반 일상 돌봄 지원
	3-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1.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 2. 재난·재해 시 돌봄공백 대응
	3-3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질적 강화	1. 가족 돌봄의 공공성 강화 2.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4.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4-1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1. 일하는 사람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2.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
	4-2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 성평등 돌봄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홍보 2. 가족·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정비

3) 경상남도의 〈2021년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계획〉

❍ 경상남도에서는 가족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계획〉(2021.2.15.)을 수립·발표함

- 〈2021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계획〉이 계획에서는 현재의 가족관계 현황 및 실태 분석, 정책추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가족관계 현황에 대해서는 가족 내 불평등 상존, 가족갈등 증가, 육아·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부담, 부모의 아동학대 지속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한 가족문화에 대한 중요성 증대 등으로 진단함
- 또한 가족정책 추진 현황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치중, 의무자 중심의 가족 교육, 가사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높은 것으로 진단함

❍ 이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족, 가사부담 경감'의 3대 목표를 설정함

-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가족문화 개선 연구, 가족교육 강화, 가사부담 경감, 건강한 가족문화 홍보 등 4영역으로 제시함. 〈2021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그림 Ⅱ-4]와 같음

가족관계 현황 및 실태	정책추진 현황 및 문제점
◦ 가족관계 만족도는 지속 상승 했으나, 가족 내 불평등 상존 ◦ 가족갈등 증가로 사전예방 및 갈등 해소 필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대하나, 육아·가사는 여성이 부담 ◦ 양육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부모의 아동학대 지속 발생 ◦ 코로나19로 건강한 가족문화에 대한 중요성 증대	◦ 도의 가족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에 치중, 가족문화 분야 취약 ◦ 「가족 교육」은 산발적으로 편성 되거나 의무자 교육 중심 ◦ 가사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매우 높음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계획 수립

출처) 경상남도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그림 Ⅱ-3] 〈2021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계획〉 개념도

출처) 경상남도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그림 Ⅱ-4] 〈2021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추진방향

2. 경남 가족 현황 분석

1) 가족형태 및 구조

❑ 가구 및 가구원 수

❍ 경상남도 전체 가구 수는 2020년 기준 1,350,155가구이며, 가구 수는 2015년 1,258,487가구, 2016년 1,273,523가구, 2017년 1,292,998가구, 2018년 1,306,394가구, 2019년 1,321,213가구로 꾸준히 증가함

- 하지만 평균 가구원 수를 확인해보면 2015년과 2016년에 2.5명, 2017년, 2018년 2019년에 2.4명, 2020년 2.3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 4인 이상 가구는 2015년 304,861가구(24.2%)에서 2020년 262,657가구(19.5%)로 약 4.7%p 감소하였고, 1인가구는 2015년 346,754가구(27.6%)에서 2020년 417,737가구(30.9%)로 3.3%p 증가함

〈표 Ⅱ-3〉 전국·경남 가구 및 가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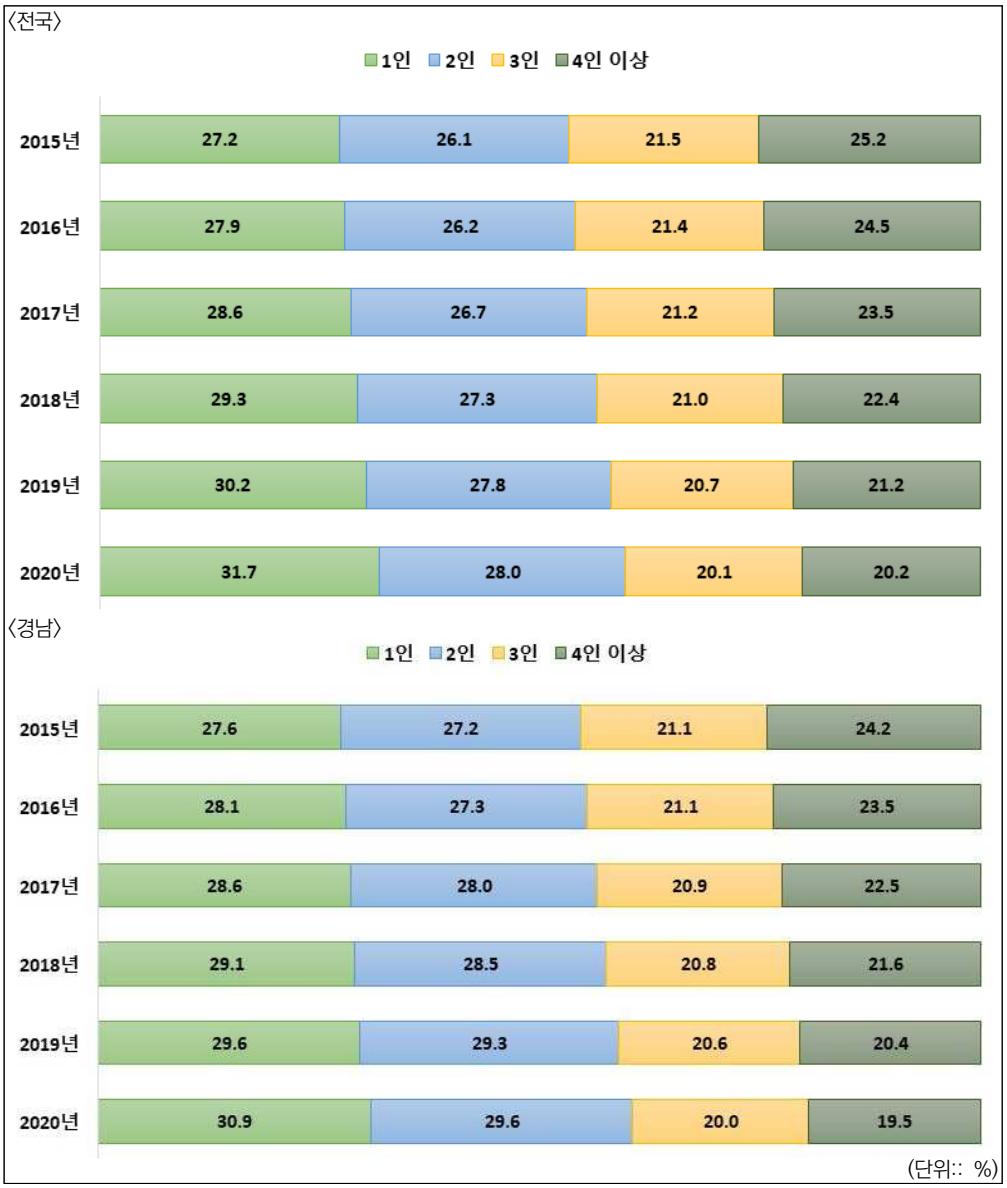
(단위: 가구, 명)

구분		전체	가구원 수				
			평균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전국	2015	19,111,030	2.5	5,203,440	4,993,818	4,100,979	4,812,793
	2016	19,367,696	2.5	5,397,615	5,067,166	4,151,701	4,751,214
	2017	19,673,875	2.5	5,618,677	5,260,332	4,178,641	4,616,225
	2018	19,979,188	2.4	5,848,594	5,445,691	4,203,792	4,481,111
	2019	20,343,188	2.4	6,147,516	5,663,330	4,217,736	4,314,606
	2020	20,926,710	2.3	6,643,354	5,864,525	4,200,629	4,218,202
경남	2015	1,258,487	2.5	346,754	341,745	265,127	304,861
	2016	1,273,523	2.5	358,430	347,870	268,117	299,106
	2017	1,292,998	2.4	370,293	361,780	270,594	290,331
	2018	1,306,394	2.4	379,719	372,556	271,707	282,412
	2019	1,321,213	2.4	391,421	387,575	272,119	270,098
	2020	1,350,155	2.3	417,737	399,700	270,061	262,657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KOSIS.

○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평균 가구원 수는 2020년 기준 2.3명으로 경남과 동일함

- 전체 가구 중 4인 이상 가구 비율은 전체의 20.2%, 1인가구는 31.7%로 4인 이상 가구 비율과 1인가구 비율 모두 경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KOSIS.

[그림 Ⅱ-5] 전국·경남 가구 및 가구원 수

○ 경남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60대 19.0%, 50대 18.0%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세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20세 미만·20대·30대) 25.7%, 중장년층(40·50대) 31.9%, 노년층(60대·70대·80세 이상) 42.3%로 노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0대(21.2%), 70대(19.9%), 80세 이상(16.1%) 순으로 높고, 세대별로는 노년층(57.2%), 중장년층(24.4%), 청년층(18.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50대(20.7%), 40대(18.9%), 30대(18.8%) 순으로 높고, 세대별로는 중장년층(39.6%), 청년층(33.3%), 노년층(27.0%)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연령 분포에서 차이를 보임

〈표 Ⅱ-4〉 전국·경남 연령별 1인가구 현황(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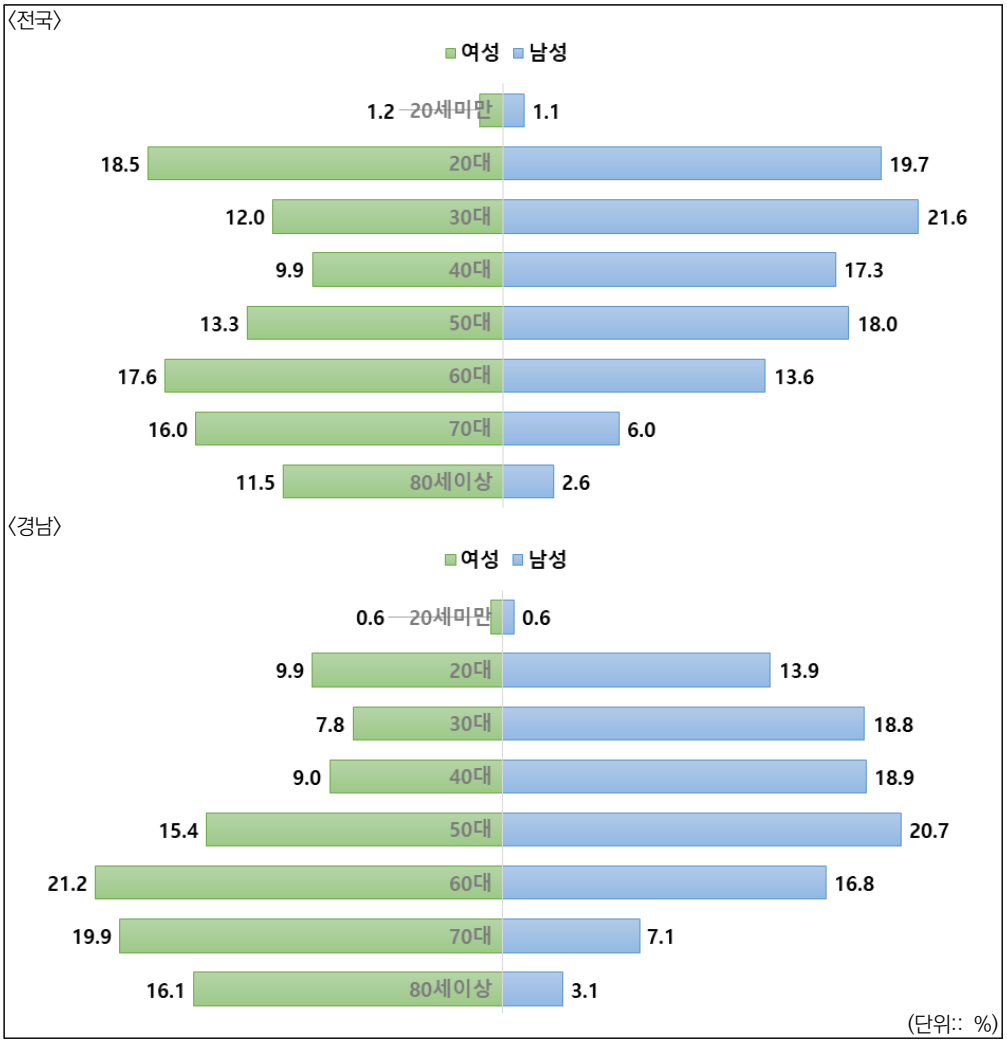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전국	전체	6,643,354	100.0	3,338,956	100.0	3,304,398	100.0
	20세 미만	76,202	1.1	40,494	1.2	35,708	1.1
	20대	1,266,911	19.1	616,760	18.5	650,151	19.7
	30대	1,115,518	16.8	400,791	12.0	714,727	21.6
	40대	903,816	13.6	331,549	9.9	572,267	17.3
	50대	1,039,495	15.6	444,798	13.3	594,697	18.0
	60대	1,038,985	15.6	587,971	17.6	451,014	13.6
	70대	732,715	11.0	533,703	16.0	199,012	6.0
	80세 이상	469,712	7.1	382,890	11.5	86,822	2.6
경남	전체	417,737	100.0	211,666	100.0	206,071	100.0
	20세 미만	2,508	0.6	1,198	0.6	1,310	0.6
	20대	49,604	11.9	20,997	9.9	28,607	13.9
	30대	55,299	13.2	16,546	7.8	38,753	18.8
	40대	58,158	13.9	19,124	9.0	39,034	18.9
	50대	75,398	18.0	32,701	15.4	42,697	20.7
	60대	79,439	19.0	44,785	21.2	34,654	16.8
	70대	56,836	13.6	42,201	19.9	14,635	7.1
	80세 이상	40,495	9.7	34,114	16.1	6,381	3.1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KOSIS.

○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전국 1인가구 중에서는 20대(18.5%), 60대(17.6%), 70대(16.0%) 순으로 나타나 경남과 비교하여 20대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37.0%, 중장년층 29.2%, 노년층 33.7%의 분포를 보여, 경남과 비교하면 청년 1인가구의 비율은 높고 노년층 1인가구 비율은 낮게 나타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KOSIS.

[그림 Ⅱ-6] 전국·경남 연령별 1인가구 현황(2020년)

❑ 세대구성별 가구

❍ 경남의 세대구성별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인가구, 1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순으로 확인됨

- 그러나 세대별 증가율을 확인해보면 2세대 가구는 2015년 597,631가구(47.5%)에서 2020년 589,812가구(43.7%)로 3.8%p 감소하고, 3세대~4세대 이상 가구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1세대 가구는 2015년 234,073가구(18.6%)에서 2020년 275,181가구(20.4%)로 증가함
- 이러한 결과는 무자녀 부부 증가, 비혼 상태의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도 2세대 가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인가구, 1세대 가구, 3세대 가구 순으로 확인됨

- 2015년과 비교하여 2020년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 가구 모두 감소하였고, 1인가구와 1세대 가구, 비친족 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5〉 전국·경남 세대구성별 가구

(단위: 가구)

구분		전체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1인가구	비친족 가구
전국	2015	19,111,030	3,324,418	9,328,293	1,029,196	11,262	5,203,440	214,421
	2016	19,367,696	3,329,335	9,361,705	998,919	10,678	5,397,615	269,444
	2017	19,673,875	3,470,070	9,320,588	946,500	9,381	5,618,677	308,659
	2018	19,979,188	3,600,264	9,288,450	893,501	8,012	5,848,594	340,367
	2019	20,343,188	3,752,000	9,209,885	839,928	6,891	6,147,516	386,968
	2020	20,926,710	3,893,435	9,201,530	759,548	5,384	6,643,354	423,459
경남	2015	1,258,487	234,073	597,631	66,830	777	346,754	12,422
	2016	1,273,523	236,045	599,470	64,668	685	358,430	14,225
	2017	1,292,998	247,593	598,988	59,947	584	370,293	15,593
	2018	1,306,394	255,651	597,536	56,505	505	379,719	16,478
	2019	1,321,213	266,094	590,972	52,583	423	391,421	19,720
	2020	1,350,155	275,181	589,812	46,119	304	417,737	21,002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KOSIS.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KOSIS.

[그림 Ⅱ-7] 전국·경남 세대구성별 가구

□ 한부모 가구 및 조손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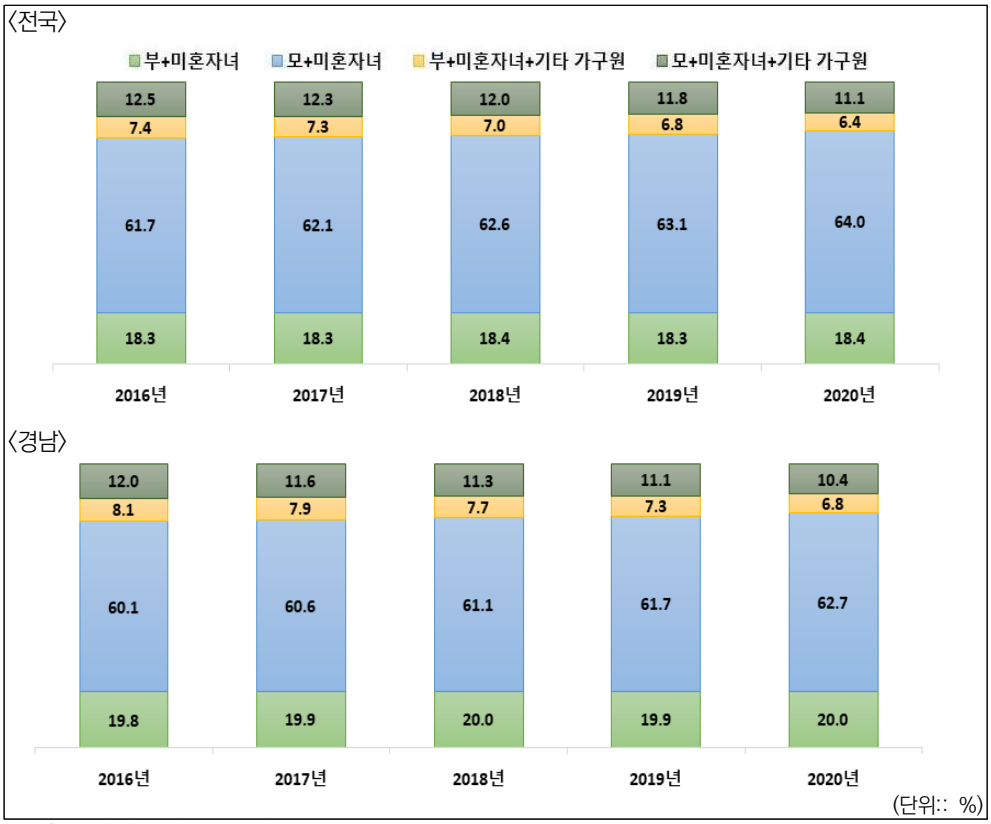
○ 한부모 가구를 살펴보면, 2016년 한부모 가구는 92,600가구에서 2020년 93,370가구로 다소 증가함

〈표 Ⅱ-6〉 전국·경남 한부모가구

(단위: 가구)

구분		전체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부+미혼자녀 +기타 가구원	모+미혼자녀 +기타 가구원
전국	2016	1,539,868	281,680	950,867	114,092	193,229
	2017	1,533,166	281,227	952,059	111,225	188,655
	2018	1,539,362	283,293	962,894	108,141	185,034
	2019	1,529,151	280,282	965,097	103,988	179,784
	2020	1,532,751	282,111	981,199	98,620	170,821
경남	2016	92,600	18,304	55,673	7,509	11,114
	2017	92,308	18,402	55,931	7,252	10,723
	2018	93,535	18,664	57,151	7,164	10,556
	2019	92,948	18,534	57,312	6,802	10,300
	2020	93,370	18,678	58,584	6,390	9,718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KOSIS.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KOSIS.

[그림 Ⅱ-8] 전국·경남 한부모가구

- 2020년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 가운데 모자가구가 6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자가구 20.0%, 모자가구와 기타 가구원이 같이 사는 가구 10.4%, 부자가구와 기타 가구원이 같이 사는 가구 6.8% 순으로 나타남
- 경남 모자가구 비율은 2016년 60.1%에서 62.7%로 2.6%p증가하였고, 부자가구 비율은 19.8%에서 20.0%로 0.2%p 증가함

❍ 한부모가구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모자가구 64.0%, 부자가구 18.4%, 모자가구와 기타 가구원이 같이 사는 가구 11.1%, 부자가구와 기타 가구원이 같이 사는 가구 6.4% 순으로 나타남
- 모자가구 비율은 2016년 61.7%에서 64.0%로 2.3%p 증가하고, 부자가구 비율은 18.3%에서 18.4%로 0.1%p 증가함

2) 가족 형성 및 해체

□ 혼인 및 이혼

❍ 경상남도 혼인건수는 2015년 18,671건에서 2020년 11,90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혼건수는 2015년 7,368건에서 2020년 7,368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면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표 Ⅱ-7〉 전국·경남 혼인 및 이혼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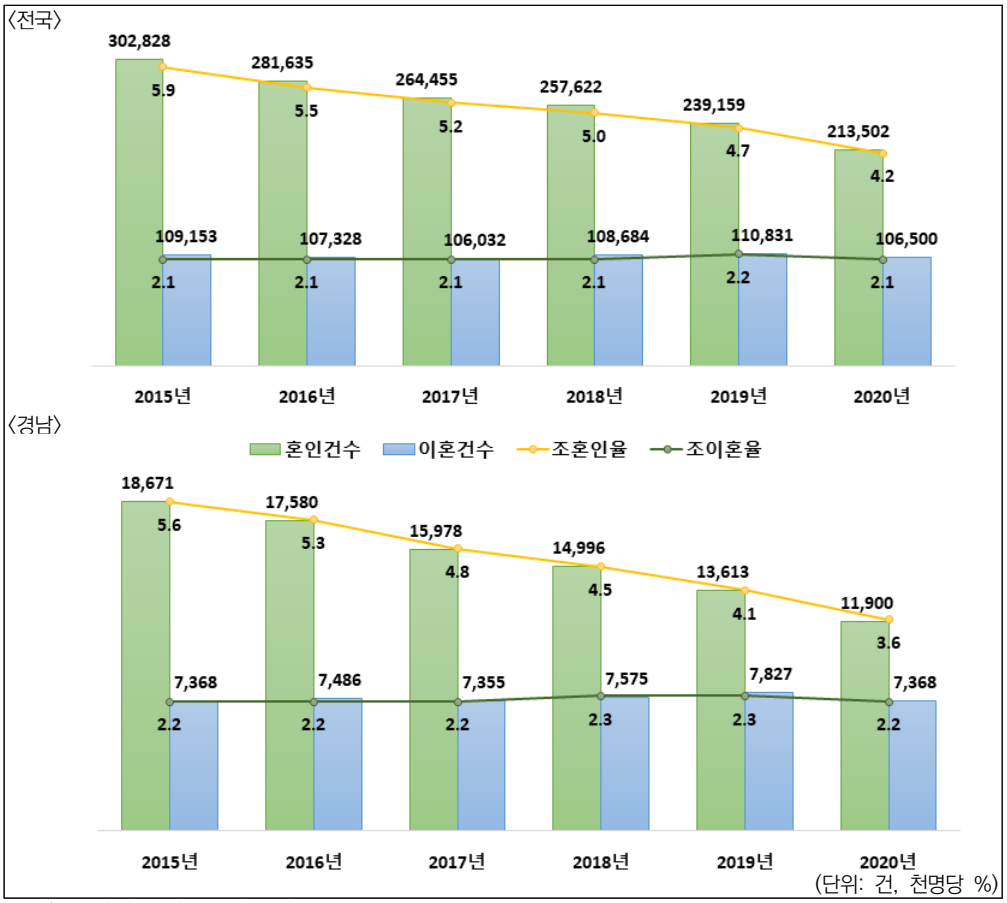
구분		혼인건수	조혼인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전국	2015	302,828	5.9	109,153	2.1
	2016	281,635	5.5	107,328	2.1
	2017	264,455	5.2	106,032	2.1
	2018	257,622	5.0	108,684	2.1
	2019	239,159	4.7	110,831	2.2
	2020	213,502	4.2	106,500	2.1
경남	2015	18,671	5.6	7,368	2.2
	2016	17,580	5.3	7,486	2.2
	2017	15,978	4.8	7,355	2.2
	2018	14,996	4.5	7,575	2.3
	2019	13,613	4.1	7,827	2.3
	2020	11,900	3.6	7,368	2.2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 경남의 조혼인율(천 명당 혼인건수)은 2015년 5.6‰에서 2020년 3.6‰로 크게 하락하였고, 조이혼율(천 명당 이혼건수)은 2.2~2.3‰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혼인건수는 2015년 302,828건에서 2020년 213,50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혼건수는 2015년 109,153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106,500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조혼인율은 2015년 5.9‰에서 2020년 4.2‰로 크게 하락하였고, 조이혼율은 2.1‰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으로 경남은 전국에 비해 조혼인율은 0.6‰ 낮고, 조이혼율은 0.1‰ 높은 것으로 나타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그림 Ⅱ-9] 전국·경남 혼인 및 이혼

○ 경남의 혼인, 이혼, 재혼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 연령이 높게 나타남. 또한 2015년과 비교하여 2020년 평균 연령이 여성과 남성 모두 높아짐

- 초혼 연령의 경우 여성은 2015년 29.75세에서 2020년 30.52세로 0.77세 증가하였고, 남성은 2015년 32.31세에서 2020년 33.06세로 0.75세 증가함
- 이혼 연령의 경우 여성은 2015년 42.77세에서 2020년 45.53세로 2.76세 증가하였고, 남성은 2015년 46.42세에서 2020년 48.92세로 2.5세 증가함
- 재혼 연령의 경우 여성은 2015년 42.87세에서 2020년 45.80세로 2.93세 증가하였고, 남성은 2015년 47.47세에서 2020년 49.75세로 2.28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과 비교하면 2020년 기준으로 여성의 초혼, 이혼, 재혼 연령은 각각 30.78세, 46.00세, 45.73세이며, 남성의 경우 33.23세, 49.37세, 50.04세로 나타나 경남에 비해 다소 높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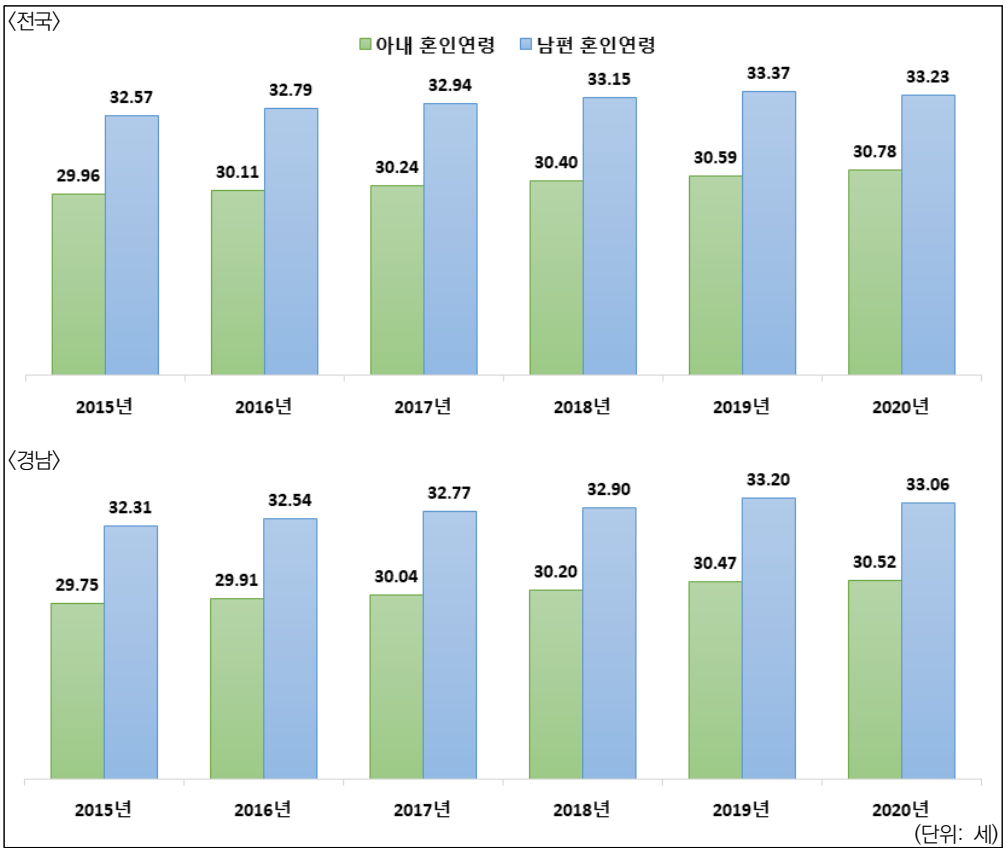
- 2016년(경남 2017년)을 기준으로 남녀 초혼연령이 모두 30세를 넘었으며 2020년 기준 초혼연령의 성별 차이는 평균 2.45세(경남 2.54세)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8〉 전국·경남 평균 혼인 및 이혼, 재혼 연령

(단위: 세)

구분		혼인 연령		이혼 연령		재혼 연령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전국	2015	29.96	32.57	43.31	46.93	43.46	47.63
	2016	30.11	32.79	43.64	47.19	43.99	48.20
	2017	30.24	32.94	44.02	47.57	44.43	48.70
	2018	30.40	33.15	44.75	48.28	44.61	48.91
	2019	30.59	33.37	45.27	48.68	45.15	49.63
	2020	30.78	33.23	46.00	49.37	45.73	50.04
경남	2015	29.75	32.31	42.77	46.42	42.87	47.47
	2016	29.91	32.54	43.25	46.64	43.83	47.82
	2017	30.04	32.77	43.61	47.23	44.04	48.45
	2018	30.20	32.90	44.38	48.06	44.91	48.87
	2019	30.47	33.20	44.92	48.34	45.58	49.75
	2020	30.52	33.06	45.53	48.92	45.80	49.75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그림 Ⅱ-10] 전국·경남 평균 혼인연령

❑ 다문화 가족

❍ 경남의 다문화 혼인은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1,3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6.6%에서 2019년 10.0%로 상승함

- 다문화 이혼은 2015년 668건에서 2019년 606건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9.0%에서 2019년 7.7%로 감소함
- 다문화 출생아는 2015년 1,357명에서 2019년 1,18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전체 출생아 중에서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6%에서 2019년 6.2%로 증가함

○ 2019년 기준 전국 현황과 비교하면, 다문화 혼인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3%, 다문화 이혼의 비중은 8.9%,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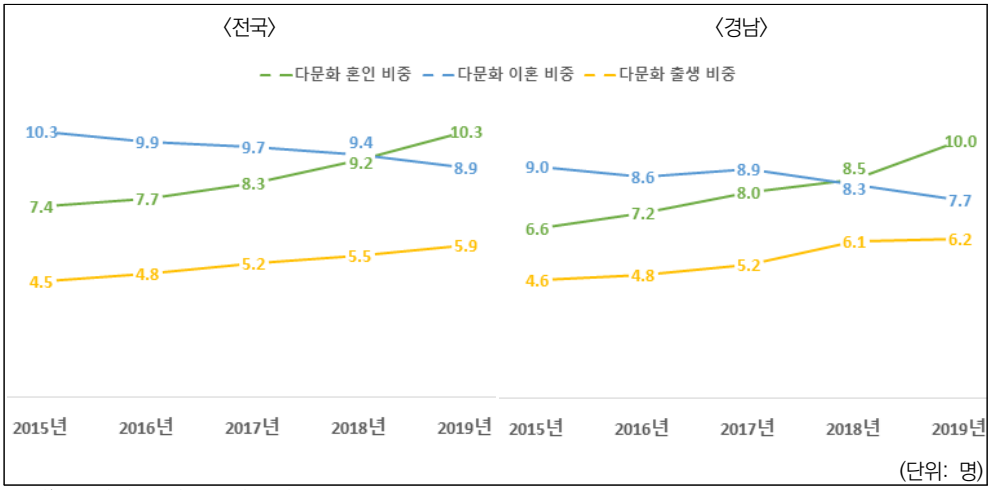
- 경남은 다문화 혼인과 다문화 이혼의 비중은 전국보다 다소 낮지만, 다문화 출생아 수 비중은 전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9〉 다문화 혼인·이혼·출생

(단위: 건, 명, %)

구분		혼인			이혼			출생		
		전체 혼인	다문화 혼인	비중	전체 이혼	다문화 이혼	비중	전체 출생아	다문화 출생아	비중
전국	2015	302,828	22,462	7.4	109,153	11,287	10.3	438,420	19,729	4.5
	2016	281,635	21,709	7.7	107,328	10,631	9.9	406,243	19,431	4.8
	2017	264,455	21,917	8.3	106,032	10,307	9.7	357,771	18,440	5.2
	2018	257,622	23,773	9.2	108,684	10,254	9.4	326,822	18,079	5.5
	2019	239,159	24,721	10.3	110,831	9,868	8.9	302,676	17,939	5.9
경남	2015	18,919	1,240	6.6	7,445	668	9.0	29,537	1,357	4.6
	2016	17,809	1,280	7.2	7,555	653	8.6	27,138	1,291	4.8
	2017	16,249	1,292	8.0	7,432	664	8.9	23,849	1,243	5.2
	2018	15,280	1,299	8.5	7,657	637	8.3	21,224	1,294	6.1
	2019	13,901	1,385	10.0	7,903	606	7.7	19,250	1,185	6.2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그림 Ⅱ-11] 전국·경남 다문화 혼인

3) 출생 현황

○ 경상남도의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29,537명에서 2020년 16,823명으로 2015년 대비 12,714명(4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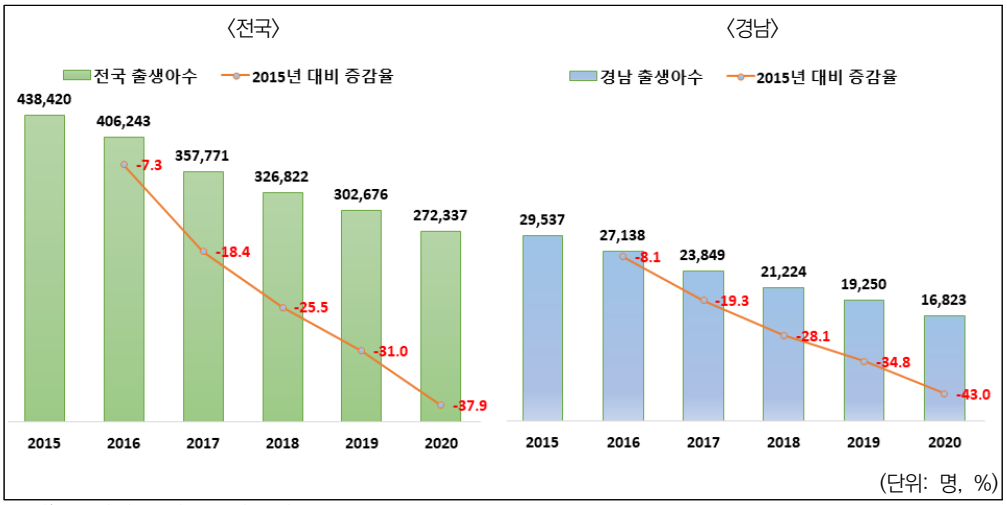
- 전국 현황과 비교하면 2015년 대비 2020년에 37.9% 감소하여 경남의 출생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청년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초고령화 시·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표 Ⅱ-10〉 전국·경남 출생아 추이

(단위: 명)

연도	전국	2015년 대비 감소율	경남	2015년 대비 감소율
2015	438,420		29,537	
2016	406,243	-7.3	27,138	-8.1
2017	357,771	-18.4	23,849	-19.3
2018	326,822	-25.5	21,224	-28.1
2019	302,676	-31.0	19,250	-34.8
2020	272,337	-37.9	16,823	-43.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그림 Ⅱ-12] 전국·경남 출생아 추이

○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전국 평균 0.84명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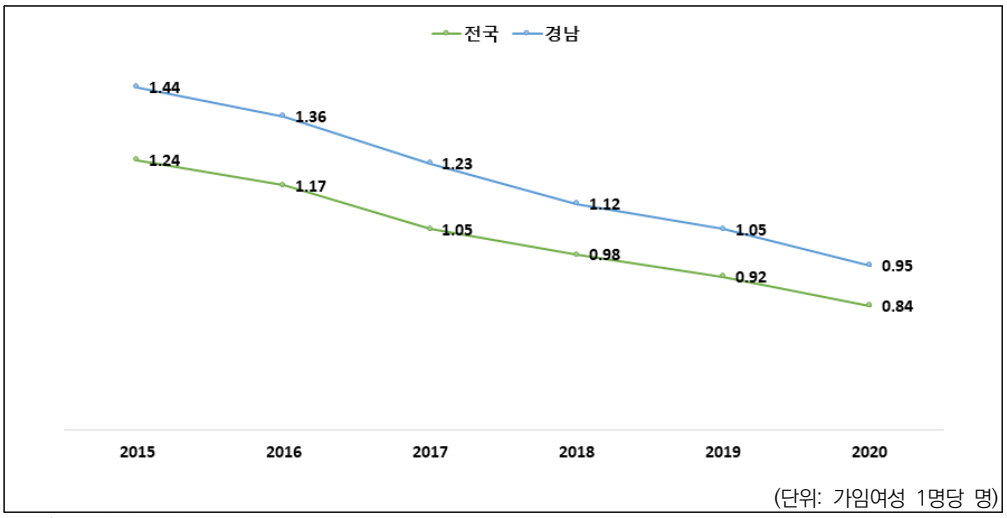
-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4명, 2016년 1.36명, 2017년 1.23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0.9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Ⅱ-11〉 전국·경남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1.24	1.17	1.05	0.98	0.92	0.84
경남	1.44	1.36	1.23	1.12	1.05	0.95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그림 Ⅱ-13] 전국·경남 합계출산율 추이

4) 가족 가치관

□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 경남 지역의 결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것이 좋다)은 2016년 54.1%에서 2020년 54.8%로 다소 높아졌고, 반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응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하지

말아야 한다)은 2.3%에서 4.1%로 증가함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이 여성은 2016년 50.5%에서 2020년 49.0%로 1.5%p 감소한 반면, 남성은 2016년 57.7%에서 2020년 60.4%로 2.7%p 증가하였고, 성별 격차도 7.2%p에서 11.4%p로 더 증가함
- 부정적인 응답의 경우 여성은 2016년 3.2%에서 2020년 4.9%로 1.7%p 증가하였고, 남성은 2016년 1.4%에서 2020년 3.3%로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12〉 전국·경남 결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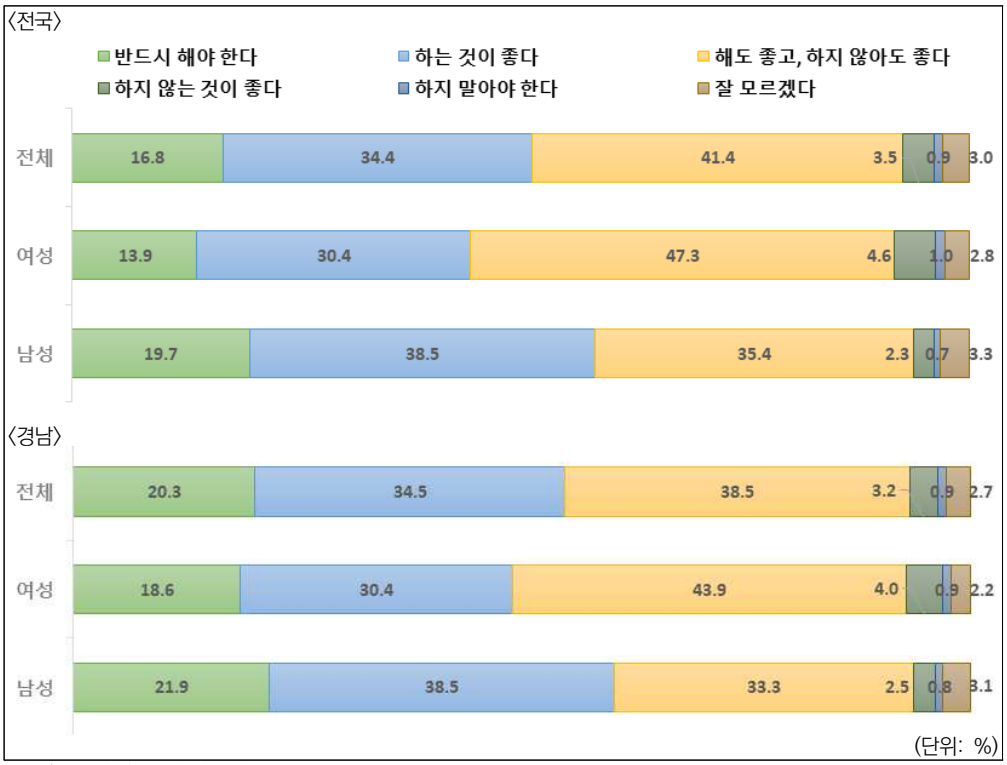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2016 전국	계	100.0	12.5	39.3	42.9	2.5	0.6	2.2
	여자	100.0	11.7	35.9	46.7	3.2	0.6	2.0
	남자	100.0	13.4	42.9	38.9	1.9	0.6	2.3
2020 전국	전체	100.0	16.8	34.4	41.4	3.5	0.9	3.0
	여성	100.0	13.9	30.4	47.3	4.6	1.0	2.8
	남성	100.0	19.7	38.5	35.4	2.3	0.7	3.3
2016 경남	전체	100.0	13.1	41.0	41.2	1.9	0.4	2.4
	여성	100.0	11.8	38.7	44.0	2.8	0.4	2.3
	남성	100.0	14.4	43.3	38.4	1.1	0.3	2.5
2020 경남	전체	100.0	20.3	34.5	38.5	3.2	0.9	2.7
	여성	100.0	18.6	30.4	43.9	4.0	0.9	2.2
	남성	100.0	21.9	38.5	33.3	2.5	0.8	3.1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 전국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2016년 51.8%에서 2020년 51.2%로 소폭 감소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2016년 3.1%에서 4.4%로 증가함

-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여성 44.3%, 남성 58.2%, 부정적인 응답은 여성 5.6%, 남성 3.0%로 전반적으로 결혼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에 비해 경남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고, 부정적인 응답은 다소 낮게 나타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그림 Ⅱ-14] 전국·경남 결혼에 대한 견해(2020년)

❍ 경남 지역의 이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어떤 이유라도 안 된다+가급적 안 된다)은 2016년 39.1%에서 2020년 32.6%로 감소하였고,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2016년 40.9%에서 2020년 49.3%로 증가하였고,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2016년 16.4%에서 2020년 14.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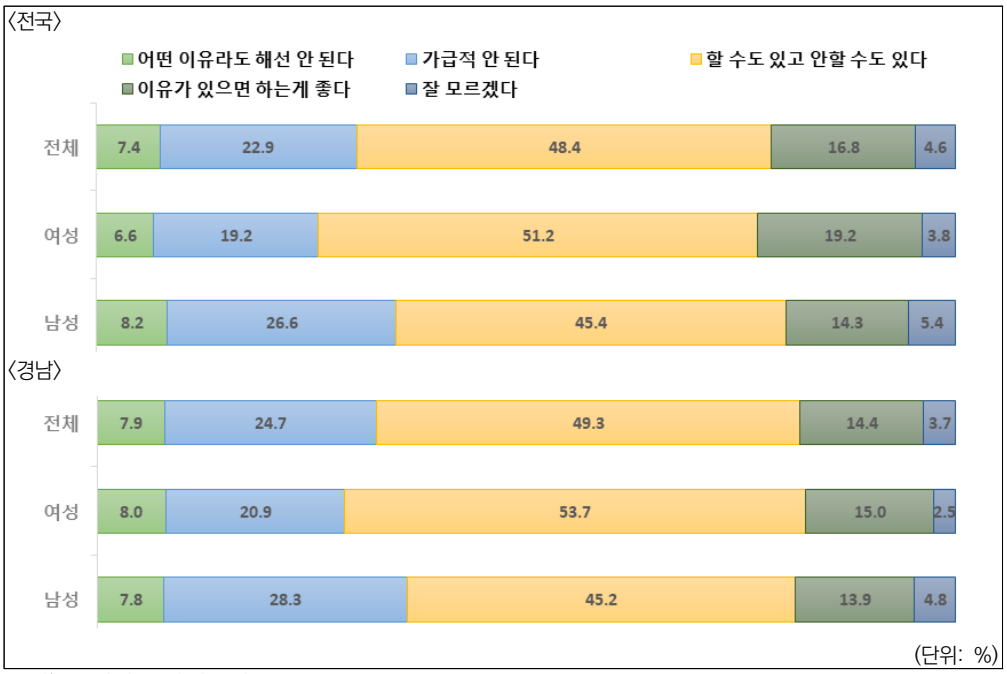
- 성별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2016년 34.0%에서 2020년 28.9%로 5.1%p 감소하였고, 남성은 2016년 44.2%에서 2020년 36.1%로 8.1%p 감소함
-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는 응답의 경우 여성은 2016년 44.6%에서 53.7%로 남성은 37.3%에서 45.2%로 남녀 모두 증가하였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는 응답의 경우 여성은 2016년 18.5%에서 2020년 15.0%로, 남성은 14.3%에서 13.9%로 남녀 모두 감소함

〈표 Ⅱ-13〉 전국·경남 이혼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합계	어떤 이유라도 해선 안 된다	가급적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	잘 모르겠다
2016 전국	전체	100.0	9.5	30.0	43.1	14.0	3.4
	여성	100.0	8.6	25.6	46.6	16.4	2.8
	남성	100.0	10.4	34.6	39.5	11.5	4.1
2020 전국	전체	100.0	7.4	22.9	48.4	16.8	4.6
	여성	100.0	6.6	19.2	51.2	19.2	3.8
	남성	100.0	8.2	26.6	45.4	14.3	5.4
2016 경남	전체	100.0	10.4	28.7	40.9	16.4	3.6
	여성	100.0	9.4	24.6	44.6	18.5	2.8
	남성	100.0	11.5	32.7	37.3	14.3	4.3
2020 경남	전체	100.0	7.9	24.7	49.3	14.4	3.7
	여성	100.0	8.0	20.9	53.7	15.0	2.5
	남성	100.0	7.8	28.3	45.2	13.9	4.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그림 Ⅱ-15] 전국·경남 이혼에 대한 견해(2020년)

❍ 전국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2016년 39.5%에서 2020년 30.3%로 감소하였고,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는 응답은 2016년 43.1%에서 2020년 48.4%로 증가하였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는 응답은 2016년 14.0%에서 2020년 16.8%로 증가함

-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여성 25.8%, 남성 34.8%,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는 응답은 여성 51.2%, 남성 45.4%,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는 응답은 여성 19.2% 남성 14.3%로 나타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 지역의 재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것이 좋다)은 2016년 14.1%에서 2020년 8.2%로 낮아졌고, 반면 재혼에 대한 부정적 응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하지 말아야 한다)은 16.7%에서 20.6%로 증가함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이 여성은 2016년 10.6%에서 2020년 6.1%로 4.5%p 감소한 반면, 남성은 2016년 17.7%에서 2020년 10.0%로 7.7%p 감소해 남성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Ⅱ-14〉 전국·경남 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합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2016 전국	전체	100.0	1.0	13.2	62.3	12.5	3.9	7.2
	여성	100.0	0.8	10.4	62.8	15.0	4.4	6.5
	남성	100.0	1.3	15.9	61.7	9.9	3.3	7.9
2020 전국	전체	100.0	0.6	7.8	64.9	13.1	4.1	9.4
	여성	100.0	0.4	5.5	64.2	16.2	5.2	8.5
	남성	100.0	0.9	10.0	65.6	10.0	3.1	10.4
2016 경남	전체	100.0	1.3	12.8	61.2	12.6	4.1	7.8
	여성	100.0	0.8	9.8	61.5	15.5	5.0	7.4
	남성	100.0	1.8	15.9	61.0	9.8	3.2	8.2
2020 경남	전체	100.0	0.6	7.6	63.9	15.8	4.8	7.4
	여성	100.0	0.2	5.9	63.2	19.0	6.0	5.8
	남성	100.0	0.9	9.1	64.5	12.8	3.6	9.0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 부정적인 응답의 경우 여성은 2016년 20.5%에서 2020년 25.0%로 4.5%p 증가하였고, 남성은 2016년 13.0%에서 2020년 16.4%로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2016년 14.2%에서 2020년 8.4%로 감소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2016년 16.4%에서 17.2%로 증가함

-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여성 5.9%, 남성 10.9%, 부정적인 응답은 여성 21.4%, 남성 13.1%로 전반적으로 재혼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 경남 지역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6년 50.7%에서 2020년 59.3%로 증가함

- 아내가 주도해야 한다(아내가 전적으로+아내가 주로)는 응답은 2016년 47.4%에서 2020년 37.7%로 감소하였고, 남편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6년 1.8%에서 2020년 3.0%로 증가함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에 대해 여성은 2016년 56.0%에서 2020년 65.2%로 9.2%p 증가하였고, 남성은 2016년 45.5%에서 53.6%로 8.1%p 증가함

❍ 전국적으로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53.5%에서 2020년 62.5%로 증가함

- 아내가 주도해야 한다(아내가 전적으로+아내가 주로)는 응답은 2016년 43.8%에서 2020년 34.8%로 감소하였고, 남편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6년 2.7%에서 2020년 2.7%로 변함 없음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에 대해 여성은 2016년 58.8%에서 2020년 67.0%로 8.2%p 증가하였고, 남성은 2016년 48.1%에서 57.9%로 9.8%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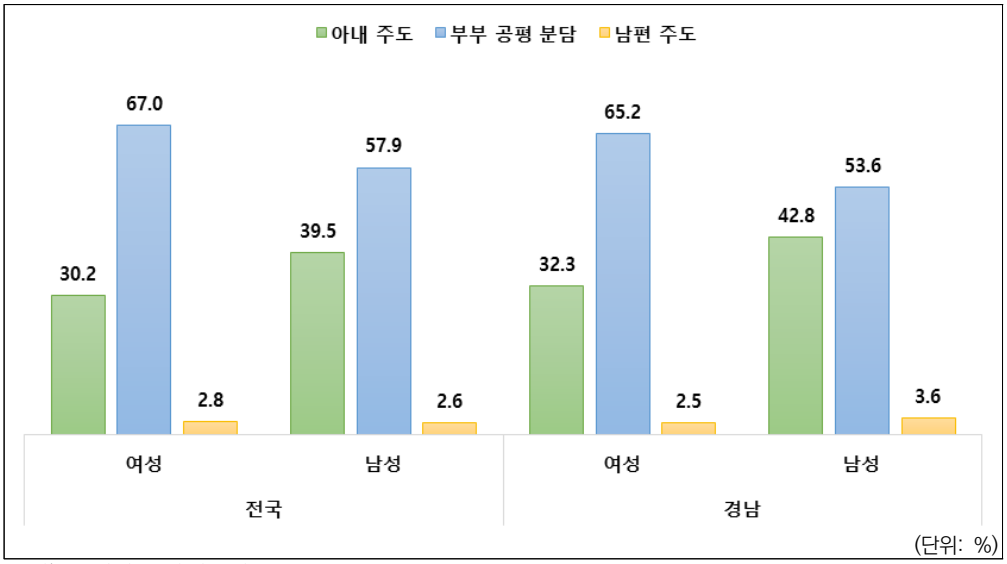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전국과 경남을 비교하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경남이 다소 낮고, '아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경남이 다소 높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가 전국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15〉 전국·경남 가사분담 견해

(단위: %)

구분		합계	아내 주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남편 주도		
			소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소계	남편이 주로 하지만 아내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16 전국	전체	100.0	43.8	4.3	39.5	53.5	2.7	2.1	0.6
	여성	100.0	39.0	2.8	36.2	58.8	2.2	1.7	0.5
	남성	100.0	48.8	5.8	43.0	48.1	3.1	2.4	0.7
2020 전국	전체	100.0	34.8	4.0	30.8	62.5	2.7	1.9	0.8
	여성	100.0	30.2	2.7	27.5	67.0	2.8	2.0	0.8
	남성	100.0	39.5	5.3	34.2	57.9	2.6	1.8	0.8
2016 경남	전체	100.0	47.4	5.7	41.7	50.7	1.8	1.2	0.6
	여성	100.0	42.3	4.2	38.1	56.0	1.7	1.1	0.6
	남성	100.0	52.5	7.2	45.3	45.5	2.0	1.4	0.6
2020 경남	전체	100.0	37.7	3.7	34.0	59.3	3.0	2.2	0.8
	여성	100.0	32.3	2.5	29.8	65.2	2.5	1.9	0.6
	남성	100.0	42.8	4.9	37.9	53.6	3.6	2.6	1.0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그림 Ⅱ-16] 전국·경남 가사분담 견해(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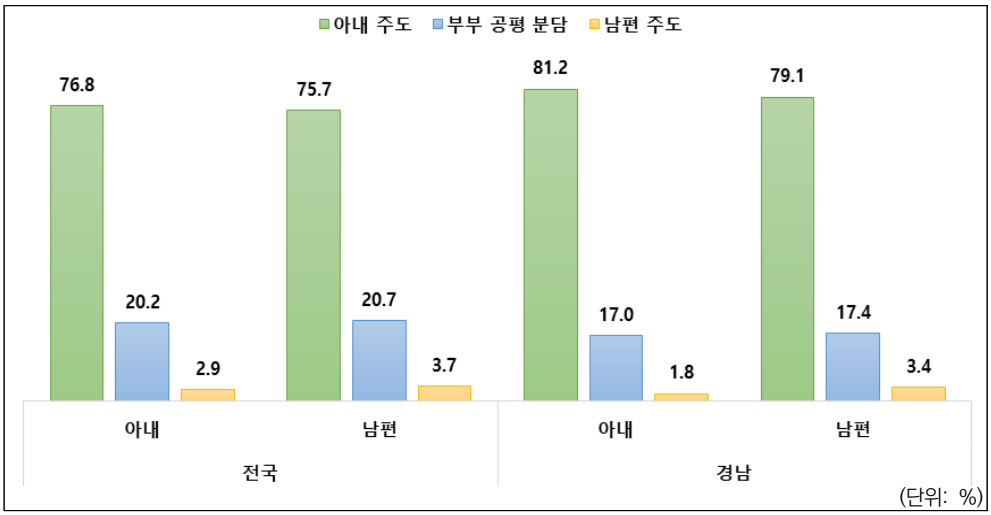
○ 하지만 실제 가사분담 실태를 살펴보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다르게 나타남. 경남에서 2020년 기준 가사분담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아내 17.0%, 남편 17.4%로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여성 65.2%, 남성 53.6%)와 큰 편차를 보임

〈표 Ⅱ-16〉 전국·경남 가사분담 실태

(단위: %)

구분		합계	아내 주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남편 주도		
			소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소계	남편이 주로 하지만 아내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16 전국	아내 응답	100.0	79.6	28.4	51.2	17.7	2.7	2.3	0.4
	남편 응답	100.0	78.9	24.0	54.9	17.8	3.2	2.7	0.5
2020 전국	아내 응답	100.0	76.8	25.1	51.7	20.2	2.9	2.5	0.4
	남편 응답	100.0	75.7	21.1	54.6	20.7	3.7	2.7	1.0
2016 경남	아내 응답	100.0	80.2	27.8	52.4	18.5	1.3	1.3	0.0
	남편 응답	100.0	81.7	25.7	56.0	16.1	2.1	1.6	0.5
2020 경남	아내 응답	100.0	81.2	27.9	53.3	17.0	1.8	1.5	0.3
	남편 응답	100.0	79.1	21.7	57.4	17.4	3.4	2.3	1.1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그림 Ⅱ-17] 전국·경남 가사분담 실태(2020년)

- 전국적으로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6년 아내 17.7%, 남편 17.8%에서 2020년 아내 20.2%, 남편 20.7%로 증가했지만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는 큰 편차를 보임
- 전국과 경남을 비교하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이 경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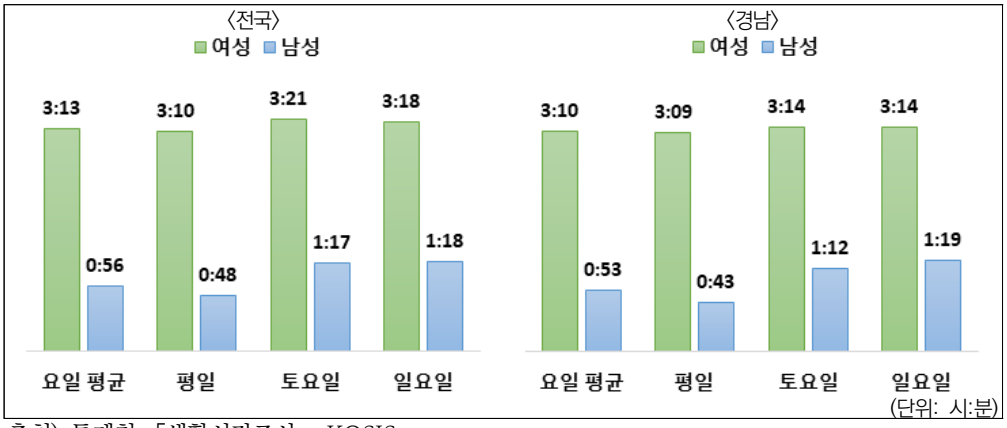
❍ 실제로 가사노동(가사일, 돌봄 포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지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19년 기준 경남 여성은 요일 평균 3시간10분, 남성은 53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나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임

〈표 Ⅱ-17〉 전국·경남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2019년)

(단위: 시:분)

구분		전국				경남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 가사노동 합계		2:06	2:00	2:20	2:19	2:02	1:56	2:11	2:18
	가정관리	1:42	1:36	1:56	1:57	1:39	1:34	1:48	1:54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24	0:24	0:24	0:22	0:23	0:22	0:23	0:24
여성 가사노동 합계		3:13	3:10	3:21	3:18	3:10	3:09	3:14	3:14
	가정관리	2:37	2:32	2:51	2:51	2:36	2:32	2:44	2:48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36	0:38	0:30	0:27	0:34	0:37	0:30	0:26
남성 가사노동 합계		0:56	0:48	1:17	1:18	0:53	0:43	1:12	1:19
	가정관리	0:44	0:38	0:59	1:01	0:42	0:36	0:56	0:57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12	0:10	0:18	0:17	0:11	0:07	0:16	0:22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KOSIS.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KOSIS.

[그림 Ⅱ-18] 전국·경남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 전국적으로도 여성은 요일 평균 3시간13분, 남성은 56분을 소요하고 있다고 응답해 성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음

□ 저출산에 대한 견해

○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된 요인에 대해서 경남도민은 '결혼 가치관 변화'(21.5%), '자녀 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 증대'(20.6%),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17.2%)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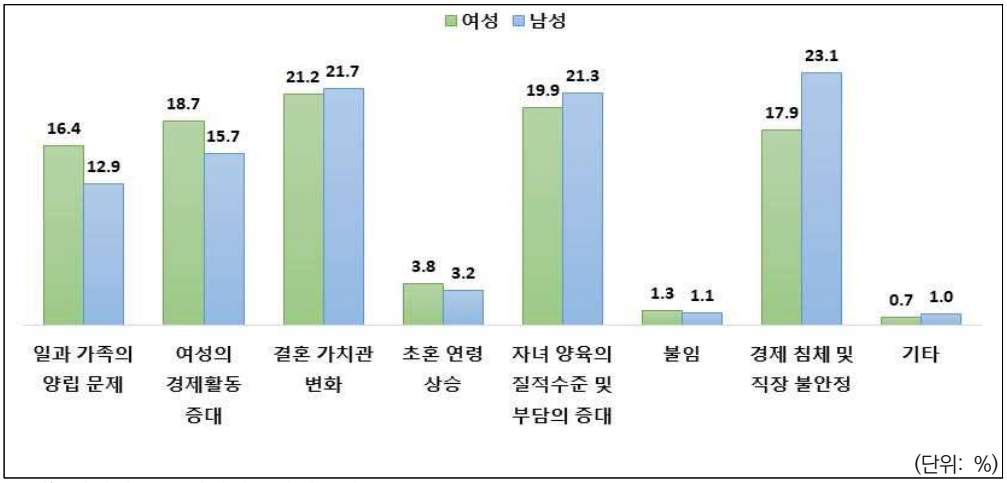
- 저출산의 요인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견해가 달랐는데, 여성은 '결혼 가치관 변화'(21.2%)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 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의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순으로 응답함

〈표 Ⅱ-18〉 경상남도 저출산 주된 요인(2020년)

(단위: %)

구분	결혼 가치관 변화	자녀 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 증대	경제침체 및 직장 불안정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	초혼 연령 상승	불임	기타	합계
전체	21.5	20.6	20.5	17.2	14.6	3.5	1.2	0.9	100.0
여성	21.2	19.9	17.9	18.7	16.4	3.8	1.3	0.7	100.0
남성	21.7	21.3	23.1	15.7	12.9	3.2	1.1	1.0	100.0

출처) 경상남도, 「경상남도사회조사」, KOSIS.



출처) 경상남도, 「경상남도사회조사」, KOSIS.

[그림 Ⅱ-19] 경상남도 저출산 주된 요인(2020년)

- 남성은 ‘경제 침체 및 직장 불안정’(23.1%)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혼 가치관 변화’, ‘자녀 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의 증대’ 순으로 응답함

❍ 저출산의 주된 요인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인식이 달랐지만, 저출산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남녀의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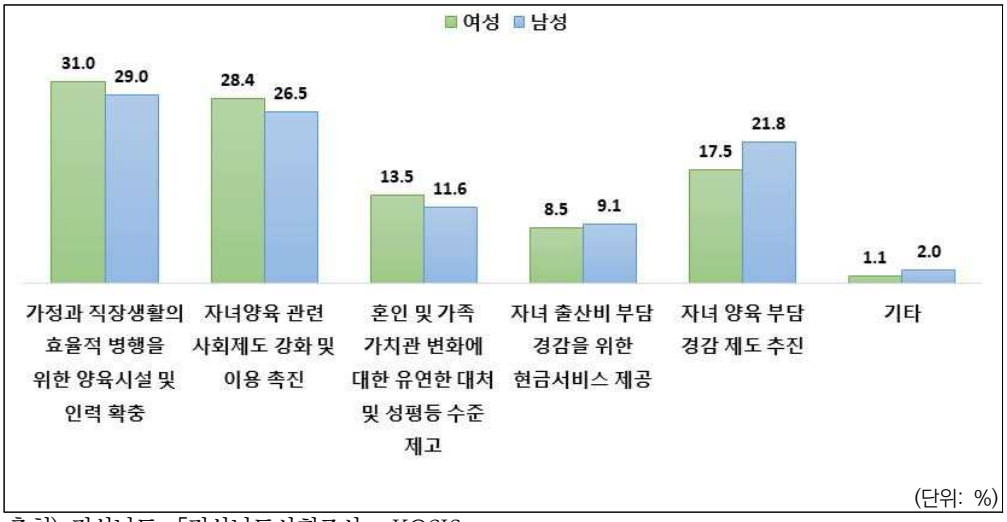
- 가장 우선적인 해결방안으로 ‘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및 인력 확충’(3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자녀 양육 관련 사회제도 강화 및 이용 촉진’, ‘자녀 양육부담 경감 제도 추진’ 등의 순으로 응답함

〈표 Ⅱ-19〉 경상남도 저출산 해결방안(2020년)

(단위: %)

구분	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및 인력 확충	자녀양육 관련 사회제도 강화 및 이용 촉진	자녀양육 부담 경감 제도 추진	혼인 및 가족 가치관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및 성평등 수준 제고	자녀출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서비스 제공	기타	합계
전체	30.0	27.5	19.7	12.6	8.8	1.5	100.1
여성	31.0	28.4	17.5	13.5	8.5	1.1	100.0
남성	29.0	26.5	21.8	11.6	9.1	2.0	100.0

출처) 경상남도, 「경상남도사회조사」, KOSIS.



출처) 경상남도, 「경상남도사회조사」, KOSIS.

[그림 Ⅱ-20] 경상남도 저출산 해결방안(2020년)

▢ 가족관계 만족도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60.3%, 여성 56.4%, 남성 64.1%로 남성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는 전체의 58.7%, 여성 56.1%, 남성 61.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마찬가지로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전국과 경남을 비교하면 경남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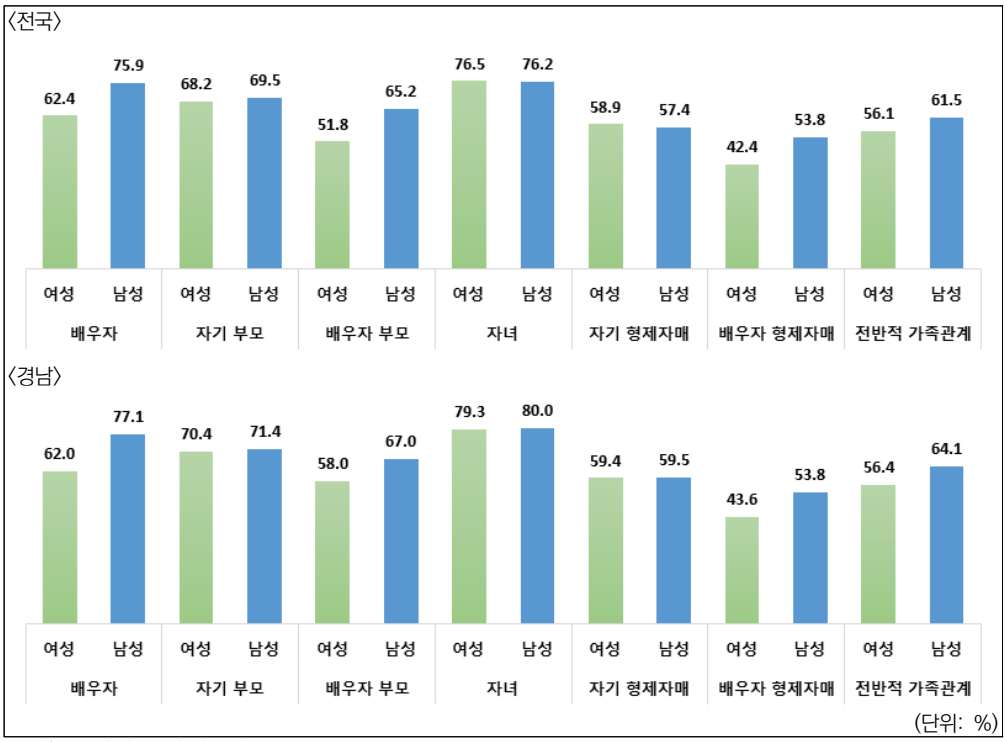
❍ 가족관계 만족도를 배우자, 자기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중 경남도민의 만족도가 높은 대상은 자녀(79.7%), 배우자(70.9%), 자기 부모(69.8%)임

〈표 Ⅱ-20〉 전국·경남 가족관계 만족도(2020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계	만족	보통	불만족	계	만족	보통	불만족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전체	100.0	58.7	38.2	3.0	100.0	60.3	37.3	2.4
	여성	100.0	56.1	40.8	3.1	100.0	56.4	41.0	2.6
	남성	100.0	61.5	35.5	3.0	100.0	64.1	33.7	2.3
배우자와의 관계	전체	100.0	69.3	24.2	6.6	100.0	69.8	24.0	6.3
	여성	100.0	62.4	27.9	9.6	100.0	62.0	29.0	9.1
	남성	100.0	75.9	20.6	3.5	100.0	77.1	19.3	3.7
자기 부모와의 관계	전체	100.0	68.8	26.5	4.7	100.0	70.9	24.4	4.8
	여성	100.0	68.2	26.5	5.3	100.0	70.4	24.1	5.5
	남성	100.0	69.5	26.5	4.1	100.0	71.4	24.6	4.1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전체	100.0	59.1	33.4	7.6	100.0	62.9	28.6	8.5
	여성	100.0	51.8	36.2	12.0	100.0	58.0	29.5	12.5
	남성	100.0	65.2	31.0	3.8	100.0	67.0	27.7	5.2
자녀와의 관계	전체	100.0	76.4	20.1	3.5	100.0	79.7	17.3	3.0
	여성	100.0	76.5	20.2	3.3	100.0	79.3	17.4	3.2
	남성	100.0	76.2	20.0	3.7	100.0	80.0	17.1	2.9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	전체	100.0	58.1	35.4	6.5	100.0	59.4	34.1	6.5
	여성	100.0	58.9	34.9	6.3	100.0	59.4	34.2	6.5
	남성	100.0	57.4	35.8	6.7	100.0	59.5	34.0	6.6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전체	100.0	48.1	42.8	9.1	100.0	48.8	41.3	9.9
	여성	100.0	42.4	45.1	12.6	100.0	43.6	42.9	13.5
	남성	100.0	53.8	40.5	5.7	100.0	53.8	39.8	6.4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그림 Ⅱ-21] 전국·경남 가족관계 만족도(2020년)

- 경남 여성은 자녀(79.3%), 자기 부모(70.4%), 배우자(62.0) 순으로 만족도가 높고, 경남 남성은 자녀(80.0%), 배우자(77.1%), 자기 부모(71.4%) 순으로 만족도가 높음.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전국적으로도 경남과 마찬가지로 자녀(76.4%), 배우자(69.3%), 자기 부모(68.8%)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남

3. 소결

1) 가족정책의 변화 방향

○ 가족정책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 2004년에서야 비로소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2018년 1인가구를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법이 일부 개정됨

○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의해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수립하고 있고, 현재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이 가족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기본 모토는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로 정책의 비전은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이며 정책목표는 ‘가족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임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과제 중 특히 가족문화와 관련한 과제로는 “1-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과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있음

○ 경상남도에서도 가족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계획〉(2021.2.15.)을 수립·발표함

- 〈2021년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계획〉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족, 가사부담 경감’의 3대 목표를 설정함
-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가족문화 개선 연구, 가족교육 강화, 가사부담 경감, 건강한 가족문화 홍보 등을 제시함

2) 경남 가족 현황 분석

❑ 가족형태 및 구조

○ 경상남도 전체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평균 가구원 수는 감소하였고, 1인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함

- 경남 1인가구 중에서는 노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국적으로 청년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차이를 보임

○ 경상남도의 세대구성별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보통 부부+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점차 감소세에 있고, 1세대 가구 비율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형성 및 해체

○ 경남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혼건수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20년 기준 경남의 초혼연령은 여성 30.52세, 남성 33.06세로 성별 차이는 2.54세로 나타나며, 혼인, 이혼, 재혼의 평균 연령은 모두 상승함

○ 경남 다문화 혼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10.0%를 차지하며, 다문화 이혼은 경남 전체의 7.7%, 다문화 출생은 경남 전체의 6.2%를 차지함

□ 출생 현황

○ 2020년 경상남도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하여 2015년 대비 43.0% 감소하였는데 전국적으로 동일기간 동안 37.9% 감소한 것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임

○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4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0.95명이며, 이는 전국 평균 0.84명보다 조금 높은 수치임

□ 가족 가치관

○ 결혼에 대한 견해에 대해 경남은 전국 평균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고, 부정적인 응답은 다소 낮게 나타나며 경남과 전국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혼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고, 재혼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전체의 60%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실제로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7.0%에 불과해 인식과 실태 사이의 괴리를 보임

□ 저출산에 대한 견해

○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요인에 대해 경남의 남녀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여성은 '결혼 가치관 변화', '자녀 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의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순으로 응답하고, 남성은 '경제 침체 및 직장 불안정', '결혼 가치관 변화', '자녀 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의 증대' 순으로 응답함

○ 저출산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가족관계 만족도

○ 경남도민의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여성 56.4%, 남성 64.1%로 남성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관계 만족도를 배우자, 자기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중 경남도민의 만족도가 높은 대상은 자녀, 배우자, 자기 부모 순으로 나타남

III

전국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경남 가족 특성

GNWFF

Ⅲ. 전국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경남 가족 특성

○ 이 부분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0 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국과의 비교를 통해 경남 가족문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경남의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2020 가족실태조사〉 개요

○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05년 제1차 조사가 실시되어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음

○ 〈2020 가족실태조사〉는 제4차 조사이며 2018년 법개정으로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조사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

건강가정 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 · 성별 · 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 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8.1.16.〉

[그림 Ⅲ-1] 가족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 〈2020 가족실태조사〉는 전국의 10,997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 수는 22,173명임

- 특히 〈2020 가족실태조사〉는 표본 규모를 확대하면서 17개 시도별 집계가 가능해져서 경남에도 819가구(동 468가구, 읍면 35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 여기에서는 〈2020 가족실태조사〉 내용 중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형성과 변화, 가족 관계, 일, 가족생활과 노후준비, 정책에 대한 인식, 가족돌봄 등에 대해 전국과 경남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2020 가족실태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1인가구에 관한 내용은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에서 2021년 발행한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방안』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음

〈표 Ⅲ-1〉 〈2020 가족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가구 및 가구원	◦ 10,997가구 22,173명	
조사대상	◦ 만 12세 이상 가구원	
조사기간	◦ 2020년 9월 8일 ~ 9월 18일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필요 시 자기기입, E-mail 등 병행)와 인터넷 조사	
조사 및 분석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통계대행과)	
조사영역 (가구대표용)	Ⅰ. 개인관련 사항 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Ⅲ. 가족형성과 변화 Ⅳ. 가족 관계 Ⅴ. 일	Ⅵ. 가족생활과 노후준비 Ⅶ. 정책에 대한 인식 Ⅷ. 가족돌봄 Ⅸ. 1인가구 Ⅹ. 가구 특성

출처) 여성가족부(2021a)

2. 〈2020 가족실태조사〉 분석

1)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가족의 범위에 대해 부모(87.4%), 자녀(85.4%), 배우자(83.5%), 형제자매(76.1%), 배우자의 부모(55.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경남은 전국과 비교하여 배우자의 가족(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을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혈연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를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전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표 Ⅲ-2〉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경남-전국)
부모	87.4	87.9	0.50
자녀	85.4	86.2	0.80
배우자(사실혼/비혼동거 포함)	83.5	84.1	0.60
형제자매	76.1	75.5	-0.60
배우자의 부모	55.8	57.2	1.40
배우자의 형제자매	42.1	43.3	1.20
친조부모(친할아버지, 친할머니)	41.6	41.5	-0.10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올케 등)	35.7	34.9	-0.80
며느리	34.5	41.7	7.20
친손자녀	34.0	42.2	8.20
외조부모(외할아버지, 외할머니)	32.2	31.3	-0.90
사위	30.5	36.9	6.40
외손자녀	29.6	35.8	6.20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동서, 처남댁 등)	27.2	29.5	2.30
조카(친조카, 배우자의 조카)	23.2	24.5	1.30
이모	23.1	25.0	1.90
고모	22.7	25.9	3.20
아버지의 형제 및 그 배우자	22.5	23.7	1.20
외삼촌	21.3	24.6	3.30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	3.5	2.5	-1.00
기타	0.4	0.3	-0.1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가족의 정의는 2020년 신규로 도입한 문항으로, ‘가족은 혈연관계’라는 응답이 8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83.7%,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가 82.8%로 높게 나타남

- 경남 역시 ‘가족은 혈연관계’라는 응답이 89.5%로 가장 높지만, 그다음으로는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라는 응답이

84.5%,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응답이 84.1% 순으로 나타나 전국과 다른 순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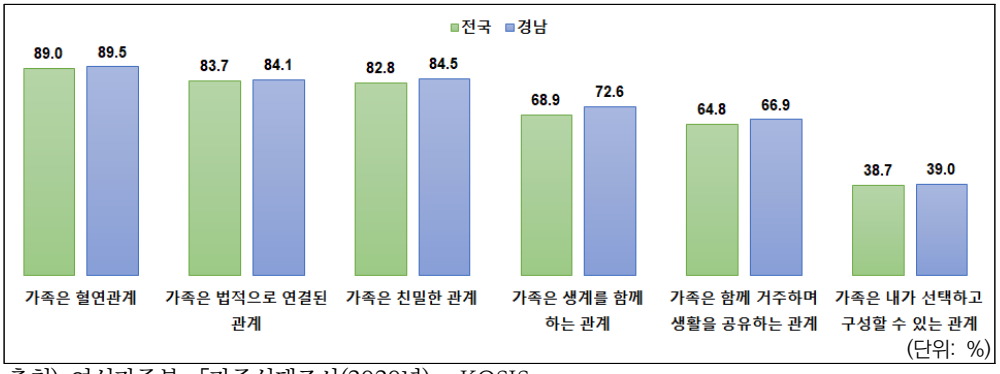
- 그 외에 가족의 정의에 대한 모든 문항에서 경남은 전국과 비교하여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 가족의 정의에 대한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3〉 가족의 정의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가족은 혈연관계이다	4.0	6.9	89.0	4.0	6.4	89.5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6.0	10.3	83.7	5.1	10.7	84.1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	4.2	13.0	82.8	3.6	11.8	84.5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	12.6	18.6	68.9	9.0	18.5	72.6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16.9	18.4	64.8	14.6	18.5	66.9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40.0	21.3	38.7	39.4	21.7	39.0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2] 가족의 정의에 대한 동의 정도

○ 가족 중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우자(48.0%), 부모(27.5%), 자녀(11.1%) 순으로 높았고, 반면 동료(0.2%), 이웃(0.2%)이라는 응답은 낮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도 배우자, 부모, 자녀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전국과 비교하여 부모라는 응답은 낮고, 배우자와 자녀라는 응답은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 그 외에도 형제자매와 동료의 경우에는 전국보다 응답률이 높은 반면, 애인, 친구, 성직자 등은 전국보다 낮게 나타남

〈표 Ⅲ-4〉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경남-전국)
배우자	48.0	50.6	2.6
부모	27.5	24.0	-3.5
자녀	11.1	13.1	2.0
형제자매	4.0	4.5	0.5
친구	3.2	2.8	-0.4
자기 자신	3.0	3.0	0.0
의지할 사람 없음	1.5	1.3	-0.2
애인	0.9	0.4	-0.5
기타	0.3	0.1	-0.2
성직자(목사, 신부, 수녀, 스님 등)	0.3	0.1	-0.2
이웃	0.2	0.2	0.0
동료	0.2	0.3	0.1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해서는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36.0%),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34.0%),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2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33.9%),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30.7%), 다음으로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24.1%)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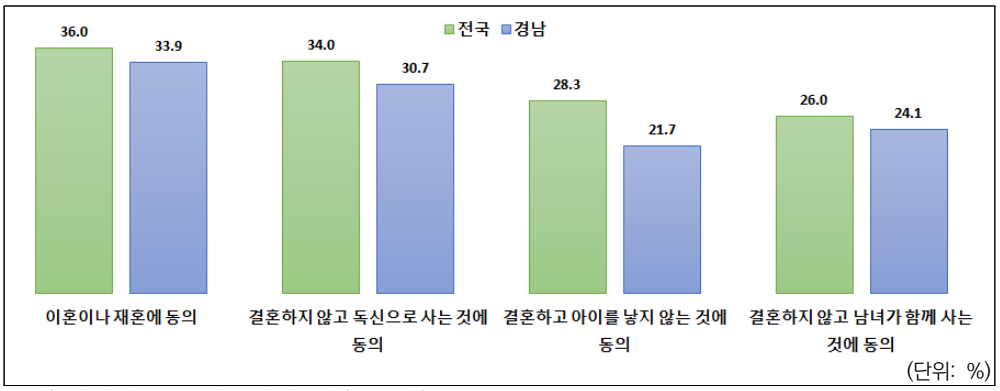
- 경남은 전국과 비교하여 가족 가치관에 대한 모든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전국보다 낮게 나타남. 특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5〉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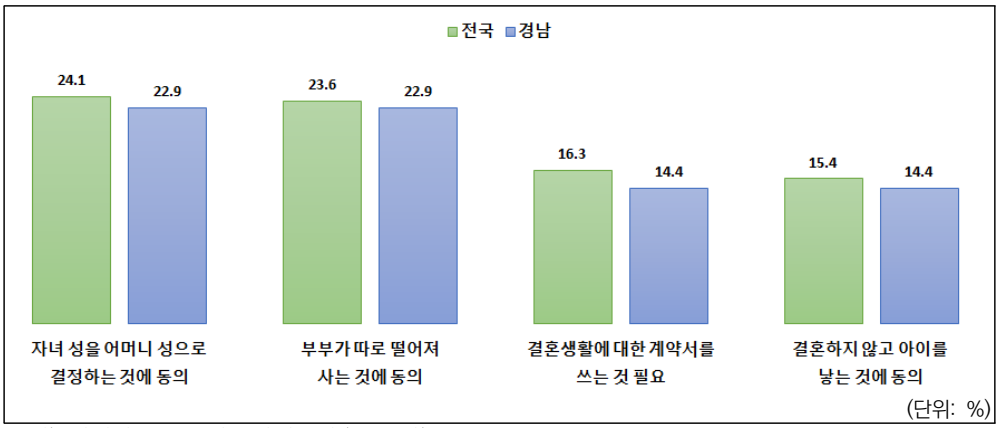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28.5	35.4	36.0	27.4	38.7	33.9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38.7	27.3	34.0	41.7	27.7	30.7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44.4	27.3	28.3	50.9	27.4	21.7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44.6	29.4	26.0	45.4	30.5	24.1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42.3	33.5	24.1	44.5	32.6	22.9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에 동의한다	44.1	32.2	23.6	42.2	34.9	22.9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55.1	28.6	16.3	56.8	28.8	14.4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61.8	22.8	15.4	61.4	24.3	14.4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3]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동의 정도(1)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4]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동의 정도(2)

○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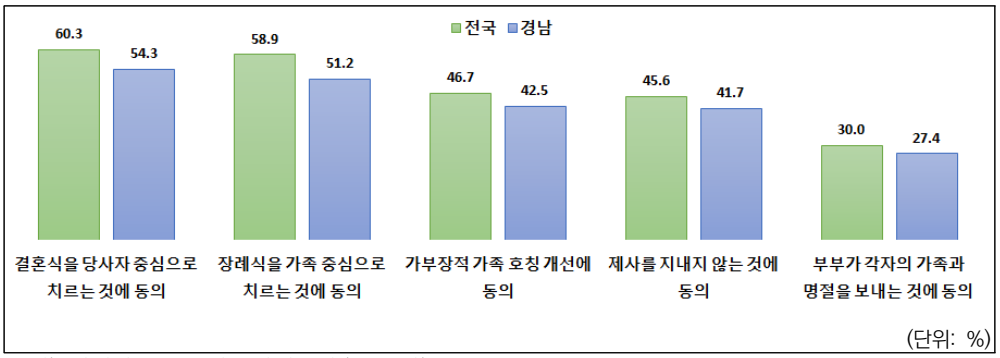
〈표 Ⅲ-6〉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13.7	26.0	60.3	15.5	30.2	54.3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13.1	28.0	58.9	16.5	32.4	51.2
가부장적 가족 호칭(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개선에 동의한다	20.2	33.1	46.7	21.8	35.8	42.5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27.0	27.4	45.6	31.3	27.0	41.7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44.4	25.6	30.0	47.1	25.4	27.4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5]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동의 정도

-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거나,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거나, 가부장적 가족 호칭을 개선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경남은 전국에 비해 동의수준이 모두 낮게 나타나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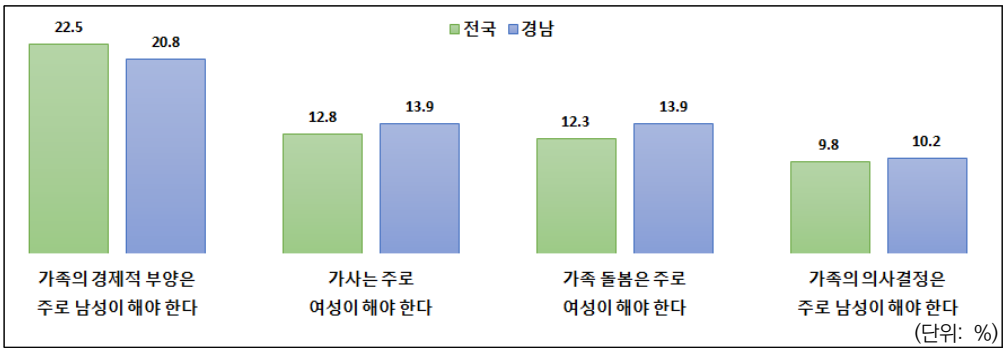
❍ 성역할 태도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음

〈표 Ⅲ-7〉 성역할 태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51.0	26.6	22.5	50.0	29.2	20.8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62.4	24.9	12.8	58.0	28.2	13.9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62.6	25.1	12.3	59.9	26.2	13.9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64.5	25.8	9.8	63.1	26.7	10.2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6] 성역할 태도에 대한 동의 정도

- 경남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문항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문항에서 동의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해 보다 가부장적 태도를 보임

❍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해서는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볼 책임이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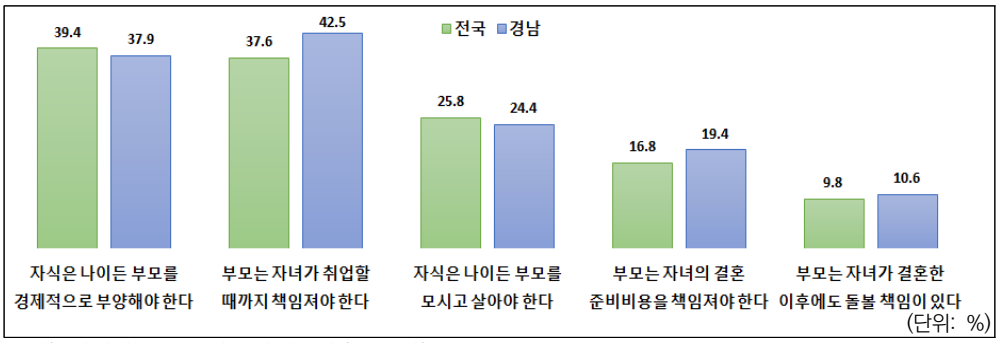
〈표 Ⅲ-8〉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27.6	33.0	39.4	27.4	34.7	37.9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31.3	31.0	37.6	25.3	32.2	42.5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42.1	32.0	25.8	44.1	31.6	24.4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48.2	35.0	16.8	40.5	40.1	19.4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볼 책임이 있다(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	61.3	29.0	9.8	58.4	30.9	10.6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7]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

- 경남의 경우 전국과 달리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더 높아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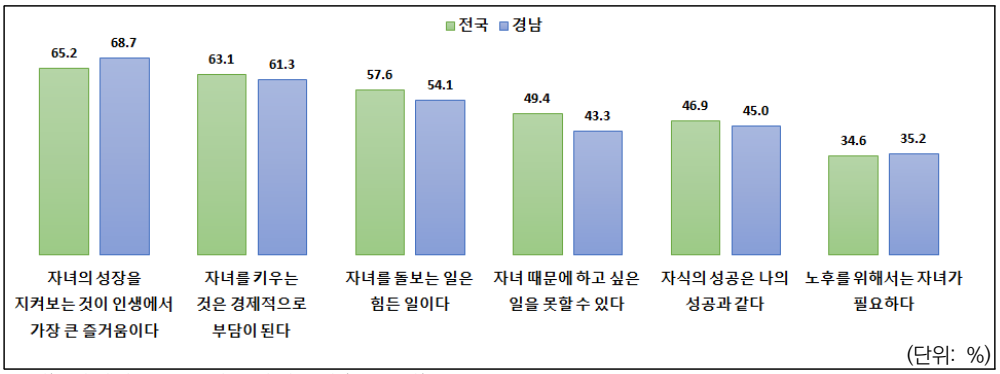
❍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Ⅲ-9〉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9.6	25.3	65.2	7.5	23.9	68.7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10.2	26.6	63.1	12.9	25.8	61.3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13.7	28.7	57.6	16.5	29.5	54.1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 있다	18.9	31.8	49.4	23.7	33.0	43.3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24.6	28.4	46.9	24.0	31.1	45.0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32.7	32.7	34.6	31.7	33.2	35.2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8]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 경남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라는 문항은 전국 평균보다 동의 정도가 높지만,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전국 평균보다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남

❍ 2020년 신규 도입된 문항인 평소 가족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의무감, 책임감이 느껴져 부담스럽다'보다는 '의지할 수 있다고 느껴져 든든하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 '의지할 수 있다고 느껴져 든든하다', '의무감, 책임감이 느껴져 부담스럽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Ⅲ-10〉 평소 가족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의지할 수 있다고 느껴져 든든하다	6.6	24.6	68.8	7.8	21.2	71.1
의무감, 책임감이 느껴져 부담스럽다	39.8	33.0	27.2	38.6	33.0	28.3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2) 가족형성과 변화

❍ 유배우자 중에 혼인신고를 한 비율이 97.2%, 혼인신고를 안 한 비율이 2.8%이고,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 중에 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70.3%, 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29.7%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비율은 98.7%로 전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 중에 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46.8%, 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53.2%로 혼인신고를 안 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전국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표 Ⅲ-11〉 혼인신고 여부 및 혼인신고 계획

(단위: %)

구분	혼인신고 함	혼인신고 안 함			계
			계획 있음	계획 없음	
전국	97.2	2.8	70.3	29.7	100.0
경남	98.7	1.3	46.8	53.2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31.0%),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18.9%),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18.6%) 순이고, 가장 낮은 이유는 ‘가족이 반대해서’(0.7%)로 나타남

〈표 Ⅲ-12〉 동거 사유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경제적인 이유로	31.0	-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18.9	53.2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18.6	26.7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	14.0	-
재산 상속 등의 이유로	2.2	-
기혼이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2.1	7.9
가족이 반대해서	0.7	12.2
기타	12.5	-
계	100.0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경남의 경우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53.2%),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26.7%), ‘가족이 반대해서’(12.2%) 순으로 나타남. 또한, ‘기혼이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라는 응답이 7.9%로 전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동거로 인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28.6%), ‘동거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27.2%),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27.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38.3%) 다음으로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33.5%), ‘동거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15.8%) 순으로 나타나 전국과 비교하여 주거 관련 어려움의 경험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됨

〈표 Ⅲ-13〉 동거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운 경험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	28.6	71.4	-	38.3	61.7	-
동거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	27.2	72.8	-	15.8	84.2	-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27.0	48.1	24.9	33.5	59.0	7.5
재산 상속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	7.6	43.7	48.6	-	66.9	33.1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6.8	40.9	52.3	-	66.9	33.1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3) 가족관계

□ 배우자와의 관계

❍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문항은 '배우자를 믿는다'(77.1%)이며, 다음으로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68.7%),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한다'(5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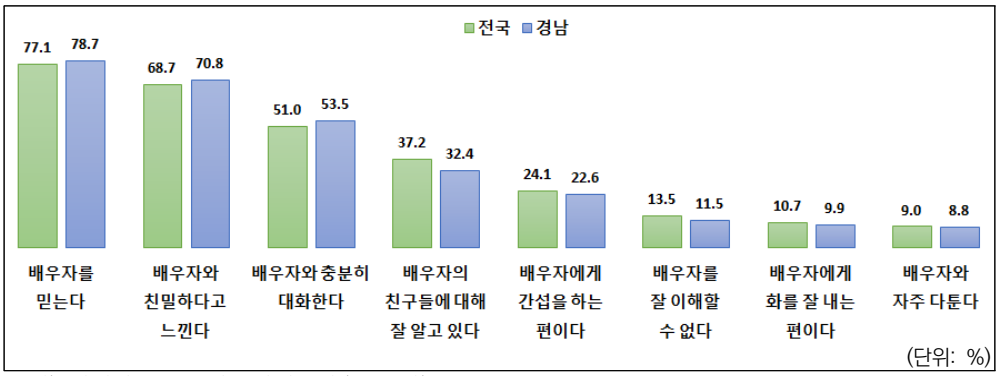
-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가장 동의 수준이 낮은 문항은 '배우자와 자주 다툰다'(9.0%)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문항의 동의 정도는 모두 높고, 부정적인 문항의 동의 수준은 모두 낮게 나타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배우자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원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4〉 배우자와의 관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배우자를 믿는다	4.6	18.3	77.1	4.8	16.6	78.7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6.1	25.2	68.7	5.6	23.6	70.8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한다	12.4	36.5	51.0	10.9	35.6	53.5
배우자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1.0	41.9	37.2	19.3	48.4	32.4
배우자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36.0	39.8	24.1	39.2	38.2	22.6
배우자를 잘 이해할 수 없다	52.8	33.7	13.5	54.5	34.1	11.5
배우자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55.6	33.7	10.7	59.4	30.7	9.9
배우자와 자주 다툰다	58.5	32.5	9.0	62.0	29.2	8.8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9] 배우자와의 관계 동의 정도

❍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31.5%), '30분 미만'(25.2%), '1시간 이상~2시간 미만'(23.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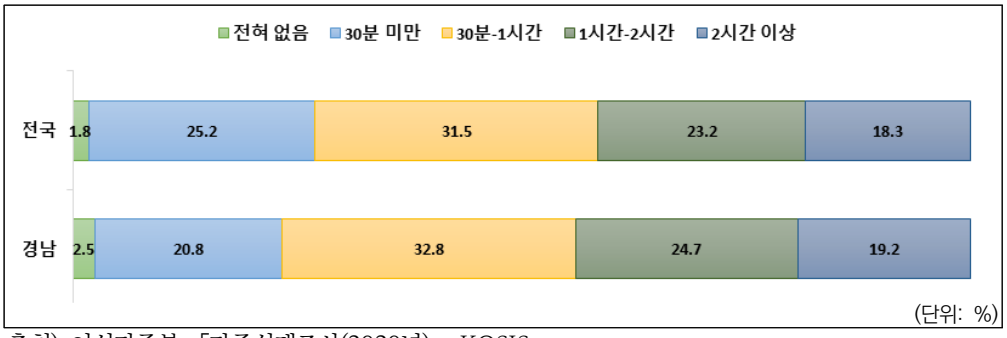
- 경남의 경우 '30분 이상~1시간 미만'(32.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시간 이상~2시간 미만'(24.7%), '30분 미만'(20.8%) 순으로 전국보다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조금 더 긴 것으로 확인됨

〈표 Ⅲ-15〉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단위: %)

구분	전혀 없음	30분 미만	30분 이상-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
전국	1.8	25.2	31.5	23.2	18.3	100.0
경남	2.5	20.8	32.8	24.7	19.2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10]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만족’ 46.9%, ‘보통’ 40.4%, ‘불만족’ 12.6%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만족’ 51.0%, ‘불만족’ 10.7%로 전국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Ⅲ-16〉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12.6	40.4	46.9	10.7	38.4	51.0

주)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산한 값이며, ‘만족’은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해서 ‘가사 등 집안일’, ‘생활비 지출’, ‘자녀 교육’ 순으로 아내가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고, ‘투자 및 자산관리’, ‘취업, 직장 이동’ 순으로 남편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Ⅲ-17〉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남편	같이	아내	해당 없음	남편	같이	아내	해당 없음
가족 여가	11.9	63.8	24.3	-	10.4	64.7	24.9	-
투자 및 자산 관리(금융, 부동산 등)	32.0	36.7	31.2	-	30.9	38.4	30.6	-
취업, 직장 이동	28.4	36.4	8.5	26.8	26.2	38.5	8.8	26.6
생활비 지출	14.8	31.0	54.2	-	13.0	31.0	55.9	-
내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5.4	29.0	27.0	38.5	3.6	30.2	24.8	41.4
배우자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5.5	28.9	26.1	39.4	3.5	31.1	23.1	42.4
자녀 교육	5.0	27.0	44.6	23.3	4.6	27.3	44.6	23.5
가사 등 집안일	2.7	25.1	72.2	-	1.5	24.4	74.2	-

주) ‘남편’은 ‘주로 남편’과 ‘대체로 남편’을 합산한 값이며, ‘아내’는 ‘주로 아내’와 ‘대체로 아내’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경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사 등 집안일’, ‘생활비 지출’, ‘자녀 교육’ 순으로 아내가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고, ‘투자 및 자산관리’, ‘취업, 직장 이동’ 순으로 남편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특히 ‘가사 등 집안일’, ‘생활비 지출’을 아내가 결정한다는 응답이 전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부부의 가사수행에 대해서는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은 아내가 주로 수행한다는 응답이 70.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의 경우 남편이 주로 수행한다는 응답이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가사일을 아내가 수행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전국과 비교할 때 부부가 같이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Ⅲ-18〉 부부의 가사수행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남편	같이	아내	해당 없음	남편	같이	아내	해당 없음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2.8	26.6	70.5	-	2.4	25.0	72.6	-
자녀 양육과 교육	2.2	29.8	43.9	24.1	2.5	29.9	43.7	23.8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8.1	54.9	27.9	9.1	6.7	58.8	26.1	8.4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8.7	55.1	27.7	8.5	8.8	59.7	23.9	7.7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	10.1	65.7	24.1	-	8.9	67.2	23.9	-

주) ‘남편’은 ‘주로 남편’과 ‘대체로 남편’을 합산한 값이며, ‘아내’는 ‘주로 아내’와 ‘대체로 아내’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의 경우 ‘학교,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83.0%), ‘식사, 취침, 외출 준비,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77.3%),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학습 관리’(74.9%)는 주로 아내가 담당하고, ‘교육 시설 관련 정보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7.8%), ‘함께 놀아주기나

책 읽어주기 등'(7.3%), '생활 습관 등 훈육'(5.6%) 등은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고 응답함

- 경남의 경우 '식사, 취침, 외출준비,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79.3%), '학교,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79.0%),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학습 관리'(72.6%) 등의 순으로 아내가 분담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남편의 경우 '함께 놀아주기나 책 읽어주기 등'(5.5%), '교육 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5.3%), '생활 습관 등 훈육'(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문항에서 전국보다 낮은 분담 비율을 보임

〈표 Ⅲ-19〉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남편	같이	아내	해당 없음	남편	같이	아내	해당 없음
학교,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1.0	9.9	83.0	6.2	0.0	13.3	79.0	7.6
식사, 취침, 외출 준비,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	1.7	19.9	77.3	1.1	1.1	19.3	79.3	0.3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학습 관리	2.7	17.3	74.9	5.2	0.9	20.5	72.6	6.1
학교, 보육시설 등의 행사 참여, 방문, 봉사활동 등	1.9	16.5	74.3	7.4	0.8	20.2	71.5	7.6
교육 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	7.8	15.3	73.6	3.3	5.3	16.9	71.8	5.9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3.4	27.3	68.4	0.9	0.9	26.8	72.0	0.3
자녀 등하원/등하교	4.2	16.6	68.1	11.1	3.3	16.5	70.8	9.4
함께 놀아주기나 책 읽어주기 등	7.3	32.7	58.3	1.6	5.5	35.6	58.6	0.3
생활 습관 등 훈육	5.6	40.5	52.0	1.9	4.9	46.5	46.4	2.2

주) '남편'은 '주로 남편'과 '대체로 남편'을 합산한 값이며, '아내'는 '주로 아내'와 '대체로 아내'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배우자와의 자녀돌봄 분담 만족도는 만족 42.6%, 보통 32.6%, 불만족 24.7%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음

- 경남은 만족 49.4%, 보통 29.7%, 불만족 20.9%로 전국 평균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20〉 배우자와의 자녀돌봄 분담 만족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분담 만족도	24.7	32.6	42.6	20.9	29.7	49.4

주)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산한 값이며, '만족'은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47.8%이고, 없다는 응답이 52.2%로 없다가 다소 높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 전국보다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이 다소 낮게 나타남

〈표 Ⅲ-21〉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 유무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	47.8	52.2	45.2	54.8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 1순위는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23.2%), '경제적 문제'(22.6%), '배우자의 생활습관'(20.2%)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1순위는 '경제적 문제'(26.9%), '배우자의 생활습관'(21.5%),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18.3%) 순으로,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및 의견 충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22〉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	23.2	33.2	18.3	38.3
경제적 문제	22.6	15.0	26.9	14.3
배우자의 생활습관	20.2	14.1	21.5	12.0
내 부모/형제자매와 관련한 문제	9.8	5.4	8.5	3.9
자녀 교육 문제	9.6	11.1	7.4	9.9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 관련한 문제	6.0	6.9	8.8	5.8
가사와 육아 분담	5.6	9.4	5.8	10.0
배우자와의 성생활	1.6	2.8	1.6	2.4
배우자의 부모 간병	0.4	0.7	0.2	1.2
내 부모 간병	0.4	0.7	0.9	0.9
기타	0.6	0.7	0.2	1.3
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배우자와 이혼 및 헤어짐을 고민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0.3%이며, 경남의 경우도 10.4%로 비슷하게 나타남

〈표 Ⅲ-23〉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 고민 여부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이혼 및 헤어짐 고민	10.3	89.7	10.4	89.7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배우자와의 문제 발생 시 취하는 행동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42.4%), ‘그냥 참는다’(29.0%),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1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응답은 전국 평균보다 낮

고,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서,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24〉 배우자와의 문제 발생 시 취하는 행동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	42.4	39.2
그냥 참는다	29.0	28.2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	18.5	22.2
취미·놀이·술 등에 의존	5.7	5.5
주위 사람의 도움	3.8	4.6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	0.2	0.1
기타	0.4	0.2
계	100.0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만족 57.0%, 보통 32.5%, 불만족 10.6% 순으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음

- 경남의 경우 만족 59.6%, 보통 31.2%, 불만족 9.3%로 전국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25〉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10.6	32.5	57.0	9.3	31.2	59.6

주)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산한 값이며, '만족'은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 청소년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진로 문제'(24.9%), '경제적 부담'(24.1%), '학업 성적'(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 전국과 비교하여 ‘진로 문제’(26.3%), ‘경제적 부담’(24.9%), ‘대화 단절’(8.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고, 청소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Ⅲ-26〉 청소년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진로 문제	24.9	26.3
경제적 부담	24.1	24.9
학업 성적	17.0	12.9
게임이나 SNS 중독	10.9	10.7
대화 단절	6.7	8.5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	2.2	1.9
친구관계	2.1	1.1
생활습관(음주, 흡연 등)	1.9	1.0
기타	0.5	0.6
없음	9.8	12.2
계	100.0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 자녀를 믿는다’(80.6%),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65.0%),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47.3%)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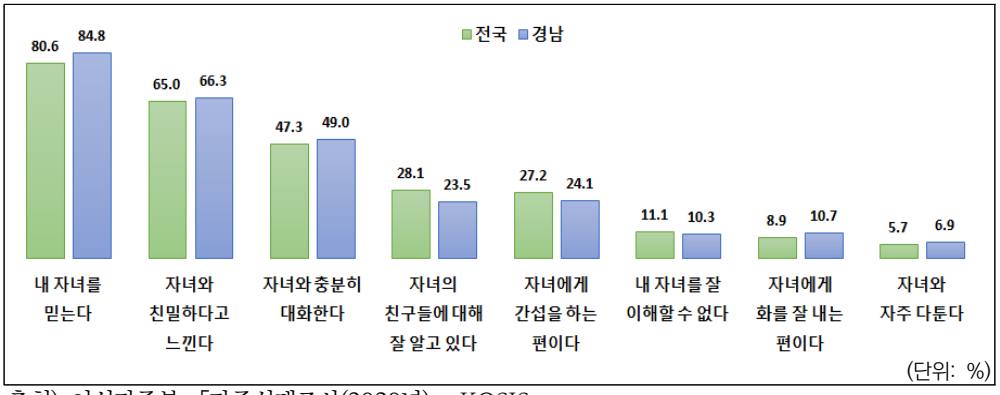
-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동의 정도가 낮은 항목은 ‘자녀와 자주 다툰다’(5.7%)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내 자녀를 믿는다’(84.8%),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66.3%),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49.0%) 순으로 응답이 높고,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와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27〉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내 자녀를 믿는다	3.1	16.3	80.6	4.2	11.0	84.8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5.9	29.0	65.0	6.7	27.0	66.3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10.3	42.4	47.3	10.1	40.8	49.0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6.1	45.8	28.1	26.8	49.6	23.5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29.2	43.6	27.2	31.9	43.9	24.1
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54.8	34.1	11.1	61.1	28.7	10.3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58.1	33.0	8.9	63.6	25.7	10.7
자녀와 자주 다툰다	66.3	28.0	5.7	69.5	23.5	6.9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11]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동의 정도

○ 의사결정 시 청소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녀가 희망 진로(직업)를 결정할 때'(79.3%), '자녀가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77.3%), '가족 일 전반을 결정할 때'(58.1%) 순으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다고 응답함

- 경남의 경우 '자녀가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79.5%), '자녀가 희망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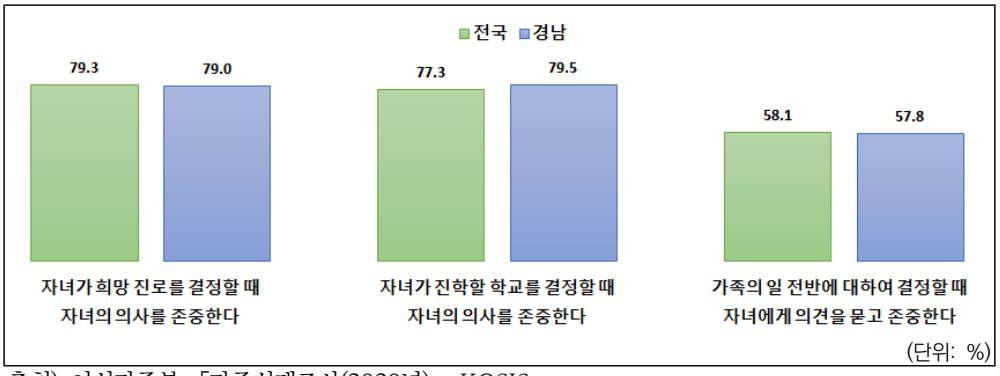
로(직업)를 결정할 때'(79.0%), '가족의 일 전반을 결정할 때'(57.8%) 순으로 청소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응답해 전국 평균과 순위는 다르지만 응답률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Ⅲ-28〉 의사결정 시 청소년 자녀 의사 존중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녀가 희망 진로(직업)을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	1.8	18.8	79.3	1.7	19.4	79.0
자녀가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	2.2	20.4	77.3	3.1	17.5	79.5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결정할 때 자녀에게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	9.3	32.6	58.1	10.4	31.8	57.8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12] 의사결정 시 청소년 자녀 의사 존중 동의 정도

○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만족 67.4%, 보통 26.8%, 불만족 5.7%로 만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 만족 71.6%, 보통 22.9%, 불만족 5.6%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Ⅲ-29〉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5.7	26.8	67.4	5.6	22.9	71.6

주)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산한 값이며, '만족'은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청소년 자녀 입장에서 본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61.2%),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58.3%),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44.6%)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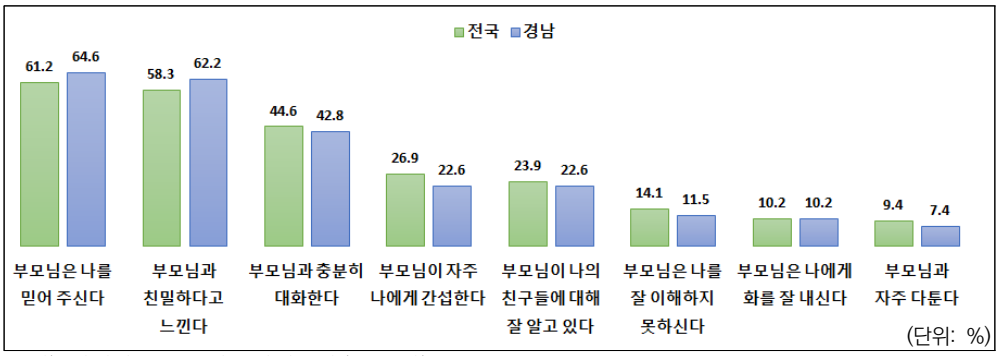
- 경남의 경우도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64.6%),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62.2%),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42.8%)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으며, 특히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와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전국보다 높은 동의 정도를 보임

〈표 Ⅲ-30〉 청소년 자녀의 아버지와의 관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7.3	26.2	61.2	5.4	7.6	23.5	64.6	4.3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9.9	26.4	58.3	5.4	5.5	28.1	62.2	4.3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	17.9	32.1	44.6	5.4	15.2	37.6	42.8	4.3
부모님이 자주 나에게 간섭한다	30.0	37.7	26.9	5.4	35.1	38.0	22.6	4.3
부모님이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2.8	38.0	23.9	5.4	30.4	42.7	22.6	4.3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	47.5	33.1	14.1	5.4	49.5	34.8	11.5	4.3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잘 내신다	56.7	27.8	10.2	5.4	60.6	24.9	10.2	4.3
부모님과 자주 다툰다	56.2	29.2	9.4	5.4	61.8	26.4	7.4	4.3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13] 청소년 자녀의 아버지와의 관계 동의 정도

○ 청소년 자녀 입장에서 본 어머니와의 관계를 보면,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77.0%),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69.6%),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69.2%)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고, 아버지와의 관계와 비교하여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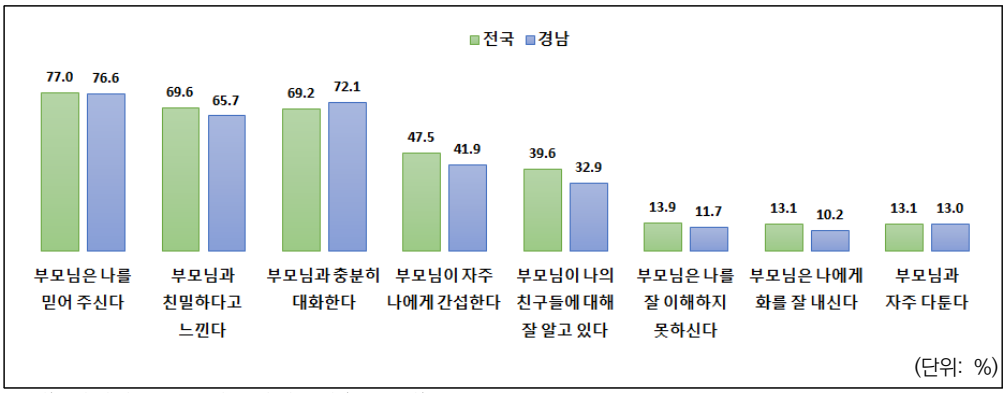
- 경남의 경우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76.6%),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72.1%),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65.7%)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고, 전국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비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Ⅲ-31〉 청소년 자녀의 어머니와의 관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3.5	16.3	77.0	3.2	6.6	15.4	76.6	1.4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	5.5	21.7	69.6	3.2	8.3	24.6	65.7	1.4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4.9	22.7	69.2	3.2	7.2	19.4	72.1	1.4
부모님이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3.8	35.3	47.5	3.2	19.8	36.8	41.9	1.4
부모님이 자주 나에게 간섭한다	22.2	34.9	39.6	3.2	27.8	37.8	32.9	1.4
부모님과 자주 다툰다	52.0	30.9	13.9	3.2	56.7	30.3	11.7	1.4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잘 내신다	54.1	29.6	13.1	3.2	57.5	30.9	10.2	1.4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	52.7	30.9	13.1	3.2	53.6	32.2	13.0	1.4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14] 청소년 자녀의 어머니와의 관계 동의 정도

○ 의사결정 시 아버지가 청소년 자녀인 나의 의사를 존중하는지에 대해서는, ‘희망진로(직업)을 결정할 때’(64.5%),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62.9%), ‘가족의 일 전반을 결정할 때’(46.7%) 청소년 자녀의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경남의 경우 전국과 마찬가지 순서인 ‘희망진로(직업)을 결정할 때’(72.8%),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70.9%), ‘가족의 일 전반을 결정할 때’(59.6%) 순으로 아버지가 청소년 자녀인 나의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고 응답하였고, 동의 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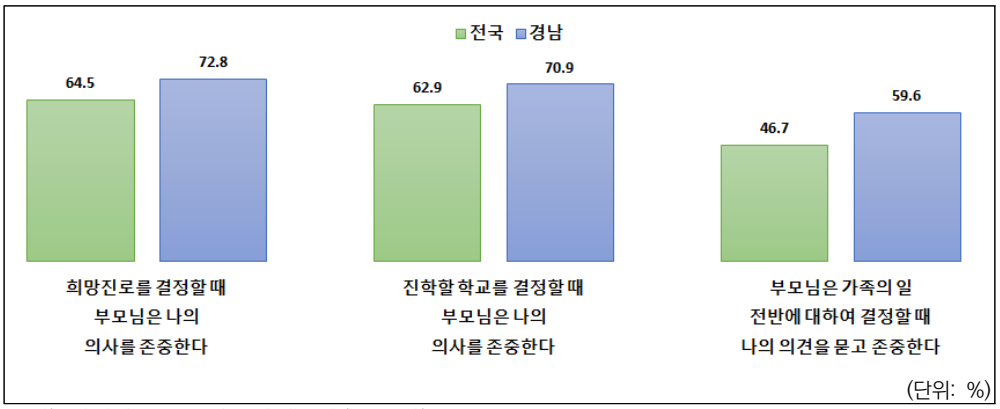
〈표 Ⅲ-32〉 의사결정 시 아버지의 나의 의사 존중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희망진로(직업)을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6.7	23.3	64.5	5.5	4.4	19.6	72.8	3.2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7.5	24.1	62.9	5.5	4.5	21.5	70.9	3.2
부모님은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	17.2	30.6	46.7	5.5	9.3	27.9	59.6	3.2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15] 의사결정 시 아버지의 나의 의사 존중 동의 정도

○ 의사결정 시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인 나의 의사를 존중하는지에 대해서는, ‘희망진로(직업)을 결정할 때’(62.5%),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59.2%), ‘가족의 일 전반을 결정할 때’(43.8%) 청소년 자녀의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보다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에 ‘그렇다’는 응답이 다소 낮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 전국과 마찬가지 순서인 ‘희망진로(직업)을 결정할 때’(69.4%),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64.1%), ‘가족의 일 전반을 결정할 때’(52.0%) 순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는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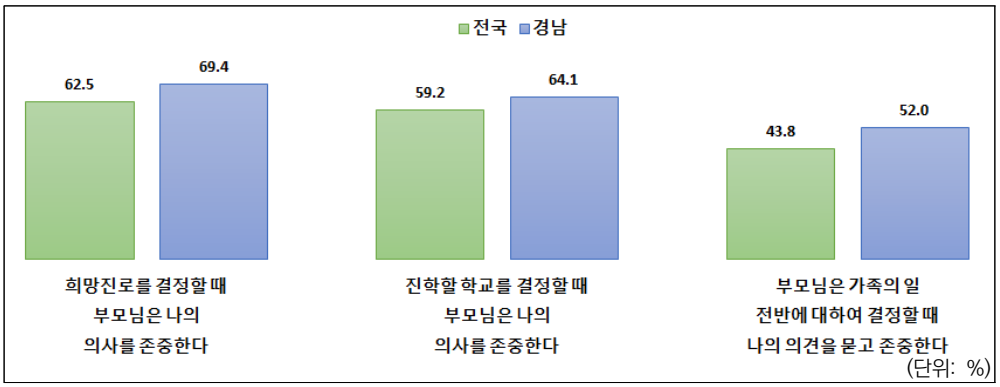
〈표 Ⅲ-33〉 의사결정 시 어머니의 나의 의사 존중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희망진로(직업)을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7.4	25.8	62.5	4.3	6.5	22.7	69.4	1.4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7.6	28.8	59.2	4.3	5.9	28.7	64.1	1.4
부모님은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	17.2	34.7	43.8	4.3	12.1	34.6	52.0	1.4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16] 의사결정 시 어머니의 나의 의사 존중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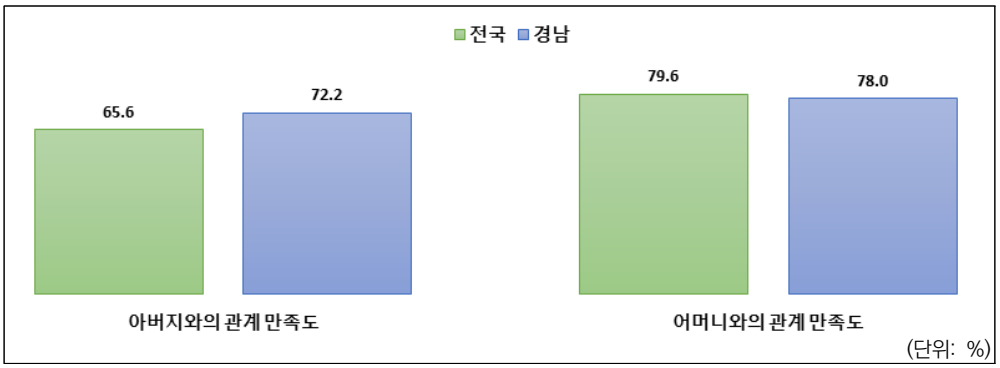
❍ 청소년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는 아버지 65.6%, 어머니 79.6%로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표 Ⅲ-34〉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불만족	보통	만족	해당 없음	불만족	보통	만족	해당 없음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	8.6	20.4	65.6	5.4	7.3	15.1	72.2	5.4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3.5	13.6	79.6	3.2	5.6	15.0	78.0	1.4

주)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산한 값이며, '만족'은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17] 청소년 자녀-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

- 경남의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는 아버지 72.2%, 어머니 78.0%로 어머니와의 만족도가 아버지보다 더 높지만, 어머니와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타남

□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

❍ 부모 입장에서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정서적 지원(59.7%), 생활비, 용돈 등 경제적 도움(24.0%), 가사 등 집안일 도움(24.0%), 손자녀 돌봄 및 병간호 등 가족원 돌봄(15.2%)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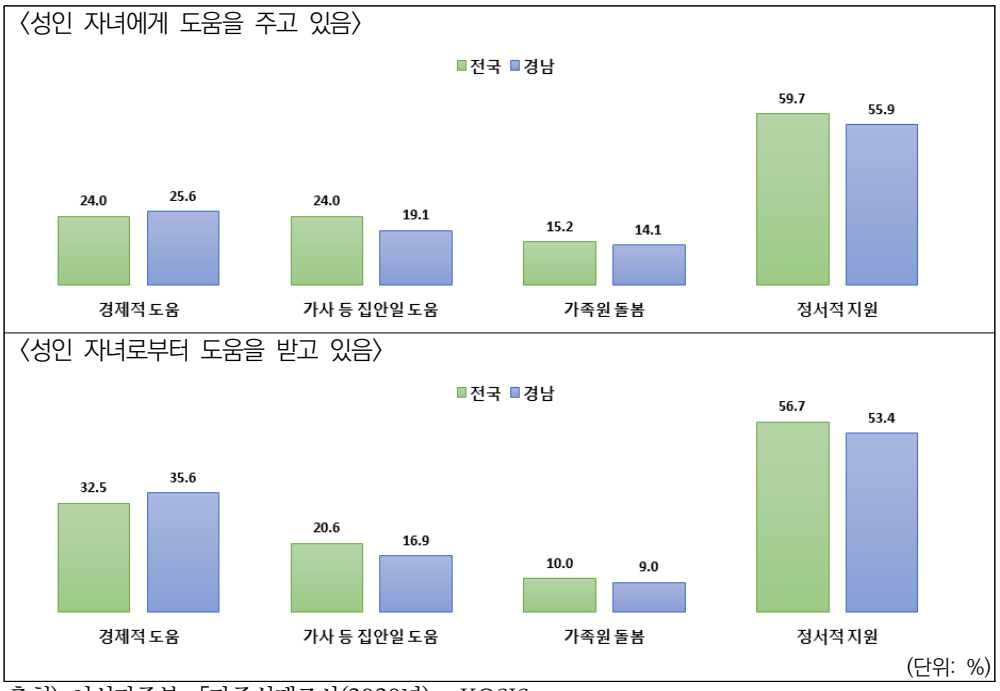
- 또한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정서적 지원(56.7%), 경제적 도움(32.5%), 가사 등 집안일 도움(20.6%), 가족원 돌봄(10.0%)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에도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정서적 지원(55.9%), 경제적 도움(25.6%), 가사 등 집안일 도움(19.1%), 가족원 돌봄(14.1%)의 순이고 전국 평균과 비율도 유사하게 나타남
- 또한 경남에서도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정서적 지원(53.4%), 경제적 도움(35.6%), 가사 등 집안일 도움(16.9%), 가족원 돌봄(9.0%) 순으로 나타남

〈표 Ⅲ-35〉 성인 자녀와의 상호 도움

(단위: %)

구분		성인 자녀에게		성인 자녀로부터		계
		도움을 주고 있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음	도움을 받고 있음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음	
전국	경제적 도움	24.0	76.0	32.5	67.5	100.0
	가사 등 집안일 도움	24.0	76.0	20.6	79.4	100.0
	가족원 돌봄	15.2	84.8	10.0	90.0	100.0
	정서적 지원	59.7	40.3	56.7	43.3	100.0
경남	경제적 도움	25.6	74.4	35.6	64.5	100.0
	가사 등 집안일 도움	19.1	80.9	16.9	83.1	100.0
	가족원 돌봄	14.1	85.9	9.0	91.0	100.0
	정서적 지원	55.9	44.1	53.4	46.6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18] 성인 자녀와의 상호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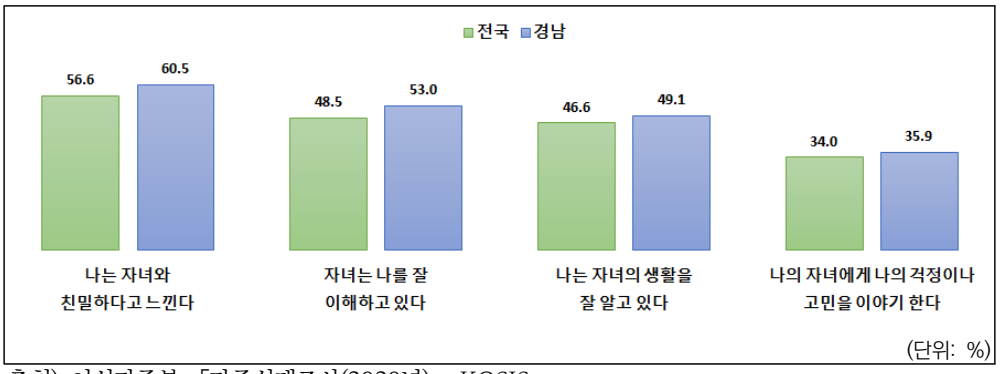
❍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56.6%),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48.5%),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46.6%), '나의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34.0%)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36〉 성인 자녀와의 관계

(단위:%)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8.4	35.1	56.6	6.6	32.9	60.5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11.9	39.6	48.5	9.6	37.5	53.0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14.9	38.5	46.6	12.6	38.3	49.1
나의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33.9	32.1	34.0	29.7	34.5	35.9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19] 성인 자녀와의 관계 동의 정도

- 경남의 경우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60.5%),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53.0%),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49.1%), '나의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35.9%)로 동의 정도가 높고, 모든 문항에서 전국 평균보다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 성인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 입장에서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는 만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한 달에 한두 번'(33.1%), '일 년에 몇 번'(25.8%), '일주일에 한두 번'(16.8%) 순이며, 연락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37.6%), '거의 매일'(22.3%), '한 달에 한두 번'(20.6%) 순으로 나타남

〈표 Ⅲ-37〉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연락 빈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해당 없음
전국	만나는 정도	8.6	16.8	33.1	25.8	3.9	11.8
	연락 정도	22.3	37.6	20.6	4.4	3.4	11.7
경남	만나는 정도	9.4	17.5	33.7	31.7	2.5	5.3
	연락 정도	26.9	42.0	20.6	3.1	2.4	5.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경남의 경우 만나는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33.7%), '일 년에 몇 번'(31.7%), '일주일에 한두 번'(17.5%) 순이며, 연락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42.0%), '거의 매일'(26.9%), '한 달에 한두 번'(20.6%) 순으로

나타나 전국과 비교하여 연락 빈도(만나는 정도, 연락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만족 63.2%, 보통 30.7%, 불만족 6.1%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음

- 경남은 만족 67.1%, 보통 28.0%, 불만족 4.9%로 성인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38〉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성인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6.1	30.7	63.2	4.9	28.0	67.1

주)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산한 값이며, '만족'은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과 만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내 부모님과 연락은 '일 년에 몇 번'(26.9%), 내 부모님과 만남은 '일주일에 한두 번'(28.3%), 배우자 부모님과 연락은 '일 년에 몇 번'(26.0%), 배우자 부모님과 만남은 '한 달에 한두 번'(20.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39〉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빈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해당 없음
전국	나의 부모님과 연락	4.5	11.1	26.8	26.9	2.8	27.8
	나의 부모님과 만남	12.4	28.3	22.5	6.8	2.2	27.8
	배우자 부모님과 연락	1.7	5.6	18.7	26.0	3.2	44.8
	배우자 부모님과 만남	2.8	11.3	20.8	14.6	5.7	44.8
경남	나의 부모님과 연락	4.7	9.3	32.6	20.7	2.8	30.0
	나의 부모님과 만남	10.9	28.2	23.4	5.1	2.5	30.0
	배우자 부모님과 연락	1.4	5.8	23.3	22.5	2.8	44.3
	배우자 부모님과 만남	2.7	14.0	20.7	14.6	3.8	44.3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경남의 경우 내 부모님과 연락은 '한 달에 한두 번'(32.6%), 내 부모님과 만남은 '일주일에 한두 번'(28.2%), 배우자 부모님과의 연락은 '한 달에 한두 번'(23.3%), 배우자 부모님과 만남은 '한 달에 한두 번'(20.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전국과 비교하여 연락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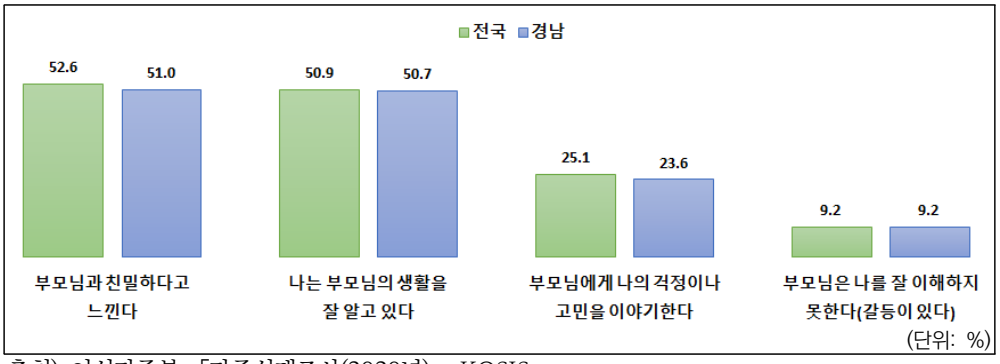
❍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52.6%),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50.9%),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25.1%)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표 Ⅲ-40〉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7.2	30.6	52.6	9.6	7.1	29.9	51.0	12.0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9.0	30.5	50.9	9.6	9.9	27.4	50.7	12.0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	38.0	27.3	25.1	9.6	38.7	25.7	23.6	12.0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갈등이 있다)	50.9	30.2	9.2	9.6	52.5	26.2	9.2	12.0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20]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동의 정도

- 경남의 경우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51.0%),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50.7%),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23.6%) 순으로 전국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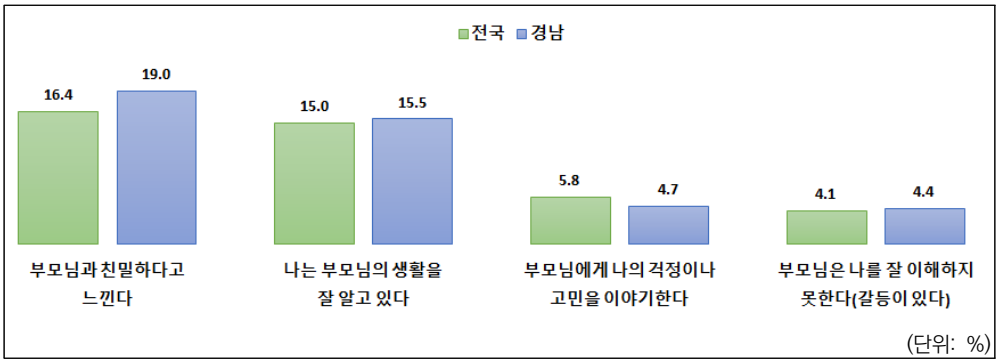
❍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이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16.4%,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15.0%,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 4.1%로 나타나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비해 친밀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41〉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15.9	24.7	16.4	42.9	13.8	26.8	19.0	40.3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13.5	28.6	15.0	42.9	11.8	32.4	15.5	40.3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갈등이 있다)	28.8	22.4	5.8	42.9	31.7	23.4	4.7	40.3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	38.6	14.4	4.1	42.9	40.1	15.2	4.4	40.3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21]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동의 정도

- 경남의 경우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19.0%),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15.5%),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4.4%)로 전국과 마찬가지로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친밀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 자녀 입장에서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정서적 지원(48.1%), 경제적 도움(38.9%), 가사 등 집안일 도움(17.8%), 가족원 돌봄(8.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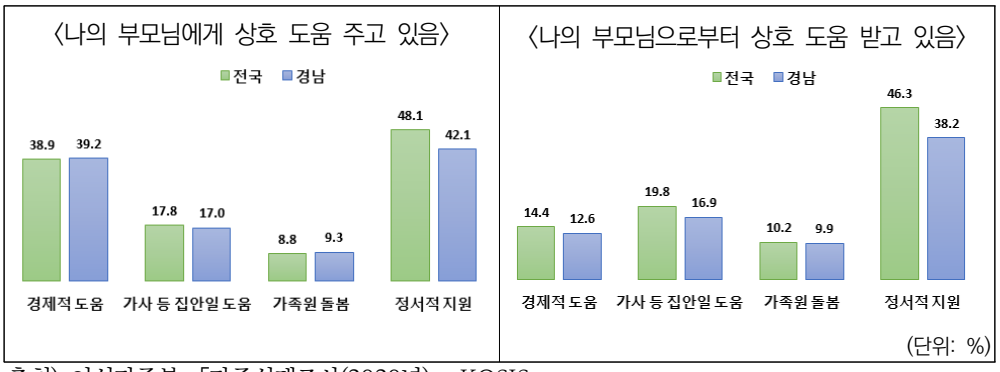
-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정서적 지원(46.3%), 가사 등 집안일 도움(19.8%), 경제적 도움(14.4%), 가족원 돌봄(10.2%)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에도 나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정서적 지원(42.1%), 경제적 도움(39.2%), 가사 등 집안일 도움(17.0%), 가족원 돌봄(9.3%) 순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 나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정서적 지원(38.2%), 집안일 도움(16.9%), 경제적 도움(12.6%), 가족원 돌봄(9.9%) 순으로 나타남

〈표 Ⅲ-42〉 성인 자녀와 나의 부모님의 상호 도움

(단위: %)

구분		주고 있다		받고 있다		해당 없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국	경제적 도움	38.9	51.5	14.4	76.0	9.6
	가사 등 집안일 도움	17.8	72.6	19.8	70.6	9.6
	가족원 돌봄	8.8	81.6	10.2	80.2	9.6
	정서적 지원	48.1	42.2	46.3	44.1	9.6
경남	경제적 도움	39.2	48.8	12.6	75.4	12.0
	가사 등 집안일 도움	17.0	71.0	16.9	71.1	12.0
	가족원 돌봄	9.3	78.7	9.9	78.2	12.0
	정서적 지원	42.1	45.9	38.2	49.8	12.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22] 성인 자녀와 나의 부모님과의 상호 도움 정도

❍ 성인 자녀 입장에서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경제적 도움(22.5%), 정서적 지원(19.7%), 가사 등 집안일 도움(4.9%), 가족원 돌봄(4.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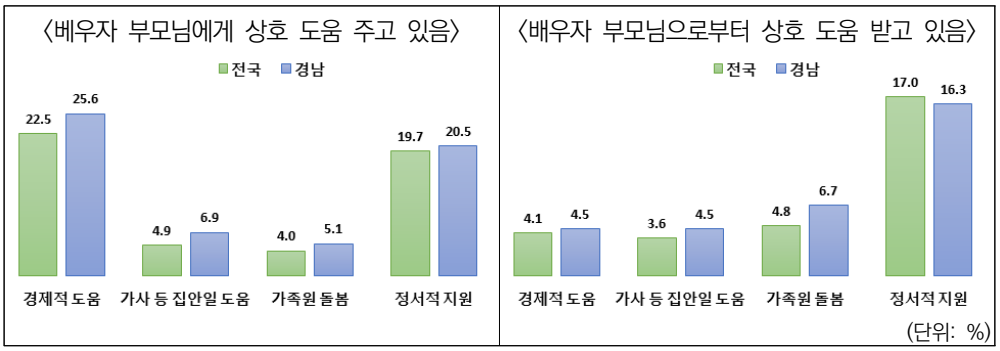
-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정서적 지원(17.0%), 가족원 돌봄(4.8%), 경제적 도움(4.1%), 가사 등 집안일 도움(3.6%) 순으로 나타남

〈표 Ⅲ-43〉 성인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의 상호 도움

(단위: %)

구분		주고 있다		받고 있다		해당 없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국	경제적 도움	22.5	34.6	4.1	53.0	42.9
	가사 등 집안일 도움	4.9	52.2	3.6	53.5	42.9
	가족원 돌봄	4.0	53.1	4.8	52.3	42.9
	정서적 지원	19.7	37.4	17.0	40.1	42.9
경남	경제적 도움	25.6	34.0	4.5	55.2	40.3
	가사 등 집안일 도움	6.9	52.7	4.5	55.2	40.3
	가족원 돌봄	5.1	54.6	6.7	53.0	40.3
	정서적 지원	20.5	39.2	16.3	43.3	40.3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23] 성인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과 상호 도움 정도

- 경남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경제적 도움(25.6%), 정서적 지원(20.5%), 가사 등 집안일 도움(6.9%), 가족원 돌봄(5.1%) 순으로, 배우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정서적 지원(16.3%), 가족원 돌봄(6.7%), 경제적 도움과 집안일 도움(각 4.5%) 순으로 나타나 전국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임
- 나의 부모님에게는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나의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모두 '부모님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부모와 자녀들 공동 부담', '자녀들 전적으로 부담'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경남도 '부모님 스스로 해결', '부모와 자녀들 공동 부담', '자녀들 전적으로 부담' 순으로 나타남

〈표 Ⅲ-44〉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구분		자녀들 전적 부담	부모와 자녀들 공동부담	부모님 스스로 해결	기타	살아 계시지 않는다
전국	나의 부모님	9.1	19.5	61.4	0.4	9.6
	배우자 부모님	6.2	12.5	38.2	0.2	42.9
경남	나의 부모님	9.3	19.9	58.4	0.5	12.0
	배우자 부모님	6.9	13.5	38.9	0.3	40.3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나의 어머니(60.2%), 나의 아버지(35.4%), 배우자 어머지(27.6%), 배우자 아버지(18.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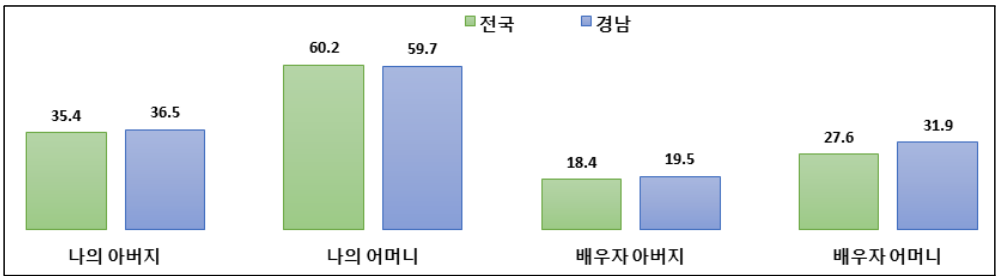
- 경남의 경우도 나의 어머니(59.7%), 나의 아버지(36.5%), 배우자 어머니(31.9%), 배우자 아버지(19.5%) 순으로 전국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남

〈표 Ⅲ-45〉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불만족	보통	만족	해당 없음	불만족	보통	만족	해당 없음
나의 아버지	6.3	19.2	35.4	39.1	4.7	14.0	36.5	44.9
나의 어머니	3.7	21.8	60.2	14.2	4.1	21.5	59.7	14.8
배우자 아버지	2.2	15.7	18.4	63.7	2.2	13.9	19.5	64.4
배우자 어머니	3.6	23.0	27.6	45.8	3.0	22.9	31.9	42.2

주)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산한 값이며, '만족'은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24]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4) 일·가족 및 노후 준비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직장 일 때문에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11.7%),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11.5%), '직장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7.1%) 등의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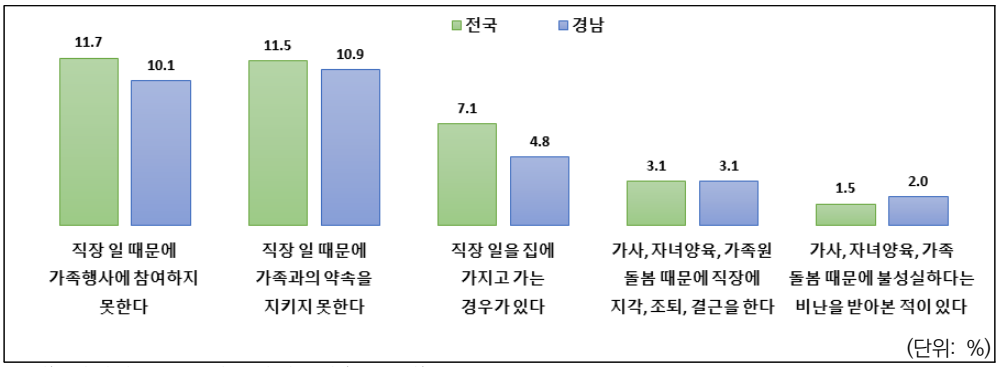
- 경남의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동의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남

〈표 Ⅲ-46〉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직장 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65.1	23.3	11.7	66.4	23.6	10.1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63.6	24.8	11.5	66.0	23.0	10.9
직장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76.7	16.2	7.1	81.9	13.4	4.8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다	84.4	12.5	3.1	85.8	11.2	3.1
가사, 자녀양육, 가족 돌봄 때문에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	89.9	8.6	1.5	91.0	7.1	2.0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25]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가사노동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청소 및 정리'(74.4%), '음식 준비'(63.2%), '의류 손질 및 세탁'(62.7%) 등의 순으로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에도 각 항목별 가사노동 여부는 비슷한 분포로 나타남

〈표 Ⅲ-47〉 가사노동 참여 여부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	하지 않는다
청소 및 정리	74.4	25.6	73.9	26.1
음식 준비	63.2	36.8	63.6	36.4
의류 손질 및 세탁	62.7	37.3	62.3	37.7
상품 및 서비스 구입	61.6	38.4	60.0	40.0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46.4	53.6	48.7	51.3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 가사노동 참여 여부는 성별 차이가 많은 문항으로 전국 기준으로 음식 준비는 여성의 83.8%, 남성의 42.6%가 한다고 응답했고, 의류 손질 및 세탁은 여성의 83.5%, 남성의 42.0%가 한다고 응답함. 청소 및 정리는 여성 87.6%, 남성 61.2%가 한다고 응답했고,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은 여성 75.8%, 남성 47.4%,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는 여성의 57.2%, 남성의 35.5%가 한다고 응답해 모든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높게 나타남
- ❍ 가족 여가활동으로는 평일(77.1%)과 휴일(49.8%) 모두 TV·비디오 시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평일에는 산책(5.8%), 외식(4.8%), 게임(3.4%) 순으로, 휴일에는 외식(14.6%), 산책(8.2%), 종교생활(5.3%) 순으로 높게 나타나 평일과 휴일의 가족 여가활동이 다르게 나타남

〈표 Ⅲ-48〉 가족 여가활동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구분	전국		경남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TV·비디오 시청	77.1	49.8	77.3	44.5	스포츠 경기 관람	0.3	0.6	0.8	0.8
산책	5.8	8.2	5.7	10.5	목욕 사우나	0.3	1.2	0.4	2.4
외식	4.8	14.6	3.9	13.3	주말농장	0.3	0.9	0.4	1.4
게임	3.4	3.6	3.9	3.6	여행	0.2	3.5	0.2	3.5
스포츠 활동	1.5	3.5	2.5	6.5	놀이공원 가기	0.1	0.4	-	0.4
쇼핑	1.2	4.4	0.7	5.2	자원봉사 활동	0.1	0.1	-	0.1
종교생활	0.7	5.3	0.3	4.1	기타	3.5	1.8	3.6	1.9
문화예술 관람	0.6	2.1	0.4	1.9	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경남의 경우에도 평일(77.3%)과 휴일(44.5%) 모두 TV·비디오 시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평일에는 산책(5.7%), 외식, 게임(각 3.9%) 순으로 전국과 동일하지만, 휴일에는 외식(13.3%), 산책(10.5%), 스포츠 활동(6.5%) 순으로 전국과 차이가 나타남

○ 최근 6개월 동안 가족 여가시간은 평일엔 '1-2시간 미만'(26.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휴일에는 '3시간 이상'(41.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에도 평일엔 '1-2시간 미만'(29.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휴일엔 '3시간 이상'(43.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49〉 최근 6개월 가족 여가시간

(단위: %)

구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
전국	평일	19.3	20.5	26.2	13.1	20.8	100.0
	휴일	9.6	10.3	19.8	18.4	41.9	100.0
경남	평일	15.4	20.8	29.1	13.6	21.2	100.0
	휴일	6.6	6.7	22.1	21.0	43.7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61.9%이고, 경남의 경우 전국보다 다소 높은 66.5%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표 Ⅲ-50〉 가족 여가시간 충분 여부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충분	불충분	충분	불충분
여가시간	61.9	38.1	66.5	33.5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이 함께할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66.2%로 매우 높고, 다음으로 '가족이 함께하려면 비용이 들어서(11.5%)', '가족이 함께할 만한 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10.5%)'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에도 ‘가족이 함께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가 6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이 함께하려면 비용이 들어서’가 13.5%로 전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Ⅲ-51〉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가족이 함께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66.2	63.9
가족이 함께하려면 비용이 들어서	11.5	13.5
가족이 함께할 만한 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10.5	9.0
가족이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3.5	4.2
돌봐야 하는 환자, 노인, 장애인, 어린자녀 등이 있어서	2.5	2.7
기타	5.8	6.6
계	100.0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만 25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생애 설계 준비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은퇴/노후 설계’(16.6%), ‘재무 설계’(16.5%), ‘여가 설계’(16.3%) 순으로 응답이 높지만 전반적으로 준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52〉 생애 설계 준비 정도

(단위: 점)

구분	전국				경남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당 없음
은퇴/노후 설계	47.2	36.2	16.6	-	52.4	33.7	13.9	-
재무 설계	43.8	39.7	16.5	-	49.9	36.7	13.3	-
여가 설계	41.0	42.6	16.3	-	46.9	39.9	13.3	-
직업 계획과 준비	12.3	23.5	14.9	49.2	17.9	21.2	13.3	47.7
자녀계획	36.0	27.1	13.8	23.1	39.3	19.1	18.1	23.7
결혼 계획과 준비	13.2	6.0	2.5	78.4	12.1	3.7	1.7	82.6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경남은 전국과 달리 '자녀계획'(18.1%)에 대한 준비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하지만 '은퇴/노후 설계'(13.9%), '재무 설계'와 '여가 설계'(각 13.3%)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에 지낼 곳에 대해서는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라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나 혼자'(15.9%),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 시설을 이용'(8.1%)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라는 응답이 70.4%로 전국보다 높고, 다음으로 '나 혼자'(16.7%), '자녀와 함께(5.5%)' 순으로 나타남
-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4.7%로 전국보다 낮아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인식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53〉 노후에 지낼 곳 및 같이 지낼 사람

(단위: %)

구분	집에서							실버타운 등 서비스형 주택, 노인복지시설 등	계
		배우자와 함께	나 혼자	자녀와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친구와 함께	기타		
전국	91.9	67.4	15.9	4.7	2.2	1.0	0.7	8.1	100.0
경남	95.3	70.4	16.7	5.5	1.2	0.7	0.8	4.7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응답이 73.5%이고, 노후 준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53.1%), 예금·적금(34.8%), 개인연금(26.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경남의 경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72.3%로 전국보다 다소 낮고, 노후 준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국민연금(51.6%), 예금·적금(30.5%), 개인연금(26.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54〉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및 내용(복수응답)

(단위: %)

구분	하고 있음								안 하고 있음
	국민연금	예금, 적금	개인연금	퇴직금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공무원 연금	기타	
전국	53.1	34.8	26.8	11.5	9.3	6.8	6.3	0.6	26.5
경남	51.6	30.5	26.3	10.0	7.2	4.2	5.6	1.2	27.7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5) 가족원 돌봄

❍ 영유아의 주 돌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기관 이용 외 시간, 기관 미이용, 긴급돌봄 조력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기관 이용 외 시간과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주 돌봄자는 아이 어머니(각 76.2%, 87.4%)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긴급돌봄 조력자에 대해서는 아이 아버지(32.1%), 아이 외조부모(23.4%), 아이 어머니(22.2%)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에도 기관 이용 외 시간과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주 돌봄자는 아이 어머니(각 83.6%, 100.0%)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주 돌봄자는 아이 어머니라는 응답이 100.0%로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육아 책임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으로 나타남
- 경남의 긴급돌봄 조력자는 아이 외조부모(28.8%), 아이 아버지(23.2%), 아이 어머니(18.3%) 순으로 전국과 순위는 동일하지만,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다는 응답(10.5%)이 전국(4.2%)보다 높게 나타나 돌봄의 주 책임자인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55〉 영유아 주 돌봄자

(단위: 점)

구분	전국			경남		
	기관 이용 외 시간	기관 미이용 영유아	긴급돌봄 조력자	기관 이용 외 시간	기관 미이용 영유아	긴급돌봄 조력자
아이 어머니	76.2	87.4	22.2	83.6	100.0	18.3
아이 아버지	3.7	2.2	32.1	3.4	-	23.2
아이 외조부모	9.5	4.2	23.4	5.1	-	28.8
아이 친조부모	5.7	4.9	11.7	3.4	-	8.9
아이돌보미	1.2	-	1.8	-	-	-
가사도우미	1.1	-	-	-	-	-
베이비시터	0.9	-	0.4	-	-	-
친인척	0.6	-	3.0	1.4	-	7.8
이웃		-	0.9		-	1.4
기타	0.6	-	0.4	1.7	-	1.1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0.6	1.3	4.2	1.4	-	1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주로 보호자가 있는 집에서 지낸다는 응답(42.1%)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원(37.7%),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는 집에서 지낸다(8.3%)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는 학원(42.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국과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 보호자가 있는 집에서 지내거나(32.7%),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는 집에서 지낸다는 응답(12.9%) 순으로 나타남

〈표 Ⅲ-56〉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주로 시간 보내는 곳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집에서 지냄(주로 보호자 있음)	42.1	32.7
학원	37.7	42.8
집에서 지냄(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형제자매끼리 있음)	8.3	12.9
초등 돌봄교실	6.4	6.9
지역 아동센터	2.8	3.5
방과후 아카데미	2.2	1.2
기타	0.5	-
계	100.0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없음'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시간 이상-2시간 미만'(12.3%). '3시간 이상'(12.1%), '30분 미만'(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57〉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없음	48.5	51.2
30분 미만	10.8	12.4
30분 이상-1시간	8.1	7.4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2.3	8.2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8.1	8.2
3시간 이상	12.1	12.6
계	100.0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경남의 경우 '없음'이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3시간 이상'(12.6%), '30분 미만'(12.4%) 순으로 나타남

6) 정책에 대한 인식

❍ 2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족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조금 알고 있음'+'잘 알고 있음')를 조사한 결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5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45.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44.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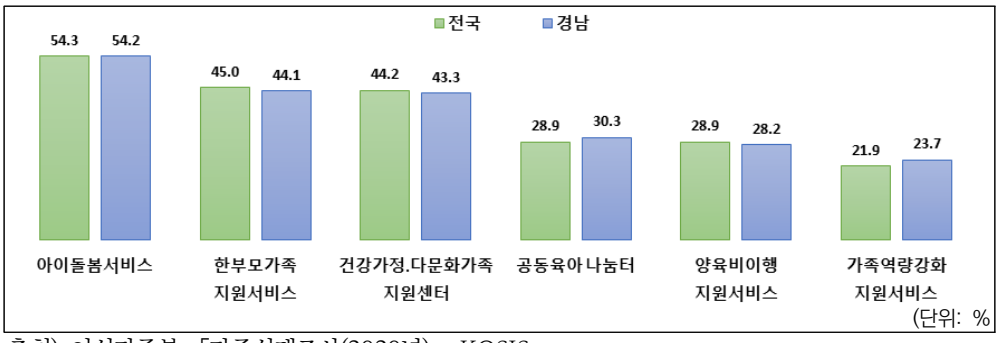
- 경남도 아이돌봄서비스(54.2%),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44.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43.3%) 순으로 가족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표 Ⅲ-58〉 가족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전혀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전혀 모름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아이돌봄서비스	45.7	44.5	9.8	45.8	43.5	10.7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55.0	37.9	7.1	55.9	36.4	7.7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5.8	37.3	6.9	56.8	35.7	7.6
공동육아 나눔터	71.1	24.6	4.3	69.6	24.4	5.9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	71.1	24.6	4.3	71.8	22.7	5.5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	78.1	18.8	3.1	76.3	19.0	4.7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26] 가족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 지역사회 가족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 중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노인 돌봄 지원(23.3%),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14.3%),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방법 교육·상담 지원(9.9%), 1인가구 생계주기별 지원(8.8%)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에도 노인 돌봄 지원(21.0%),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14.7%)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전국과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10.9%),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9.3%)과 같은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Ⅲ-59〉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내용(1순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노인 돌봄 지원	23.3	21.0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14.3	14.7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방법 교육·상담 지원	9.9	8.6
1인가구 생계주기별 지원	8.8	7.9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8.4	10.9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8.3	9.3
가족상담	6.1	6.6
노인을 위한 공간 제공	5.5	4.7
자녀 학습 공간 제공	3.3	4.1
이웃간 소통 공간 제공	3.0	2.6
맞벌이 가정 직장 고충 상담	2.8	3.4
가족간 세대간 관계 개선 지원	2.4	2.7
청소년 놀이 공간 제공	2.0	1.6
평등한 육아 가사 지원 프로그램	1.3	1.5
이웃간 육아 품앗이 공간 제공	0.5	0.5
계	100.0	100.0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산한 값이며,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일·가정 조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17.3%)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15.7%), '초과 근로시간 단축'(11.0%)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도 일·가정 조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17.0%),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 근무제 확산'(13.2%)이라는 응답이 높고,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 확산'(12.8%), '초과 근로시간 단축'(10.7%) 순으로 나타남

〈표 Ⅲ-60〉 일·가정 조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	17.3	17.0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 근무제 확산	15.7	13.2
초과 근로시간 단축	11.0	10.7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 확산	10.8	12.8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 지원	9.1	8.4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8.5	8.5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	6.4	5.1
기타	0.7	0.5
잘 모르겠음	20.4	23.9
계	100.0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노인 1인가구'(40.7%)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13.8%), '한부모 가족'(11.0%), '조손 가족'(10.2%)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도 응답이 높은 순서는 전국과 동일하나, '노인 1인가구'라는 응답(36.5%)은 전국보다 낮고,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응답(18.5%)은 전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61〉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족형태에 대한 의견(1순위)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노인 1인가구	40.7	36.5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	13.8	18.5
한부모 가족	11.0	11.4
조손 가족	10.2	10.3
맞벌이 가족	8.2	8.6
조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	5.1	4.6
미혼 남녀 1인가구	3.5	2.8
외벌이 가족	2.9	2.9
다문화 가족	1.8	2.0
무자녀 부부 가족	1.2	1.5
입양 가족	0.6	0.2
공동체 가족	0.5	0.6
남녀 동거 가족	0.3	0.0
재혼 가족	0.2	0.3
계	100.0	100.0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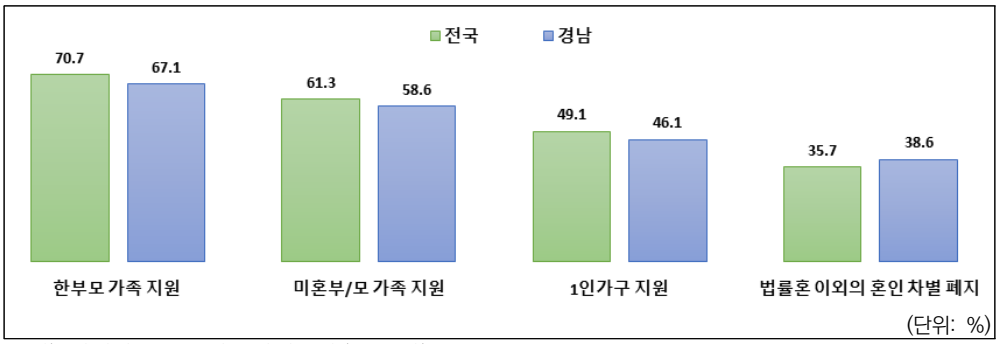
❍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70.7%)이고, 다음으로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61.3%), '1인가구에 대한 지원'(49.1%),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35.7%) 순으로 나타남

〈표 Ⅲ-6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추진 동의 여부

(단위: %)

구분	전국			경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3.5	25.8	70.7	4.0	28.9	67.1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7.4	31.4	61.3	6.9	34.5	58.6
1인가구에 대한 지원	16.3	34.6	49.1	18.9	35.0	46.1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25.0	39.3	35.7	22.0	39.4	38.6

주) '동의 안함'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를 합산한 값이며, '동의함'은 '매우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의한다'를 합산한 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20년)」, KOSIS.

[그림 Ⅲ-27]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추진 동의 정도

- 경남의 경우에도 전국과 동의 정도가 높은 순서는 동일하나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를 제외한 다른 정책에 관한 동의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3. 소결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가족의 범위에 대해 경남은 전국에 비해 혈연관계 위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는 가족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낮게 나타남

○ 가족 가치관과 관련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특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남

○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거나,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거나, 가부장적 가족 호칭을 개선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경남은 전국에 비해 동의 수준이 모두 낮게 나타나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이 전국 평균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 부모 책임에 대해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

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전국보다 더 높아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형성과 변화

○ 경남은 유배우자 중에 혼인신고를 한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 중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응답은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남의 경우 동거의 어려움에 대해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 지원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가족관계

○ 배우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와의 평균 대화시간이 더 길고, 의사소통 만족도와 자녀돌봄 분담 만족도가 더 높고, 배우자와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부간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전국과 동일하게 '가사 등 집안일', '생활비 지출', '자녀 교육'은 아내가 결정하고, '투자 및 자산관리', '취업, 직장 이동'은 남편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고, 대부분의 가사일은 아내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 1순위는 '경제적 문제'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모 입장에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는 전국보다 상당히 높고,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관계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모 입장에서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주로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다는 응답이 높고, 연락 빈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로 사는 부모와의 관계를 나의 부모와 배우자 부모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나의 부모와는 주로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지만, 배우자 부모와는 주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고, 나의 부모와 비교하여 배우자 부모와는 친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 자녀 입장에서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배우자 어머니, 배우자 아버지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경남은 큰 차이가 없음

□ 일·가족 및 노후 준비

○ 경남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묻는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남

○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경남은 전국과 비교하여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생애 설계 관련하여 은퇴/노후 설계, 재무 설계, 여가 설계 모두 전국보다 준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노후에 지낼 곳에 대해서는 경남의 경우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라는 응답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노후를 집에서 보내야겠다는 인식이 전국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원 돌봄

○ 영유아의 주 돌봄자에 대해 어머니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주 돌봄자는 아이 어머니라는 응답이 100.0%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육아 책임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긴급돌봄 조력자는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순으로 전국과 순위는 동일하지만,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다는 응답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는 전국적으로는 보호자가 있는 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경남은 학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국과 차이가 있음

□ 정책에 대한 인식

○ 2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족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경남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가족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해, 경남의 경우 노인 돌봄 지원,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응답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노인 1인가구,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순으로 나타남. 경남의 경우 응답이 높은 순위는 전국과 동일하나 노인 1인가구라는 응답은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응답은 전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Ⅳ

경남 가족실태조사 분석

GNWFF

Ⅳ. 경남 가족실태조사 분석

❍ 이 부분에서는 경상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남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경남도민들의 가족 가치관, 가족관계와 가족생활, 일과 돌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개요

❍ 조사 기간 : 2021년 5월 20일~6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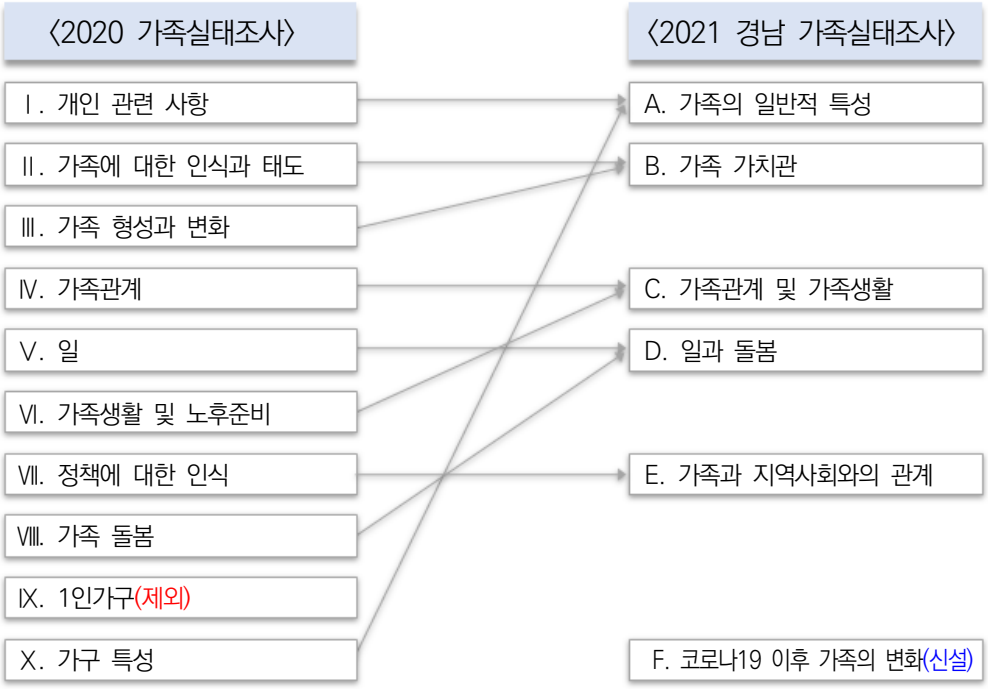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면접조사

❍ 조사 대상

- 본 조사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20~79세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별(여성, 남성), 연령별(20·30대, 40·50대, 60·70대), 가족 유형(1인가구, 1세대 가족, 2세대 가족, 3세대 가족, 비친족 가족), 거주지역(시 지역, 군 지역)에 따라 비례할당을 두어 조사함
- 할당 비율은 기초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반영하였으며, 거주지역의 경우 한 지역당 최소 인원이 30명이 되도록 비율을 조정함

❍ 설문지 문항 구성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임. 첫째, 여성가족부의 〈2020 가족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은 문항으로 구성함

- 지금까지 지역 현황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이전 조사와 달리 〈2020 가족실태조사〉부터는 광역 단위의 지역별 현황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를 시행함
- 여성가족부의 〈2020 가족실태조사〉와 〈2021 경남 가족실태조사〉의 설문지 구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2020 가족실태조사〉의 ‘Ⅸ. 1인가구’와 관련한 문항은 제외하고 ‘F.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문항은 신설하여 분석함
- 1인가구와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서 2021년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발간하였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그림 Ⅳ-1] 설문지 문항 구조 비교

❍ 둘째, 경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항을 추가함

- 먼저 부모 돌봄 관련 문항을 추가함. 〈2020 가족실태조사〉에서는 돌봄이 "취학 전 영유아 돌봄, 초등학생 돌봄, 함께 사는 가족 돌봄"으로 분류돼 있어서 돌봄 전반에 관한 질문과 함께 부모 돌봄(부양)에 관한 상세문항을 추가함
- 또한 지역사회 만족도 및 지역사회 관계망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웃, 공동체, 지역사회가 넓은 의미의 가족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문항을 추가함
- 농업인구가 많은 경남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가족의사결정 과정 질문에 "농업 작목 결정", "농업 수확물 판매" 등에 관한 문항을 추가함

❍ 셋째,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문항을 신설함

-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변화, 가족 구성원 간 갈등 경험 여부, 돌봄 제도 이용 여부 및 코로나19 이후 가족정책"에 관한 문항을 추가함

❍ 조사 내용

- 2021년 경상남도가족실태조사의 조사영역은 응답자 특성, 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족 가치관,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일과 돌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7개 영역이며, 영역별 내용은 〈표 Ⅳ-1〉과 같음

〈표 Ⅳ-1〉 2021년 경상남도 가족실태조사 조사영역 및 내용

영역	질문 내용	
A.응답자 특성	◦ 거주 지역 ◦ 성별	◦ 연령 ◦ 가족 유형
B.가구의 일반적 특성	◦ 가구원 특성 ◦ 가구소득의 구성 ◦ 가구지출	◦ 가족의 형태 ◦ 가구소득 ◦ 경제적 수준
C.가족 가치관	◦ 부부간 역할 가치관 ◦ 이성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	◦ 가족 관련 제도에 대한 생각
D.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 가족 내 성평등 정도 ◦ 소통이 잘 되는 가족 구성원 ◦ 가족 간 의사소통 만족도 ◦ 가족 간 의사소통 장애 요인 ◦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	◦ 가족 내 성차별 유형 ◦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족 구성원 ◦ 가족 간 의사소통 중요도 ◦ 가족 간 갈등
E.일과 돌봄	◦ 일·생활 균형 정도 ◦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 ◦ 돌봄 비용 부담 ◦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 일·생활 균형 항목별 경험 정도 ◦ 돌봄의 주체 ◦ 부모 부양의 책임자
F.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 현재 거주지 거주기간 ◦ 향후 5년 내 이주 계획 ◦ 이웃과 왕래 ◦ 원활한 일상생활 위해 필요한 이웃의 도움 ◦ 이웃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 경상남도 가족정책 및 기관 실태	◦ 현재 거주지 이주시기 ◦ 현재 거주지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
G.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관계에서 힘들었던 점 ◦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와 관계 변화 ◦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녀와 관계 변화 ◦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제도 이용 여부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대응 위해 필요한 가족정책	

❍ 설문조사 절차 및 방법

-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면접원 선발, 면접원 훈련, 면접원 통제,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진행함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원은 조사 시작 전 체온 측정과 함께 코로나 자가 키트를 이용해 자가검사를 완료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진행 중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을 철저히 함
- 설문조사는 대면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일 단위로 회수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족유형별 현황을 바로 입력하여 할당된 표본수를 충족하면 다른 조사대상자를 찾아서 채우는 식으로 1,50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실사를 통하여 수집된 1차 자료(Raw Data)는 에디팅(Editing), 코딩(Coding), 펀칭(Punching),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전산 프로그램(SPSS, EXCEL 등)을 사용하여 처리함
-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 교차분석(Cross tabulation-analysis), 척도분석(Scale-analysis),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등의 방법을 활용함

면접원 선발	본 조사와 유사한 조사 경험이 많은 통계조사원 중 가장 적합한 적격자 선정
⇩	
면접원 훈련	조사 실시 전, 선정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면접원에 의한 비표본오차 (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시키고 조사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도모함
⇩	
면접원 통제	조사 완료된 설문지를 1일 단위로 회수·검토하여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함
⇩	
검 증	조사 완료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잘못 기재되거나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답변형식의 경우 해당 설문지를 무효화하고 동일 표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함

[그림 Ⅳ-2] 실사설계 모형도

2) 응답자 인적 사항

❍ 전체 조사인원 1,500명 중 여성 751명(50.1%), 남성 749명(49.9%)에 대해 조사를 시행함

- 각 지역별 조사 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시 지역 73.3%, 군 지역 26.7%의 분포를 보이며, 거주지역 중에서 창원시가 24.0%로 가장 많고, 김해시 12.0%, 양산시 8.7%, 진주시 8.0% 순으로 나타남

〈표 Ⅳ-2〉 응답자 지역별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상남도	**751**	**100.0**	**749**	**100.0**	**1,500**	**100.0**
시 지역	**549**	**73.1**	**551**	**73.6**	**1,100**	**73.3**
창원시	180	24.0	180	24.0	360	24.0
진주시	59	7.9	61	8.1	120	8.0
통영시	35	4.7	35	4.7	70	4.7
사천시	35	4.7	35	4.7	70	4.7
김해시	89	11.9	91	12.1	180	12.0
밀양시	35	4.7	35	4.7	70	4.7
거제시	50	6.7	50	6.7	100	6.7
양산시	66	8.8	64	8.5	130	8.7
군 지역	**202**	**26.9**	**198**	**26.4**	**400**	**26.7**
의령군	15	2.0	15	2.0	30	2.0
함안군	25	3.3	25	3.3	50	3.3
창녕군	25	3.3	25	3.3	50	3.3
고성군	20	2.7	20	2.7	40	2.7
남해군	21	2.8	19	2.5	40	2.7
하동군	20	2.7	20	2.7	40	2.7
산청군	15	2.0	15	2.0	30	2.0
함양군	15	2.0	15	2.0	30	2.0
거창군	25	3.3	25	3.3	50	3.3
합천군	21	2.8	19	2.5	40	2.7

❍ 응답자의 인적 사항 특징을 살펴보면 〈표 Ⅳ-3〉과 같음

-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만 49.8세이며, 40대가 20.0%로 가장 많고, 50대 19.9%, 20대 15.1%, 30대, 70대 각각 15.0%, 60대 14.9%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이 41.9%로 가장 많고, 고졸 37.9%, 중졸 이하 17.7%, 대학원졸 이상 2.4%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기혼이 54.3%로 가장 많고, 미혼(비혼) 23.1%, 사별 11.5%, 이혼 8.3%, 별거 2.8% 순으로 나타남

〈표 Ⅳ-3〉 응답자 인적 사항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751	100.0	749	100.0	1,500	100.0
연령	20대	114	15.2	113	15.1	227	15.1
	30대	112	14.9	113	15.1	225	15.0
	40대	150	20.0	150	20.0	300	20.0
	50대	149	19.8	150	20.0	299	19.9
	60대	114	15.2	110	14.7	224	14.9
	70대	112	15.0	113	15.0	225	15.0
학력	중졸 이하	160	21.3	106	14.2	266	17.7
	고졸	292	38.9	277	37.0	569	37.9
	대졸	283	37.7	346	46.2	629	41.9
	대학원졸 이상	16	2.1	20	2.7	36	2.4
혼인 상태	기혼	398	53.0	417	55.7	815	54.3
	사별	104	13.8	68	9.1	172	11.5
	이혼	67	8.9	57	7.6	124	8.3
	별거	14	1.9	28	3.7	42	2.8
	미혼(비혼)	168	22.4	179	23.9	347	23.1
취업 상태	취업	515	68.6	620	82.8	1,135	75.7
	실업	14	1.9	21	2.8	35	2.3
	비경제활동	222	29.6	108	14.4	330	22.0
직업	서비스·판매직(자영업자 포함)	188	25.0	132	17.6	320	21.3
	사무직	133	17.7	145	19.4	278	18.5
	주부	184	24.5	-	-	184	12.3
	농(어)민	69	9.2	98	13.1	167	11.1
	생산직	25	3.3	118	15.8	143	9.5
	관리·전문직	50	6.7	81	10.8	131	8.7
	단순노무직	46	6.1	39	5.2	85	5.7
	학생	24	3.2	35	4.7	59	3.9
	기타	4	0.5	7	0.9	11	0.7
	무응답	28	3.8	94	12.5	122	8.3

주) 혼인상태에 대해 사실혼(동거)라고 응답한 2명은 기혼에 포함함

- 응답자의 취업상태는 취업 중이라는 응답이 75.7%로 가장 많고, 비경제활동(현재 무직이며 1개월 이상 일을 구하고 있지 않음) 22.0%, 실업(현재 무직이지만 일을 구하고 있음) 2.3%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직업은 서비스·판매직(자영업자 포함)이 21.3%로 가장 많고, 사무직 18.5%, 주부 12.3%, 농(어)민 11.1% 순으로 나타남

3) 응답자 가구의 특성

(1) 가족 유형 및 가족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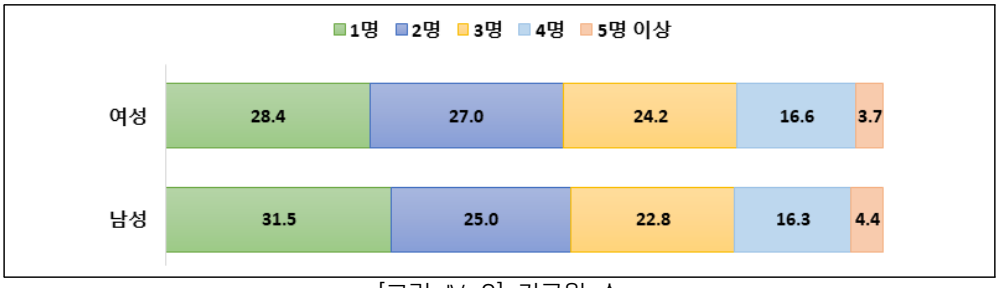
□ 가구원 수

○ 가구원 수는 평균 2.39명이며, 1인가구가 29.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명(26.0%), 3명(23.5%), 4명(16.5%), 5명 이상(4.1%) 순으로 나타남
- 가구원 수가 1명인 1인가구 비율은 남성(31.5%)이 여성(28.4%)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Ⅳ-4〉 가구원 수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명	213	28.4	236	31.5	449	29.9
2명	203	27.0	187	25.0	390	26.0
3명	182	24.2	171	22.8	353	23.5
4명	125	16.6	122	16.3	247	16.5
5명 이상	28	3.7	33	4.4	61	4.1
합계	751	100.0	749	100.0	1,500	100.0



[그림 Ⅳ-3] 가구원 수

❑ 가족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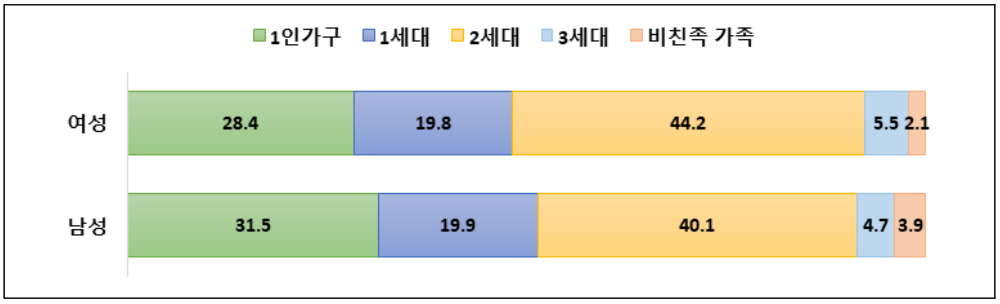
❍ 가족 유형 중에서는 보통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족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1인가구(29.9%), 부부나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1세대 가족(19.9%), 3세대 가족(5.1%), 비친족 가족(3.0%) 순으로 나타남

〈표 Ⅳ-5〉 응답자 가족 유형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 유형	1인가구	213	28.4	236	31.5	449	29.9
	1세대	149	19.8	149	19.9	298	19.9
	2세대	332	44.2	300	40.1	632	42.1
	3세대	41	5.5	35	4.7	76	5.1
	비친족 가족	16	2.1	29	3.9	45	3.0
합계		751	100.0	749	100.0	1,500	100.0



[그림 Ⅳ-4] 가족 유형

❍ 가족 유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세대 가족 중에서는 부부가 94.0%, 부부와 형제자매가 같이 사는 가구가 6.0%였음

- 2세대 가구 중에서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77.5%로 가장 많고, '모+자녀'(6.5%)와 '부+자녀'(2.2%)와 같은 한부모 가족이 8.7%, 다음으로 '부부+한부모'(4.6%), '조부모+손자녀'(4.3%) 순으로 나타남

- 3세대 가족 중에서는 부부+자녀에 조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Ⅳ-6〉 세대에 따른 가족 유형표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소계
1인가구		449	100.0	449
1세대	부부	280	94.0	298
	부부+형제·자매	18	6.0	
2세대	부부+자녀	490	77.5	632
	모+자녀	41	6.5	
	부+자녀	14	2.2	
	부부+조부모(양친)	13	2.1	
	부부+조부/모(한부모)	29	4.6	
	조부모+손자녀	27	4.3	
	기타 2세대 가구	18	2.8	
3세대	부부+자녀+조부모	39	51.3	76
	부부+자녀+조부/모	31	40.8	
	기타 2세대 가구	6	7.9	
비친족가족		45	100.0	45
합계				1,500

❑ 가족형태

❍ 가족형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가 38명(2.5%), 국제결혼 가족 12명(0.8%), 주말부부 8명(0.5%), 기러기 가족 2명(0.1%), 입양가족이 1명(0.1%) 있었음

〈표 Ⅳ-7〉 가족형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38	2.5
국제결혼으로 가족 구성원이 된 사람이 있다	12	0.8
취업, 학업 등으로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다(주말부부)	8	0.5
자녀 유학을 위해 부모 중 한 명은 자녀와 생활하고 있다	2	0.1
입양한 자녀가 있다	1	0.1

(2)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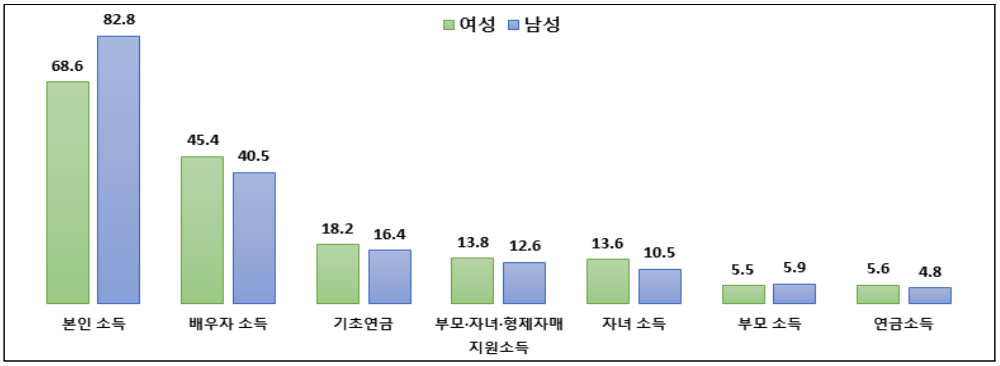
❍ 최근 1년 동안 가족의 전체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 22.7%, 기초연금 9.2%, 부모·자녀·형제자매의 지원 소득 7.0% 순으로 나타남

〈표 Ⅳ-8〉 가구소득의 구성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515	68.6	620	82.8	1,135	40.0
배우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341	45.4	303	40.5	644	22.7
기초연금	137	18.2	123	16.4	260	9.2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지원 소득	104	13.8	94	12.6	198	7.0
자녀의 근로 및 사업소득	102	13.6	79	10.5	181	6.4
부모의 근로 및 사업소득	41	5.5	44	5.9	78	2.7
연금소득(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42	5.6	36	4.8	57	2.0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공공부조)	28	3.7	29	3.9	51	1.8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등)	32	4.3	19	2.5	48	1.7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29	3.9	19	2.5	38	1.3
부동산 임대소득	22	2.9	16	2.1	28	1.0
퇴직금	16	2.1	12	1.6	22	0.8
전 배우자의 지원소득(양육비 등)	9	1.2	13	1.7	13	0.5
기타	10	1.3	3	0.4	85	3.0
합계	751	100.0	749	100.0	2,838	100.0

주) 본 문항은 복수응답임



[그림 Ⅳ-5] 가구소득 성별 비교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라는 응답은 여성(68.6%)보다 남성(82.8%)이 더 많았고,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이라는 응답은 여성(45.4%)이 남성(40.5%)보다 근소하게 더 많았음

❍ 최근 1년 동안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19.7%로 가장 많고, 300~400만원 미만 19.5%, 400~500만원 미만 16.9%, 100~200만원 미만 12.8%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300~4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1.0%로 가장 많고, 남성은 200~300만원이 19.1%로 가장 많긴 하지만 성별에 따라 가구소득 분포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9〉 가구소득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0만원 미만	68	9.1	62	8.3	130	8.7
100~200만원 미만	99	13.2	93	12.4	192	12.8
200~300만원 미만	152	20.2	143	19.1	295	19.7
300~400만원 미만	158	21.0	135	18.0	293	19.5
400~500만원 미만	113	15.0	140	18.7	253	16.9
500~600만원 미만	72	9.6	84	11.2	156	10.4
600~700만원 미만	34	4.5	41	5.5	75	5.0
700만원 이상	55	7.3	51	6.8	106	7.1
합계	751	100.0	749	100.0	1,500	100.0

❑ 가구지출

❍ 최근 1년 동안 가족의 월평균 지출은 100~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5.6%로 가장 많고, 200~300만원 미만 25.4%, 300~400만원 미만 16.6%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100~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많고, 남성은 200~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10〉 가구지출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0만원 미만	34	4.5	43	5.7	77	5.1
50~100만원 미만	119	15.8	108	14.4	227	15.1
100~200만원 미만	211	28.1	173	23.1	384	25.6
200~300만원 미만	185	24.6	196	26.2	381	25.4
300~400만원 미만	112	14.9	137	18.3	249	16.6
400~500만원 미만	61	8.1	66	8.8	127	8.5
500만원 이상	29	3.9	26	3.5	55	3.7
합계	751	100.0	749	100.0	1,500	100.0

[그림 Ⅳ-6] 가구지출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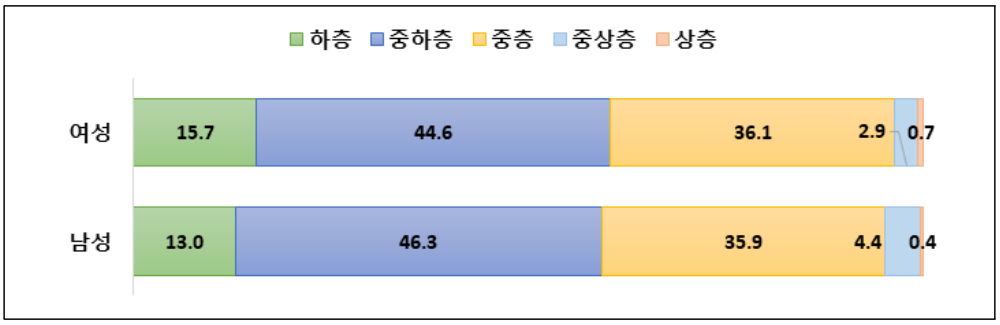
❑ 주관적 계층 인식

❍ 주관적 계층 인식에 대해 중하층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고, 하층까지 포함하면 응답자 전체의 59.8%가 주관적 계층이 낮다고 인식함

〈표 Ⅳ-11〉 주관적 계층 인식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하층	118	15.7	97	13.0	215	14.3
중하층	335	44.6	347	46.3	682	45.5
중층	271	36.1	269	35.9	540	36.0
중상층	22	2.9	33	4.4	55	3.7
상층	5	0.7	3	0.4	8	0.5
합계	751	100.0	749	100.0	1,500	100.0



[그림 Ⅳ-7] 주관적 계층 인식

- 반대로 본인을 중상층(3.7%), 상층(0.5%)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전체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본인을 중하층 또는 하층이라는 인식하는 비율이 여성은 60.3%, 남성은 59.3%로 큰 차이는 없음

2. 가족실태조사 결과 분석

○ 경남가족실태조사는 1)가족 가치관, 2)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3)일과 돌봄, 4)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5)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함

-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별 평균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함. 가족유형,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취업상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결과는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고 본문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함

1) 가족 가치관

○ 가족 가치관에 대해서는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 가족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이성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봄

(1)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

❍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에 관한 각각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산함)고 응답한 비율이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52.0%, '아내가 남성의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족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는 31.8%,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50.0%,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75.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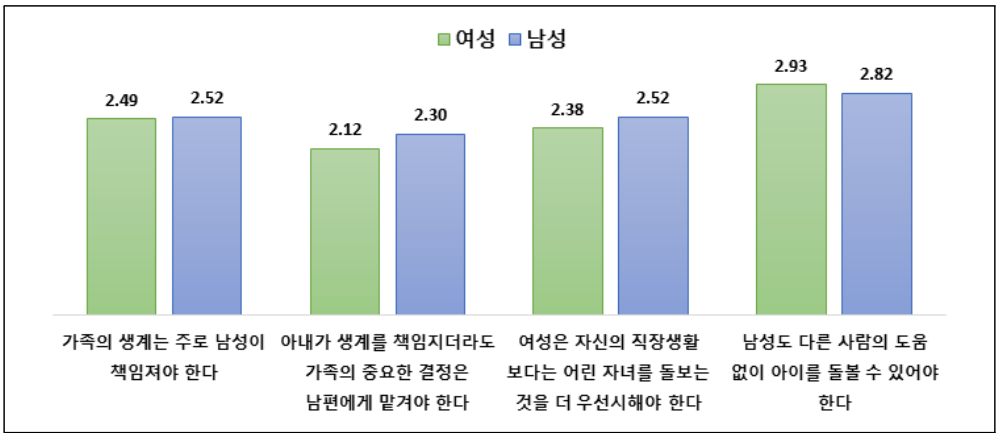
- 각 문항별 동의 정도를 4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살펴보면,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가 2.87점으로 가장 높고,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2.50점,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2.45점,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족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2.21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Ⅳ-12〉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전체	146	9.7	575	38.3	655	43.7	124	8.3	1,500	2.50
	여성	74	9.9	295	39.3	322	42.9	60	8.0	751	2.49
	남성	72	9.6	280	37.4	333	44.5	64	8.5	749	2.52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족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전체	228	15.2	795	53.0	414	27.6	63	4.2	1,500	2.21
	여성	144	19.2	401	53.4	178	23.7	28	3.7	751	2.12
	남성	84	11.2	394	52.6	236	31.5	35	4.7	749	2.30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전체	197	13.1	553	36.9	630	42.0	120	8.0	1,500	2.45
	여성	121	16.1	283	37.7	287	38.2	60	8.0	751	2.38
	남성	76	10.1	270	36.0	343	45.8	60	8.0	749	2.52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전체	51	3.4	323	21.5	890	59.3	236	15.7	1,500	2.87
	여성	19	2.5	155	20.6	436	58.1	141	18.8	751	2.93
	남성	32	4.3	168	22.4	454	60.6	95	12.7	749	2.82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8]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

❍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에 관한 각 문항별 유의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먼저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의 경우 가족 유형, 연령, 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1〉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비친족 가족,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으로 대졸 이상, 혼인 상태 중에서는 미혼 집단, 맞벌이 가족, 가구소득 중에서는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성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족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의 경우 가족 유형,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취업상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2〉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2세대 가족, 성별로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별로는 시 지역,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 상태 중에서는 미혼 집단, 취업 집단, 맞벌이 가족, 가구소득 중에서는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성평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의 경우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3〉 참조)

- 성별로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역으로는 시 지역, 학력 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 상태에서는 미혼 집단, 취업 집단, 맞벌이 가족, 가구소득 중에서는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성평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의 경우 가족 유

형,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남(〈부록-4〉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비친족 가족, 성별로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가구소득 중에서는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성평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가족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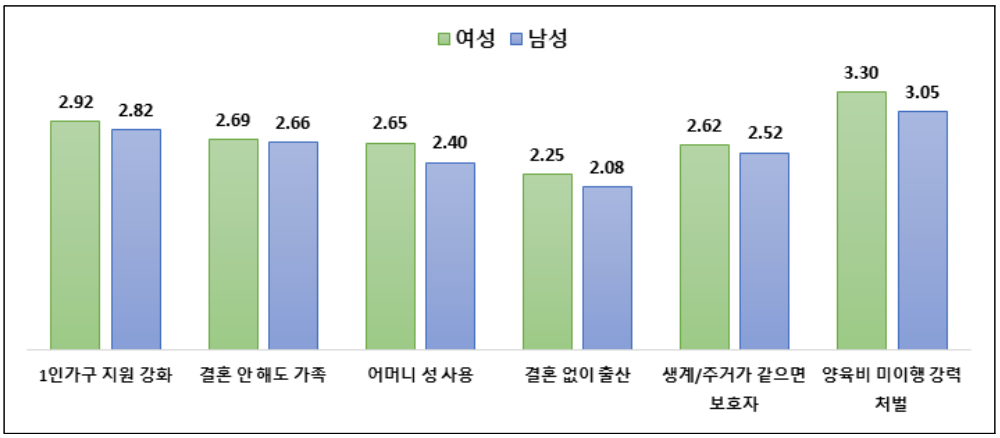
○ 가족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동의('매우 동의'와 '동의'를 합산함)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88.4%)이고,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은 '정자은행 등을 활용해서 결혼 없이 단독으로 출산할 수 있다'(35.7%)임

〈표 Ⅳ-13〉 가족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견해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전체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체	78	5.2	310	20.7	846	56.4	266	17.7	1,500	2.87
	여성	37	4.9	138	18.4	427	56.9	149	19.8	751	2.92
	남성	41	5.5	172	23.0	419	55.9	117	15.6	749	2.82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전체	116	7.7	458	30.5	721	48.1	205	13.7	1,500	2.68
	여성	58	7.7	228	30.4	355	47.3	110	14.6	751	2.69
	남성	58	7.7	230	30.7	366	48.9	95	12.7	749	2.66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어머니의 성으로 할 수도 있다	전체	177	11.8	550	36.7	581	38.7	192	12.8	1,500	2.53
	여성	68	9.1	244	32.5	321	42.7	118	15.7	751	2.65
	남성	109	14.6	306	40.9	260	34.7	74	9.9	749	2.40
정자은행 등을 활용해서 결혼 없이 단독으로 출산할 수 있다	전체	417	27.8	547	36.5	408	27.2	128	8.5	1,500	2.16
	여성	179	23.8	275	36.6	226	30.1	71	9.5	751	2.25
	남성	238	31.8	272	36.3	182	24.3	57	7.6	749	2.08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보호자 또는 유족이 될 수 있다	전체	155	10.3	443	29.5	795	53.0	107	7.1	1,500	2.57
	여성	75	10.0	204	27.2	407	54.2	65	8.7	751	2.62
	남성	80	10.7	239	31.9	388	51.8	42	5.6	749	2.52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	전체	41	2.7	133	8.9	852	56.8	474	31.6	1,500	3.17
	여성	8	1.1	44	5.9	417	55.5	282	37.5	751	3.30
	남성	33	4.4	89	11.9	435	58.1	192	25.6	749	3.05

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매우 동의한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9] 가족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견해

- 4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살펴본 결과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가 3.17점으로 가장 높고,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2.87점),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2.68점),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보호자 또는 유족이 될 수 있다'(2.57점), '정자은행 등을 활용해서 결혼 없이 단독으로 출산할 수 있다'(2.1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가족 관련 제도 도입에 관한 각 문항별 유의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먼저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의 경우 가족 유형, 성별, 학력,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5〉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비친족 가족과 1인가구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성별로는 여성,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또는 이혼·별거·사실혼 집단, 비취업 상태, 가구소득 중에서는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 이러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의 경우 가족 유형,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6〉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비친족 가족, 성별로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집단, 맞벌이 가족, 가구소득 중에서는 5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이러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어머니의 성으로 할 수도 있다’의 경우 가족 유형,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7〉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비친족 가족, 성별로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집단,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러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정자은행 등을 활용해서 결혼 없이 단독으로 출산할 수 있다’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8〉 참조)

- 성별로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집단,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러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보호자 또는 유족이 될 수 있다’의 경우 가족 유형,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9〉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비친족 가족, 성별로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역 중에서는 군 지역,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 상태 중에서는 미혼 집단, 취업 집단, 200-500만원 미만 집단에서 이러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다른 문항과는 달리 군 지역 거주자가 시 지역 거주자보다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보호자가 유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는데, 군 지역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면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의 경우 가족 유형,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10〉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3세대 가족,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20~39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집단,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이러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다른 문항과 달리 이혼 후 양육비 불이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3세대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유형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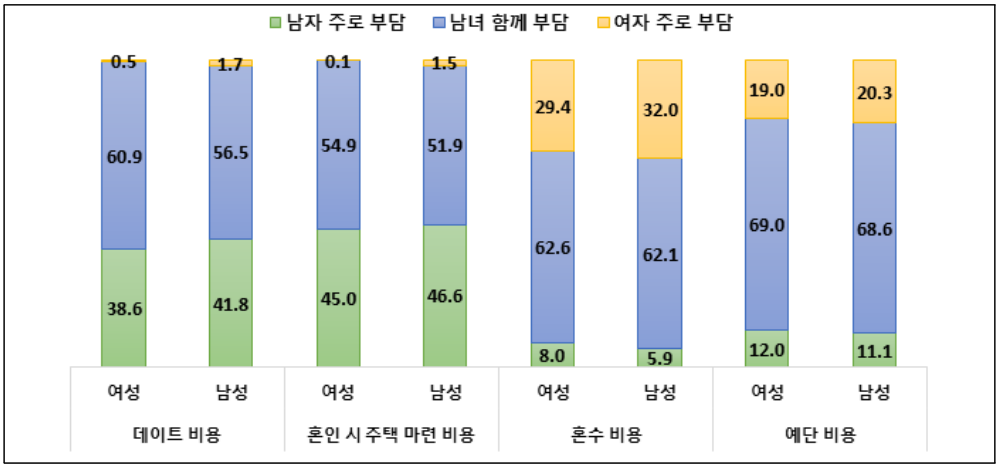
(3) 이성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

❍ 이성 간 데이트 비용이나 혼인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남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남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예단 비용’(68.8%), ‘가구, 가전제품 등 혼수 비용’(62.3%), ‘데이트 비용’(58.7%), ‘혼인 시 주택 마련 비용’(53.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Ⅳ-14〉 이성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점)

구분		남자가 주로 부담		남녀 함께 부담		여자가 주로 부담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데이트 비용	전체	603	40.2	880	58.7	17	1.1	1,500
	여성	290	38.6	457	60.9	4	0.5	751
	남성	313	41.8	423	56.5	13	1.7	749
혼인 시 주택 마련 비용	전체	687	45.8	801	53.4	12	0.8	1,500
	여성	338	45.0	412	54.9	1	0.1	751
	남성	349	46.6	389	51.9	11	1.5	749
가구, 가전제품 등 혼수 비용	전체	104	6.9	935	62.3	461	30.7	1,500
	여성	60	8.0	470	62.6	221	29.4	751
	남성	44	5.9	465	62.1	240	32.0	749
예단 비용	전체	173	11.5	1,032	68.8	295	19.7	1,500
	여성	90	12.0	518	69.0	143	19.0	751
	남성	83	11.1	514	68.6	152	20.3	749



[그림 Ⅳ-10] 이성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

- ‘혼인 시 주택 마련 비용’과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고(각 45.8%, 40.2%), ‘가구, 가전제품 등 혼수 비용’과 ‘예단 비용’은 여자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각 30.7%, 19.7%) 비용 부담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성 간 데이트 비용과 혼인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각 항목별 유의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데이트 비용’의 경우 가족 유형,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11〉 참조)

- 데이트 비용을 남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가족 유형 중에서는 비친족 가족,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20~39세, 거주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특히 남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9세 집단에서 79.4%로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데이트 비용 부담”이 청년층 젠더 갈등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데이트 비용 부담에 대한 전통적 견해가 청년 세대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혼인 시 주택 마련 비용’의 경우 가족 유형,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12〉 참조)

- 혼인 시 주택 마련 비용을 남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가족 유형 중에서는 비친족 가족,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20~39세, 거주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가구소득은 200-500만원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혼인 시 주택 마련 비용을 남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러 집단 중 20~39세 청년층(69.5%)과 미혼(69.5%)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 가전제품 등 혼수 비용’의 경우 연령, 학력,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남(〈부록-13〉 참조)

- 가구, 가전제품 등 혼수 비용을 남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39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취업 집단, 가구소득은 200-500만원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가구, 가전제품 등 혼수 비용을 남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혼인

시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응답과 동일하게 20~39세(81.9%), 미혼(81.8%)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예단 비용'의 경우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14〉 참조)

- 예단 비용을 남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39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예단 비용을 남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러 집단 중 대졸 이상(77.8%), 미혼(77.5%), 20~39세(75.9%), 40~59세(74.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종합하면 혼인 시 주택 마련은 남자, 혼수 마련과 예단 비용은 여자의 몫이라고 인식돼 온 전통방식에 대해 특히 미혼, 청년층의 거부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2)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에 대해서는 가족 내 성평등과 성차별, 가족 간 의사소통, 가족 간 갈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봄

(1) 가족 내 성평등과 성차별

□ 가족 내 성평등

○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 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가족 내 성평등이라고 정의하고 현재 가족과 원가족(태어나서 자란 가족)의 성평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재 가족의 성평등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77점, 원가족은 5.12점으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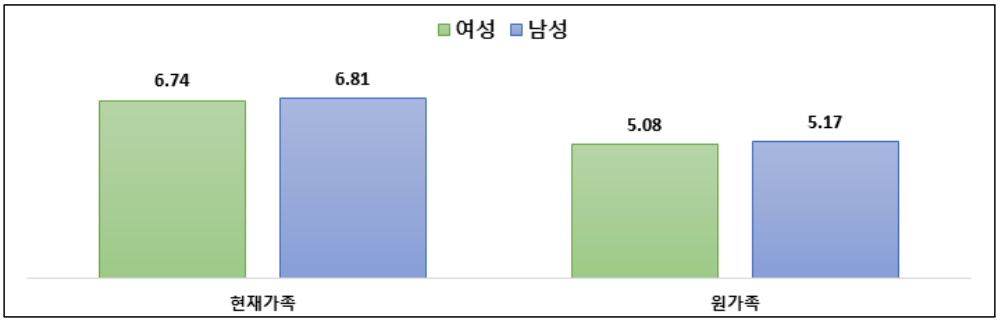
- 현재 가족에 대해 여성은 6.74점, 남성은 6.81점, 원가족에 대해 여성은 5.08점, 남성 5.17점으로 응답해 남성이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남
- 남녀 모두 현재 가족이 원가족보다 조금 더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15〉 가족 내 성평등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여성				남성				전체			
		현재 가족		원가족		현재 가족		원가족		현재 가족		원가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성차별 ↑	1	1	0.2	24	3.4	-	-	12	1.7	1	0.1	36	2.5
	2	10	1.9	68	9.7	2	0.4	54	7.6	12	1.1	122	8.6
	3	31	5.8	94	13.4	18	3.5	97	13.6	49	4.7	191	13.5
	4	52	9.7	107	15.2	52	10.1	138	19.4	104	9.9	245	17.3
보통	5	74	13.8	127	18.1	94	18.3	124	17.4	168	16.0	251	17.8
	6	49	9.1	66	9.4	35	6.8	67	9.4	84	8.0	133	9.4
↓	7	94	17.5	106	15.1	101	19.7	102	14.3	195	18.6	208	14.7
	8	117	21.7	76	10.8	106	20.7	85	12.0	223	21.2	161	11.4
매우 성평등	9	56	10.4	29	4.1	55	10.7	25	3.5	111	10.6	54	3.8
	10	54	10.0	6	0.9	50	9.7	7	1.0	104	9.9	13	0.9
합계		538		703		513		711		1,051		1,414	
평균(10점 만점)		6.74점		5.08점		6.81점		5.17점		6.77점		5.12점	

주) '매우 성차별'=1점, '매우 성평등'=1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11] 가족 내 성평등 정도

○ 가족 내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응답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그 외 가족 유형,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취업상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부록-15〉 참조)

- 현재 가족의 성평등 정도에 대해 가족 유형 중에서는 비친족 가족,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 상태 중에서는 이혼·별거·사별 집단, 취업 집단, 맞벌이 가족, 소득수준은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원가족의 성평등 정도에 대해서는 가족 유형 중에서는 비친족 가족,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역 중에서는 군 지역,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집단, 취업 집단, 맞벌이 가족, 소득수준은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지역에 따라 현재 가족에 대해서는 시 지역이, 원가족에 대해서는 군 지역이 성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혼인상태에 따라 현재 가족에 대해서는 이혼·별거·사별 집단이, 원가족에 대해서는 미혼 집단이 성평등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여러 집단 중 현재 가족의 성평등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집단은 소득수준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7.61점)이고, 가장 낮게 평가한 집단은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5.74점)으로 나타남.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성차별적 역할 분담이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원가족의 성평등 정도에 대해 제일 높게 평가한 집단은 미혼 집단(6.62점)이고, 제일 낮게 평가한 집단은 60~79세 고연령층(3.91점)으로 원가족의 성평등 정도는 연령 효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족 내 성차별

○ 현재 가족에서 경험한 성차별이 어떤 유형이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특별히 없음’(5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사일 편중’ (33.0%), ‘돌봄에 대한 가중한 부담’(4.5%), ‘가족 대소사 배제’(3.2%) 순으로 나타남

〈표 Ⅳ-16〉 가족 내 성차별 유형

(단위: 명, %)

구분	현재 가족		원가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특별히 없음	625	54.6	520	23.3
가사일 편중	378	33.0	582	26.0
돌봄에 대한 가중한 부담	52	4.5	124	5.5
가족 대소사 배제	37	3.2	140	6.3
경제적 지원 차별	32	2.8	291	13.0
재산 상속 및 증여 차별	17	1.5	290	13.0
교육기회 차별	4	0.3	287	12.8
기타	-	-	1	0.1
합계	1,145	100.0	2,235	100.0

주) 본 문항은 복수응답임

❍ 원가족에 대해서는 '가사일 편중'(26.0%)이라는 응답이 '특별히 없었음'(23.3%)이라는 응답보다 많고,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 차별'(13.0%), '재산 상속 및 증여 차별'(13.0%), '교육기회 차별'(12.8%)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가족에서 경험한 성차별을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녀 모두 '특별히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여성 51.8%, 남성 57.5%로 응답 비율에서 차이를 보임

- 다음으로 남녀 모두 '가사일 편중'의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여성 36.8%, 남성 29.1%로 응답에 차이를 보여 가사일 편중에 대한 성별 체감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특별히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39세 75.8%, 40~59세 53.6%, 60~79세 39.0%로 큰 차이를 보임. '가사일 편중'이라는 응답도 20~39세 19.1%, 40~59세 31.8%, 60~79세 46.0%로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임

〈표 Ⅱ-17〉 응답자 특성별 가족 내 성차별 유형_현재 가족

(단위: 명, %)

구분		성별		연령		
		여성	남성	20~39세	40~59세	60~79세
특별히 없음	빈도	303	322	210	280	135
	비율	51.8	57.5	75.8	53.6	39.0
가사일 편중	빈도	215	163	53	166	159
	비율	36.8	29.1	19.1	31.8	46.0
돌봄에 대한 가중한 부담	빈도	25	27	8	23	21
	비율	4.3	4.8	2.9	4.4	6.1
가족 대소사 배제	빈도	17	20	3	19	15
	비율	2.9	3.6	1.1	3.6	4.3
경제적 지원 차별	빈도	13	19	2	22	8
	비율	2.2	3.4	0.7	4.2	2.3
재산 상속 및 증여 차별	빈도	10	7	1	8	8
	비율	1.7	1.3	0.4	1.5	2.3
교육 기회 차별	빈도	2	2	-	4	-
	비율	0.3	0.4	-	0.8	-
합계	빈도	585	560	277	522	346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본 문항은 복수응답임

❍ 원가족의 성차별 유형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특별히 없음’이라는 응답이 남성 25.2%, 여성 21.5%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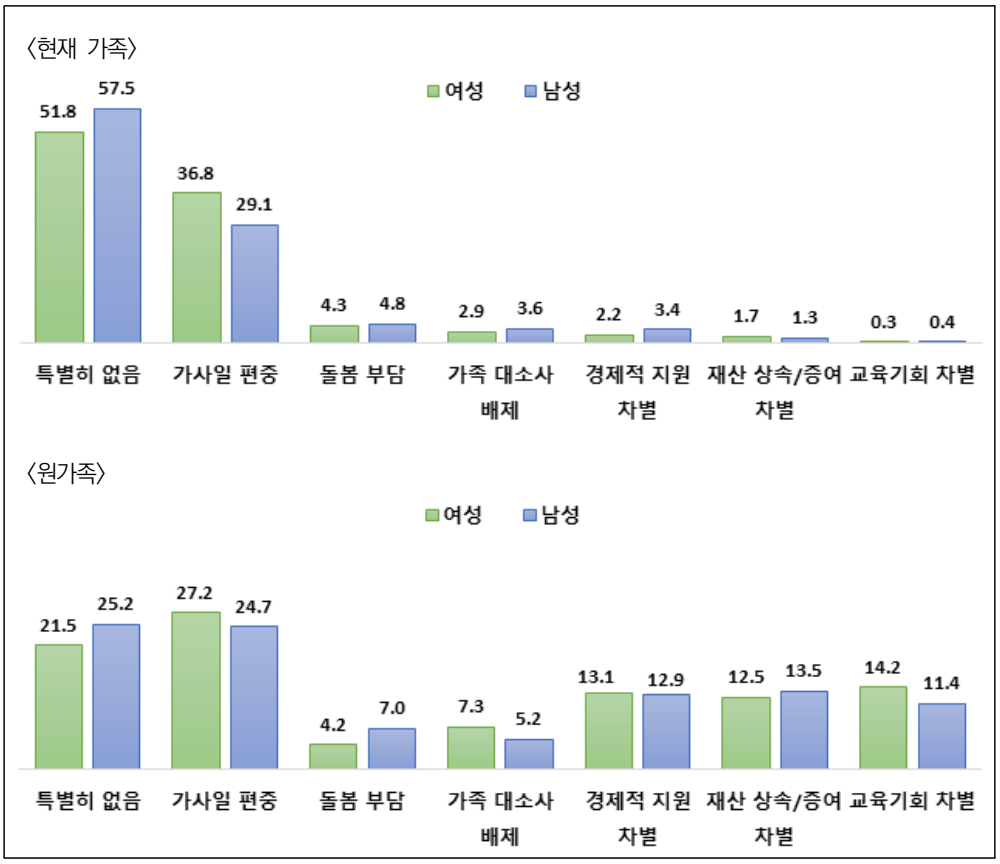
- 원가족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과 마찬가지로 성차별 유형 중 ‘가사일 편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경제적 지원 차별’, ‘재산 상속 및 증여 차별’, ‘교육 기회 차별’과 같은 응답이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특별히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39세 54.9%, 40~59세 22.5%, 60~79세 8.3%로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60~79세의 경우 성차별 유형에 대해 ‘가사일 편중(25.8%)’ 다음으로 ‘교육기회 차별’(21.0%)이라고 응답해 ‘오빠와 남동생을 뒷바라지 하는 누나·여동생’과 같은 가족 내 성차별이 매우 익숙한 상황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음

〈표 Ⅱ-18〉 응답자 특성별 가족 내 성차별 유형_원가족

(단위: 명, %)

구분		성별		연령		
		여성	남성	20~39세	40~59세	60~79세
특별히 없음	빈도	248	272	245	200	75
	비율	21.5	25.2	54.9	22.5	8.3
가사일 편중	빈도	315	267	106	244	232
	비율	27.2	24.7	23.8	27.4	25.8
돌봄에 대한 가중한 부담	빈도	48	76	20	58	46
	비율	4.2	7.0	4.5	6.5	5.1
가족 대소사 배제	빈도	84	56	17	49	74
	비율	7.3	5.2	3.8	5.5	8.2
경제적 지원 차별	빈도	152	139	36	123	132
	비율	13.1	12.9	8.1	13.8	14.7
재산 상속 및 증여 차별	빈도	144	146	12	127	151
	비율	12.5	13.5	2.7	14.3	16.8
교육 기회 차별	빈도	164	123	9	89	189
	비율	14.2	11.4	2.0	10.0	21.0
기타(동생만 예뻐함)	빈도	1	-	1	-	-
	비율	0.1	-	0.2	-	-
합계	빈도	1,156	1,079	446	890	899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본 문항은 복수응답임



[그림 Ⅳ-12] 가족 내 성차별 유형

(3) 가족 간 의사소통 구조

□ 소통이 잘 되는 가족 구성원

○ 가족 구성원(따로 사는 가족 포함) 중 소통이 잘 되는 구성원을 응답한 결과 전체적으로 배우자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머니(27.5%), 딸(16.4%), 여자형제(5.9%), 아들(5.3%) 순으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도 배우자(23.2%), 어머니(22.2%), 딸(17.9%), 아들(10.8%), 여자형제(9.0%) 순으로 아들과 여자형제의 순위만 다르게 나타남

〈표 Ⅳ-19〉 소통이 잘 되는 가족 구성원

(단위: 명, %)

구분	1순위		1순위+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배우자	533	35.5	652	23.2
어머니	412	27.5	626	22.2
딸	246	16.4	503	17.9
여자형제(언니, 누나, 여동생 등)	88	5.9	253	9.0
아들	79	5.3	304	10.8
남자형제(오빠, 형, 남동생 등)	44	2.9	104	3.7
아버지	39	2.6	241	8.6
손자	10	0.7	37	1.3
손녀	7	0.5	28	1.0
혈연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	7	0.5	15	0.5
할머니	3	0.2	18	0.6
할아버지	6	0.4	8	0.3
기타	2	0.1	3	0.1
아무도 없음	24	1.6	24	0.9
합계	1,500	100.0	2,816	100.0

❍ 성별, 연령별 각 집단별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구 구성원(1순위)을 1~5까지 살펴보면 다음 〈표 Ⅳ-21〉과 같음

〈표 Ⅳ-20〉 성별·연령별 소통 잘 되는 가족 구성원(1순위)

(단위: 명, %)

성별	전체(N=1,500)		여성(N=751)		남성(N=749)	
	가족 구성원	비율	가족 구성원	비율	가족 구성원	비율
1위	배우자	35.5	배우자	29.4	배우자	41.7
2위	어머니	27.5	어머니	28.6	어머니	26.3
3위	딸	16.4	딸	21.4	딸	11.3
4위	여자형제	5.9	여자형제	8.5	아들	5.1
5위	아들	5.3	아들	5.5	남자형제	4.0
연령별	20~39세(N=452)		40~59세(N=599)		60~79세(N=449)	
	가족 구성원	비율	가족 구성원	비율	가족 구성원	비율
1위	어머니	54.4	배우자	43.9	딸	36.7
2위	배우자	26.3	어머니	24.2	배우자	33.6
3위	여자형제	6.6	딸	13.5	아들	11.1
4위	아버지	5.5	여자형제	6.0	여자형제	4.9
5위	남자형제	3.8	아들	4.8	어머니	4.7

-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1~3위까지 모두 배우자, 어머니, 딸 순으로 동일하고, 4~5위로 여성은 여자형제, 아들, 남성은 아들, 남자형제 순으로 응답해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 20~39세는 어머니, 배우자, 여자형제를, 40~59세는 배우자, 어머니, 딸을, 60~79세는 딸, 배우자, 아들과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꼽아 연령별로 응답에 차이가 나타남

❑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족 구성원

❍ 가족 내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없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17.6%), 남자형제(13.0%), 아들(8.8%) 순으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도 아무도 없음(30.0%), 아버지(17.7%), 남자형제(16.7%), 아들(9.2%) 순으로 1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남

〈표 Ⅳ-21〉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족 구성원

(단위: 명, %)

구분	1순위		1순위+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아버지	264	17.6	333	17.7
남자형제(오빠, 형, 남동생 등)	195	13.0	315	16.7
아들	132	8.8	173	9.2
배우자	96	6.4	121	6.4
여자형제(언니, 누나, 여동생 등)	87	5.8	130	6.9
어머니	82	5.5	114	6.1
딸	46	3.1	67	3.6
할아버지	11	0.7	21	1.1
할머니	9	0.6	17	0.9
손자	7	0.5	13	0.7
손녀	-	-	1	0.1
혈연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	-	-	1	0.1
기타	6	0.4	12	0.6
아무도 없음	565	37.7	565	30.0
합계	1,500	100.0	1,883	100.0

○ 성별, 연령별 각 집단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가구 구성원(1순위)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녀 모두 아버지, 남자형제를 1~2위로 응답함. 다음으로 여성은 배우자, 아들, 어머니를, 남성은 아들, 여자형제, 어머니 순으로 응답해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는 20~39세와 40~59세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구성원 1~3위를 아버지, 남자형제, 어머니로 응답했고, 60~79세는 아들, 남자형제, 배우자로 응답해 연령별로도 차이가 나타남

〈표 Ⅳ-22〉 성별·연령별 소통 잘 안 되는 가족 구성원(1순위)

(단위: 명, %)

성별	전체(N=1,500)		여성(N=751)		남성(N=749)	
	가족 구성원	비율	가족 구성원	비율	가족 구성원	비율
1위	아버지	17.6	아버지	16.0	아버지	19.2
2위	남자형제	13.0	남자형제	14.4	남자형제	11.6
3위	아들	8.8	배우자	8.7	아들	10.7
4위	배우자	6.4	아들	6.9	여자형제	7.1
5위	여자형제	5.8	어머니	5.1	어머니	5.9
연령별	20~39세(N=452)		40~59세(N=599)		60~79세(N=449)	
	가족 구성원	비율	가족 구성원	비율	가족 구성원	비율
1위	아버지	24.1	아버지	23.7	아들	18.9
2위	남자형제	14.2	남자형제	10.5	남자형제	15.1
3위	어머니	6.6	어머니	8.2	배우자	11.4
4위	여자형제	6.0	아들	7.7	딸	6.7
5위	할아버지	1.8	배우자	6.5	여자형제	6.2

□ 가족 간 의사소통 만족도

○ 가족 간 의사소통 만족도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산함)한다는 응답은 딸(91.1%), 어머니(88.6%), 배우자(85.0%), 여자형제(84.1%), 아들(7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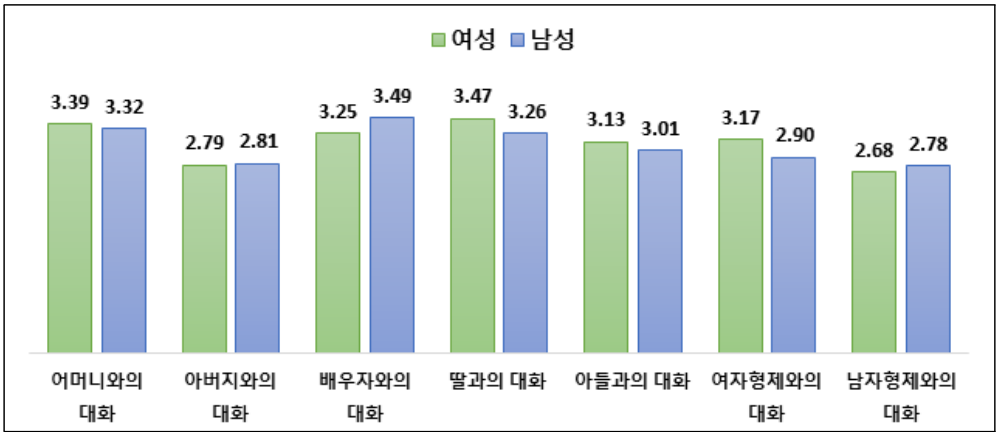
- '매우 만족'을 4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배우자가 3.38점으로 가장 높고, 딸(3.37점), 어머니(3.36점), 아들(3.0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Ⅳ-23〉 가족 간 의사소통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어머니와의 대화	전체	10	1.0	104	10.4	409	40.7	481	47.9	1,004	3.36
	여성	6	1.2	42	8.3	207	40.8	252	49.7	507	3.39
	남성	4	0.8	62	12.5	202	40.6	229	46.1	497	3.32
아버지와의 대화	전체	26	2.9	311	35.1	364	41.1	185	20.9	886	2.80
	여성	16	3.7	147	33.9	182	41.9	89	20.5	434	2.79
	남성	10	2.2	164	36.3	182	40.3	96	21.2	452	2.81
배우자와의 대화	전체	13	1.5	114	13.5	260	30.7	460	54.3	847	3.38
	여성	11	2.7	72	17.6	128	31.4	197	48.3	408	3.25
	남성	2	0.5	42	9.6	132	30.1	263	59.9	439	3.49
딸과의 대화	전체	4	0.5	68	8.4	365	45.1	373	46.0	810	3.37
	여성	3	0.7	18	4.4	171	41.8	217	53.1	409	3.47
	남성	1	0.2	50	12.5	194	48.4	156	38.9	401	3.26
아들과의 대화	전체	13	1.6	170	20.6	390	47.2	254	30.7	827	3.07
	여성	5	1.2	76	18.0	203	48.0	139	32.9	423	3.13
	남성	8	2.0	94	23.3	187	46.3	115	28.5	404	3.01
여자형제와의 대화	전체	17	1.8	133	14.1	587	62.1	208	22.0	945	3.04
	여성	3	0.6	49	9.8	305	61.1	142	28.5	499	3.17
	남성	14	3.1	84	18.8	282	63.2	66	14.8	446	2.90
남자형제와의 대화	전체	22	2.3	318	33.5	505	53.2	105	11.1	950	2.73
	여성	11	2.3	171	35.6	260	54.1	39	8.1	481	2.68
	남성	11	2.3	147	31.3	245	52.2	66	14.1	469	2.78

주) '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13] 가족 간 의사소통 만족도

❍ 가족 간 의사소통 만족도 각 항목별로 유의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먼저 어머니와의 대화 만족도는 가족 유형,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16〉 참조)

- 어머니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가족 유형 중에서는 1인가구, 연령별로는 20~39세, 거주지역 중에서는 군 지역,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집단,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임
- 다양한 집단 중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200만원 미만 집단(3.58점)이었고, 가장 낮은 집단은 40~59세 집단(3.20점)이지만 점수 편차가 크진 않음

❍ 아버지와의 대화 만족도는 가족 유형, 연령, 학력,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17〉 참조)

- 아버지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가족 유형 중에서는 1인가구, 연령별로는 20~39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집단,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 집단으로 어머니와의 대화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거의 일치함
- 다양한 집단 중 아버지와의 대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200만원 미만 집단(3.05점)이고, 가장 낮은 집단은 60~79세(2.60점)로 나타남

❍ 배우자와의 대화 만족도는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18〉 참조)

- 배우자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20~39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는 기혼 집단,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임
- 다양한 집단 중 배우자와의 대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20~39세(3.71점)이고, 가장 낮은 집단은 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3.09점)으로 나타남

❍ 딸과의 대화 만족도는 성별, 취업상태, 맞벌이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19〉 참조)

- 성별로는 여성, 취업상태로는 비취업 집단, 맞벌이보다는 외벌이 가족이 딸과의 대화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딸과의 대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20~39세(3.53점)이고, 가장 낮은 집단은 비친족 가족(3.25점)으로 나타남

○ 아들과의 대화 만족도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20〉 참조)

-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20~39세,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아들과의 대화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아들과의 대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20~39세(3.25점), 가장 낮은 집단은 1세대 가족(2.96점)으로 나타남

○ 여자형제와의 대화 만족도는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21〉 참조)

-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20~39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집단에서 여자형제와의 대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여자형제와의 대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3.17점)이고, 가장 낮은 집단은 남성(2.90점)으로 나타남

○ 남자형제와의 대화 만족도는 가족 유형,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22〉 참조)

-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20~39세, 거주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집단에서 남자형제와의 대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형제와의 대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미혼 집단(2.87점)이고, 가장 낮은 집단은 비친족 가족(2.60점)으로 나타남

□ 가족 간 의사소통 중요도

○ 가족 간 의사소통 중요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매우 중요'와 '대체로 중요'를 합산함)고 응답한 비율은 88.7%이고, 여성 중 90.6%, 남성 중 86.8%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매우 중요'를 4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균 점수를 산출하면 전체 평균은 3.26점이며, 여성 3.30점, 남성 3.22점으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

○ 가족 간 의사소통 중요도는 가족 유형, 성별,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부록-23〉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3세대 가족, 성별로는 여성,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기혼·사실혼 집단,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

서 의사소통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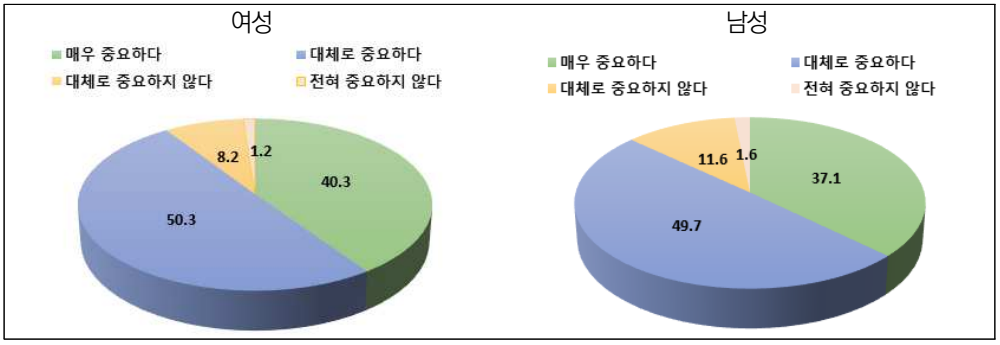
- 다양한 집단 중 의사소통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3세대 가족, 가장 낮은 집단은 미혼 집단(3.12점)으로 나타남

〈표 Ⅳ-24〉 가족 간 의사소통 중요도

(단위: 명, %, 점)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9	1.2	12	1.6	21	1.4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61	8.2	87	11.6	148	9.9
대체로 중요하다	378	50.3	372	49.7	750	50.0
매우 중요하다	303	40.3	278	37.1	581	38.7
합계	751	100.0	749	100.0	1,500	100.0
평균(4점 만점)	3.30점		3.22점		3.26점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매우 중요하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14] 가족 간 의사소통 중요도

□ 가족 간 의사소통 장애 요인

○ 가족 간 의사소통을 할 때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없음'이라는 응답이 5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17.5%),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몸이 피곤해서'(9.5%), '일 외에도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없음' 다음으로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몸이 피곤해서', '일 외에도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순으로 동일하게 응답함

〈표 Ⅳ-25〉 가족 간 의사소통 장애 요인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399	53.1	356	47.5	755	50.3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133	17.7	129	17.2	262	17.5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몸이 피곤해서	66	8.8	77	10.3	143	9.5
일 외에도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47	6.3	71	9.5	118	7.9
가족과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53	7.1	60	8.0	113	7.5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34	4.5	29	3.9	63	4.2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17	2.3	26	3.5	43	2.9
기타	2	0.3	1	0.1	3	0.2
합계	751	100.0	749	100.0	1,500	100.0

〈표 Ⅳ-26〉 연령별 가족 간 의사소통 장애 요인

(단위: 명, %)

연령	전체(N=1,500)		20~39세(N=452)		40~59세(N=599)		60~79세(N=449)	
	가족 간 의사소통 장애요인	비율	가족 간 의사소통 장애요인	비율	가족 간 의사소통 장애요인	비율	가족 간 의사소통 장애요인	비율
1위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17.5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14.8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몸이 피곤해서	15.4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24.3
2위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몸이 피곤해서	9.5	일 외에도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11.9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14.4	가족과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9.4
3위	일 외에도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7.9	가족과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7.7	일 외에도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8.3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7.6

❍ 가족 간 의사소통 장애 요인에 대해 ‘없음’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특히 연령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대에서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골고루 높게 나타났지만, 40~59세의 경우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일하고 들어오면 몸이 피곤해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60~79세의 경우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가 24.3%로 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세 번째로 높게 꼽은 장애요인도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7.6%)여서 다른 연령집단과 차이를 보임
- 이는 가족 내 의사소통을 둘러싼 갈등이 성별보다는 주로 세대별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므로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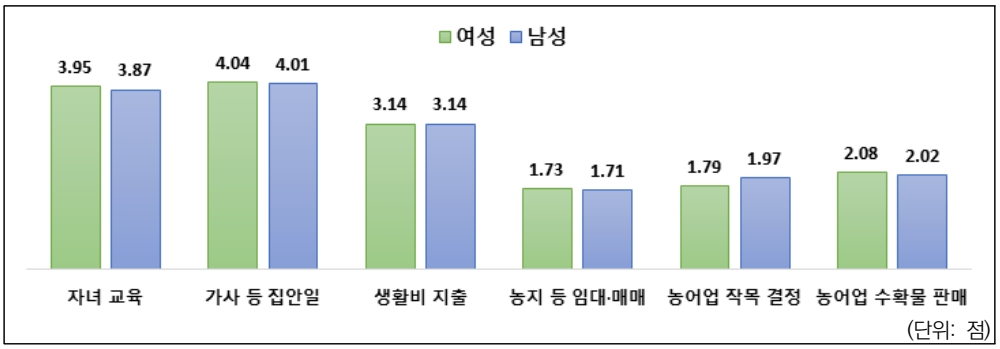
❍ 부부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정생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자녀 교육'과 '가사 등 집안일'은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Ⅳ-27〉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

(단위: 명, %, 점)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아내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전체	평균 (5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녀 교육	전체	2	0.4	11	2.5	144	32.1	159	35.5	132	29.5	448	3.91
	여성	-	-	8	3.7	62	29.0	76	35.5	68	31.8	214	3.95
	남성	2	0.9	3	1.3	82	35.0	83	35.5	64	27.4	234	3.87
가사 등 집안일	전체	3	0.4	15	1.8	203	24.9	336	41.2	259	31.7	816	4.02
	여성	-	-	8	2.0	105	26.3	152	38.0	135	33.8	400	4.04
	남성	3	0.7	7	1.7	98	23.6	184	44.2	124	29.8	416	4.01
생활비 지출	전체	10	1.2	232	28.5	310	38.0	159	19.5	104	12.8	815	3.14
	여성	4	1.0	113	28.3	156	39.1	75	18.8	51	12.8	399	3.14
	남성	6	1.4	119	28.6	154	37.0	84	20.2	53	12.7	416	3.14
농지, 농기계, 선박 등 임대매매	전체	48	37.8	67	52.8	12	9.4	-	-	-	-	127	1.72
	여성	22	35.5	35	56.5	5	8.1	-	-	-	-	62	1.73
	남성	26	40.0	32	49.2	7	10.8	-	-	-	-	65	1.71
농업작목 (어업수산물) 결정	전체	44	34.6	59	46.5	19	15.0	5	3.9	-	-	127	1.88
	여성	25	40.3	27	43.5	8	12.9	2	3.2	-	-	62	1.79
	남성	19	29.2	32	49.2	11	16.9	3	4.6	-	-	65	1.97
농업(어업) 수확물 판매	전체	38	29.9	51	40.2	32	25.2	6	4.7	-	-	127	2.05
	여성	19	30.6	22	35.5	18	29.0	3	4.8	-	-	62	2.08
	남성	19	29.2	29	44.6	14	21.5	3	4.6	-	-	65	2.02

주) '주로 남편이'=1점, '주로 아내가'=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15]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

- 반면, '농지, 농기계, 선박 등 임대 및 매매', '농업 작목(어업 수산물) 결정', '농업(어업) 수확물 판매' 등은 남편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주로 아내가 결정한다는 것'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가사 등 집안일'이 4.02점으로 아내의 결정권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농지, 농기계, 선박 등 임대 및 매매'의 경우 1.72점으로 가장 낮아 남편의 결정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에 대한 각 문항별 유의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먼저 '자녀 교육'의 경우 평균 3.91점으로 아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높은 가운데, 거주지역,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24〉 참조)

- 거주지역 중 군 지역,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자녀 교육을 아내가 전담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이는 전체적으로 자녀 교육이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군 지역과 200만원 미만 가구소득 집단에서는 특히 아내가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가사 등 집안일'의 경우 평균이 4.02점으로 아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전체적으로 높은 가운데, 연령, 학력, 취업상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25〉 참조)

-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고졸 이하, 비취업 집단, 외벌이 가족,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가사 등 집안일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비 지출의 경우 평균이 3.14점으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거주지역, 취업상태, 맞벌이 유무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남(〈부록-26〉 참조)

- 거주지역 중 시 지역, 비취업 집단, 외벌이 가족의 경우 생활비 지출을 주로 아내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경상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농지, 농기계, 선박 등 임대 및 매매'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평균 1.72점으로 남편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며(〈부록-27〉 참조),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에서 남성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 '농업 작목(어업 수산물) 결정'의 경우 평균 1.88점으로 남편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마찬가지로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28〉 참조)

○ '농업(어업) 수확물 판매'의 경우 평균 2.05점으로 남편이 대체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마찬가지로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29〉 참조)

(3) 가족 간 갈등

○ 최근 3개월 간 가족(함께 사는 가족)과 다투거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배우자(190명), 아들(60명), 딸(29명) 순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함

〈표 Ⅳ-28〉 가족 간 갈등 있음

(단위: 명)

구분	여성	남성	빈도
배우자	95	95	190
아들	28	32	60
딸	13	16	29
아버지	8	6	14
어머니	8	3	11
자매	5	1	6
형제	2	3	5
배우자 부모	3	-	3
기타가족	10	4	14
합계	172	160	318

주) 본 문항은 복수응답임

- 여성은 배우자(95명), 아들(28명), 딸(13명) 순으로, 남성도 마찬가지로 배우자(95명), 아들(32명), 딸(16명) 순으로 나타남
- 기타 가족이라는 응답에는 며느리(6명), 비친족(4명), 손자녀(2명), 조부모(2명) 등이 포함됨

❍ 가족 간 갈등 원인에 대해서는 갈등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먼저 배우자와의 갈등 원인에 대해서는 '성격 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사일 및 돌봄 부담', '집안 대소사(제사, 행사 등)' 순으로 응답함

- 아들이나 딸과의 갈등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학업·진학·취업 등에 대한 견해 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어머니와의 갈등 원인은 '학업·진학·취업 등에 대한 견해 차이'와 '성격 차이'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고, 아버지와의 갈등 원인은 '성격 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족 안에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가장 큰 갈등 원인은 '학업·진학·취업 등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을 유추할 수 있음

〈표 Ⅳ-29〉 가족 간 갈등 원인

(단위: 명, %)

구분	배우자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격 차이	98	50.8	8	13.3	5	17.2	6	37.5	4	36.4
경제적 이유	24	12.4	1	1.7	2	6.9	3	18.8	-	-
가사일 및 돌봄 분담	33	17.1	2	3.3	1	3.4	1	6.3	1	9.1
집안 대소사(제사, 행사 등)	32	16.6	6	10.0	-	-	2	12.5	1	9.1
재산(상속 등)	-	-	-	-	2	6.9	-	-	-	-
학업·진학·취업 등에 대한 견해	6	3.1	42	70.0	18	62.1	4	25.0	4	36.4
기타	-	-	1	1.7	1	3.4	-	-	1	9.1
전체	193		60		29		16		11	

주) 본 문항은 복수응답임. 응답빈도가 낮은 항목은 제외함

❍ 가족 간 갈등 대처방식도 갈등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를 보임.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그냥 놔둔다'와 '갈등 당사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가 29.8%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남

- 아들, 딸과의 관계에서는 '갈등 당사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둔

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부모 세대의 경우 자식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갈등 당사자와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식 세대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 없이 그냥 놔두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 대처방식에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남

〈표 Ⅳ-30〉 가족 간 갈등 대처방식

(단위: 명, %)

구분	배우자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냥 놔둔다	57	29.8	9	15.0	5	17.2	6	42.9	5	45.5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34	17.8	10	16.7	3	10.3	3	21.4	-	-
갈등 당사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57	29.8	31	51.7	13	44.8	2	14.3	2	18.2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22	11.5	3	5.0	1	3.4	2	14.3	2	18.2
주위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갈등을 해소한다	20	10.5	7	11.7	7	24.1	1	7.1	2	18.2
전문 기관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	0.5	-	-	-	-	-	-	-	-
전체	193		60		29		14		11	

주) 본 문항은 복수응답임. 응답빈도가 낮은 항목은 제외함

❍ 가족 간 갈등 때문에 이후 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갈등 대상과 상관없이 '갈등 전과 달라진 거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Ⅳ-31〉 가족 간 갈등 이후 관계 변화

(단위: 명, %, 점)

구분	배우자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갈등 전과 달라진 거 없다	111	58.4	28	46.7	13	44.8	10	71.4	7	63.6
갈등을 겪은 후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52	27.4	20	33.3	9	31.0	-	-	3	27.3
갈등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다	26	13.7	12	20.0	7	24.1	4	28.6	1	9.1
갈등 때문에 가족들과 따로 사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1	0.5	-	-	-	-	-	-	-	-
전체	190		60		29		14		11	

주) 본 문항은 복수응답임. 응답빈도가 낮은 항목은 제외함

- 다음으로 '갈등을 겪은 후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는 응답이 '갈등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응답보다 높아 한 편으로는 가족 갈등이 가족관계를 개선시키는 선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3) 일과 돌봄

❍ 일과 돌봄과 관련해서는 일·생활 균형, 돌봄,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봄

(1) 일·생활 균형 인식

❑ 일·생활 균형 상태 진단

❍ 현재 자신의 삶에서 일과 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균형적('매우 균형적'과 '균형적인 편'을 합산함)이라는 응답이 65.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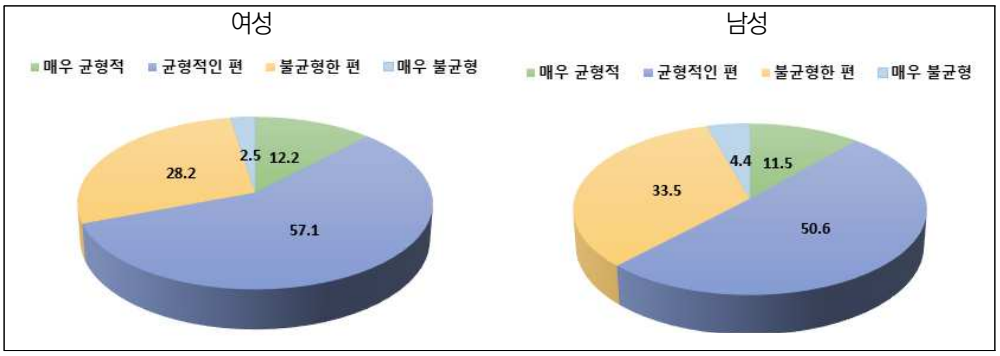
- 여성 중 69.3%, 남성 중 62.1%가 일과 생활 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해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남
- 매우 균형적이라는 응답을 4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은 2.74점이고 여성 2.79점, 남성 2.69점으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Ⅳ-32〉 일·생활 균형 정도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균형	13	2.5	27	4.4	40	3.5
불균형한 편	145	28.2	208	33.5	353	31.1
균형적인 편	294	57.1	314	50.6	608	53.6
매우 균형적	63	12.2	71	11.5	134	11.8
합계	515	100.0	620	100.0	1,135	100.0
평균(4점 만점)	2.79점		2.69점		2.74점	

주) '해당사항 없음'(365명)을 제외하고 '매우 불균형'=1점, '매우 균형적'=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16] 일·생활 균형 정도

❍ 일·생활 균형 정도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부록-30〉 참조)

- 성별로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역 중에서는 군 지역,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집단에서 일·생활이 균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차이의 원인을 유추해보면, '일·생활 균형'이 '일·가족 양립'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은 남성의 영역, 생활(가족)은 여성의 영역과 같은 성별 이분법이 작용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일 중심적인 삶에 대한 문제점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최근 일·생활 균형 문화가 일 중심 사회, 장시간 노동 관행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연령층과 고학력층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를 수용하고 실천하려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군 지역의 경우 시 지역과는 다른 자연환경과 삶의 리듬이 일·생활 균형의 삶을 더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산함)가 가장 높은 항목은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38.0%)로 나타남

- 다음으로 '직장일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듣는다'(23.9%), '가족에 대한 책임(육아, 가사활동 등) 때문에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다'(9.7%),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 업무

에 집중도가 떨어진다'(9.4%),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승진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7.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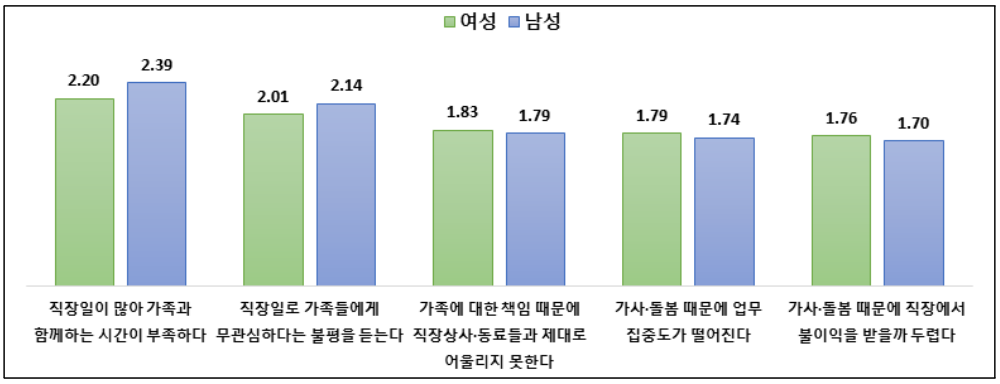
-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가 2.30점으로 가장 높고,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승진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가 1.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Ⅳ-33〉 일·생활 균형 항목별 동의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전체	160	15.1	497	46.9	327	30.8	76	7.2	1,060	2.30
	여성	76	15.7	264	54.5	117	24.2	27	5.6	484	2.20
	남성	84	14.6	233	40.5	210	36.5	49	8.5	576	2.39
직장일로 가족들에게 무관심 하다는 불평을 듣는다	전체	197	18.7	604	57.4	220	20.9	32	3.0	1,053	2.08
	여성	91	19.0	302	62.9	79	16.5	8	1.7	480	2.01
	남성	106	18.5	302	52.7	141	24.6	24	4.2	573	2.14
가족에 대한 책임(육아, 가사활동 등) 때문에 직장상사나 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다	전체	252	31.0	482	59.3	64	7.9	15	1.8	813	1.81
	여성	118	31.1	220	57.9	32	8.4	10	2.6	380	1.83
	남성	134	30.9	262	60.5	32	7.4	5	1.2	433	1.79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진다	전체	288	34.4	470	56.2	69	8.2	10	1.2	837	1.76
	여성	141	35.9	202	51.4	42	10.7	8	2.0	393	1.79
	남성	147	33.1	268	60.4	27	6.1	2	0.5	444	1.74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승진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전체	290	35.1	477	57.7	53	6.4	6	0.7	826	1.73
	여성	135	35.0	211	54.7	36	9.3	4	1.0	386	1.76
	남성	155	35.2	266	60.5	17	3.9	2	0.5	440	1.70

주) '해당사항 없음'(365명)을 제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17] 일·생활 균형 항목별 동의 정도

○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에 관한 각 문항별 유의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먼저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의 경우 성별,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31〉 참조)

- 성별로는 남성, 외벌이 가족, 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직장일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듣는다'의 경우 성별, 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32〉 참조)

- 성별로는 남성,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기혼 집단, 혼벌이 가족, 소득수준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직장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함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다'의 경우 가족 유형, 학력,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33〉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3세대 가족,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집단, 혼인상태 중에서는 이혼·별거·사별 집단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가정일 때문에 직장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진다'의 경우 가족 유형,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34〉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2세대 가족과 3세대 가족,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보다는 기혼, 이혼·별거·사별 집단에서 '가정일 때문에 직장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가정일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승진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낀 적

이 있다'의 경우 가족 유형, 학력,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35〉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2세대 가족,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보다 기혼, 이혼·별거·사별 집단에서 '가정일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승진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종합적으로 일·생활 균형과 관련한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보임

- '직장일로 인해'로 시작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남성의 동의 정도가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가사·양육·돌봄으로 인해'로 시작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의 동의 정도가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2) 돌봄에 대한 인식

❑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

❍ 다음으로 돌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집단 중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1순위, 2순위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1순위 중에서는 '영아(만0~2세)'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 아동(14.0%), 치매 노인(13.5%), 장애가 있는 성인(10.5%), 투병중인 환자(10.3%) 순으로 나타남

〈표 Ⅳ-34〉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

(단위: 명, %)

구분	1순위		1순위+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영아(만0~2세)	489	32.6	660	22.0
장애 아동	210	14.0	413	13.8
치매 노인	203	13.5	523	17.5
장애가 있는 성인	158	10.5	331	11.0
투병 중인 환자	154	10.3	311	10.4
거동이 불편한 노인	138	9.2	391	13.0
유아(만3~5세)	125	8.3	309	10.3
초등학생	23	1.5	59	2.0
합계	1,500	100.0	2,997	100.0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영아(22.0%)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지만, 다음으로 치매 노인(17.5%), 장애 아동(13.8%), 거동이 불편한 노인(13.0%), 장애가 있는 성인(11.0%) 순으로 나타나 1순위만 비교했을 때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임

❍ 성별, 연령별 각 집단에 따라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1순위)에 대해 응답이 높은 순서로 1위~5위까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영아라고 응답했고, 그다음으로 여성은 장애아동(14.4%), 치매노인(13.2%), 투병중인 환자(11.5%) 순으로 남성은 치매노인(13.9%), 장애아동(13.6%), 장애가 있는 성인(10.3%) 순으로 응답해 인식에 차이를 보임
- 연령에서도 20~39세 집단, 40~59세 집단, 60~79세 집단 모두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영아라고 응답함. 특히 20~39세 집단의 경우 영아라는 응답이 41.4%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유아라는 응답도 12.2%에 달해 영유아 돌봄의 필요성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음
- 40~59세 집단은 영아(32.6%), 장애 아동(15.7%), 치매 노인(13.2%) 순으로, 60~79세 집단은 영아(23.8%), 치매 노인(21.2%), 거동이 불편한 노인(15.1%) 순으로 응답해 연령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35〉 성별·연령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1순위)

(단위: 명, %)

성별	전체(N=1,500)		여성(N=751)		남성(N=749)	
	돌봄대상	비율	돌봄대상	비율	돌봄대상	비율
1위	영아	32.6	영아	31.3	영아	33.9
2위	장애 아동	14.0	장애 아동	14.4	치매 노인	13.9
3위	치매 노인	13.5	치매 노인	13.2	장애 아동	13.6
4위	장애가 있는 성인	10.5	투병중인 환자	11.5	장애가 있는 성인	10.3
5위	투병중인 환자	10.3	장애가 있는 성인	10.8	거동이 불편한 노인	9.5
연령별	20~39세(N=452)		40~59세(N=599)		60~79세(N=449)	
	돌봄대상	비율	돌봄대상	비율	돌봄대상	비율
1위	영아	41.4	영아	32.6	영아	23.8
2위	장애 아동	14.4	장애 아동	15.7	치매 노인	21.2
3위	유아	12.2	치매 노인	13.2	거동이 불편한 노인	15.1
4위	투병중인 환자	10.6	장애가 있는 성인	10.9	장애가 있는 성인	11.8
5위	장애가 있는 성인	8.8	투병중인 환자	9.7	장애 아동	11.4

❑ 돌봄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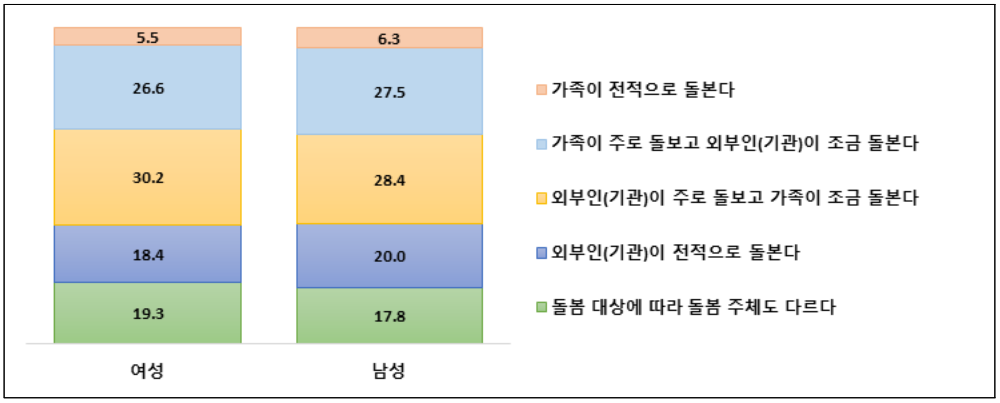
❍ 가족 내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돌봄의 주체가 우선적으로 누구여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외부인(외부기관)이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돌본다'라는 응답이 29.3%로 가장 높고, '가족이 주로 돌보고 외부인이 조금 돌본다'(27.1%), '외부인이 전적으로 돌본다'(19.2%), '돌봄 대상에 따라 돌봄 주체도 다르다'(18.5%)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외부인이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돌본다', '가족이 주로 돌보고 외부인이 조금 돌본다', '돌봄 대상에 따라 돌봄 주체도 다르다' 순으로 응답해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음

〈표 Ⅳ-36〉 돌봄 주체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이 전적으로 돌본다	41	5.5	47	6.3	88	5.9
가족이 주로 돌보고 외부인(기관)이 조금 돌본다	200	26.6	206	27.5	406	27.1
외부인(기관)이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돌본다	227	30.2	213	28.4	440	29.3
외부인(기관)이 전적으로 돌본다	138	18.4	150	20.0	288	19.2
돌봄 대상에 따라 돌봄 주체도 다르다	145	19.3	133	17.8	278	18.5
합계	751	100.0	749	100.0	1,500	100.0



[그림 Ⅳ-18] 돌봄 주체

❑ 돌봄 비용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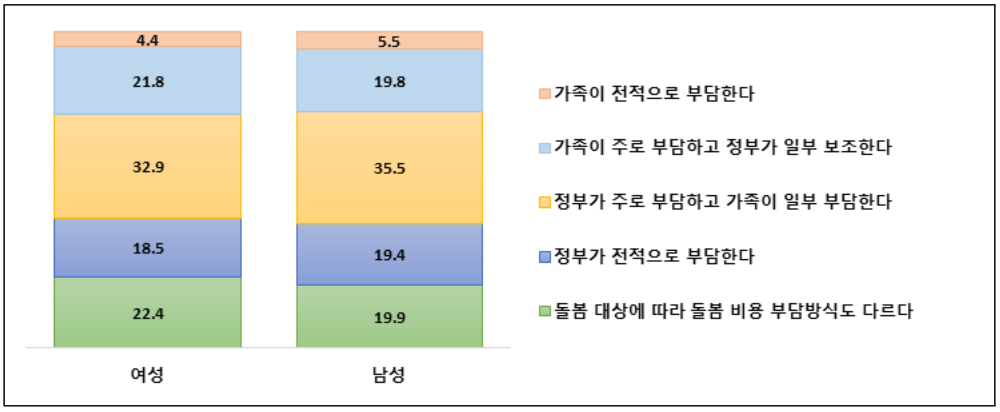
❍ 가족 내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돌봄 비용을 우선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로 부담하고 가족이 일부 부담한다'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돌봄 대상에 따라 돌봄 비용 부담방식도 다르다'(21.1%), '가족이 주로 부담하고 정부가 일부 보조한다'(20.8%),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18.9%)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정부가 주로 부담하고 가족이 일부 부담한다', '돌봄 대상에 따라 돌봄 비용 부담방식도 다르다', '가족이 주로 부담하고 정부가 일부 보조한다' 순으로 응답해 큰 차이는 없음

〈표 Ⅳ-37〉 돌봄 비용 부담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33	4.4	41	5.5	74	4.9
가족이 주로 부담하고 정부가 일부 보조한다	164	21.8	148	19.8	312	20.8
정부가 주로 부담하고 가족이 일부 부담한다	247	32.9	266	35.5	513	34.2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139	18.5	145	19.4	284	18.9
돌봄 대상에 따라 돌봄 비용 부담방식도 다르다	168	22.4	149	19.9	317	21.1
합계	751	100.0	749	100.0	1,500	100.0



[그림 Ⅳ-19] 돌봄 비용 부담

(3) 부모 부양

□ 부모 부양 책임자

○ 가족 중에서 부모 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먼저 1순위 응답만 비교해 보면, '모든 자녀가 골고루'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모님 스스로'(35.1%),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9.5%), '장남과 맏며느리'(7.1%),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6.1%) 순으로 나타남

〈표 Ⅳ-38〉 부모 부양 책임자

(단위: 명, %)

구분	1순위		1순위+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모든 자녀가 골고루	546	36.4	865	28.9
부모님 스스로	527	35.1	681	22.8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	143	9.5	614	20.5
장남과 맏며느리	107	7.1	178	6.0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	91	6.1	292	9.8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	71	4.7	287	9.6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녀	15	1.0	72	2.4
합계	1,500	100.0	2,989	100.0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자녀가 골고루'(28.9%), '부모님 스스로'(22.8%),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20.5%),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9.8%),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9.6%) 순으로 나타남
- 1순위 응답과 1순위+2순위를 합산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1~3위까지는 순위가 동일하지만 4위부터는 다르게 나타남. 특히 1순위+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는 부모 부양의 주체를 결정할 때 경제적 능력, 재산 상속 여부, 가까이 사는 자녀와 같이 외부적 요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연령별 각 집단에 따라 부모 부양 책임자(1순위) 1~3위 응답을 비교해보면, 먼저 여성의 경우 '부모님 스스로'라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모든 자녀가 골고루'라는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는 20~39세 집단의 경우, '부모님 스스로'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은 반면 40~59세와 60~79세는 모두 '모든 자녀가 골고루'(각각 38.4%, 33.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Ⅳ-39〉 성별·연령별 부모 부양 책임자(1순위)

(단위: 명, %)

성별	전체(N=1,500)		여성(N=751)		남성(N=749)	
	부모 부양 책임자	비율	부모 부양 책임자	비율	부모 부양 책임자	비율
1위	모든 자녀가 골고루	36.4	부모님 스스로	36.8	모든 자녀가 골고루	37.7
2위	부모님 스스로	35.1	모든 자녀가 골고루	35.2	부모님 스스로	33.5
3위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	9.5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	9.7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	9.3
연령별	20~39세(N=452)		40~59세(N=599)		60~79세(N=449)	
	부모 부양 책임자	비율	부모 부양 책임자	비율	부모 부양 책임자	비율
1위	부모님 스스로	38.7	모든 자녀가 골고루	38.4	모든 자녀가 골고루	33.6
2위	모든 자녀가 골고루	36.5	부모님 스스로	34.9	부모님 스스로	31.8
3위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	8.6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	8.5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	11.8

□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 부모 부양에 관한 각 문항별 동의('매우 동의'와 '동의'를 합산함) 정도를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공적 돌봄(정부 제공의 돌봄 서비스)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돌봄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다'에 대해서는 84.0%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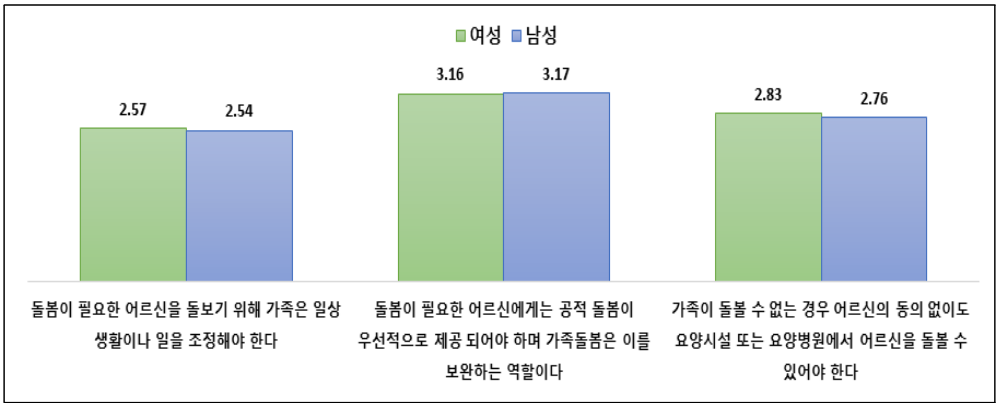
- 다음으로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어르신의 동의 없이도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66.7%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가족은 일상생활이나 일을 조정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60.3%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표 Ⅳ-40〉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가족은 일상 생활이나 일을 조정해야 한다	전체	166	11.1	430	28.7	808	53.9	96	6.4	1,500	2.56
	여성	80	10.7	216	28.8	404	53.8	51	6.8	751	2.57
	남성	86	11.5	214	28.6	404	53.9	45	6.0	749	2.54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공적 돌봄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돌봄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다	전체	8	0.5	231	15.4	767	51.1	494	32.9	1,500	3.16
	여성	4	0.5	118	15.7	385	51.3	244	32.5	751	3.16
	남성	4	0.5	113	15.1	382	51.0	250	33.4	749	3.17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어르신의 동의 없이도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전체	92	6.1	408	27.2	720	48.0	280	18.7	1,500	2.79
	여성	33	4.4	211	28.1	360	47.9	147	19.6	751	2.83
	남성	59	7.9	197	26.3	360	48.1	133	17.8	749	2.76

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매우 동의한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20]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 '매우 동의한다'를 4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부모 부양에 관한 각 문항별 유의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먼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가족은 일상생활이나 일을 조정해야 한다'의 경우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36〉 참조)

- 연령별로는 60~79세, 거주지역은 군 지역, 혼인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 집단,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이러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공적 돌봄(정부 제공의 돌봄 서비스)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돌봄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거주지역, 취업상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37〉 참조)

- 거주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 비취업 상태, 외벌이 가족,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이러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어르신의 동의 없이도 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거주지역,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38〉 참조)

- 거주지역 중에서는 군 지역, 가구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 이러한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4)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견해 및 정책 제안, 경상남도 가족기관 및 가족정책 평가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봄

(1) 현재 지역사회 만족도

□ 거주기간 및 이주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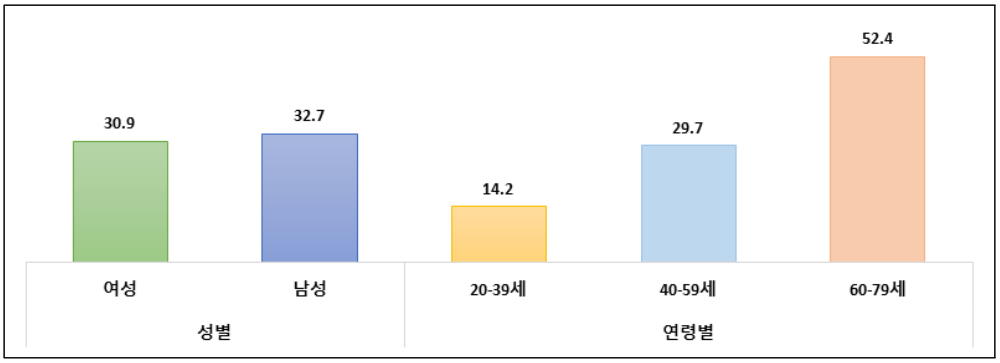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현 지역사회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시·군을 중심으로 동일 시·군에 거주한 기간을 질문한 결과 평균 31.8년이라고 응답함

- 거주기간의 차이는 연령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20~39세의 경우 평균 14.2년, 40~59세의 경우 평균 29.7년, 60~79세의 경우 평균 52.4년간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살고 있다고 응답함

〈표 Ⅳ-41〉 현재 거주지 거주기간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년 미만	158	10.5	78	10.4	80	10.7
5~10년 미만	155	10.3	75	10.0	80	10.7
10~20년 미만	188	12.5	95	12.6	93	12.4
20~30년 미만	255	17.0	139	18.5	116	15.5
30~40년 미만	175	11.7	88	11.7	87	11.6
40~50년 미만	180	12.0	99	13.2	81	10.8
50년 이상	389	25.9	177	23.6	212	28.3
합계	1,500	100.0	751	100.0	749	100.0
평균	31.8년		30.9년		32.7년	
구분	20~39세		40~59세		60~79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년 미만	139	30.8	18	3.0	1	0.2
5~10년 미만	91	20.1	54	9.0	10	2.2
10~20년 미만	43	9.5	118	19.7	27	6.0
20~30년 미만	117	25.9	109	18.2	29	6.5
30~40년 미만	62	13.7	79	13.2	34	7.6
40~50년 미만	0	0.0	117	19.5	63	14.0
50년 이상	0	0.0	104	17.4	285	63.5
합계	452	100.0	599	100.0	449	100.0
평균	14.2년		29.7년		52.4년	



[그림 Ⅳ-21] 현재 거주지 거주기간

❍ 현재 거주하는 시·군으로 이주한 시기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태어나 현재 시·군으로 이주했다'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주중이다' 37.7%,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서 태어났지만 외지에 갔다가 이주했다' 7.9% 순으로 나타남

- 이주시기에 대한 응답은 특히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외지에서 태어나 이주했다'는 응답이 20~39세 63.1%, 40~59세 59.1%, 60~79세 39.2%이고,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주중이다'라는 응답은 20~39세 33.4%, 40~59세 32.6%, 60~79세 49.0%로 상반되게 나타남
- 즉, 연령대가 낮을수록 외지에서 태어나 이주한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재 시·군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중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Ⅳ-42〉 현재 거주지 이주시기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외지에서 태어나 이주했다	815	54.3	431	57.4	384	51.3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서 태어났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이주했다	119	7.9	59	7.9	60	8.0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주중이다	566	37.7	261	34.8	305	40.7
합계	1,500	100.0	751	100.0	749	100.0
구분	20~39세		40~59세		60~79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외지에서 태어나 이주했다	285	63.1	354	59.1	176	39.2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서 태어났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이주했다	16	3.5	50	8.3	53	11.8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주중이다	151	33.4	195	32.6	220	49.0
합계	452	100.0	599	100.0	4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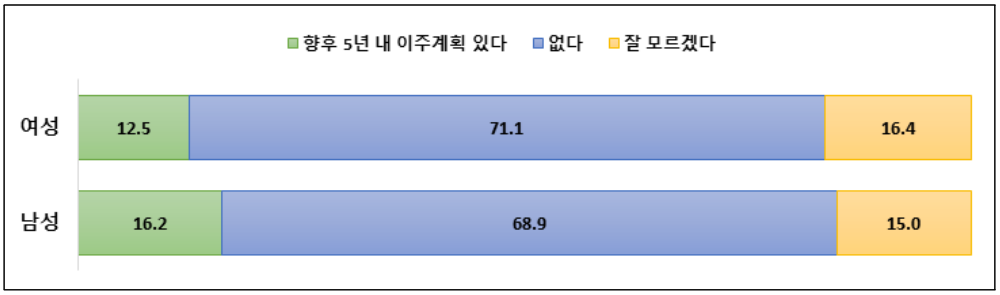
□ 향후 5년 내 이주 계획 및 희망 거주지

❍ 응답자들 대상으로 향후 5년 내에 다른 시·군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가 70.0%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 15.7%, '그렇다' 14.3% 순으로 나타남

〈표 Ⅳ-43〉 향후 5년 내 이주 계획 유무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94	12.5	121	16.2	215	14.3
없다	534	71.1	516	68.9	1,050	70.0
잘 모르겠다	123	16.4	112	15.0	235	15.7
합계	751		749		1,500	



[그림 Ⅳ-22] 향후 5년 내 이주 계획 유무

❍ 향후 5년 내 이주 계획에 대한 응답은 가족 유형,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39〉 참조)

- 이주 계획이 없다(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가족 유형별로는 3세대 가족, 연령별로는 60~79세, 거주지역 중에서는 군 지역,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집단, 혼인 상태 중에서는 기혼 집단, 가구소득 중에서는 200만원 미만인 집단임
- 다양한 집단 중에서 이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9세(29.9%)이고, 반대로 이주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79세(92.4%)로 연령에 따라 지역사회 이주 계획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 부족, 생활에 대한 기본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현상과 연관 지어서 해석할 수 있음

❍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로 인해'가 60.0%로 가장 많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10.7%),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찾아서'(8.4%), '이사, 계약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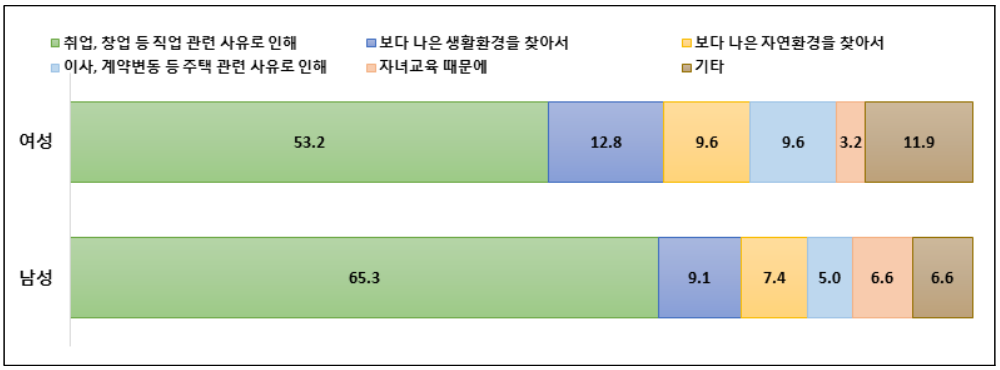
인해'(7.0%) 순으로 나타남

- 기타로는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6명), '가구원의 분가·출생·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4명), '(본인의) 진학 등 교육적인 이유로 인해'(3명), '건강상의 이유로'(2명), '본인의 결혼'(1명), '자녀의 생활터전'(1명) 등으로 응답함

〈표 Ⅳ-44〉 이주하려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로 인해	50	53.2	79	65.3	129	60.0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12	12.8	11	9.1	23	10.7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찾아서	9	9.6	9	7.4	18	8.4
이사, 계약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로 인해	9	9.6	6	5.0	15	7.0
자녀교육 때문에	3	3.2	8	6.6	11	5.1
기타	11	11.9	8	6.6	19	8.9
합계	94		121		215	



[그림 Ⅳ-23] 향후 5년 내 이주하려는 이유

❍ 만약 향후 5년 내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질문한 결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등 경상권 지역'이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경상남도 내 다른 시/군'(27.0%),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18.6%), '제주 지역'(5.6%) 순으로 나타남

〈표 Ⅳ-45〉 이주 시 희망 거주지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등 경상권 지역	47	50.0	44	36.4	91	42.3
경상남도 내 다른 시/군	21	22.3	37	30.6	58	27.0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11	11.7	29	24.0	40	18.6
제주 지역	7	7.4	5	4.1	12	5.6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등 충청권 지역	3	3.2	4	3.3	7	3.3
전남, 전북, 광주 등 전라권 지역	2	2.1	1	0.8	3	1.4
강원 지역	2	2.1	1	0.8	3	1.4
이민 또는 해외파견 등 국외 지역	1	1.1	-	-	1	0.5
합계	94		121		215	

□ 현재 거주지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

○ 현재 거주하는 시·군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산함)한다는 응답이 81.9%, 불만족(‘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와 ‘만족하지 않는다’를 합산함) 18.1%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음

- ‘매우 만족’을 4점 만점으로 환산해 만족도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면 전체 평균은 2.99점이며, 여성 2.98점, 남성 2.99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음

〈표 Ⅳ-46〉 현재 거주지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0	2.7	15	2.0	35	2.3
만족하지 않는다	112	14.9	125	16.7	237	15.8
만족한다	484	64.4	459	61.3	943	62.9
매우 만족한다	135	18.0	150	20.0	285	19.0
합계	751	100.0	749	100.0	1,500	100.0
평균(4점 만점)	2.98점		2.99점		2.99점	

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 ‘매우 만족한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24] 현재 거주지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

○ 현 거주지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가족 유형,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부록-40〉 참조)

- 연령별로는 60~79세, 거주지역 별로는 군 지역,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집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 유형별로는 비친족 가족, 혼인상태 중에서는 미혼 집단의 만족도가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특징이 나타남

(2)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견해 및 정책 제안

□ 이웃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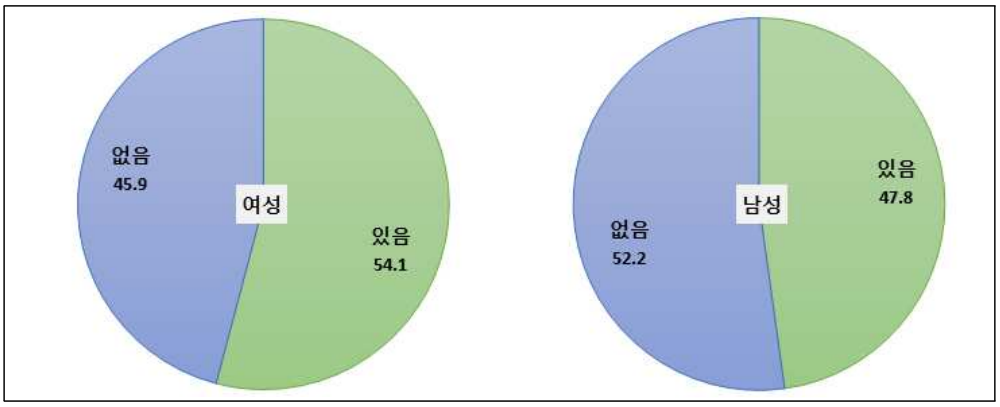
○ 평소에 이웃과 왕래하며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50.9%가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54.1%, 남성의 47.8%가 교류하고 있다고 응답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평소 이웃과 왕래하며 교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47〉 이웃과 왕래 유무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406	54.1	358	47.8	764	50.9
아니오	345	45.9	391	52.2	736	49.1
합계	751		749		1,500	



[그림 Ⅳ-25] 이웃과 왕래 유무

❍ 이웃과 왕래 유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가족 유형,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혼인상태, 취업상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부록-41〉 참조)

- 가족 유형별로는 3세대 가족,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60~79세, 거주 지역은 군 지역, 학력은 고졸 이하, 혼인상태는 기혼 집단, 비취업 집단, 외벌이 가족,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이웃과 왕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다양한 집단 중 이웃과 왕래한다는 응답이 높은 집단은 60~79세(81.7%), 3세대 가족(72.4%), 외벌이 가족(71.4%)이었고, 이웃과 왕래한다는 응답이 낮은 집단은 미혼(10.7%), 비친족 가족(13.3%), 20~39세(14.8%)로 집단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이웃 간 교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택배 수령, 음식 나누기, 생활정보 교류 등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받음'이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운동, 모임 등 오락 및 취미활동을 함께 함'(26.8%), '동네 주민행사 참여 및 봉사에 함께 함'(23.7%), '가족 단위 나들이 및 산책 등을 함께 함'(12.7%)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택배 수령, 음식 나누기, 생활정보 교류 등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받음'(31.2%), '운동, 모임 등 오락 및 취미활동을 함께 함'(25.0%), '동네 주민행사 참여 및 봉사에 함께 함'(20.9%) 순으로 교류한다고 응답함
- 남성의 경우 '운동, 모임 등 오락 및 취미활동을 함께 함'(29.1%), '동네 주민행사 참여 및 봉사에 함께 함'(26.9%), '택배 수령, 음식 나누기, 생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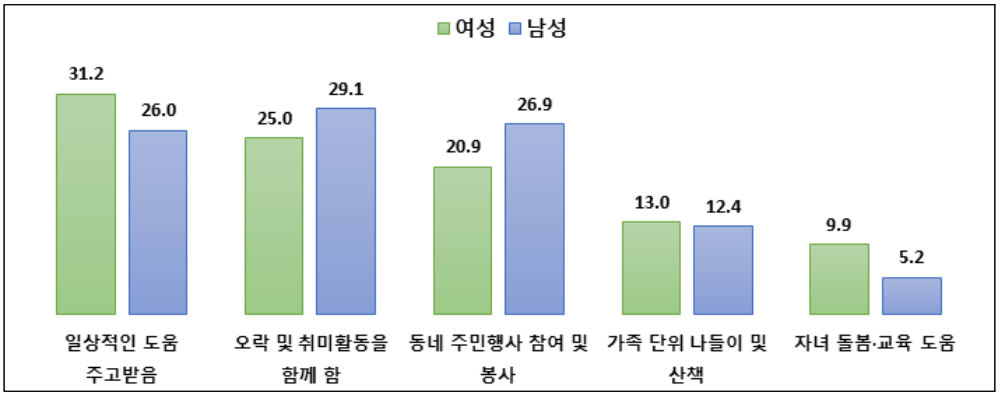
보 교류 등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받음'(26.0%), '가족 단위 나들이 및 산책 등을 함께 함'(12.4%) 순으로 응답해 성별 교류 유형에 다소 차이를 보임

〈표 Ⅳ-48〉 이웃과 교류 유형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택배 수령, 음식 나누기, 생활정보 교류 등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받음	240	31.2	170	26.0	410	28.8
운동, 모임 등 오락 및 취미활동을 함께 함	192	25.0	190	29.1	382	26.8
동네 주민행사 참여 및 봉사에 함께 함	161	20.9	176	26.9	337	23.7
가족 단위 나들이 및 산책 등을 함께 함	100	13.0	81	12.4	181	12.7
자녀 돌봄 및 교육에 관한 도움을 주고받음	76	9.9	34	5.2	110	7.7
기타	-	-	3	0.5	3	0.2
합계	769		654		1,423	

주) 본 문항은 복수응답임



[그림 Ⅳ-26] 이웃과 교류 유형

□ 지역사회 및 마을(동네) 공동체와의 관계

○ 원활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마을(동네)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순위 응답

을 살펴보면,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방범 및 안전'(21.7%), '운동 및 취미생활'(18.1%), '생활정보 공유 및 나눔'(12.3%), '음식 나눔 장보기'(7.3%) 순으로 응답함
-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해서 살펴보면 '생활정보 공유 및 나눔'(19.9%), '운동 및 취미생활'(19.2%), '방법 및 안전'(17.7%), '필요 없음'(13.0%), '음식 나눔 장보기'(10.5%) 순으로 나타나 1순위만 살펴보았을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표 Ⅳ-49〉 마을(동네) 공동체로부터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1순위		1순위+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방범 및 안전	325	21.7	463	17.7
운동 및 취미생활	272	18.1	501	19.2
생활정보 공유 및 나눔	184	12.3	519	19.9
음식 나눔 장보기	110	7.3	275	10.5
자녀 돌봄	93	6.2	108	4.1
병원 및 교통 등 동행	81	5.4	171	6.5
자녀 교육	69	4.6	146	5.6
봉사 활동	25	1.7	89	3.4
기타	-	-	1	0.0
필요 없음	341	22.7	341	13.0
합계	1,500	100.0	2,614	100.0

❍ 마을(동네) 공동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과 40~59세 집단은 '방범 및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20~39세의 경우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1.2%로 마을(동네) 공동체의 지원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또한 20~39세는 '자녀 돌봄'(9.5%), 40~59세는 '자녀 교육'(7.8%)을 5위로 응답해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 돌봄과 교육을 위한 공동체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50〉 성별·연령별 필요로 하는 마을(동네) 공동체 지원(1순위)

(단위: 명, %)

성별	전체(N=1,500)		여성(N=751)		남성(N=749)	
	마을(동네) 공동체 지원	비율	마을(동네) 공동체 지원	비율	마을(동네) 공동체 지원	비율
1위	필요 없음	22.7	방범 및 안전	22.8	필요 없음	24.6
2위	방범 및 안전	21.7	필요 없음	20.9	방범 및 안전	20.6
3위	운동 및 취미생활	18.1	운동 및 취미생활	18.1	운동 및 취미생활	18.2
4위	생활정보 공유나눔	12.3	생활정보 공유 및 나눔	10.5	생활정보 공유 및 나눔	14.0
5위	음식 나눔 장보기	7.3	음식 나눔 장보기	8.9	음식 나눔 장보기/ 자녀 돌봄	5.7
연령별	20~39세(N=452)		40~59세(N=599)		60~79세(N=449)	
	마을(동네) 공동체 지원	비율	마을(동네) 공동체 지원	비율	마을(동네) 공동체 지원	비율
1위	필요 없음	41.2	방범 및 안전	25.0	운동 및 취미생활	23.6
2위	방범 및 안전	17.3	필요 없음	19.7	방범 및 안전	21.6
3위	생활정보 공유 및 나눔	13.3	운동 및 취미생활	19.5	병원 및 교통 등 동행	14.3
4위	운동 및 취미생활	10.8	생활정보 공유 및 나눔	10.2	생활정보 공유 및 나눔	14.0
5위	자녀 돌봄	9.5	자녀 교육	7.8	음식 나눔 장보기	12.7

❍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1순위를 살펴보면 ‘지역주민 행사(알뜰장, 바자회, 주민축제 등) 개최’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지역 주민 모임 공간 마련 지원’(21.7%), ‘모두 필요 없음’(20.4%), ‘이웃 간 교류 정보 홍보’(10.8%), ‘마을 동아리 및 주민 자치 활동 지원’(10.5%) 순으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여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행사 개최’라는 응답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기타 사업으로 제안한 의견에는 ‘돌봄 품앗이’, ‘운동기구’, ‘운동 및 취미’ ‘문화행사’ 등이 있음

〈표 Ⅳ-51〉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단위: 명, %)

구분	1순위		1순위+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역주민 행사(알뜰장, 바자회, 주민축제 등) 개최	467	31.1	611	23.1
지역 주민 모임 공간 마련 지원	326	21.7	608	23.0
이웃 간 교류 정보 홍보	162	10.8	468	17.7
마을 동아리 및 주민 자치활동 지원	157	10.5	394	14.9
지역주민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79	5.3	253	9.6
기타	3	0.2	6	0.2
모두 필요 없음	306	20.4	306	11.6
합계	1,500		2,646	

❍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성별, 연령별 각 집단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Ⅳ-52〉 성별·연령별 이웃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1순위)

(단위: 명, %)

성별	전체(N=1,500)		여성(N=751)		남성(N=749)	
	이웃 간 교류 활성화 필요 사업	비율	이웃 간 교류 활성화 필요 사업	비율	이웃 간 교류 활성화 필요 사업	비율
1위	지역주민 행사개최	31.1	지역주민 행사개최	32.6	지역주민 행사개최	29.6
2위	지역 주민 모임 공간 마련 지원	21.7	지역 주민 모임 공간 마련 지원	21.4	지역 주민 모임 공간 마련 지원	22.0
3위	모두 필요 없음	20.4	모두 필요 없음	19.7	모두 필요 없음	21.1
연령별	20~39세(N=452)		40~59세(N=599)		60~79세(N=449)	
	이웃 간 교류 활성화 필요 사업	비율	이웃 간 교류 활성화 필요 사업	비율	이웃 간 교류 활성화 필요 사업	비율
1위	모두 필요 없음	35.6	지역주민 행사개최	32.7	지역주민 행사개최	36.7
2위	지역주민 행사개최	23.5	지역 주민 모임 공간 마련 지원	19.2	지역 주민 모임 공간 마련 지원	29.4
3위	지역 주민 모임 공간 마련 지원	17.5	모두 필요 없음	18.4	마을 동아리 및 주민자치 활동 지원	12.9

-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연령별로는 20~39세 집단에서 '모두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이 3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나타남
- 앞서 살펴본 마을(동네) 공동체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20~39세의 경우 지역사회 이웃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1순위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18.6%), '보육·돌봄 제도의 확대 보급'(9.9%), '부부상담·자녀상담 등 가족관계 프로그램 제공'(8.9%) 순으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Ⅳ-53〉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

구분	1순위		1순위+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489	32.6	674	22.6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279	18.6	495	16.6
보육·돌봄 제도의 확대 보급	149	9.9	345	11.5
부부상담, 자녀상담 등 가족관계 프로그램 제공	133	8.9	229	7.7
가족 간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홍보 캠페인	114	7.6	326	10.9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96	6.4	244	8.2
가족공원, 가족극장 등 가족 오락시설 확충	78	5.2	218	7.3
학교 주변 폭력문화 근절	49	3.3	178	6.0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	53	3.5	168	5.6
인터넷 음란 및 음란·퇴폐업소의 감시 강화	55	3.7	106	3.5
기타	5	0.3	5	0.2
합계	1,500	100.0	2,988	100.0

❍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응답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가족 유형에 따라서는 우

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라는 응답이 가장 높지만, 1인가구와 비친족 가족의 경우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6.3%,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1인가구와 비친족 가족을 제외한 1세대 가족, 2세대 가족, 3세대 가족은 모두 '보육·돌봄 제도의 확대 보급'을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 1인가구와 3세대 가족은 '부부상담·자녀상담 등 가족관계 프로그램 제공', 2세대 가족은 '가족 간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홍보 캠페인', 비친족 가족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평가해 가족 유형별 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임

〈표 Ⅳ-54〉 가족 유형별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1순위)

(단위: 명, %)

가족 유형	전체(N=1,500)		1인가구(N=449)		1세대(N=298)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것	비율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것	비율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것	비율
1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32.6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36.3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34.2
2위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18.6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30.1	보육·돌봄 제도의 확대 보급	12.8
3위	보육·돌봄 제도의 확대 보급	9.9	부부상담, 자녀상담 등 가족관계 프로그램 제공	6.7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12.1
가족 유형	2세대(N=632)		3세대(N=76)		비친족 가족(N=45)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것	비율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것	비율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것	비율
1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32.8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40.8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40.0
2위	보육·돌봄 제도의 확대 보급	12.0	보육·돌봄 제도의 확대 보급	19.7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31.1
3위	가족 간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홍보 캠페인	9.8	부부상담, 자녀상담 등 가족관계 프로그램 제공	10.5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11.1

(3) 경상남도 가족기관 및 가족정책 평가

○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기관 및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률을 살펴보면, 가족정책(기관)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44.2%)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41.7%),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34.6%),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31.6%), 주거환경(공간) 개선 가사지원 사업(31.3%)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표 Ⅳ-55〉 경상남도 가족정책·기관 인지도 및 이용률

(단위: 명, %)

구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음		이용한 적 있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663	44.2	93	6.2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625	41.7	22	1.5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519	34.6	16	1.1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474	31.6	17	1.1
주거환경(공간)개선 가사지원(저소득가구 정리수납서비스)	470	31.3	55	3.7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난방연료비,생활자립금,직업훈련비 등)	430	28.7	39	2.6
경남 아이다누리카드(다자녀가정 지원사업)	398	26.5	15	1.0
난임부부 시술비 및 진단검사비 지원	281	18.7	17	1.1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직업훈련비, 산전산후요양비등)	193	12.9	3	0.2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119	7.9	9	0.6

○ 경상남도 가족정책(기관)을 이용(또는 참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을 이용해 봤다는 응답이 93명(6.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환경(공간) 개선 가사지원'(3.7%), '한부모가족 자립지원'(2.6%),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1.5%) 순으로 나타남

- 하지만 전체 응답자 1,500명 중에 가족정책(기관)을 하나라도 이용해봤다고 응답한 인원이 286명(19.1%, 중복 포함)에 불과해 가족정책(기관)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 그 원인은 지금까지 가족정책(기관)이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특정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가족정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가족을 위한 정책을 널리 홍보할 필요 있음

5)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 코로나 19 이후 가족의 변화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1)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과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이 증가(‘매우 증가’와 ‘증가’를 합산함)했다는 응답이 9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대로 ‘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캠핑, 여행 등)’은 감소(‘매우 감소’와 ‘감소’를 합산함)했다는 응답이 8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Ⅳ-56〉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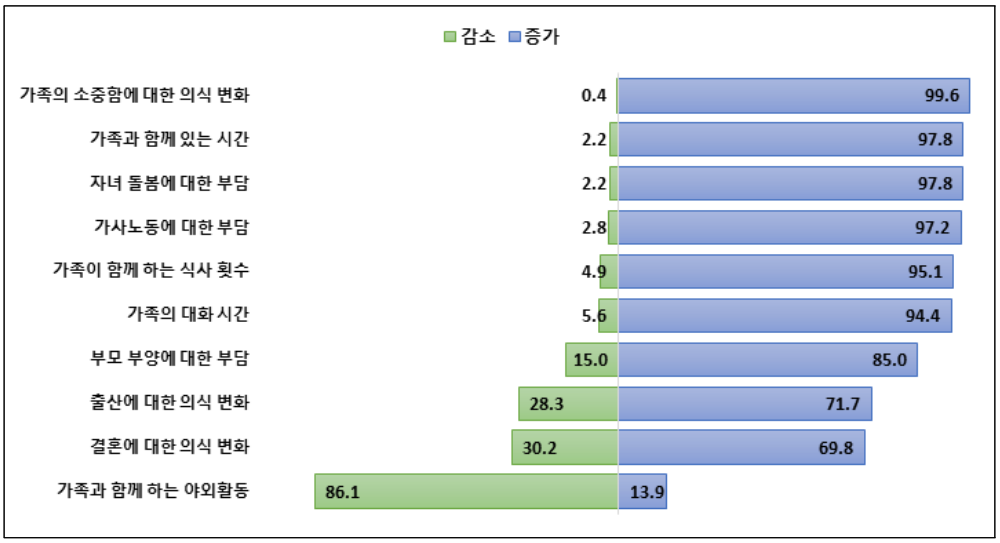
구분		매우 감소		감소		증가		매우 증가		전체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 변화	전체	1	0.2	1	0.2	300	54.9	244	44.7	546	3.44
	여성	-	-	1	0.4	141	53.0	124	46.6	266	3.46
	남성	1	0.4	-	-	159	56.8	120	42.9	280	3.42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	전체	-	-	5	2.2	164	73.2	55	24.6	224	3.22
	여성	-	-	2	1.7	81	69.2	34	29.1	117	3.27
	남성	-	-	3	2.8	83	77.6	21	19.6	107	3.17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감소		감소		증가		매우 증가		전체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횟수	전체	5	0.6	34	4.3	556	70.4	195	24.7	790	3.19
	여성	2	0.5	15	3.7	277	68.7	109	27.0	403	3.22
	남성	3	0.8	19	4.9	279	72.1	86	22.2	387	3.16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전체	4	0.5	13	1.7	605	78.0	154	19.8	776	3.17
	여성	2	0.5	4	1.0	297	76.5	85	21.9	388	3.20
	남성	2	0.5	9	2.3	308	79.4	69	17.8	388	3.14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전체	-	-	16	2.8	456	79.2	104	18.1	576	3.15
	여성	-	-	7	2.1	257	76.0	74	21.9	338	3.20
	남성	-	-	9	3.8	199	83.6	30	12.6	238	3.09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전체	4	2.7	41	27.5	42	28.2	62	41.6	149	3.09
	여성	2	2.7	19	25.7	17	23.0	36	48.6	74	3.18
	남성	2	2.7	22	29.3	25	33.3	26	34.7	75	3.00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전체	1	0.8	17	14.2	72	60.0	30	25.0	120	3.09
	여성	-	-	8	12.1	42	63.6	16	24.2	66	3.12
	남성	1	1.9	9	16.7	30	55.6	14	25.9	54	3.06
가족의 대화 시간	전체	-	-	41	5.6	594	80.9	99	13.5	734	3.08
	여성	-	-	24	6.3	304	80.4	50	13.2	378	3.07
	남성	-	-	17	4.8	290	81.5	49	13.8	356	3.09
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임신계획 지연 등)	전체	3	2.2	36	26.1	55	39.9	44	31.9	138	3.01
	여성	2	2.5	20	25.3	32	40.5	25	31.6	79	3.01
	남성	1	1.7	16	27.1	23	39.0	19	32.2	59	3.02
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 (캠핑, 여행 등)	전체	153	26.2	349	59.9	74	12.7	7	1.2	583	1.89
	여성	81	27.0	180	60.0	35	11.7	4	1.3	300	1.87
	남성	72	25.4	169	59.7	39	13.8	3	1.1	283	1.90

주) '변화 없음'을 제외하고 '매우 감소'=1점, '매우 증가'=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 '매우 증가'를 4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 변화'가 3.44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3.22점),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횟수'(3.19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3.17점),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3.1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Ⅳ-27]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

○ 코로나19로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유의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먼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 변화'의 경우, 거주지역과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42〉 참조)

- 거주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의 경우, 연령, 거주지역, 취업상태, 맞벌이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43〉 참조)

- 연령별로는 20~39세, 거주 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 비취업 상태, 외벌이 가족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횟수'의 경우, 가족 유형, 연령, 거주지역, 취업상태,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44〉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3세대 가족, 연령별로는 20~39세, 거주 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 비취업 집단, 외벌이 가족,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횟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의 경우, 가족 유형, 연령, 거주지역, 취업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45〉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1세대 가족, 연령별로는 20~39세, 거주 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 비취업 집단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

이 더 높게 나타남

○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의 경우, 성별, 거주지역, 취업상태, 맞벌이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46〉 참조)

- 성별로는 여성, 거주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 비취업 집단, 외벌이 가족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한 문항 중 성별 차이가 유일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것을 체감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의 경우, 거주지역, 맞벌이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47〉 참조)

- 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가족에게서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의 경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48〉 참조)

- 대졸 이상 집단보다 고졸 이하 집단에서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가족의 대화 시간’의 경우 가족 유형, 연령,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49〉 참조)

- 가족 유형 중에서는 1세대 가족, 연령별로는 20~39세, 거주지역 중에서는 시 지역에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더 많음

○ ‘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임신 계획 지연 등)’의 경우, 연령,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부록-50〉 참조)

- 연령별로는 60~79세,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집단,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임신계획 지연 등 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출산의 당사자인 20~39세보다 60~79세, 40~59세의 의식 변화가 더 많았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임신·출산 등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른 연령대에서 보다 크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캠핑, 여행 등)’의 평균 점수는 1.89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취업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남(〈부록-51〉 참조)

- 취업 집단보다 비취업 집단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의 어려움

❍ 코로나19 이후 함께 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라는 응답이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18.9%), '경제적 어려움 증가'(12.6%), '가족이 아플 때 병원 이용의 어려움'(10.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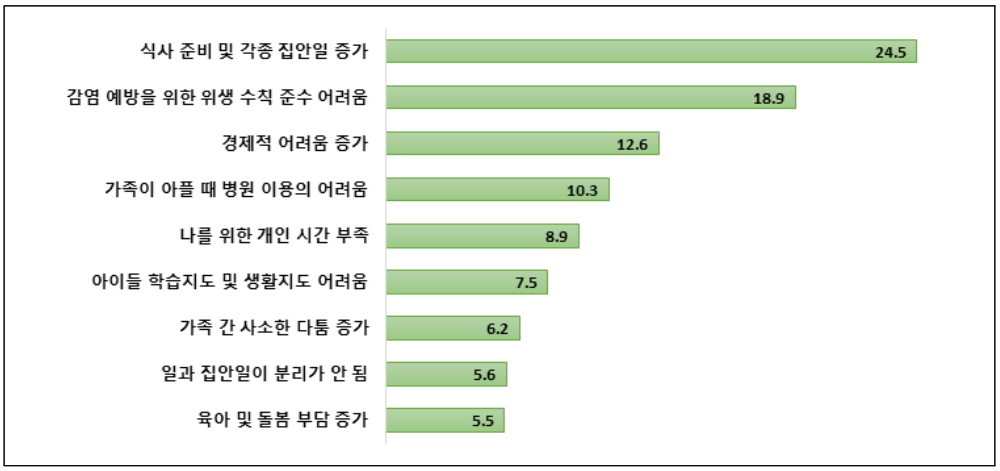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22.0%),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19.5%), '가족이 아플 때 병원 이용의 어려움'(14.9%) 순으로 나타나 1순위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

〈표 Ⅳ-57〉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관계에서 힘들었던 점

(단위: 명, %)

구분	1순위		1순위+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	240	24.5	374	19.5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	185	18.9	422	22.0
경제적 어려움 증가	123	12.6	204	10.6
가족이 아플 때 병원 이용의 어려움	101	10.3	286	14.9
나를 위한 개인 시간 부족	87	8.9	225	11.7
아이들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어려움	73	7.5	127	6.6
가족 간 사소한 다툼 증가	61	6.2	117	6.1
일과 집안일이 분리가 안 됨	55	5.6	84	4.4
육아 및 돌봄 부담 증가	54	5.5	83	4.3
합계	979	100.0	1,922	100.0

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521명은 제외하고 분석함



[그림 Ⅳ-28]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관계에서 힘들었던 점(1순위)

❍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에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 성별, 연령별 각 집단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Ⅳ-58〉 성별·연령별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에서 힘들었던 점(1순위)

(단위: 명, %)

성별	전체(N=1,500)		여성(N=505)		남성(N=474)	
	코로나19 이후 힘든 점	비율	코로나19 이후 힘든 점	비율	코로나19 이후 힘든 점	비율
1위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	24.5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	31.7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	22.6
2위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	18.9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	15.4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	16.9
3위	경제적 어려움 증가	12.6	경제적 어려움 증가	10.1	경제적 어려움 증가	15.2
연령별	20~39세(N=247)		40~59세(N=460)		60~79세(N=272)	
	코로나19 이후 힘든 점	비율	코로나19 이후 힘든 점	비율	코로나19 이후 힘든 점	비율
1위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	23.5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	27.6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	24.3
2위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	19.0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	17.0	경제적 어려움 증가	19.1
3위	육아 및 돌봄 부담 증가	15.8	경제적 어려움 증가	12.0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	18.0

- 여성의 경우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31.7%),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15.4%), '경제적 어려움 증가'(10.1%) 순으로, 남성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22.6%),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16.9%), '경제적 어려움 증가'(15.2%) 순으로 응답해 성별 간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 집단에서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이 높은 응답을 보였는데, 이중 20~39세는 '육아 및 돌봄 부담 증가'(15.8%)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60~79세는 '경제적 어려움 증가'(19.1%)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차이를 보임

□ 코로나19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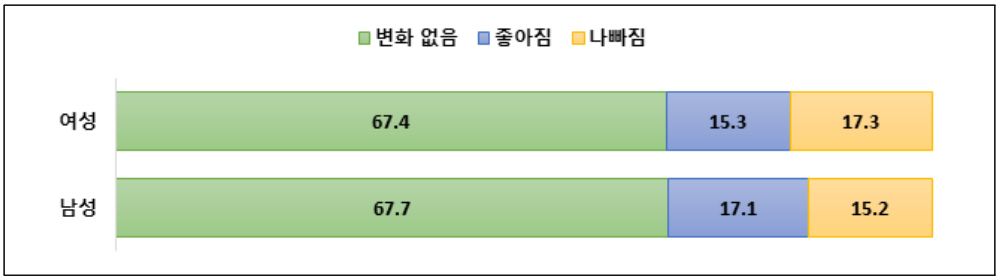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67.7%로 가장 많고,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17.1%)이 나빠졌다는 응답(15.2%)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표 Ⅳ-59〉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코로나19 이전보다 나빠짐	68	17.3	55	13.3	123	15.2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짐	60	15.3	78	18.8	138	17.1
변화 없음	265	67.4	281	67.9	546	67.7
합계	393	100.0	335	100.0	807	100.0

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693명은 제외하고 분석함



[그림 Ⅳ-29]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와의 관계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여성 15.3%, 남성 17.1%로 남성 응답이 조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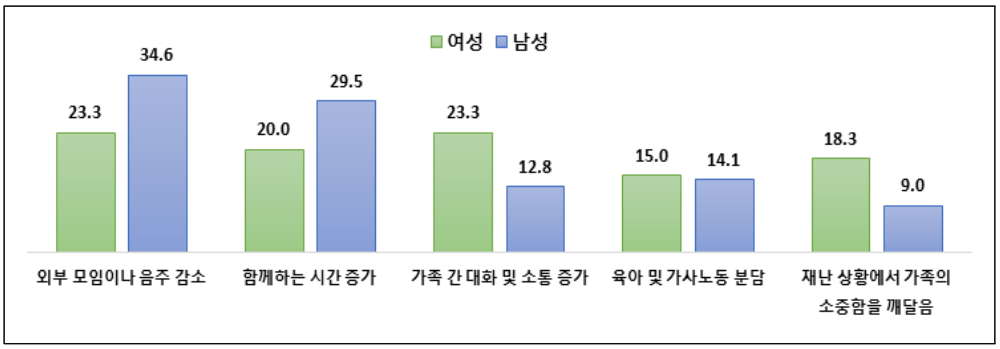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외부 모임이나 음주 감소'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고,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25.4%), '가족 간 대화 및 소통 증가'(17.4%), '육아 및 가사노동 분담'(14.5%)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은 '외부 모임이나 음주 감소'와 '가족 간 대화 및 소통 증가'(각각 23.3%),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20.0%) 순으로 높게 응답했고, 남성은 '외부 모임이나 음주 감소'(34.6%),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29.5%), '육아 및 가사노동 분담'(14.1%) 순으로 응답해 다소 차이를 보임

〈표 Ⅳ-60〉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와 관계 좋아진 이유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외부 모임이나 음주 감소	14	23.3	27	34.6	41	29.7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	12	20.0	23	29.5	35	25.4
가족 간 대화 및 소통 증가	14	23.3	10	12.8	24	17.4
육아 및 가사노동 분담	9	15.0	11	14.1	20	14.5
재난 상황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음	11	18.3	7	9.0	18	13.0
합계	60	100.0	78	100.0	138	100.0



[그림 Ⅳ-30]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와 관계 좋아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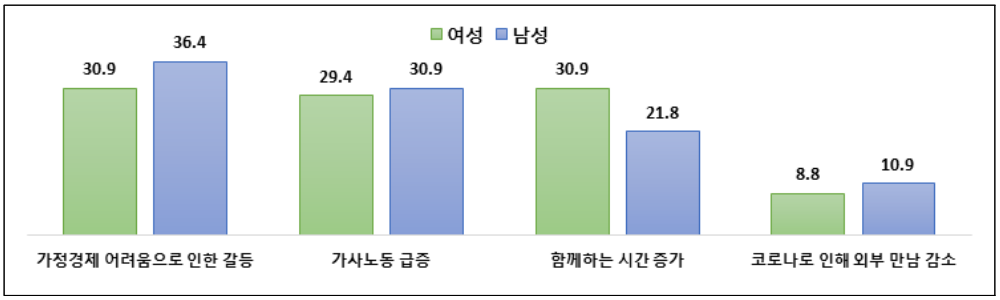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이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고, '가사노동의 급증'(30.1%),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 증가'(26.8%), '코로나로 인해 외부 만남 감소'(9.8%)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은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과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 증가'(각각 30.9%), '가사노동의 급증'(29.4%) 순으로, 남성은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36.4%), '가사노동의 급증'(30.9%),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 증가'(21.8%) 순으로 응답해 비율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

〈표 Ⅳ-61〉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와 관계 나빠진 이유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	21	30.9	20	36.4	41	33.3
가사노동의 급증	20	29.4	17	30.9	37	30.1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 증가	21	30.9	12	21.8	33	26.8
코로나로 인해 외부 만남 감소	6	8.8	6	10.9	12	9.8
합계	68	100.0	55	100.0	123	100.0



[그림 Ⅳ-31]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우자와 관계 나빠진 이유

□ 코로나19 이후 자녀와의 관계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63.9%로 가장 많고,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23.5%)이 나빠졌다는 응답(12.6%)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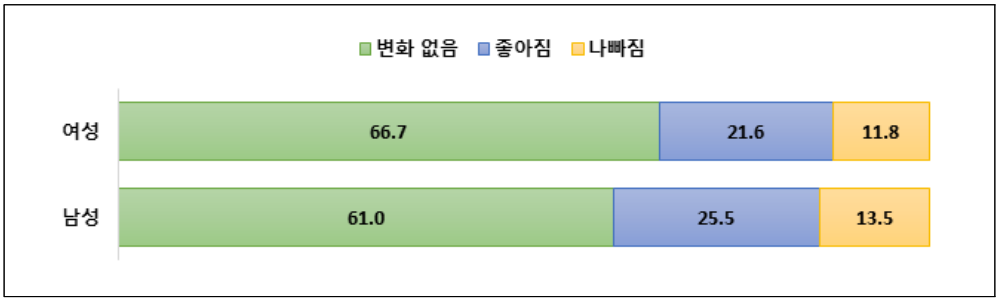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이 여성 21.6%, 남성 25.5%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여성 15.3%, 남성 17.1%인 것과 비교하면, 배우자보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남성이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Ⅳ-62〉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녀와 관계 변화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코로나19 이전보다 나빠짐	36	11.8	38	13.5	74	12.6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짐	66	21.6	72	25.5	138	23.5
변화 없음	204	66.7	172	61.0	376	63.9
합계	306	100.0	282	100.0	588	100.0

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588명은 제외하고 분석함



[그림 Ⅳ-32]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녀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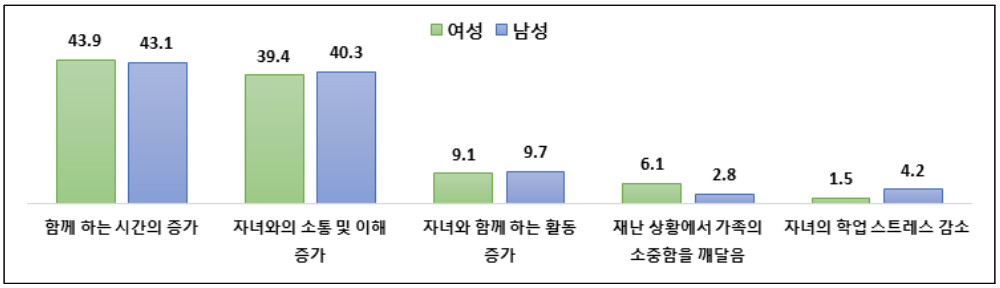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는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와의 소통 및 이해 증가'(39.9%),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증가'(9.4%), '재난 상황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음'(4.3%) 순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 '자녀와의 소통 및 이해 증가',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함

〈표 Ⅳ-63〉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녀와 관계 좋아진 이유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	29	43.9	31	43.1	60	43.5
자녀와의 소통 및 이해 증가	26	39.4	29	40.3	55	39.9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증가	6	9.1	7	9.7	13	9.4
재난 상황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음	4	6.1	2	2.8	6	4.3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	1	1.5	3	4.2	4	2.9
합계	66	100.0	72	100.0	1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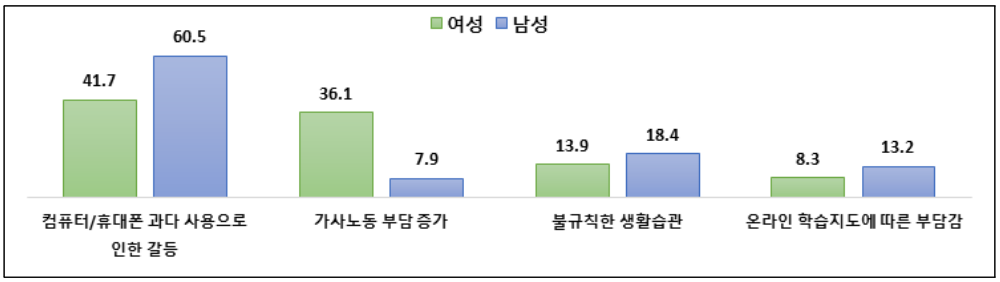
[그림 Ⅳ-33]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녀와 관계 좋아진 이유

○ 반대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진 이유는 '자녀의 컴퓨터/휴대폰 과다 사용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이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자녀의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 부담 증가'(21.6%),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습관'(16.2%), '자녀의 온라인 학습지도에 따른 부담감'(10.8%) 순으로 응답함

〈표 Ⅳ-64〉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녀와 관계 나빠진 이유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녀의 컴퓨터/휴대폰 과다 사용 문제로 인한 갈등	15	41.7	23	60.5	38	51.4
자녀의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 부담 증가	13	36.1	3	7.9	16	21.6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습관	5	13.9	7	18.4	12	16.2
자녀의 온라인 학습지도에 따른 부담감	3	8.3	5	13.2	8	10.8
합계	36	100.0	38	100.0	74	100.0



[그림 Ⅳ-34]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녀와 관계 나빠진 이유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은 '자녀의 컴퓨터/휴대폰 과다 사용 문제로 인한 갈등'(41.7%), '자녀의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 부담 증가'(36.1%),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습관'(13.9%), '자녀의 온라인 학습지도에 따른 부담감'(8.3%) 순으로 응답하고, 남성은 '자녀의 컴퓨터/휴대폰 과다 사용 문제로 인한 갈등'(60.5%),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습관'(18.4%), '자녀의 온라인 학습지도에 따른 부담감'(13.2%), '자녀의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 부담 증가'(7.9%) 순으로 응답해 성별 인식에 차이를 보임
- 특히 여성은 '자녀의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 부담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남성보다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온라인 학습지도에 따른 부담감'과 '컴퓨터/휴대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갈등'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야기되는 갈등의 형태이기 때문에 생활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2) 코로나19 시대 가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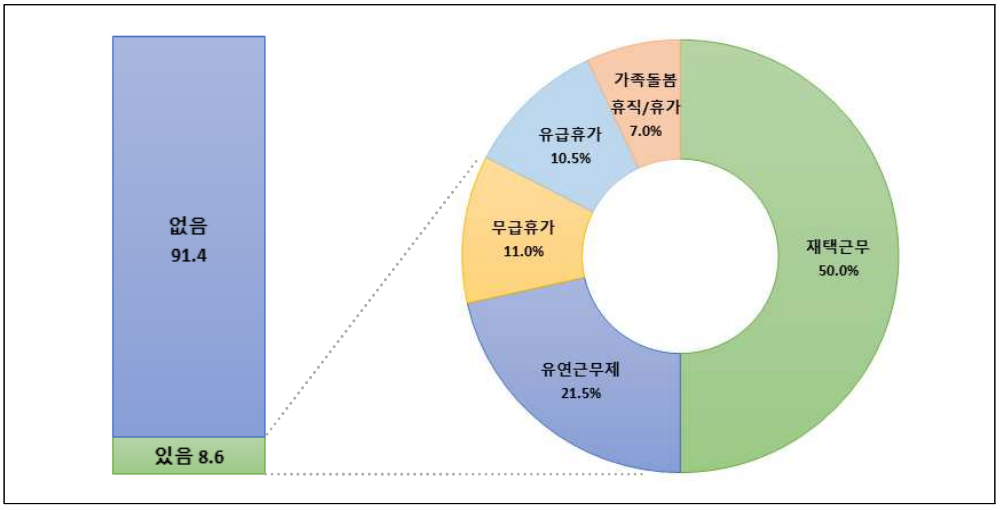
❍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족에게 부과되는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족돌봄제도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가족돌봄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6%(129명)만 있다고 응답해 활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돌봄제도의 여러 형태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은 재택근무이고, 유연근무제, 무급휴가, 유급휴가(연차휴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재택근무를 본인이 활용한 경우는 56명(3.7%), 배우자가 활용한 경우는 30명(2.0%)였고, 다음으로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등)'

2.4% (본인 1.5%, 배우자 0.9%), 무급휴가 1.2%(본인 0.7%, 배우자 0.5%) 순으로 나타남

〈표 Ⅳ-65〉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제도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재택근무	26	1.7	18	1.2	30	2.0	12	0.8	56	3.7	30	2.0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등)	10	0.7	8	0.5	13	0.9	6	0.4	23	1.5	14	0.9
무급휴가	5	0.3	3	0.2	6	0.4	5	0.3	11	0.7	8	0.5
유급휴가(연차휴가)	6	0.4	5	0.3	2	0.1	5	0.3	8	0.5	10	0.7
가족돌봄 휴직/휴가	6	0.4	1	0.1	2	0.1	3	0.2	8	0.5	4	0.3
육아휴직	3	0.2	2	0.1	1	0.1	3	0.2	4	0.3	5	0.3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3	0.2	-		1	0.1	2	0.1	4	0.3	2	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1	0.1	1	0.1	1	0.1	1	0.1



[그림 Ⅳ-35]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제도 이용 경험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이라는 응답이 488명(3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19.1%),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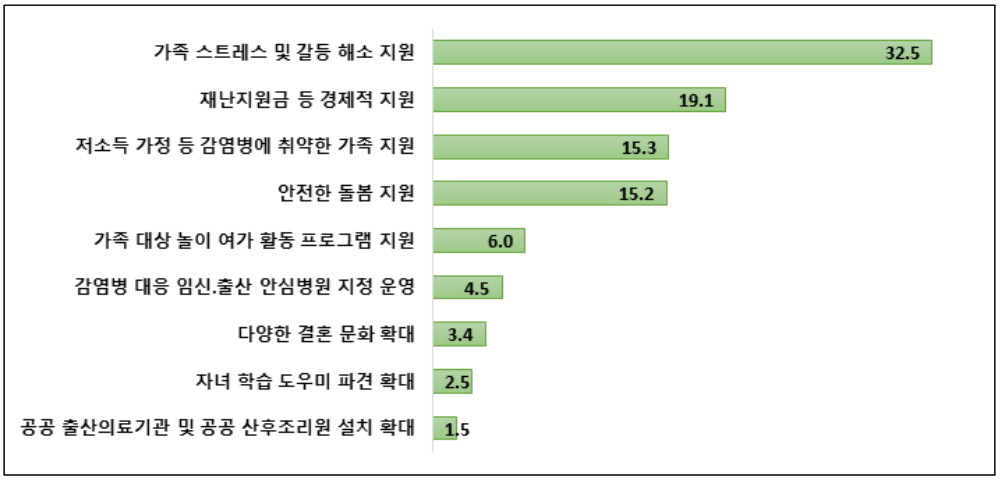
취약한 가족 지원'(15.3%), '안전한 돌봄 지원'(15.2%) 순으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여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가족 지원', '안전한 돌봄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Ⅳ-66〉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단위: 명, %)

구분	1순위		1순위+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	488	32.5	642	21.5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287	19.1	601	20.2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가족 지원	230	15.3	467	15.7
안전한 돌봄 지원	228	15.2	438	14.7
가족 대상 놀이 여가 활동 프로그램 지원	90	6.0	329	11.0
감염병 대응 임신·출산 안심병원 지정 운영	67	4.5	204	6.8
자녀 학습 도우미 파견 확대	37	2.5	132	4.4
다양한 결혼 문화 확대 (스몰 웨딩, 온라인 웨딩, 온라인 예비부부 교육 등)	51	3.4	103	3.5
공공 출산의료기관 및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22	1.5	66	2.2
합계	1,500	100.0	2,982	100.0



[그림 Ⅳ-36]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을 성별, 연령별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과 남성 모두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다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여성은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가족 지원'을, 남성은 '안전한 돌봄 지원'이라고 응답해 다소 차이가 있음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 집단에서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두 번째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의견이 달랐는데 20~39세는 '안전한 돌봄 지원', 40~59세는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60~79세는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가족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표 Ⅳ-67〉 성별·연령별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단위: 명, %)

성별	전체(N=1,500)		여성(N=751)		남성(N=749)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비율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비율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비율
1위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	32.5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	32.9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	32.2
2위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19.1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18.1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20.2
3위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가족 지원	15.3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가족 지원	16.9	안전한 돌봄 지원	14.7
연령별	20~39세(N=452)		40~59세(N=599)		60~79세(N=449)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비율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비율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비율
1위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	30.8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	35.7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	30.1
2위	안전한 돌봄 지원	19.7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20.4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가족 지원	22.0
3위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16.6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가족 지원	13.7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20.0

3. 소결

1) 가족 가치관

○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에 대한 태도는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가 가장 평균 점수가 높아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태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 관련 제도 추진에 대한 동의 정도는 ‘이혼 후 양육비 불이행 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1인가구에 대한 지원강화’로 나타나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도의 추진 또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이성 간 데이트 및 혼인 시 주택 마련, 혼수, 예단 등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은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남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수 이상으로 나타남

- 비용 부담에 대한 견해는 성별,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데이트 비용과 주택 마련 비용은 남자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데이트 비용과 주택 마련은 남자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혼수, 예단의 경우 여자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데이트 비용 및 결혼 비용에 관한 성별·연령별 차이는 여전히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남성이 집을 마련하고, 여성이 혼수 및 예단을 준비하는 관습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음

2)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 가족 내 성평등 정도는 현재 가족이 평균 6.77점으로 원가족(5.12점)에 비해 높아 현재 가족이 원가족보다는 상대적으로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어린 시절 경험한 가족 내 성차별 정도가 현재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가족 내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어머니, 딸, 여자형

제 순이고, 소통이 안 되는 가족 구성원은 '아무도 없음' 다음으로 아버지, 남자형제, 아들 순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임

❍ 가족 간 의사소통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대화', '딸과의 대화', '어머니와의 대화', '아들과의 대화'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가족 간 의사소통 중요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88.7%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가족 간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으로는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다음으로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몸이 피곤해서', '일 외에도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순으로 나타남. 즉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

❍ 가족 간 갈등 경험은 배우자, 아들, 딸 순으로 나타남. 가족 간 갈등 원인은 배우자, 아버지의 경우 '성격 차이'가 가장 많고 딸과 아들의 경우 '학업·진학·취업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 간 갈등 대처방식에 있어 딸, 아들과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갈등 당사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응답이 가장 많지만, 어머니, 아버지와 갈등 시 '그냥 놔둔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부모-자녀 간 갈등 대처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에 대해 '자녀 교육'과 '가사 등 집안일'은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많고, '농지, 농기계, 선박 등 임대 및 매매', '농업 작목(어업 수산물) 결정', '농업(어업) 수확물 판매' 등은 남편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더 많음

3) 일과 돌봄

❍ 일·생활 균형 정도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74점이며, 여성 2.79점, 남성 2.69점으로 여성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을 항목별 평균점수로 비교해 보면,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가 가장 높고, '직장일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듣는다', '가족에 대한 책임(육아, 가사활동 등) 때문에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다',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진다' 순으로 나타남

○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영아(만0~2세)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장애아동, 치매 노인, 장애가 있는 성인 순으로 나타남

- 돌봄의 주체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돌본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돌봄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로 부담하고 가족이 일부 부담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가족 중에서 부모 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은 '모든 자녀가 골고루'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모님 스스로',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 '장남과 맏며느리' 순으로 나타남

-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해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는데 여성과 20~39세 집단의 경우 '부모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부모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공적 돌봄(정부 제공의 돌봄 서비스)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돌봄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다'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4)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31.8년이며, 현재 시·군에는 '외지에서 태어나 이주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향후 5년 내에 이주 계획 의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비친족 가족, 저연령층, 시 지역 거주자, 고학력 집단, 미혼 집단일 경우 이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거주하는 시·군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99점이며, 전체의 81.9%가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함

○ 평소에 이웃과 왕래하며 교류한다는 응답자는 50.9%이며, 이웃과 교류하는 형태는 '택배 수령, 음식 나누기, 생활정보 교류 등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받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이웃과의 교류는 성별로는 여성, 고연령층, 비취업자 집단, 외벌이 가족,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마을(동네)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필요 없음'을 제외하면 '방범 및 안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운동 및 취미생활', '생

활정보 공유 및 나눔', '음식 나눔 장보기'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의 경우 '방범 및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별로 20~39세 집단은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지역주민 행사(알뜰장, 바자회, 주민축제 등) 개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역 주민 모임 공간 마련 지원', '모두 필요 없음', '이웃 간 교류 정보 홍보', '마을 동아리 및 주민 자치 활동 지원' 순으로 나타남

❍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자신의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보육·돌봄 제도의 확대 보급', '부부상담, 자녀상담 등 가족관계 프로그램 제공' 순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 가족정책 및 기관 인지도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으로 나타남

5)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 변화'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횟수',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순으로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음. 반면 '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캠핑, 여행 등)'은 감소했다는 응답이 더 많음

❍ 코로나19 이후 함께 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점은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증가'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은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이 가장 많음. 즉 코로나19 인한 집안일 증가가 여성에게 더 크게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는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면 그 이유에 대해 ‘외부 모임이나 음주 감소’,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 ‘가족 간 대화 및 소통 증가’, ‘육아 및 가사노동 분담’ 순으로 나타난 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진 이유로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 ‘가사노동의 급증’,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 증가’, ‘코로나로 인해 외부 만남 감소’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함께 사는 자녀와 관계 변화 역시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 이유로는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가 가장 많고, ‘자녀와의 소통 및 이해 증가’,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증가’, ‘재난 상황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음’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진 이유로는 ‘자녀의 컴퓨터/휴대폰 과다 사용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고, ‘자녀의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 부담 증가’,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습관’, ‘자녀의 온라인 학습지도에 따른 부담감’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전체의 8.6%만 활용했다고 응답해 활용도가 낮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재택근무’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하지만 가족돌봄제도 이용률 자체가 미미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가족 지원’, ‘안전한 돌봄 지원’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간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가 친밀해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가족이 모두 함께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족정책의 요구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V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GNWFF

V.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경남 가족 현황에 대한 분석, 여성가족부의 〈2020 가족실태조사〉와 경남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경남 가족문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경남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지속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 관련 통계지표들로 구성된 "(가칭)경남 평등가족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1.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1) 경남 가족 현황 분석 시사점

○ 가족 형태의 변화

- 평균 가구원 수 감소와 세대 구성의 변화, 1인가구 증대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

➡ 기존에는 취약가족으로 인식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등에 가족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발맞춰 1인가구, 비친족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적극적 가족정책 제시 필요

○ 저출생 원인에 대한 성별 차이

- 저출생 원인에 대해 여성은 '결혼 가치관 변화', '자녀 양육 부담'이 주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경제 침체 및 직장 불안정'이 주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성별 인식 차이가 나타남

➡ 현재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청년세대의 젠더 인식 차이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저출생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도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청년세대의 인식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현실 간의 차이

- 가사분담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예전보다 증가하였지만, 실제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여전히 낮은 수치로 나타

남. 실제 경남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을 비교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가사노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사노동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과 현실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의 구체적인 상 제시 필요

〈표 Ⅴ-1〉 경남 가족현황 진단 시사점 및 정책 방향

분류	문제 진단 및 시사점	정책 방향
가족 형태의 변화	ㅇ평균 가구원 수 감소와 1인가구 증대 등 다양한 가족 등장	ㅇ1인가구, 비친족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적극적 가족정책 제시 필요
저출생 원인에 대한 성별 차이	ㅇ여성: 결혼 가치관 변화〉 자녀 양육 부담〉 여성 경제활동 증대 ㅇ남성: 경제 침체 및 직장 불안정〉 결혼 가치관 변화〉 자녀양육 부담	ㅇ저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는 현재 청년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이기도 함 → 청년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현실과의 차이	ㅇ가사분담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ㅇ실제 가사노동 시간(요일 평균)도 경남 여성 3시간10분, 남성 53분으로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임	ㅇ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가사일은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음 ㅇ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을 넘어선 실질적인 실천방안 마련 필요 ㅇ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의 구체적인 상 제시 필요

2) 〈2020 가족실태조사〉 결과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혈연 중심 보수적 가족 가치관

- 가족의 범위를 혈연관계 위주로 생각하거나, 가족 가치관과 관련하여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아 가족 가치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이 전국 평균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가족 가치관의 변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등장, 가족의례를 둘러싼 변화

등 최근 가족문화를 둘러싼 변화에 대해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다 잘 수용하기 위한 인식개선 정책 필요

○ 가족관계: 친밀도와 만족도 높음

- 가족 간 관계에 대해서 경남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모두 친밀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부모-성인 자녀와의 관계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가족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가족 간 친밀도가 높고, 가족 간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간 친밀도를 더욱 높이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강화 필요

○ 일·가족 및 노후 준비: 노후 준비 정도 미흡

- 일·가정 양립 어려움을 묻는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남
- 생애 설계에 대한 준비 정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노후에 대한 구상도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라는 응답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가족을 중심으로 노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애 설계,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노후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와 함께 노인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 필요

○ 가족원 돌봄: 어머니에게 집중된 영유아 돌봄

- 영유아의 주 돌봄자는 어머니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주 돌봄자는 아이 어머니라는 응답이 100.0%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육아 책임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전히 육아의 주 돌봄자는 어머니라는 인식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부가 육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상호돌봄의 가치관 확대 필요

○ 정책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 필요

- 지역사회 가족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해, 경남의 경우 노인 돌봄 지원,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 순으로 필요

성이 높다고 인식함

-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노인 1인가구,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순으로 나타남

➡ 기존에는 취약가족으로 인식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등에 가족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이제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과 같은 보편적 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연령별, 가족형태별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적극적 가족정책 제시 필요

〈표 Ⅴ-2〉 〈2020 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경남 가족의 특성 진단과 정책 방향

분류	문제 진단 및 시사점	정책 방향
혈연 중심 보수적 가족 가치관	ㅇ가족의 범위를 혈연관계 위주로 생각 ㅇ가족 가치관, 가족의례에 관한 전국과 비교하여 보수적 문화	ㅇ가족 가치관의 변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등에 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친밀도와 만족도 높은 가족관계	ㅇ가족 간 친밀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ㅇ가족 간 친밀도를 더욱 높이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강화 필요
노후 준비 정도 미흡	ㅇ생애 설계,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가 전국보다 낮은 편	ㅇ노후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공 및 노인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하는 정책 필요
어머니에게 집중된 영유아 돌봄	ㅇ영유아 주 돌봄자가 어머니에게 집중돼 있는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ㅇ부부가 육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상호돌봄의 가치관 확대 필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 필요	ㅇ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족형태에 대해 노인 1인가구,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순으로 나타남	ㅇ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과 같은 보편적 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연령별, 가족형태별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 제시 필요

3) 경남가족실태조사 결과

❍ 경남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남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가치관,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일과 돌봄, 지역사회와 가족과의 관

계,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각 분야마다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가족 가치관

○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양상

-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여전히 50% 이상 동의하고 있지만,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75.0%로 나타남.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나타나지만, 남성이 육아 전담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양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부부가 함께 생계도 책임지고 육아도 책임진다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인식 확대, 즉 가족 간 상호돌봄의 가치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필요

○ 가족 범주의 확대

- 가족 범주에 대해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에 대해 전체의 61.8%가 동의하고,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에 대해서는 60.1%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건강가정기본법」 상에 정의하는 혼인·혈연·입양에 의한 가족뿐만 아니라 비혈연, 동거 가족까지로 가족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비혈연 가족, 동거가족 등 가족 관련 지원 정책에서 제외돼 있는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 있음. 최근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데이트 및 혼인 비용 부담에 대한 전통적 인식 잔존

- 데이트 및 혼인 비용 부담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여전히 데이트 비용 및 혼인 시 주택 마련 비용은 남자가, 혼수 및 예단 비용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비용 부담에 대한 성별 고

정관념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과 같은 가족의례에 잔존하는 전통적 관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세대 간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함

〈표 Ⅴ-3〉 가족 가치관 관련 정책 방향

분류	문제 진단 및 시사점	정책 방향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양상	ㅇ여전히 가족 내에서 생계 책임자는 남성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지만 남성 또한 육아 전담자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ㅇ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 추진 필요 ㅇ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인식 확대, 가족 간 상호돌봄의 가치관 확대와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필요
가족 범주의 변화	ㅇ'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61.8%),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보호자 또는 유족이 될 수 있다'(60.1%)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아 기존의 가족보다 가족에 대한 인식이 더 확대됨	ㅇ기존에 결혼 또는 혈연으로 구성되는 가족 개념에서 비혈연, 동거가족까지 가족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 필요(사회복지혜택, 의료적 결정, 사망과 장례, 상속 등 동거인을 위한 권리보장 생활동반자법 등)
데이트 및 혼인 비용 부담에 대한 전통적 인식 잔존	ㅇ데이트 및 혼인 비용 부담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여전히 데이트 비용 및 혼인 시 주택 마련 비용은 남자가, 혼수 및 예단 비용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비용 부담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남	ㅇ결혼과 같은 가족의례에 잔존하는 성차별 관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ㅇ특히, 가족의례를 둘러싼 세대 간 인식 차이 해소 노력 필요

□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 가족 유형 및 가족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성평등 인식 차이 존재

- 현재 가족의 성평등 정도에 대해 가족 유형 중에서는 비친족 가족이 성평

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가족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저연령층, 시 지역 거주자, 고학력 집단, 맞벌이 가족이 더 성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가족유형에 따라,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성평등 인식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가족 특색에 맞는 성평등 가족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특히 성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고연령층, 군 지역 거주자, 저학력 집단, 외벌이 가족 대상 성평등 가족문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가족 내 성차별 요인 : 가사일 편중

- 현재 가족과 원가족 모두 공통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내 성차별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사일 편중'이라고 응답하고, 특히 여성이 '가사일 편중'에 대한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앞서도 살펴봤듯이 가사일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여성이 가사일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필요. 또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역할 및 상호돌봄 문화("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캠페인 필요

❍ 가족 내 의사소통 : 여성 가족과의 만족도 높고 남성 가족과의 만족도 낮음

- 가족 내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여성 가족(아내, 어머니, 딸, 누나, 여동생)과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남성 가족(남편, 아들, 남자형제)과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 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연령에 따라 60-79세는 '가족과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해 가족과의 의사소통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 내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가족 간 원활한 대화를 위한 소통프로그램, 세대 간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한 가족 놀이 문화 조성 등) 마련이 필요하며,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기본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 부모-자녀 세대 간 갈등 대처방식 차이

- 가족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식이 부모, 자녀에 따라 달랐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당사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고 응답했지만, 자녀 입장에서 부모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냥 놔둔다'라고 응답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갈등 해소방식에 차이가 나타남

➡ 갈등 해소 방식의 차이는 결국 부모와 자녀 세대 간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가족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갈등 해소를 통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안내 필요

〈표 Ⅴ-4〉 가족 관계와 가족 생활 관련 정책방향

분류	문제 진단 및 시사점	정책 방향
가족유형 및 가족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성평등 인식 차이 존재	ㅇ현재 가족의 성평등 정도에 대해 가족 유형 중에서는 비친족 가족이 가장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가족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저연령층, 시 지역 거주자, 고학력 집단, 맞벌이 가족이 더 성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ㅇ지역, 연령, 가족 경제적 부양 방법 등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가족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가족 내 성차별 요인 : 가사일 편중	ㅇ가족 내 성차별 원인에 대해 남녀 모두 '가사일 편중'이라고 응답하고, 특히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아 여성의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가사분담 실태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필요 ㅇ가족 구성원으로서 기본 역할 및 상호돌봄 문화에 대한 교육 필요('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가족 내 의사소통 : 여성 가족과 만족도 높고 남성 가족과 만족도 낮음	ㅇ가족 내 의사소통은 공통적으로 여성 가족과의 만족도가 높고, 남성 가족과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ㅇ의사소통 장애 요인에 대해선 성별·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가족과 할 말이 없어서'와 같이 가족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가족 간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 가족 간 원활한 대화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 세대 간 관심사를 공유하고 즐기는 가족 놀이문화 개발 ㅇ특히 가족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본 대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분류	문제 진단 및 시사점	정책 방향
부모-자녀 세대 간 갈등 대처방식 차이	ㅇ가족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식이 부모-자녀에 따라 달랐는데, 부모가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당사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자녀가 부모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냥 놔둔다'라는 응답이 높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갈등 해소방식에 차이가 나타남	ㅇ세대 간 소통 활성화 방안 마련 ㅇ가족갈등 해소 방법 및 갈등 해소를 통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안내 필요

❑ 일과 돌봄

❍ 일·생활 균형 정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 일·생활 균형 정도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 시 지역보다 군 지역,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균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생활 균형은 일 중심 사회에서의 장시간 노동시간 관행에 대한 비판에서 제기되었으므로 일 중심적인 삶, 장시간 노동시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일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서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 스스로를 돌보고 가족 간 상호 돌봄의 가치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 필요

❍ 돌봄 대상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

-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해 전반적으로 '영아(만 0~2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돌봄 문제가 주로 영유아 돌봄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임
-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대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20~39세는 '영아 〉 장애 아동 〉 유아' 순으로 응답한 반면, 60~79세는 '영아 〉 치매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순으로 응답함

➡ 주로 영유아 돌봄으로 인식되고 있는 돌봄 문화를 전 생애에 걸친 돌봄으로, 따라서 세대 간 상호돌봄에 대한 개념으로 확대될 필요 있음

➡ 노령층으로 갈수록 노인 돌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갖출 필요 있음

❍ 부모 부양에 관한 인식의 세대 차이

- 부모 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모든 자녀가 골고루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20~39세 집단은 '부모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향후 부모 부양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부양, 노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사회적 돌봄 확대 정책 필요

➡ 전반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별로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공적 돌봄서비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안내와 홍보 확대 필요

〈표 Ⅴ-5〉 일과 돌봄 관련 정책 방향

분류	문제 진단 및 시사점	정책 방향
일·생활 균형 정도에 집단 간 인식 차이	ㅇ 일·생활 균형 정도에 대한 인식은 여성, 군지역,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균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ㅇ 일·생활 균형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ㅇ일 중심적인 삶, 장시간 노동문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 ㅇ스스로를 돌보고 가족 간 상호돌봄의 가치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 필요
돌봄 대상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	ㅇ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해 전반적으로 '영아(만 0~2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돌봄의 문제가 주로 영유아 돌봄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임 ㅇ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대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20~39세는 영아〉장애 아동〉유아 순으로 응답한 반면, 60~79세는 영아〉치매 노인〉거동이 불편한 노인 순으로 응답함	ㅇ주로 영유아 돌봄으로 인식되고 있는 돌봄 문화를 전 생애에 걸친 돌봄으로, 따라서 세대 간 상호돌봄에 대한 개념으로 확대될 필요 있음 ㅇ노령층으로 갈수록 노인 돌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갖출 필요 있음

분류	문제 진단 및 시사점	정책 방향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의 세대 차이	ㅇ부모 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모든 자녀가 골고루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20~39세 집단은 '부모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ㅇ부모 부양, 노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사회적 돌봄 확대 정책 필요 ㅇ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지역사회 내 공적 돌봄서비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안내와 홍보 확대 필요

□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 차이

- 가족유형 중 비친족 가족과 미혼 집단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 이웃과의 왕래 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또한 이웃과의 왕래, 마을(동네) 공동체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웃과 왕래 여부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마을(동네) 공동체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해 여성은 특히 방범 및 안전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청년층의 경우 마을(동네) 공동체 지원 '필요 없음', 이웃 간 교류 활성화 사업 '모두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지역사회, 이웃, 마을 공동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비친족 가족, 비혼 집단, 청년층과 같이 지역사회 또는 마을(동네)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또는 마을(동네) 공동체가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지역사회 구심점이 없는 비친족 가족, 미혼 집단,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시적 안내 필요

❍ 가족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 경남도민들은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순으로 응답함

- 경상남도 가족정책 및 기관 인지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정책'이 가장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정책 및 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정책에 관한 의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캠페인,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가족정책 및 기관의 인지도와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필요

〈표 Ⅴ-6〉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관련 정책 방향

분류	문제 진단 및 시사점	정책 방향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 차이	ㅇ가족유형 중 비친족 가족과 비혼 집단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 이웃과의 왕래 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남 ㅇ이웃과의 왕래, 마을(동네) 공동체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인식 차이 존재 - 이웃과의 왕래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마을(동네) 공동체로부터 여성은 특히 방범 및 안전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연령별로 청년층의 경우 지역사회, 이웃, 마을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지역사회 또는 마을(동네) 공동체에 부정적 인식을 지닌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ㅇ지역사회 구심점이 없는 비친족 가족, 미혼 집단,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시적 안내 필요
가족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ㅇ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라고 응답함 ㅇ경상남도 가족정책 및 기관 인지도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정책'이 가장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정책 및 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캠페인 등 ㅇ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정책 실시 ㅇ가족정책 및 기관 인지도 및 이용률 확대 노력 필요

□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여성에게 부가되는 가사 및 돌봄 부담

-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특히 여성의 응답이 높아 집안일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주로 여성에게 부가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족에게 부가되는 가사 및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족돌봄제도 이용을 권고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돌봄 부담을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족돌봄제도 사용을 보다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필요

○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증가의 양면성

- 코로나19 이후 배우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도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족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함

➡ 단순히 가족이 함께하는 절대적 시간의 증가가 가족관계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족 간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평등 가족문화 정립을 위한 노력 필요

○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요구되는 가족정책

-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우울감 및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있고, 실태조사 결과 이에 대한 요구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한 가족프로그램 개발 필요

➡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불안 관리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방식으로 상시적 상담 시스템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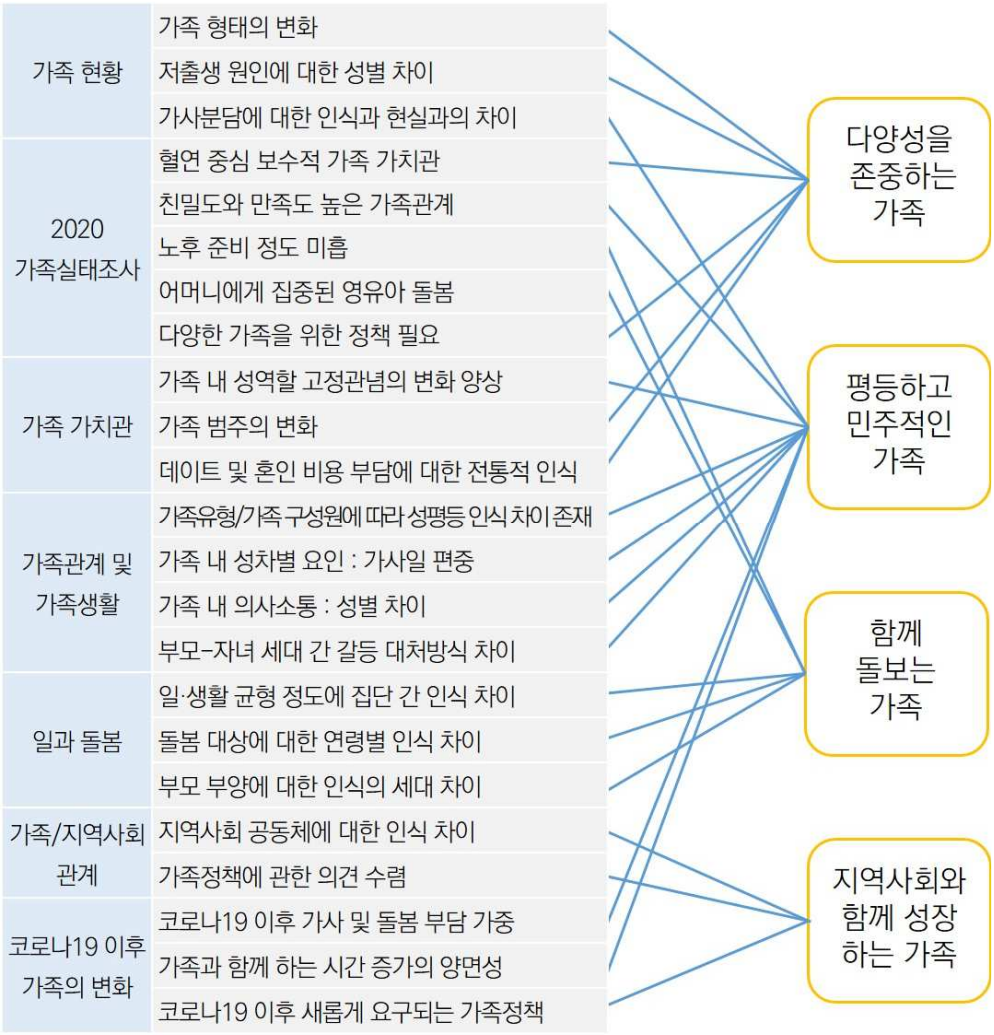
〈표 Ⅴ-7〉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관련 정책 방향

분류	문제 진단	정책 방향
코로나19 이후 여성에게 부가되는 가사 및 돌봄 부담	ㅇ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특히 여성의 가사일 부담이 더 가중된 것으로 나타남 ㅇ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제도 이용을 권고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게 나타남	ㅇ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제도 사용을 보다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필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증가의 양면성	ㅇ배우자, 자녀와의 함께 하는 시간 증가가 관계를 증진시키는 한편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ㅇ가족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족 간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평등 가족문화 조성 노력 필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요구되는 가족정책	ㅇ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으로 나타남	ㅇ가족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불안 관리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방식으로 상시적 상담 시스템 마련 필요

4) 정책과제 도출

❍ 앞에서 살펴본 가족 현황 분석, 〈2020 가족실태조사〉 결과, 경남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 도출된 경남가족의 특징과 시사점을 정책으로 연결하면 [그림 Ⅴ-1]과 같음

- 앞에서 논의한 내용은 소위 정상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가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가족 내 의사소통 증진과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가족에 부여된 돌봄 역할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함께 돌보는 가족', 마지막으로 가족의 범위를 지역사회 공동체까지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라는 네 가지 정책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V-1] 경남 평등 가족문화 정책과제 도출 개념도

2.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1)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체계도

❍ ‘평등 가족문화’라는 개념에는 가족 구성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민주적인 가족문화, 남녀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한 가족문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가족문화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 즉,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각자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비전으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경남 가족’(약칭 ‘소중 경남 가족’)을 제안함

❍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핵심가치는 ‘다양성, 소통, 돌봄, 공존’ 네 가지임

- ‘다양성’은 기존의 소위 ‘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 다양한 삶의 방식 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소통’은 가족 구성원 간 평등하고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져 왔던 돌봄을 가족 구성원들이 분담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공존’은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지역사화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소통하고 존중하는 경남 가족’을 목표로 ‘다양성, 소통, 돌봄, 공존’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개 영역 16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 4개 영역은 다양성, 소통, 돌봄,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3개 과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6개 과제), ‘함께 돌보는 가족’(4개 과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3개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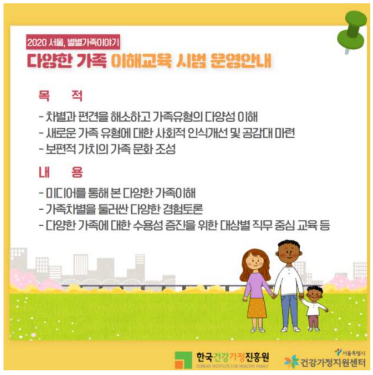
비전	소통하고 존중하는 경남 가족			
핵심 가치	다양성	소통	돌봄	공존

	영역(4개)	정책과제(16개)
영역별 과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1-1 아동·청소년 대상 가족 다양성 교육 1-2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 모니터링 1-3 명절·가족의례 성차별 해소를 위한 공모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2-1 경남 평등가족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2-2 가족 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상담서비스 확대 2-3 '평등가족 실천 약속문' 함께 읽기 캠페인 2-4 중·장년층을 위한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운영 2-5 가족 소통 향상을 위한 가족캠프 운영 2-6 경남 가족학교 운영
	함께 돌보는 가족	3-1 중장년층 남성을 위한 자기돌봄 학교 3-2 아빠 육아대학: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아빠 3-3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 확대 3-4 주거공간 개선 가사 지원사업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4-1 가족지원서비스 기관 홍보 강화 및 가족센터 확대 4-2 우리 마을 이웃사촌 프로젝트 4-3 마을과 함께 서로 돌봄 문화 조성

[그림 V-2]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 정책 체계도

2)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 이 부분에서는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16개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내용, 즉 각 정책과제별 추진배경 및 목표, 사업개요(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소관부서 및 협력기관 등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table>
<tr><th colspan="2">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th><th>1-1 아동·청소년 대상 가족다양성 교육</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어린 시절부터 공교육을 통해 가족다양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함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 추진'(교육부, 지방자치단체)을 제시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교육활동 실시를 권고하고 있음</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초·중·고등학교 재학생</td></tr>
<tr><td>내용</td><td>❍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문화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 이해 교육을 함께 진행
❍ 흔히 부모-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이나 전통·혈연가족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다양한 가족을 가족의 한 형태라는 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교육
※참고 : 스웨덴 초등 6학년 자연과학(생물) 교과서
"가정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다.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결혼 또는 이혼한 부모, 아니면 한부모와 같이 살 수도 있다. […] 일부 부모들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서로 떨어져 산다. 이 경우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 두 가정을 가진다. 엄마가 둘 아빠가 둘인 아이들도 있고 부모 중 한 명이 새 파트너를 만나 아이를 낳아 새로운 형제가 생기기도 한다. 반(半) 형제, 플라스틱 아빠, 보너스 엄마, 또는 계조모 등 여기에 이름은 아주 다양하다." (황선준, 2021: 114)
❍ 각 학교 교육과정에 가족다양성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 예시: 서울특별시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시범 운영안내'
(https://familyseoul.or.kr/)
 
</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 경남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교육청, 경남가족지원기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th><th>1-2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 모니터링</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인식을 바꾸고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언론 및 정부 홍보물 등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실시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을 제시함</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TV 등 대중매체, 정부 홍보물 등</td></tr>
<tr><td>내용</td><td>❍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가족 편견 해소 모니터링’ 사업, 정부 홍보물에 관한 성별영향평가 등을 참조하여 TV, 언론 등 대중매체, 정부 홍보물 등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 지표기준 : 정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지표(여성가족부, 2021b: 67)
<table>
<tr><th>구분</th><th>잘못된 예시</th></tr>
<tr><td>① 가족 이미지를 특정유형으로만 한정하고 있는가?</td><td>‣ 가족을 표현할 때 부모+아들+딸 또는 부모+아들이나 딸로 구성된 이미지로 한정하여 표현
‣ 가족 구성원 표현할 때, 특정 피부색이나 연령에 한정하여 표현</td></tr>
<tr><td>②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고 있는가?</td><td>‣ 성인 여성은 가사와 가족 돌봄, 생계 보조자, 혼수 마련 등의 역할, 성인 남성은 가장, 생계 부양자, 주택 마련 등의 역할
‣ 미성년 여성은 애교 많고 귀엽거나 얌전한 모습, 미성년 남성은 호기심, 장난기, 듬직한 모습으로 묘사
‣ 아동과 함께 놀아주고, 보호하는 성인 역할은 여성으로 표현
‣ 아버지는 가족의 중심에 위치(식탁 상석에 앉은 모습, 가족 구성원을 모두 안고 있는 모습 등 힘을 강조하는 표현)
‣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아버지, ‘맏며느리감’이다 등의 표현</td></tr>
</table>
⇒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등에 따른 차별, 부모의 혼인 여부(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에 따른 아동 차별, 부모의 국적, 부모와의 친생관계에 따른 아동 차별 등으로 지표 확대

❍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언론 홍보를 통해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을 위한 문화 확산
- 부부, 아이돌봄 가족 외 가족 구성의 다양성
- 가족 구성원의 혼인, 출산, 국적, 혈연 등 다양성</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 경남여성가족재단(성별영향평가센터), 경남가족지원기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th><th>1-3 명절·가족의례 성차별 해소를 위한 공모전</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2020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명절, 제사, 장례식, 결혼식 등 가족의례와 관련한 문항에 대해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남
❍ 각자 경험한 명절 문화, 결혼식과 장례식 등 가족의례에서의 성차별을 공모전 형태로 수집하여, 가족 의례를 성평등 문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 필요</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경남도민</td></tr>
<tr><td>내용</td><td>❍ 명절 및 가정의 달에 즈음하여 성차별 가족의례(명절 문화, 장례, 제사, 결혼 등) 관련 사례를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공모전을 개최함
❍ 공모전 결과를 활용해서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가족의례 개선을 위한 경남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함

※ 예시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캠페인,
“이제는 바꿔야 할 의례문화 결혼편/장례편”
(http://seoulgenderequity.kr/news/campaign/)

</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지원기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th><th>2-1 경남 평등가족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경남의 보수적 문화는 보수적 가족문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을 민주적이고 평등한 문화로 바꾸는 것이 경남의 보수적문화를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음
❍ 가족 구성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민주적인 가족문화, 남녀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한 가족문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경남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도내 성평등 강사 및 관련 경력자, 경남도민</td></tr>
<tr><td>내용</td><td>❍ 경남형 평등가족문화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성별·세대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가족 구성원 간 상호 존중 관계 소통 교육, 청년·노년층 등 세대 관계 이해 교육, 청소년기 부모·자녀·조부모·자녀 등 세대 이해 제고를 위한 활동 등)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대상자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
- 가족형태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상별, 유형별 평등가족문화 실천 프로그램 개발(예비부부, 결혼초기부부, 영유아 양육가족, 비친족 동거부부, 다양한 세대로 이루어진 가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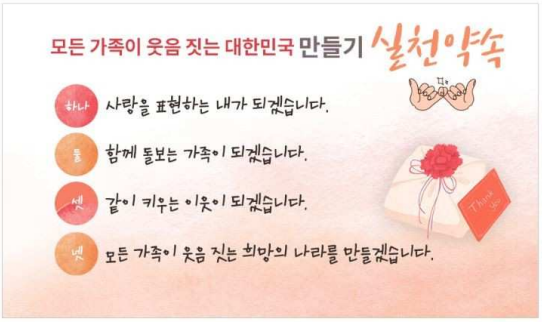
❍ 경남 평등가족문화 교육 전문강사 양성
- 경남형 평등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 교안을 바탕으로 교육을 이수한 전문강사들이 학교, 관공서, 기업 등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연계

❍ 경남 평등가족문화 교육 실시
- 가족형태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예비부부, 결혼 초기부부, 영유아 양육가족, 비친족 동거부부, 다양한 세대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 가족지원기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th><th>2-2 가족 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상담서비스 확대</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에 대해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이라는 응답이 많아 가족상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관계의 문제를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가족상담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가족상담과 심리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 가족상담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서 쉽게 접근 못 하는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가족상담서비스 확대 지원 필요</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경상남도 거주 가족</td></tr>
<tr><td>내용</td><td>○ 가족상담 서비스 확대
- 가족형태별 상담 : 한부모(자녀양육 및 자립), 다문화(인권보호 및 자녀지원), 1인가구(사회관계망), 맞벌이(돌봄,육아), 이혼위기(가족상담·아동지원)
- 가족 생애주기별 상담 : 영유아·초등생(돌봄, 놀이), 청소년(사회성 증진, 사춘기 상담), 부모(남성육아프로그램, 부모·부부 교육), 노인(노후 준비, 재무관리, 교류·소통지원) 등
-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취약·위기가족에 가족상담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이혼 전·후, 가족관계, 가족갈등 심리·정서적 지원
○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상담방법의 다양화
○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가족상담서비스 홍보 강화
※ 참고(여성가족부 가족 상담전화 홍보 포스터)

</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지원기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th><th>2-3 ‘평등 가족 실천 약속문’ 함께 읽기 캠페인</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소통하고 존중하는 평등 가족문화에 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하여 ‘(가칭)평등가족 실천 약속문’을 제작하여 가족들이 함께 읽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캠페인 실시</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경남도민</td></tr>
<tr><td>내용</td><td>❍ (가칭)‘평등가족 실천 약속문’ 제작
- 소통하고 존중하는 평등가족을 만들기 위해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자유로운 의사소통,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상호돌봄 문화 등 평등가족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 (가칭)‘평등가족 실천 약속문’ 제작

※ 예시1. 여성가족부 2018 “가족 실천약속”
 

※ 예시2. 여성신문 평등부부 시상식
- 평등부부 선정 기준: 부부 간 의사결정, 재산권, 가사노동, 자녀교육, 취미생활 및 기타활동 등의 평등점수와 서로에 대한 존중, 독립적인 생활정도, 조화로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평등가족 실천’ 함께 읽기 캠페인
-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진행
- ‘평등가족 실천 약속문’을 함께 읽고, 가족문화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SNS에 게시
- 평등가족과 관련한 내용들을 묶어서 카드뉴스, 브리프 등으로 홍보</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지원기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th><th>2-4 중장년층을 위한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경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갈등 해소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층을 위한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갈등 해소를 통한 관계 개선 도모 필요
❍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가족과 할 말이 없어서’와 같이 의사소통의 기본 방법을 몰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의사소통의 기본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필요</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만 50세 이상 남성 경남도민</td></tr>
<tr><td>내용</td><td>❍ 중장년층을 위한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기본내용
- 기본적인 대화의 기술, 자기 표현방법 교육과 실습
-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 표현방법, 감정 교류하는 방법
- 상대방을 배려하는 소통, 배우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 자녀와의 대화를 비롯하여 다른 세대와의 대화방식
- 가부장제 ‘남성다움’ 진단(권위주의, 집단중심가족문화, 체면의식 등)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등

※ 예시1 : 의사소통 기술(선을 넘는 父子들, 힐링! 상상 父子들),
- 명랑운동회/MAGIC SHOW/캠프파이어 및 대화의 시간 등 관계 개선활동 프로그램(출처: 포항통 http://www.pohangtong.com)

※ 예시2 : “어쩌다 장년, 나를 찾아서” 중년 남성 대상 교육

【어쩌다 장년, 나를 찾아서!!!】 교육생 모집

접수일 : 2021. 7. 1.(목) ~ 7. 15.(목) 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문자 신청

<table>
<tr><th>프로그램명</th><th>일시</th><th>교육 내용</th><th>모집인원</th><th>장소</th></tr>
<tr><td rowspan="4">의사소통 교육</td><td>7/19(월) 15시~17시</td><td>쉬지 못하는 마음, 알아차리기</td><td>10명</td><td>제천여성문화센터</td></tr>
<tr><td>7/26(월) 15시~17시</td><td>부모님, 당신은 크시고 나는 작습니다.</td><td>10명</td><td>제천여성문화센터</td></tr>
<tr><td>8/2(월) 15시~17시</td><td>세상을 바꾸는 시작, 성인지 감수성</td><td>10명</td><td>제천여성문화센터</td></tr>
<tr><td>8/9(월) 15시~17시</td><td>비폭력 대화, 삶을 풍요롭게 부탁하기</td><td>10명</td><td>제천여성문화센터</td></tr>
<tr><td rowspan="3">요리 활동</td><td>8/10(화) 10시~12시</td><td>우리가족을 위한 든든한 요리</td><td>10명</td><td>제천여성문화센터</td></tr>
<tr><td>8/11(수) 10시~12시</td><td>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한 요리</td><td>10명</td><td>제천여성문화센터</td></tr>
<tr><td>8/13(금) 10시~12시</td><td>나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td><td>10명</td><td>제천여성문화센터</td></tr>
<tr><td>역 할 극</td><td>7/26(월) 10시~12시</td><td>역할극을 통한 건강한 의사소통</td><td>5명</td><td>제천여성문화센터</td></tr>
</table></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지원기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th><th>2-5 가족 소통 향상을 위한 가족캠프 운영</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코로나19 이후 가족과의 여행이나 캠핑 등 야외활동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가족과의 야외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대부분 참여자를 모집하여 대규모 집합행사로 실시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행사가 불가능해졌으므로 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등과 연계하여 신청 가족에게 가족여행 경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족 캠프 운영 필요</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가족(저소득 가족이나 위기 가족 우대)</td></tr>
<tr><td>내용</td><td>❍ 1박2일 가족캠프
- 저소득 가족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여행 제안서를 공모 형태로 신청을 받고 선발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경비를 지원함
- 경상남도가 운영하거나 경상남도가 협약을 체결한 자연휴양림 등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1박2일 숙박권, 체험활동비를 직접 지원함
- 가족여행 기회가 많지 않은 저소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위기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가점 부여

※ 예시 : 해양수산부 ‘해안누리길 가족여행 여행경비 지원’

</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지원기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th><th>2-6 경남 가족학교 운영</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경상남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중인 경남 가족학교 운영을 보다 확대하고,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가족학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 및 가족문제 사전 예방 기능을 담당토록 함
❍ 현재 시·군 가족센터에서도 부모교육을 수행중이나 센터별로 반복적,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 부모-자녀 간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지원 필요
❍ 기존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및 예비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의 대상과 범위 확대 필요</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경상남도 거주 가족(저소득 가족이나 위기 가족 우대)</td></tr>
<tr><td>내용</td><td>❍ 사업개요: 도와 시·군의 가족센터가 연결되어 생애주기별, 가족 내 관계별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처럼 공유하고 협력하여 배울 수 있도록 구성
❍ 추진체계
-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학교 운영 총괄, 홍보, 프로그램별 강사 지원
- (시·군 가족센터) 시·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교육생 관리
- (여성가족재단) 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경남도 및 시·군) 운영 및 예산 지원
❍ 추진계획 : 경남 가족학교는 2021년 1단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1단계 가족학교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점차 확대할 계획임
<table><tr><th>1단계(2021)</th><th></th><th>2단계(2022)</th><th></th><th>3단계(2023~)</th></tr><tr><td>•부모교육 중심 경남가족학교 도입
•가족교육 유능강사 확보
•프로그램 기반 조성</td><td>⇒</td><td>•1단계 가족학교 평가
•(여성가족재단) 가족 교육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세분화</td><td>⇒</td><td>•경남가족학교 확대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정착</td></tr></table></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 경상남도 및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지원기관, 경남여성가족재단</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함께
돌보는 가족</th><th>3-1 중장년층 남성을 위한 자기돌봄 학교</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남녀 모두를 일과 돌봄의 주체로 설정한 ‘보편적 돌봄자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함
❍ 경남 1인가구 중 40대·50대 1인가구 비율이 32.0%, 특히 남성 40대·50대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의 39.7%를 차지함(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 특히 중장년 남성의 경우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가사·요리 등 자기돌봄에 필수적인 교육을 생애 한 번도 못 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생애 전반에 걸쳐 자기돌봄이 가능하도록 가사와 돌봄 역량, 자기표현 및 기본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50대 이상 경남도민 남성</td></tr>
<tr><td>내용</td><td>❍ 혼자서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사·돌봄 교육 및 자기표현 및 기본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예시 : 서울 영등포구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자기돌봄 프로그램’
- 자아찾기 및 관계형성
- 이미지메이킹
- 정리정돈 및 생활노하우
- 간단한 요리 실습
- 건강관리 및 운동

</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지원기관</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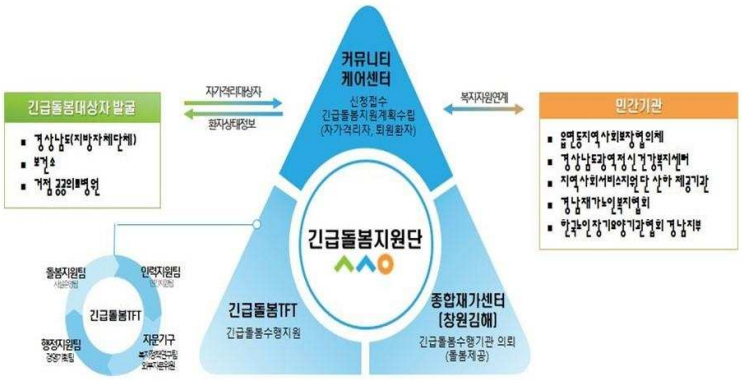
<table>
<tr><th>함께
돌보는 가족</th><th colspan="2">3-2 아빠 육아대학 :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아빠</th></tr>
<tr><td>추진배경
및 목표</td><td colspan="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남성이 돌봄의 보조자가 아니라 중심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남성 양육자를 위한 기본 육아정보 제공 및 교육, 남성 양육자 간 네트워크 등을 통한 돌봄 역량강화 등 필요
❍ 남성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돌봄 참여를 편견 없이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빠 육아대학’ 확대 필요</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예비 아빠, 영유아 및 남성 양육자 (육아휴직 남성)</td></tr>
<tr><td>내용</td><td>❍ 남성이 자녀와 놀이 중심의 일시적이고 보조적인 돌봄자가 아니라 육아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주 돌봄자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육아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예시
-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이기 등 연령별 아빠 역할 및 정보 제공
- 자녀를 돌보는 남성 자조모임, 교육, 상담 지원
- 일상적 정보 제공, 상담을 위한 온라인 소통방 운영
- 육아휴직자를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상담 및 안내
- 육아대학 수강생과 자녀가 함께 찍은 사진으로 ‘경남의 아빠’ 사진전 개최 (※참고 : 돌보는 남성 롤모델 발굴과 확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주한스웨덴대사관 공동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 2017)
- 육아일기 시상과 졸업식

※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아빠육아지원(아빠넷)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함께하는 육아, 하하하 캠페인

</td></tr>
<tr><td>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 colspan="2">❍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지원기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함께
돌보는 가족</th><th>3-3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 확대</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족에게 부과되는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족돌봄제도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족돌봄제도를 이용한 경험은 전체의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라는 응답이 여성에게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와 유사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긴급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
❍ 긴급 돌봄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학습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의 상황에서도 필요하므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남도민</td></tr>
<tr><td>내용</td><td>❍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재택학습이나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공백, 코로나 19 외에도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필요
❍ 현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진행하는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역 기반 공적 돌봄 대응기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예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긴급 돌봄지원단’
 

※참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긴급틈새돌봄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외에도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서비스를 제공’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02001)</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지원기관 등</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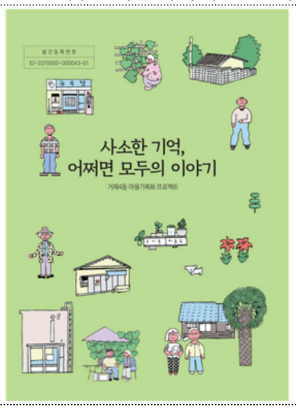
함께 돌보는 가족		3-4 주거공간 개선 가사 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		❍ 저소득 맞벌이가구와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주거공간 개선 및 가사 지원사업 제공을 통해 가사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일·생활균형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 ❍ 특히 주거공간 개선 가사 지원사업을 위해 정리수납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함
사업 개요	대상	❍ 저소득 맞벌이가구 및 한부모가족
	내용	❍ 사업내용 : 저소득 맞벌이가구와 한부모가족에 정리수납전문가를 파견하여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한부모가족, 저소득 맞벌이가구 - 중위소득 72%이하 한부모가족(법정한부모)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맞벌이가구 ※ 우선순위 ①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②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가정 * 동일 요건 시 다자녀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 ❍ 사업인력 : 사업수행인력 3명, 정리수납전문가 20명 정도 ❍ 사업량 : 150가구 정도(한부모가족 100, 저소득 맞벌이 가구 50) ❍ 시행주체 : 창원YWCA
소관부서 및 협력기관		❍ 경상남도 및 시·군, 창원YWCA 등

<table>
<tr><th colspan="2">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th><th>4-1 가족지원서비스 기관 홍보 강화 및 가족센터 확대</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경상남도 가족정책 및 기관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들의 가족지원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해 경상남도 산하 가족지원서비스 기관에 관한 홍보 강화 필요
❍ 또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족센터 설립을 통해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가족지원서비스 거점기관을 담당한 가족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정책 필요</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경남도민</td></tr>
<tr><td>내용</td><td>❍ 경상남도 내 가족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전달 기관 통합 홍보
-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 홍보 강화
-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내용 안내와 접근성 제고
❍ 경남의 가족지원서비스 기관의 확대 및 기능 강화
- 경남에서는 2021년 산청, 2022년 통영, 함양, 거제, 남해, 2023년 양산 등에 가족센터 건립 예정
- 가족센터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족서비스의 1차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18개 시·군 모두로 확대할 필요 있음

【 가족센터의 주요 기능 】

</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경상남도 및 시·군, 가족지원서비스 기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th><th>4-2 우리 마을 이웃사촌 프로젝트</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경남가족실태조사 결과, 마을(동네) 공동체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해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남. 여성은 마을(동네) 공동체로부터 ‘방범 및 안전’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 싶다고 응답함
❍ 하지만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경우 마을(동네) 공동체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에게도 마을(동네) 공동체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마을(동네) 이웃 간 관계망 형성을 위한 소모임 활동 등 지원하여 이웃 간 만남과 교류 촉진 필요</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경남도민</td></tr>
<tr><td>내용</td><td>❍ 마을(동네) 공동체가 사회적 가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을 이웃사촌 프로젝트’ 활동 지원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모임 등 활동 지원
- 마을공동체활동 방법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
- 주민센터 개방 등 마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 지원(우리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임, 마을 역사 기록,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돌봄친화(아동친화, 여성친화) 공간모니터링, 마을에 대한 정체성 강화, 애정 쌓기 등 각종 마을공동체 활동)

※ 마을 활동 프로그램 예시
부산 연제구 ‘마을기록화 프로젝트’
 

대전시, 청년마을활동 지원, 2019

</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지원기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th><th>4-3 마을과 함께 서로 돌봄 문화 조성</th></tr>
<tr><td colspan="2">추진배경 및 목표</td><td>❍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나 공동체가 돌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지역에서 현재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등이 돌봄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더 확대하여 경로당, 노인정 등 공적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어르신이 자신의 손주와 마을 내 이웃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방안 등 고려 필요
❍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에 신중년, 특히 여성 고령층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마을 내 세대 간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td></tr>
<tr><td rowspan="2">사업 개요</td><td>대상</td><td>❍ 경남도민</td></tr>
<tr><td>내용</td><td>❍ 신중년 대상 ‘마을할머니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지원
- 다른 세대 간 육아 방식 공유할 수 있는 교육, 가족 내 양육 및 돌봄 경험을 확장하여 젊은 양육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로서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
❍ ‘마을할머니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신중년이 자신의 손주와 이웃의 영유아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돌봄 사회화 확대, 노인일자리 제공, 세대 간 교류 확대의 기회로 삼음
※ 참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 마을공동체형 사례 : 주민들이 만든 공간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며 오전에는 마을 프로그램 및 주민 소통 공간으로, 오후에는 틈새 돌봄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강사로 참여, 재능기부 형태의 틈새 돌봄 활동 실시

</td></tr>
<tr><td colspan="2">소관부서 및 협력기관</td><td>❍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지원기관</td></tr>
</table>

3.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안)

❍ ‘소통하고 존중하는 경남 가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평등 가족문화 조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존의 통계지표들을 활용하여 “(가칭)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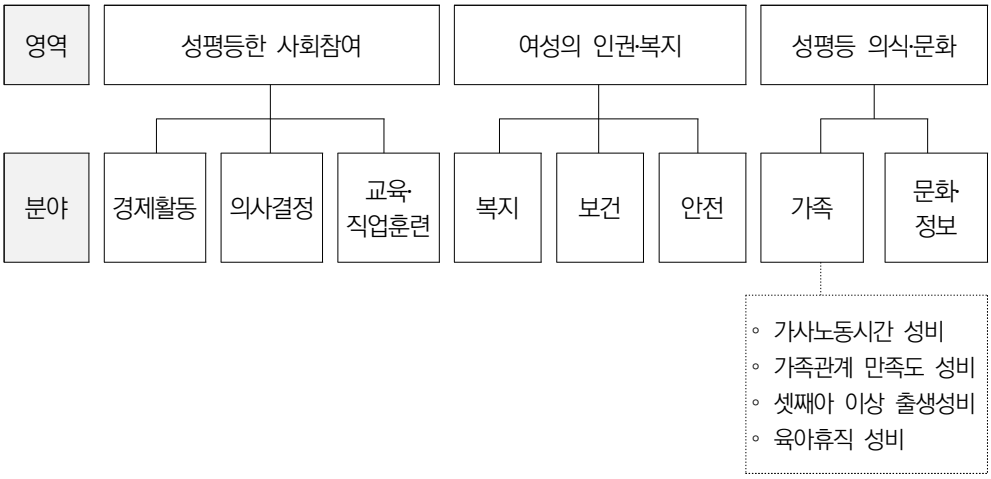
- 먼저 선행연구나 다른 기관에서 활용하는 가족지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1) 성평등 가족지표에 대한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

❑ 여성가족부 지역성평등지수

❍ 여성가족부는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여성가족부, 2020: 3) 매년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함

❍ 지역성평등지수는 3개 정책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로 측정되는데 이 중 가족 분야의 측정지표는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 성비” 등 4개임



[그림 Ⅴ-3]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표

❍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한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가족가치, 가족행동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10개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Ⅴ-8〉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표

구분	개선지표	개선 방향
가족관계	◦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만족정도	◦ 성별/연령별 격차 감소
	◦ 가족 갈등에서 성역할 분담 및 성역할 기대로 인한 갈등 빈도	◦ 감소
	◦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정도	◦ 감소
가족가치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 정도	◦ 증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증가
	◦ 성별에 따른 차별적 기대	◦ 감소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향 유동성	◦ 증가
가족행동	◦ 성차별적 결혼의례	◦ 감소
	◦ 제사에서 성차별 경험	◦ 감소
	◦ 관련 법 개정 등 인프라 구축	◦ 증가

출처) 강은애 외(2019: 133)

❑ 부산광역시 시민행복지표

❍ 부산광역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장과 개발중심에서 삶의 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시민행복지표를 부산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하여 제공한다고 밝힘[4)]

❍ 시민행복지표는 개인, 가족, 공동체, 도시 등 4개 분야, 10개 영역, 64개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가족, 공동체 분야 세부지표는 [그림 Ⅴ-12]와 같음

❍ 부산광역시는 각 세부지표에 해당하는 통계수치를 각각의 통계주기별로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분야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음

4) 부산광역시 시민행복지표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cityindexis

분야	영역	
개인	건강한 개인	
	마음의 행복	
	즐거운 여가	
가족	함께하는 가정	◦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평균시간 ◦ 노후생활자금 준비율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 가족관계 만족도 ◦ 가족부양 부담감 ◦ 가사활동 전담시간
공동체	따뜻한 이웃	◦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 비율 ◦ 소통하는 이웃의 수 NGO활동 가입자 수 ◦ 자원봉사 참여율 ◦ 사회복지 공동모금액 ◦ 사회적 관계별 소통 정도 ◦ 사회참여 만족도
	차별 없는 사회	◦ 성평등지수 ◦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 판정, 상담건수) ◦ 사회 각 분야별 차별 인지도 ◦ 인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
도시	안정된 일자리	
	쾌적한 환경	
	편안한 도시 인프라	
	미래가 있는 교육	

[그림 Ⅴ-4] 부산광역시 시민행복지표 지표체계

가족 ▷ 1개 영역 7개 지표

함께하는 가정 (7개)

구분	산출주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평균시간(분)	짝수년도 12월	196.4	-	194.7	-	100.0		
노후생활자금준비율(%)	짝수년도 12월	72.9	-	72.4	-	77.0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매년 12월	7,539	7,379	7,999	8,800	10,351		
가족친화 인증 기업 수	매년 12월	123	171	199	225	255		
가족관계만족도(%)	짝수년도 12월	56.9	-	52.5	-	56.7		
가족부양 부담감	매년 10월	조사 미실시	조사 미실시	조사 미실시	54.0	48.9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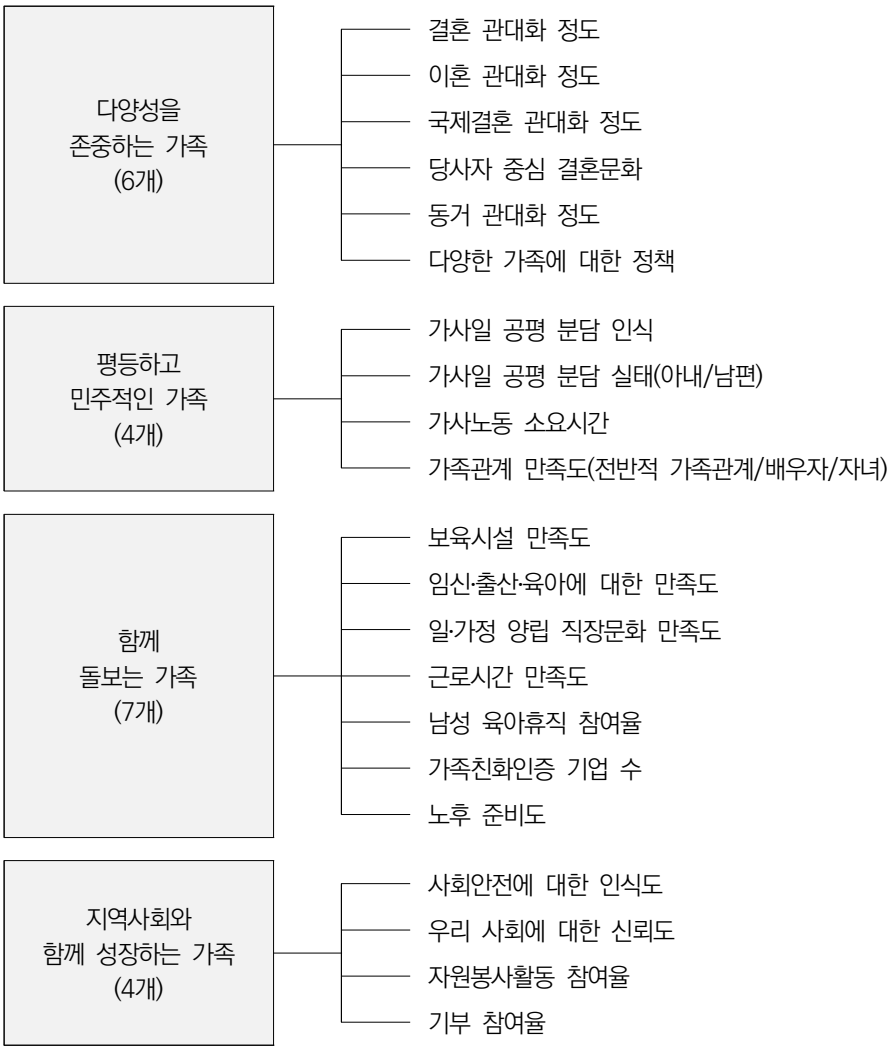
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그림 Ⅴ-5] 부산광역시 시민행복지표 "가족" 분야 예시

2)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안)

❍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지표들을 참고하여 경남 지역에 관한 통계 산출이 가능한 지표들로 구성된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를 [그림 V-7]과 같이 제시함

-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는 정책과제와 연결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함께 돌보는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21개 세부지표로 구성됨



[그림 V-6]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안)

○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각 지표의 통계 산출 근거와 통계출처, 조사주기 등 상세내용은 〈표 V-9〉와 같음

〈표 V-9〉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안)

구분	지표	통계 산출근거	출처 (조사주기)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4개)	결혼 관대화 정도	◦ 결혼에 대한 견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응답	사회조사 (2년)
	이혼 관대화 정도	◦ 이혼에 대한 견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응답	사회조사 (2년)
	국제결혼 관대화 정도	◦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중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전적으로 동의”+“약간 동의”)	사회조사 (2년)
	당사자 중심 결혼문화	◦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중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반대 정도(“전적으로 반대”+“약간 반대”)	사회조사 (2년)
	동거 관대화 정도	◦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중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전적으로 동의”+“약간 동의”)	사회조사 (2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1인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매우 동의”+“동의”)	가족실태조사 (3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4개)	가사일 공평 분담 인식	◦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응답	사회조사 (2년)
	가사일 공평 분담 실태	◦ 가사 분담 실태에 대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아내/남편 응답)	사회조사 (2년)
	가사노동 소요시간	◦ 요일 평균/평일/토요일/일요일 가사노동시간	생활실태조사 (5년)
	가족관계 만족도	◦ 전반적인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응답(“매우 만족”+“만족”)	사회조사 (2년)
함께 돌보는 가족 (7개)	보육시설 만족도	◦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 만족도 “만족” 응답	경상남도 사회조사 (신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만족도	◦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중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만족도 동의 응답(“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경상남도 사회조사 (신규)
	노후 준비도	◦ 노후 준비방법에 대해 “준비되어 있음” 응답	사회조사 (2년)

구분	지표	통계 산출근거	출처 (조사주기)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도	◦ 근로여건 중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 응답(“매우 만족”+“만족”)	사회조사 (2년)
	근로시간 만족도	◦ 근로여건 중 “근로시간” 만족 응답(“매우 만족”+“만족”)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 육아휴직 참여자 중 남성 비율	고용보험DB (1년)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 해당연도 신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수	여성가족부 (1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4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 전반적인 사회안전 만족 응답(“매우 만족”+“만족”)	사회조사 (2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동의 응답(“매우 믿을 수 있음”+“약간 믿을 수 있음”)	사회조사 (2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	경상남도 사회조사 (2년)
	기부 참여율	◦ 기부 참여 여부에 대해 ‘기부함’에 응답	사회조사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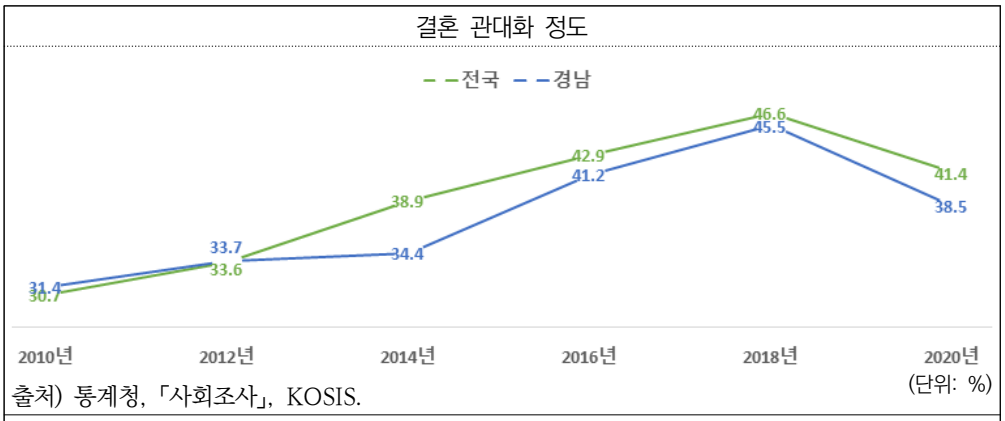
□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분야

❍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분야 지표는 결혼 관대화 정도, 이혼 관대화 정도, 국제결혼 관대화 정도, 당사자 중심 결혼문화, 동거 관대화 정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등 6개 지표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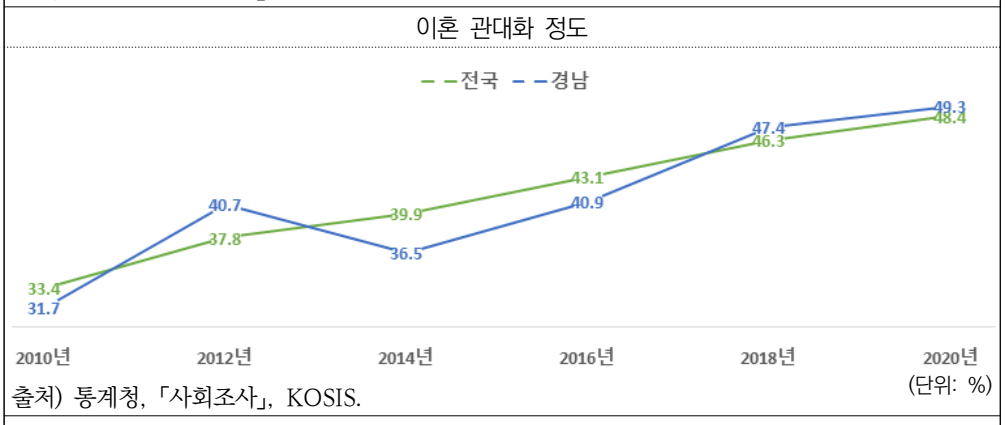
❍ 결혼 관대화 정도는 결혼에 대한 견해에 대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0년 31.4%에서 2020년 38.5%로 상승하였으나 2020년 기준 전국 평균(41.4%)보다는 낮게 나타남

❍ 이혼 관대화 정도는 이혼에 대한 견해에 대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0년 31.7%에서 2020년 49.3%로 상승하였고, 2020년 기준 전국 평균(48.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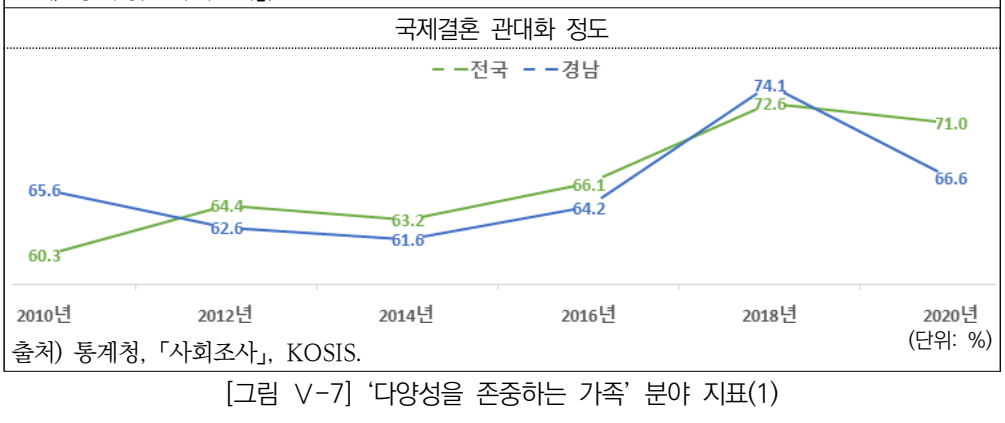
❍ 국제결혼 관대화 정도는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중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에 대해 동의(“전적으로 동의”+“약간 동의”)로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0년 65.6%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66.6%로 다소 상승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국 평균(71.0%)보다 낮게 나타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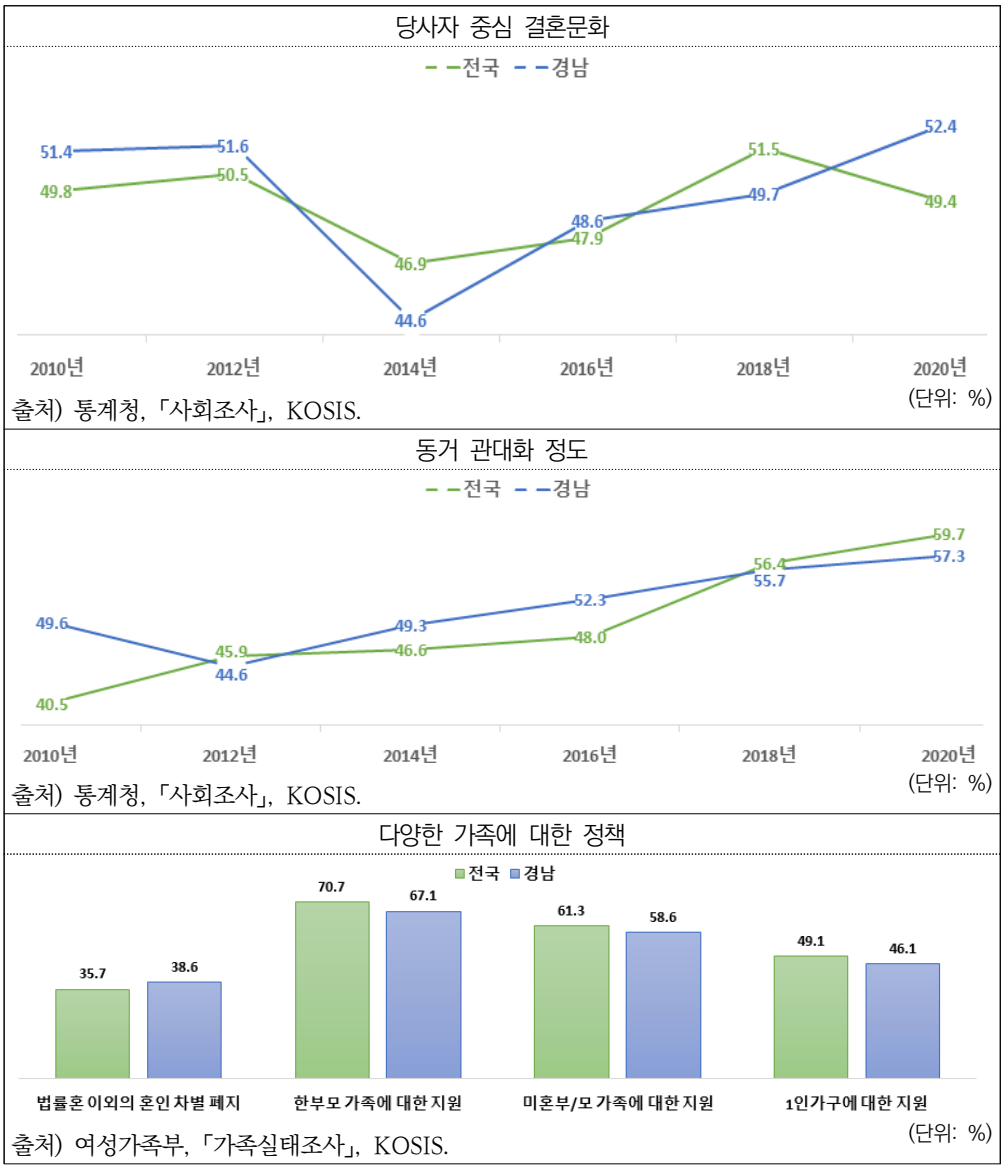
[그림 Ⅴ-7]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분야 지표(1)

❍ 당사자 중심 결혼문화는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중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반대("전적으로 반대"+"약간 반대")로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0년 51.4%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52.4%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국 평균(49.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동거 관대화 정도는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중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전적으로 동의"+"약간 동의")로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0년 49.6%에서 2020년 57.3%로 상승하였고 2020년 기준 전국 평균(59.7%)보다 낮게 나타남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은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1인가구에 대한 지원” 등 각 정책에 대해 동의(“매우 동의”+“동의”)로 응답한 비율로, 각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20년 기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그림 V-8]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분야 지표(2)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분야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분야 지표는 가사일 공평 분담 인식, 가사일 공평 분담 실태, 가사노동 소요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등 4개 지표로 구성됨

○ 가사일 공평 분담 인식은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이라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0년 32.2%에서 2020년 59.3%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62.5%보다는 낮게 나타남

○ 가사일 공평 분담 실태는 가사 분담 실태에 대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이라고 응답한 비율로 아내와 남편의 응답을 구분하여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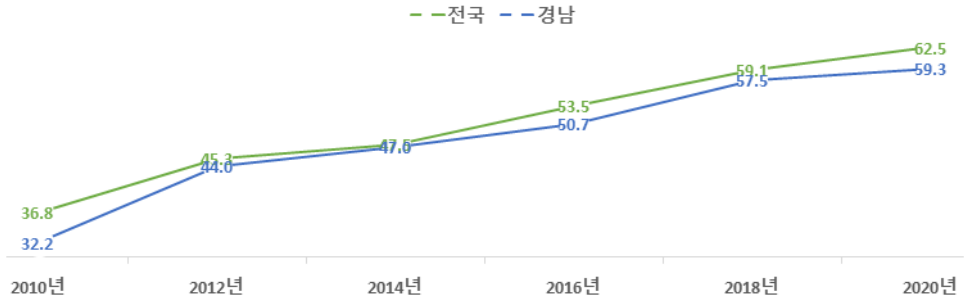
- 경남에서 아내가 가사일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7.6%에서 2020년 17.0%로 상승하였으나 2020년 전국 평균 20.2%보다는 낮게 나타남
- 경남에서 남편이 가사일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7.4%에서 2020년 17.4%로 상승하였으나, 2020년 전국 평균 20.7%보다는 낮게 나타남

○ 가사노동 소요시간은 생활시간조사 중 ‘가정관리, 가족·가구원 돌보기’에 응답한 시간을 요일 평균 시간과 평일·토요일·일요일로 나눠서 살펴본 것으로, 2019년 기준 요일 평균 가사노동 소요시간은 경남 2시간2분, 전국 2시간6분으로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만족”)으로 응답한 비율로, 먼저 경남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0년 52.8%에서 2020년 60.3%로 상승하였고 2020년 전국 평균 58.7%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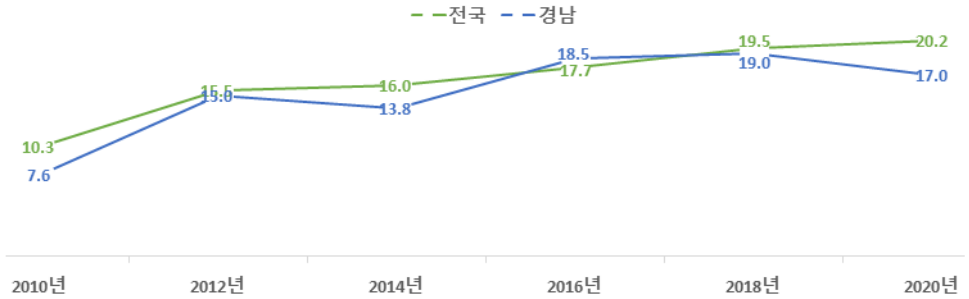
- 경남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0년 57.3%에서 2020년 69.8%로 상승하였고 2020년 전국 평균 69.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경남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0년 72.7%에서 2020년 79.7%로 상승하였고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76.4%보다 높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경남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두 2010년보다 상승하였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특징이 나타남

가사일 공평 분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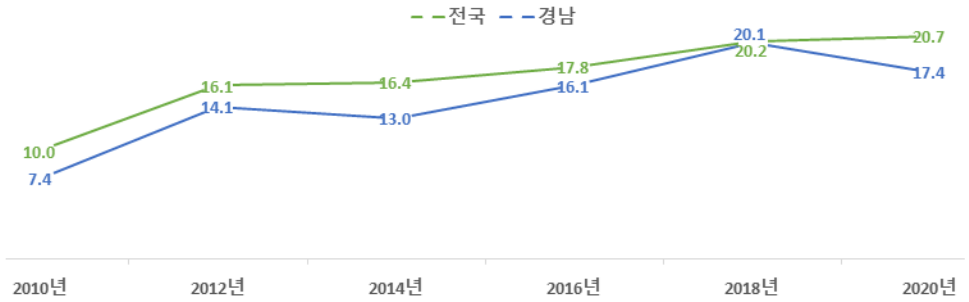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단위: %)

가사일 공평 분담 실태 (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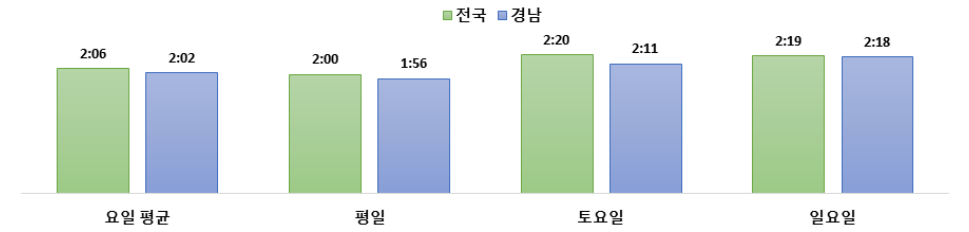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단위: %)

가사일 공평 분담 실태 (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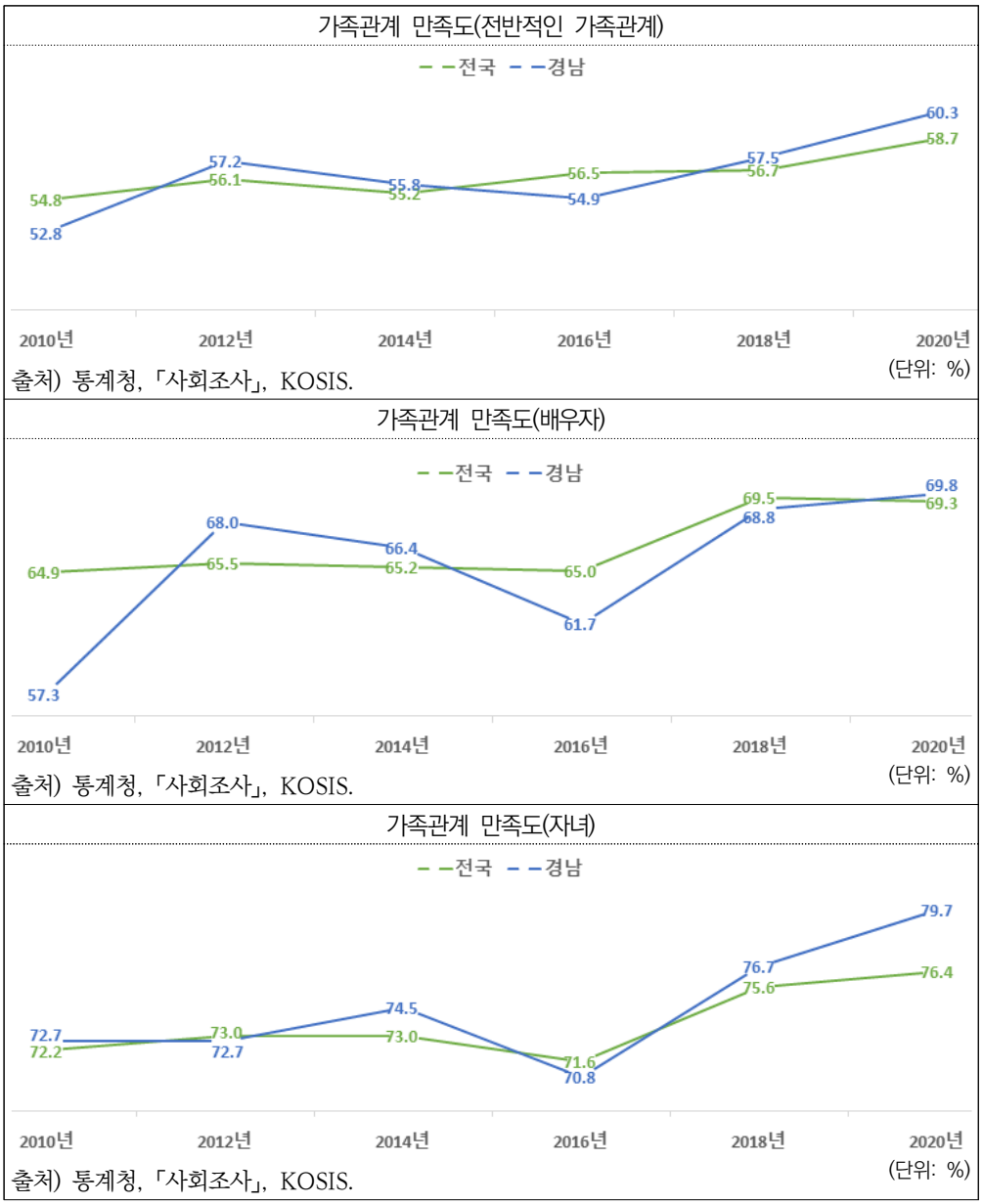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단위: %)

가사노동 소요시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9년), KOSIS. (단위: 시:분)

[그림 V-9]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분야 지표(1)



[그림 Ⅴ-10]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분야 지표(2)

❑ ‘함께 돌보는 가족’ 분야

○ ‘함께 돌보는 가족’ 분야 지표는 보육시설 만족도,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만족도, 노후 준비도,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등 7개 지표로 구성됨

○ 보육시설 만족도는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 만족도에 대해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로 2020년 기준 62.0%로 나타남

- 보육시설 만족도는 「경상남도사회조사」의 2020년 신규 통계지표로 전국과의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경남의 변화 추이를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 있음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중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동의(“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로 응답한 비율로, 2020년 기준 22.7%이며 여성(23.6%)과 남성(46.3%)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만족도 또한 「경상남도사회조사」의 2020년 신규 통계지표로 전국과의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경남의 변화 추이를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 있음

○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도는 근로 여건 중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만족”)으로 응답한 비율로, 경남의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도는 2017년 20.7%에서 2021년 33.9%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 기준 경남 평균 35.1%보다는 낮게 나타남

○ 근로시간 만족도는 근로 여건 중 근로시간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만족”)으로 응답한 비율로, 경남의 근로시간 만족도는 2013년 27.5%에서 2021년 37.9%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 전국 평균 38.2%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남

○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은 육아휴직 참여자 중 남성 비율로, 경남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은 2015년 4.7%에서 2019년 34.0%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19년 기준 전국 평균 21.2%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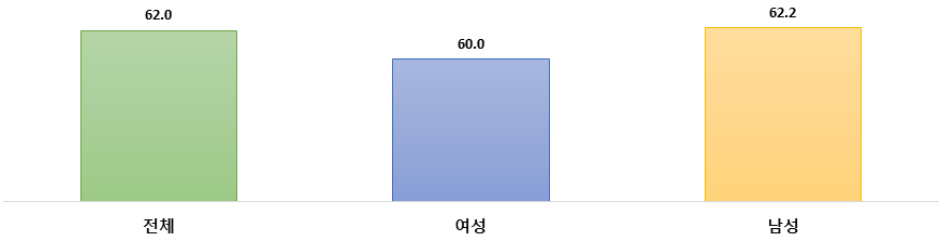
○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는 해당연도 신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경상남도의 기업·기관 수로 2015년 19개에서 2018년 28개로 증가하였다고 2019년에는 24개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노후 준비도는 노후 준비방법에 대해 “준비되어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3년 67.8%에서 2021년 75.8%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21년 기준 전국 평균(73.6%)보다 높게 나타남

---

5) 경남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다른 한 편, 경남 소재 대규모 조선업체 등에서 경영난을 겪으면서 무급휴직의 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한 일시적 효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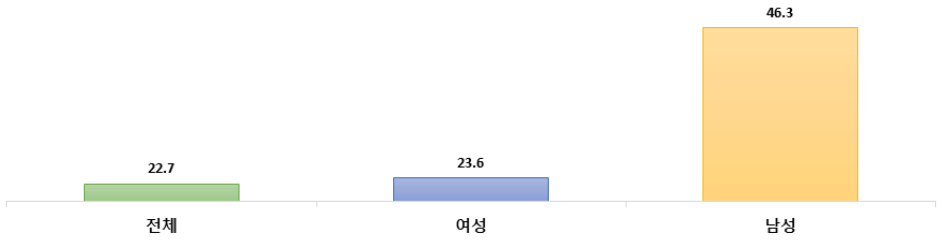
보육시설 만족도



출처) 경상남도, 「경상남도사회조사(2020년)」, KOSIS.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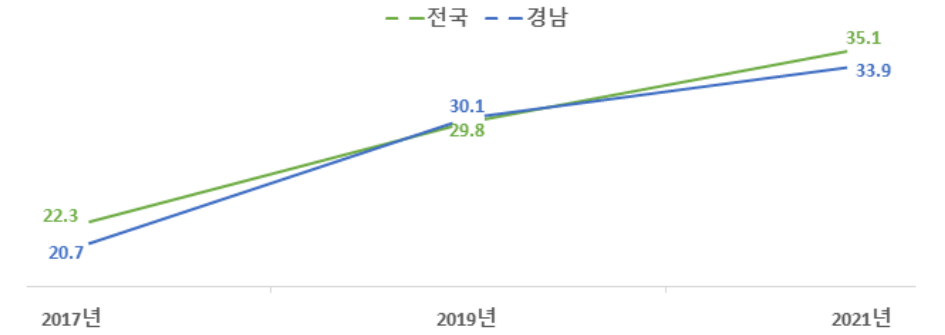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만족도



출처) 경상남도, 「경상남도사회조사(2020년)」, KOSIS.

(단위: %)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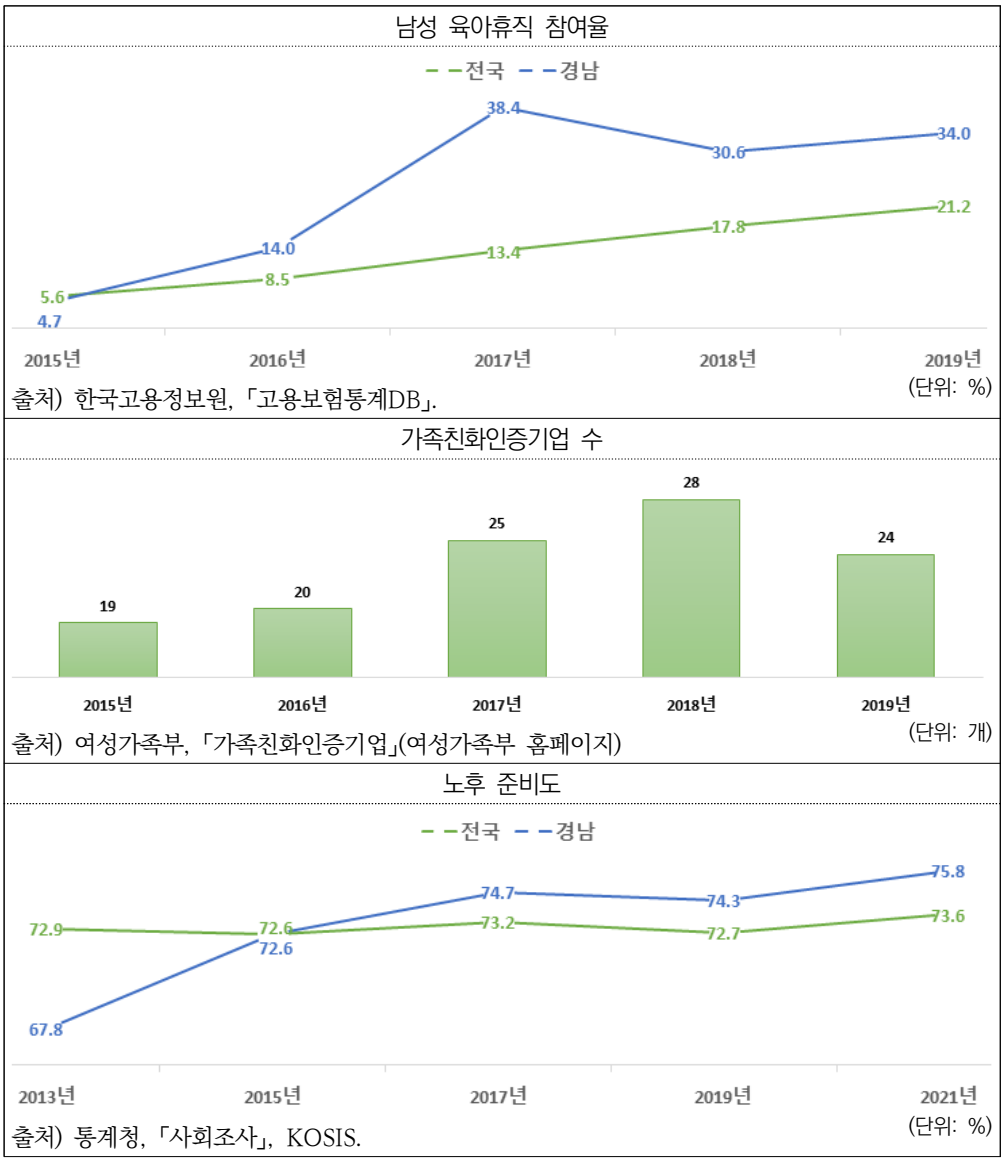
(단위: %)

근로시간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단위: %)

[그림 Ⅴ-11] '함께 돌보는 가족' 분야 지표(1)



[그림 Ⅴ-12] ‘함께 돌보는 가족’ 분야 지표(2)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분야

-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분야 지표는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기부 참여율 등 4개 지표로 구성됨
-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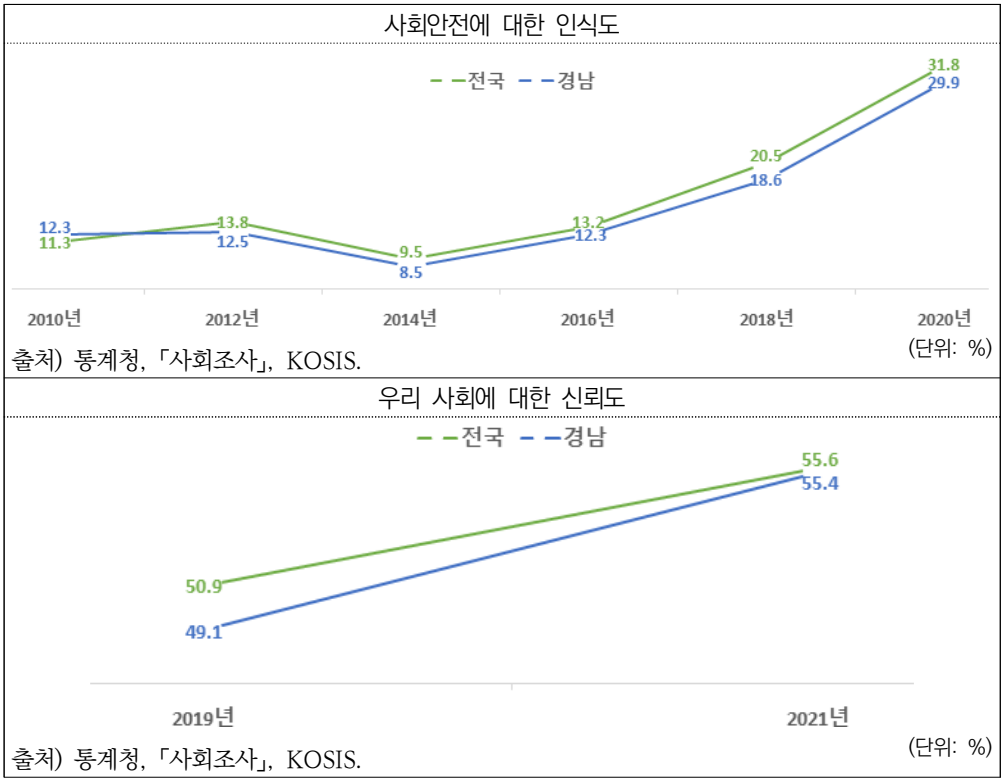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의 사회안전 인식도는 2010년 12.3%에서 2020년 29.9%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국 평균(31.8%)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매우 믿을 수 있음"+"약간 믿을 수 있음")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의 우리 사회 신뢰도는 2019년 49.1%에서 2021년 55.4%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전국 평균(55.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2018년 14.5%에서 2020년 8.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경상남도사회조사」 통계지표로 전국과의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경남의 변화 추이를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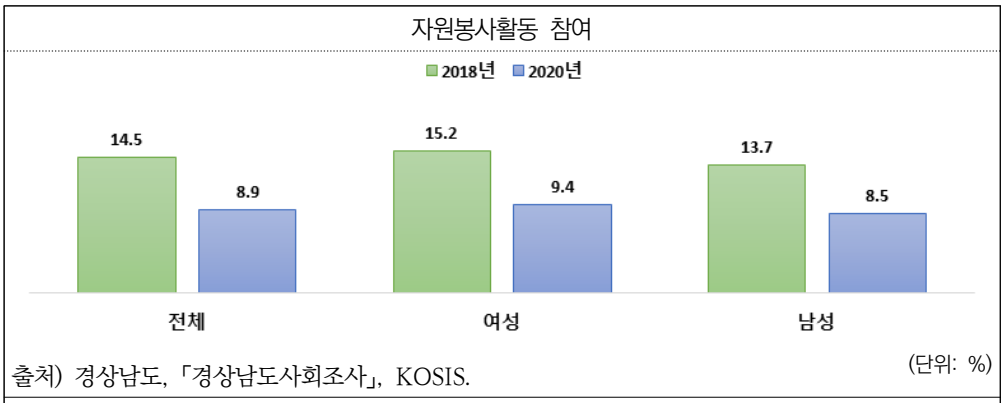
❍ 기부 참여율은 기부 참여 여부에 대해 '기부함'이라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4.1%에서 2019년 27.8%로 낮아졌으나, 2019년 기준 전국 평균(27.8%)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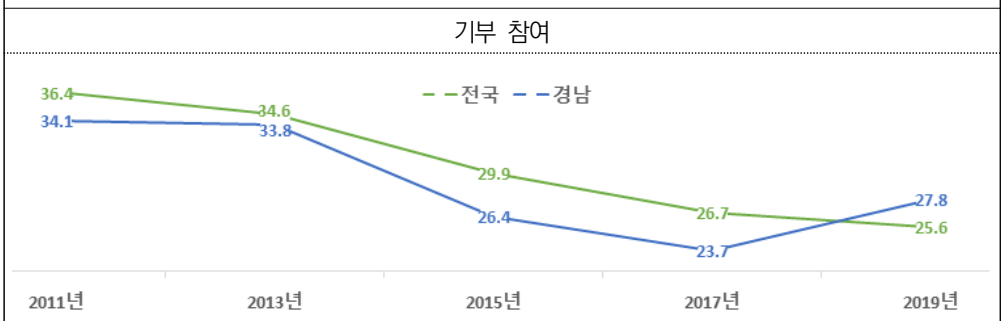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그림 Ⅴ-13]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분야 지표(1)



출처) 경상남도, 「경상남도사회조사」, KOSIS.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단위: %)

[그림 Ⅴ-14]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분야 지표(2)

3)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안) 활용방안

○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는 ‘소통하고 존중하는 경남 가족’을 실현하기 위한 4개의 영역, 즉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함께 돌보는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추적 관찰 필요

○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안)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것을 제안함

-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표를 업데이트하여 가족 관련 지표의 변화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경남형 가족문화 지표의 변화 정도에 대한 보도자료 발행(가칭 ‘올해 경남 가족’ 등)
- 가족문화 지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함으로써 가족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참고문헌

〈통계자료〉

경상남도, 「경상남도사회조사」, KOSIS.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KOSIS.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통계청, 「인구총조사」, KOSIS.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문헌자료〉

강은애 외. 2019.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 2013. 『경상남도 가족실태조사』(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 2017. 『경상남도 가족실태조사』(사단법인 한국재정분석연구원).

김혜경 외. 2014.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김혜정·박혜림. 2020. 『2020년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농촌진흥청.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미셸 바렛·메리 맥킨토시. 2019. 『반사회적 가족』(김혜경·배은경 역), 나름북스.

송효진. 2020. 『젠더관점에서의 고령사회 가족 관련 법 · 제도 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20.『2020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2021.4.27.〈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2021a.『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21b.『2021년 성별영향평가지침』.

여성가족부. 2021b.『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2020.7.10.)

이인숙·이혜진·장지현. 2021.『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방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이정희·박지영·이인숙·이혜진·박선영. 2021.『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추진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임현정·박지영. 2018.『부산지역 가족 내 성평등 실태와 개선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장혜경·김혜경·이진숙·김현주·장화경. 2002.『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가원·김영란·홍승아·배호중·김수진·김보영. 2020.『가족 내 노인돌봄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여진·손태주·선민정·이화진. 2020.『코로나19로 인한 제주여성의 삶과 가족의 변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건강가정육성기본법 공청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선준. 2021.『스웨덴 숲에서 한국을 읽다: 더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비판적 제언』. 빈빈책방.

홍세영. 2010.『세계여성 복지정책의 비교연구』. 박문사.

부록

Ⅰ. 교차분석표

Ⅱ. 설문지

GNWFF

부록 Ⅰ. 교차분석표

〈부록-1〉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50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2.53
	1세대[b]	298	2.60
	2세대[c]	632	2.45
	3세대[d]	76	2.59
	비친족 가족[e]	45	2.24
	F		3.686** e〈b, e〈d
성별	여성	751	2.49
	남성	749	2.52
	T		-0.727
연령	20~39세[a]	452	2.22
	40~59세[b]	599	2.50
	60~79세[c]	449	2.80
	F		66.674*** a〈b〈c
거주 지역	시	1,100	2.49
	군	400	2.54
	T		-1.248
학력	고졸 이하	776	2.71
	대졸 이상	724	2.29
	T		10.877***
혼인 상태	미혼[a]	347	2.28
	기혼[b]	815	2.55
	이혼·별거·사별[c]	338	2.64
	F		21.334*** a〈b, a〈c
취업 상태	취업	1,135	2.48
	비취업	365	2.57
	T		-1.757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51
	외벌이	276	2.63
	T		-2.14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2.66
	200~500만원 미만[b]	841	2.47
	500만원 이상[c]	337	2.45
	F		8.778*** c〈a, b〈a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2〉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족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21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2.24
	1세대[b]	298	2.32
	2세대[c]	632	2.13
	3세대[d]	76	2.33
	비친족 가족[e]	45	2.13
	F		4.393** -
성별	여성	751	2.12
	남성	749	2.30
	T		- 4.629***
연령	20~39세[a]	452	1.98
	40~59세[b]	599	2.16
	60~79세[c]	449	2.50
	F		59.815*** a〈b〈c
거주 지역	시	1,100	2.17
	군	400	2.31
	T		-3.055**
학력	고졸 이하	776	2.39
	대졸 이상	724	2.02
	T		9.910***
혼인 상태	미혼[a]	347	1.99
	기혼[b]	815	2.25
	이혼·별거·사별[c]	338	2.32
	F		21.238*** a〈b, a〈c
취업 상태	취업	1,135	2.16
	비취업	365	2.35
	T		-4.126***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19
	외벌이	276	2.37
	T		-3.05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2.43
	200~500만원 미만[b]	841	2.16
	500만원 이상[c]	337	2.13
	F		18.634*** c〈a, b〈a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3〉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45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2.41
	1세대[b]	298	2.57
	2세대[c]	632	2.42
	3세대[d]	76	2.47
	비친족 가족[e]	45	2.31
	F		2.352
성별	여성	751	2.38
	남성	749	2.52
	T		-3.223**
연령	20~39세[a]	452	2.28
	40~59세[b]	599	2.45
	60~79세[c]	449	2.62
	F		19.433*** a〈b〈c
거주 지역	시	1,100	2.48
	군	400	2.37
	T		2.361*
학력	고졸 이하	776	2.53
	대졸 이상	724	2.36
	T		4.113***
혼인 상태	미혼[a]	347	2.24
	기혼[b]	815	2.54
	이혼·별거·사별[c]	338	2.46
	F		16.680*** a〈b, a〈c
취업 상태	취업	1,135	2.44
	비취업	365	2.48
	T		-0.899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50
	외벌이	276	2.61
	T		-1.762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2.54
	200~500만원 미만[b]	841	2.40
	500만원 이상[c]	337	2.50
	F		4.198* b〈a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4〉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87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2.81
	1세대[b]	298	2.80
	2세대[c]	632	2.94
	3세대[d]	76	2.92
	비친족 가족[e]	45	2.96
	F		3.710** -
성별	여성	751	2.93
	남성	749	2.82
	T		3.114**
연령	20~39세[a]	452	3.00
	40~59세[b]	599	2.91
	60~79세[c]	449	2.70
	F		23.433*** c〈a, c〈b
거주 지역	시	1,100	2.89
	군	400	2.82
	T		2.057*
학력	고졸 이하	776	2.80
	대졸 이상	724	2.95
	T		-4.322***
혼인 상태	미혼[a]	347	2.94
	기혼[b]	815	2.87
	이혼·별거·사별[c]	338	2.82
	F		2.609 c〈a
취업 상태	취업	1,135	2.87
	비취업	365	2.89
	T		-0.513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86
	외벌이	276	2.87
	T		-0.205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2.75
	200~500만원 미만[b]	841	2.90
	500만원 이상[c]	337	2.93
	F		6.344** a〈b, a〈c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5〉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87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3.14
	1세대[b]	298	2.68
	2세대[c]	632	2.74
	3세대[d]	76	2.80
	비친족 가족[e]	45	3.18
	F		27.709*** b〈a, c〈a, d〈a, b〈e, c〈e, d〈e
성별	여성	751	2.92
	남성	749	2.82
	T		2.534*
연령	20~39세[a]	452	2.91
	40~59세[b]	599	2.84
	60~79세[c]	449	2.86
	F		1.029
거주 지역	시	1,100	2.87
	군	400	2.85
	T		0.747
학력	고졸 이하	776	2.83
	대졸 이상	724	2.91
	T		-2.152*
혼인 상태	미혼[a]	347	3.07
	기혼[b]	815	2.69
	이혼·별거·사별[c]	338	3.08
	F		51.285*** b〈a, b〈c
취업 상태	취업	1,135	2.83
	비취업	365	2.97
	T		-2.998**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70
	외벌이	276	2.67
	T		0.491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3.07
	200~500만원 미만[b]	841	2.81
	500만원 이상[c]	337	2.81
	F		14.784*** b,c〈a

주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매우 동의한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6〉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68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2.69
	1세대[b]	298	2.66
	2세대[c]	632	2.66
	3세대[d]	76	2.58
	비친족 가족[e]	45	3.04
	F		2.775* d〈e, c〈e, b〈e, a〈e
성별	여성	751	2.69
	남성	749	2.66
	T		0.566
연령	20~39세[a]	452	2.87
	40~59세[b]	599	2.72
	60~79세[c]	449	2.43
	F		36.227*** c〈b〈a
거주 지역	시	1,100	2.71
	군	400	2.58
	T		2.813**
학력	고졸 이하	776	2.52
	대졸 이상	724	2.85
	T		-8.113***
혼인 상태	미혼[a]	347	2.87
	기혼[b]	815	2.65
	이혼·별거·사별[c]	338	2.54
	F		15.213*** c〈a, b〈a
취업 상태	취업	1,135	2.70
	비취업	365	2.62
	T		1.568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70
	외벌이	276	2.55
	T		2.46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2.55
	200~500만원 미만[b]	841	2.70
	500만원 이상[c]	337	2.74
	F		5.654** a〈b, a〈c

주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매우 동의한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7〉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어머니의 성으로 할 수도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53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2.44
	1세대[b]	298	2.45
	2세대[c]	632	2.61
	3세대[d]	76	2.34
	비친족 가족[e]	45	2.96
	F		6.924*** d〈e, a〈e, b〈e, c〈e
성별	여성	751	2.65
	남성	749	2.40
	T		5.724***
연령	20~39세[a]	452	2.79
	40~59세[b]	599	2.56
	60~79세[c]	449	2.21
	F		55.552*** c〈b〈a
거주 지역	시	1,100	2.58
	군	400	2.37
	T		4.502***
학력	고졸 이하	776	2.36
	대졸 이상	724	2.71
	T		-8.092***
혼인 상태	미혼[a]	347	2.76
	기혼[b]	815	2.50
	이혼·별거·사별[c]	338	2.35
	F		20.476*** c〈b〈a
취업 상태	취업	1,135	2.52
	비취업	365	2.55
	T		-0.507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51
	외벌이	276	2.49
	T		0.31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2.37
	200~500만원 미만[b]	841	2.54
	500만원 이상[c]	337	2.64
	F		8.586*** a〈b, a〈c

주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매우 동의한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8〉 정자은행 등을 활용해서 결혼 없이 단독으로 출산할 수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16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2.21
	1세대[b]	298	2.05
	2세대[c]	632	2.18
	3세대[d]	76	2.12
	비친족 가족[e]	45	2.29
	F		1.642
성별	여성	751	2.25
	남성	749	2.08
	T		3.643***
연령	20~39세[a]	452	2.45
	40~59세[b]	599	2.15
	60~79세[c]	449	1.90
	F		42.622*** c〈b〈a
거주 지역	시	1,100	2.14
	군	400	2.24
	T		-1.768
학력	고졸 이하	776	2.00
	대졸 이상	724	2.34
	T		-7.103***
혼인 상태	미혼[a]	347	2.35
	기혼[b]	815	2.15
	이혼·별거·사별[c]	338	2.00
	F		12.798*** c〈a, b〈a
취업 상태	취업	1,135	2.19
	비취업	365	2.10
	T		1.496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23
	외벌이	276	1.99
	T		3.52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2.00
	200~500만원 미만[b]	841	2.22
	500만원 이상[c]	337	2.19
	F		6.618*** a〈c, a〈b

주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매우 동의한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9〉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보호자 또는 유족이 될 수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57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2.63
	1세대[b]	298	2.47
	2세대[c]	632	2.56
	3세대[d]	76	2.51
	비친족 가족[e]	45	2.93
	F		4.532** d〈e, a〈e, b〈e, c〈e
성별	여성	751	2.62
	남성	749	2.52
	T		2.308*
연령	20~39세[a]	452	2.74
	40~59세[b]	599	2.60
	60~79세[c]	449	2.35
	F		30.599*** c〈b〈a
거주 지역	시	1,100	2.51
	군	400	2.73
	T		-5.266***
학력	고졸 이하	776	2.43
	대졸 이상	724	2.71
	T		-7.193***
혼인 상태	미혼[a]	347	2.71
	기혼[b]	815	2.54
	이혼·별거·사별[c]	338	2.48
	F		8.573*** c〈a, b〈a
취업 상태	취업	1,135	2.60
	비취업	365	2.47
	T		2.888**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62
	외벌이	276	2.40
	T		3.875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2.49
	200~500만원 미만[b]	841	2.64
	500만원 이상[c]	337	2.46
	F		9.343*** c〈b, a〈b

주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매우 동의한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10〉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17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3.08
	1세대[b]	298	3.16
	2세대[c]	632	3.23
	3세대[d]	76	3.29
	비친족 가족[e]	45	3.13
	F		3.690** -
성별	여성	751	3.30
	남성	749	3.05
	T		6.957***
연령	20~39세[a]	452	3.27
	40~59세[b]	599	3.20
	60~79세[c]	449	3.05
	F		12.049*** c〈b, c〈a
거주 지역	시	1,100	3.15
	군	400	3.23
	T		-1.841
학력	고졸 이하	776	3.09
	대졸 이상	724	3.26
	T		-4.785***
혼인 상태	미혼[a]	347	3.22
	기혼[b]	815	3.21
	이혼·별거·사별[c]	338	3.04
	F		8.242*** c〈b, c〈a
취업 상태	취업	1,135	3.16
	비취업	365	3.22
	T		-1.468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22
	외벌이	276	3.19
	T		0.475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3.12
	200~500만원 미만[b]	841	3.16
	500만원 이상[c]	337	3.26
	F		3.763* a〈c

주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매우 동의한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11〉 이성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데이트 비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데이트 비용		
			남자 부담	남녀 함께	여자 부담
전체		1,500	40.2	58.7	1.1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38.8	59.7	1.6
	1세대	298	45.3	53.4	1.3
	2세대	632	38.9	60.1	0.9
	3세대	76	50.0	50.0	-
	비친족 가족	45	22.2	77.8	-
	X^2	-	15.763*		
성별	여성	751	38.6	60.9	0.5
	남성	749	41.8	56.5	1.7
	X^2	-	6.953*		
연령	20~39세	452	20.6	79.4	-
	40~59세	599	42.6	55.6	1.8
	60~79세	449	56.8	41.9	1.3
	X^2	-	138.545***		
거주 지역	시	1,100	36.5	62.5	1.0
	군	400	50.3	48.3	1.5
	X^2	-	24.440***		
학력	고졸 이하	776	53.1	45.1	1.8
	대졸 이상	724	26.4	73.2	0.4
	X^2	-	123.278***		
혼인 상태	미혼	347	22.5	76.9	0.6
	기혼·사실혼	815	44.9	53.9	1.2
	이혼·별거·사별	338	47.0	51.5	1.5
	X^2	-	62.848***		
취업 상태	취업	1,135	39.5	59.1	1.4
	비취업	365	42.5	57.3	0.3
	X^2	-	3.922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46.9	51.6	1.5
	외벌이	276	40.9	58.3	0.7
	X^2	-	3.867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51.6	47.2	1.2
	200~500만원 미만	841	37.6	61.2	1.2
	500만원 이상	337	35.9	63.2	0.9
	X^2	-	22.885***		

주) * p〈0.05, ** p〈0.01, *** p〈0.001

〈부록-12〉 이성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혼인 시 주택 마련 비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혼인 시 주택 마련 비용		
			남자 부담	남녀 함께	여자 부담
전체		1,500	45.8	53.4	0.8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45.0	53.5	1.6
	1세대	298	55.7	44.3	-
	2세대	632	41.5	57.9	0.6
	3세대	76	53.9	46.1	-
	비친족 가족	45	35.6	62.2	2.2
	X^2	-	27.228**		
성별	여성	751	45.0	54.9	0.1
	남성	749	46.6	51.9	1.5
	X^2	-	9.167*		
연령	20~39세	452	29.6	69.5	0.9
	40~59세	599	42.1	57.3	0.7
	60~79세	449	67.0	32.1	0.9
	X^2	-	133.789***		
거주 지역	시	1,100	41.5	57.5	1.1
	군	400	57.8	42.3	-
	X^2	-	34.070***		
학력	고졸 이하	776	58.1	40.7	1.2
	대졸 이상	724	32.6	67.0	0.4
	X^2	-	104.265***		
혼인 상태	미혼	347	29.4	69.5	1.2
	기혼·사실혼	815	49.9	49.6	0.5
	이혼·별거·사별	338	52.7	46.2	1.2
	X^2	-	51.355***		
취업 상태	취업	1,135	44.7	54.4	0.9
	비취업	365	49.3	50.1	0.5
	X^2	-	2.646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51.4	48.1	0.6
	외벌이	276	47.1	52.5	0.4
	X^2	-	1.554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60.2	37.9	1.9
	200~500만원 미만	841	40.9	58.6	0.5
	500만원 이상	337	44.2	55.2	0.6
	X^2	-	44.106***		

주) * p〈0.05, ** p〈0.01, *** p〈0.001

〈부록-13〉 이성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가구, 가전제품 등 혼수 비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혼수 비용		
			남자 부담	남녀 함께	여자 부담
전체		1,500	6.9	62.3	30.7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6.7	64.4	29.0
	1세대	298	7.7	58.4	33.9
	2세대	632	6.3	63.0	30.7
	3세대	76	7.9	53.9	38.2
	비친족 가족	45	11.1	73.3	15.6
	X^2	-	10.854		
성별	여성	751	8.0	62.6	29.4
	남성	749	5.9	62.1	32.0
	X^2	-	3.269		
연령	20~39세	452	5.5	81.9	12.6
	40~59세	599	6.7	64.1	29.2
	60~79세	449	8.7	40.3	51.0
	X^2	-	174.978***		
거주 지역	시	1,100	6.6	63.5	29.9
	군	400	7.8	59.3	33.0
	X^2	-	2.268		
학력	고졸 이하	776	8.6	48.2	43.2
	대졸 이상	724	5.1	77.5	17.4
	X^2	-	139.171***		
혼인 상태	미혼	347	6.3	81.8	11.8
	기혼·사실혼	815	6.9	58.7	34.5
	이혼·별거·사별	338	7.7	51.2	41.1
	X^2	-	86.170***		
취업 상태	취업	1,135	6.5	64.4	29.1
	비취업	365	8.2	55.9	35.9
	X^2	-	8.537*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6.5	59.2	34.3
	외벌이	276	7.6	57.6	34.8
	X^2	-	0.419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7.8	50.0	42.2
	200~500만원 미만	841	5.8	66.3	27.8
	500만원 이상	337	8.9	64.1	27.0
	X^2	-	31.597***		

주) * p〈0.05, ** p〈0.01, *** p〈0.001

〈부록-14〉 이성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예단 비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단 비용		
			남자 부담	남녀 함께	여자 부담
전체		1,500	11.5	68.8	19.7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11.1	68.4	20.5
	1세대	298	13.4	64.4	22.1
	2세대	632	10.4	71.4	18.2
	3세대	76	17.1	64.5	18.4
	비친족 가족	45	8.9	73.3	17.8
	X^2	-	7.661		
성별	여성	751	12.0	69.0	19.0
	남성	749	11.1	68.6	20.3
	X^2	-	0.571		
연령	20~39세	452	11.9	75.9	12.2
	40~59세	599	10.5	74.1	15.4
	60~79세	449	12.5	54.6	33.0
	X^2	-	78.866***		
거주 지역	시	1,100	11.0	69.5	19.5
	군	400	13.0	66.8	20.3
	X^2	-	1.445		
학력	고졸 이하	776	13.8	60.4	25.8
	대졸 이상	724	9.1	77.8	13.1
	X^2	-	53.914***		
혼인 상태	미혼	347	10.7	77.5	11.8
	기혼·사실혼	815	11.9	66.7	21.3
	이혼·별거·사별	338	11.5	64.8	23.7
	X^2	-	20.250***		
취업 상태	취업	1,135	12.2	69.4	18.4
	비취업	365	9.6	66.8	23.6
	X^2	-	5.569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13.5	65.9	20.6
	외벌이	276	8.7	68.5	22.8
	X^2	-	4.21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12.1	60.9	27.0
	200~500만원 미만	841	12.4	70.3	17.4
	500만원 이상	337	8.9	72.7	18.4
	X^2	-	17.977**		

주) * p〈0.05, ** p〈0.01, *** p〈0.001

〈부록-15〉 응답자 특성별 가족 내 성평등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현재 가족		원가족	
		빈도	평균 (10점 만점)	빈도	평균 (10점 만점)
전체		1,051	6.77	1,414	5.12
가족 유형	1인가구[a]	0	-	449	5.42
	1세대[b]	298	6.58	298	4.72
	2세대[c]	632	6.91	558	5.11
	3세대[d]	76	6.24	64	4.30
	비친족 가족[e]	45	7.00	45	6.09
	F		3.873** -	-	10.028*** d〈a〈e
성별	여성	538	6.74	703	5.08
	남성	513	6.81	711	5.17
	T		-0.626	-	-0.770
연령	20~39세[a]	270	7.50	387	6.58
	40~59세[b]	481	6.78	578	5.10
	60~79세[c]	300	6.11	449	3.91
	F		35.406*** c〈b〈a	-	219.239*** c〈b〈a
거주 지역	시	770	6.99	1032	5.01
	군	281	6.19	382	5.45
	T		5.678***	-	-3.739***
학력	고졸 이하	558	6.18	755	4.26
	대졸 이상	493	7.44	659	6.11
	T		-10.579***	-	-18.336***
혼인 상태	미혼[a]	132	6.81	265	6.62
	기혼·사실혼[b]	815	6.71	814	4.97
	이혼·별거·사별[c]	104	7.25	335	4.31
	F		3.300* -	-	107.929*** c〈b〈a
취업 상태	취업	806	6.85	1081	5.30
	비취업	245	6.54	333	4.55
	T		1.972*	-	5.515***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6.86	539	5.22
	외벌이	276	6.41	275	4.49
	T		2.981**	-	4.971***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121	5.74	321	4.49
	200~500만원 미만[b]	599	6.52	794	5.27
	500만원 이상[c]	331	7.61	299	5.41
	F		52.659*** a〈b〈c	-	19.707*** a〈b, a〈c

주1) '매우 성차별'=1점, '매우 성평등'=1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16〉 의사소통 만족도-어머니와의 대화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36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3.52
	1세대[b]	298	3.40
	2세대[c]	632	3.24
	3세대[d]	76	3.38
	비친족 가족[e]	45	3.33
	F		7.469*** -
성별	여성	751	3.39
	남성	749	3.32
	T		1.589
연령	20~39세[a]	452	3.53
	40~59세[b]	599	3.20
	60~79세[c]	449	3.37
	F		27.214*** b〈a
거주 지역	시	1,100	3.30
	군	400	3.54
	T		-5.100***
학력	고졸 이하	776	3.25
	대졸 이상	724	3.41
	T		-3.557***
혼인 상태	미혼[a]	347	3.55
	기혼[b]	815	3.24
	이혼·별거·사별[c]	338	3.33
	F		20.463*** b〈a, c〈a
취업 상태	취업	1,135	3.35
	비취업	365	3.38
	T		-0.575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24
	외벌이	276	3.23
	T		0.134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3.58
	200~500만원 미만[b]	841	3.37
	500만원 이상[c]	337	3.25
	F		8.151*** b〈a, c〈a

주1) '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17〉 의사소통 만족도-아버지와의 대화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80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2.94
	1세대[b]	298	2.77
	2세대[c]	632	2.70
	3세대[d]	76	2.92
	비친족 가족[e]	45	2.86
	F		4.106** -
성별	여성	751	2.79
	남성	749	2.81
	T		-0.236
연령	20~39세[a]	452	3.00
	40~59세[b]	599	2.61
	60~79세[c]	449	2.60
	F		27.797*** b〈a, c〈a
거주 지역	시	1,100	2.79
	군	400	2.83
	T		-0.717
학력	고졸 이하	776	2.68
	대졸 이상	724	2.86
	T		-3.139**
혼인 상태	미혼[a]	347	3.00
	기혼[b]	815	2.70
	이혼·별거·사별[c]	338	2.63
	F		16.338*** b〈a, c〈a
취업 상태	취업	1,135	2.77
	비취업	365	2.96
	T		-2.749**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71
	외벌이	276	2.68
	T		0.486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3.05
	200~500만원 미만[b]	841	2.79
	500만원 이상[c]	337	2.73
	F		5.728** b〈a, c〈a

주1) '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18〉 의사소통 만족도-배우자와의 대화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38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3.16
	1세대	298	3.41
	2세대	632	3.35
	3세대	76	3.62
	비친족 가족	45	3.75
	F		2.141
성별	여성	751	3.25
	남성	749	3.49
	T		-4.572***
연령	20~39세[a]	452	3.71
	40~59세[b]	599	3.37
	60~79세[c]	449	3.19
	F		23.842*** c〈b〈a
거주 지역	시	1,100	3.35
	군	400	3.45
	T		-1.692
학력	고졸 이하	776	3.27
	대졸 이상	724	3.51
	T		-4.603***
혼인 상태	미혼[a]	347	-
	기혼[b]	815	3.39
	이혼·별거·사별[c]	338	3.11
	F		4.497* -
취업 상태	취업	1,135	3.40
	비취업	365	3.28
	T		1.814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42
	외벌이	276	3.32
	T		1.775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3.09
	200~500만원 미만[b]	841	3.41
	500만원 이상[c]	337	3.44
	F		8.269*** a〈b, a〈c

주1) '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19〉 의사소통 만족도-딸과의 대화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37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3.42
	1세대	298	3.36
	2세대	632	3.36
	3세대	76	3.28
	비친족 가족	45	3.25
	F		0.607
성별	여성	751	3.47
	남성	749	3.26
	T		4.669***
연령	20~39세	452	3.53
	40~59세	599	3.38
	60~79세	449	3.33
	F		2.395
거주 지역	시	1,100	3.34
	군	400	3.42
	T		-1.589
학력	고졸 이하	776	3.35
	대졸 이상	724	3.40
	T		-0.806
혼인 상태	미혼	347	-
	기혼	815	3.35
	이혼·별거·사별	338	3.41
	F		1.67
취업 상태	취업	1,135	3.34
	비취업	365	3.44
	T		-2.024*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29
	외벌이	276	3.44
	T		-2.62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3.36
	200~500만원 미만	841	3.35
	500만원 이상	337	3.40
	F		0.412

주1) '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20〉 의사소통 만족도-아들과의 대화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07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3.09
	1세대	298	2.96
	2세대	632	3.08
	3세대	76	3.23
	비친족 가족	45	2.75
	F		1.800
성별	여성	751	3.13
	남성	749	3.01
	T		2.152*
연령	20~39세[a]	452	3.25
	40~59세[b]	599	3.11
	60~79세[c]	449	3.01
	F		3.374* c〈a
거주 지역	시	1,100	3.09
	군	400	3.03
	T		1.096
학력	고졸 이하	776	3.05
	대졸 이상	724	3.12
	T		-1.373
혼인 상태	미혼	347	-
	기혼	815	3.07
	이혼·별거·사별	338	3.07
	F		0.01
취업 상태	취업	1,135	3.07
	비취업	365	3.08
	T		-0.225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07
	외벌이	276	3.08
	T		-0.184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2.97
	200~500만원 미만[b]	841	3.07
	500만원 이상[c]	337	3.16
	F		3.250* a〈c

주1) '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21〉 의사소통 만족도-여자형제와의 대화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04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3.10
	1세대	298	3.02
	2세대	632	3.02
	3세대	76	3.05
	비친족 가족	45	3.11
	F		0.755
성별	여성	751	3.17
	남성	749	2.90
	T		6.629***
연령	20~39세[a]	452	3.15
	40~59세[b]	599	3.05
	60~79세[c]	449	2.95
	F		6.227** c〈a
거주 지역	시	1,100	3.05
	군	400	3.03
	T		0.315
학력	고졸 이하	776	3.01
	대졸 이상	724	3.10
	T		-2.097*
혼인 상태	미혼[a]	347	3.15
	기혼[b]	815	2.99
	이혼·별거·사별[c]	338	3.07
	F		4.715* b〈a
취업 상태	취업	1,135	3.04
	비취업	365	3.05
	T		-0.236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97
	외벌이	276	3.03
	T		-1.045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3.02
	200~500만원 미만	841	3.05
	500만원 이상	337	3.04
	F		0.167

주1) '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22〉 의사소통 만족도-남자형제와의 대화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73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2.83
	1세대[b]	298	2.62
	2세대[c]	632	2.73
	3세대[d]	76	2.72
	비친족 가족[e]	45	2.60
	F		3.311* –
성별	여성	751	2.68
	남성	749	2.78
	T		-2.277*
연령	20~39세[a]	452	2.81
	40~59세[b]	599	2.73
	60~79세[c]	449	2.66
	F		3.396* c〈a
거주 지역	시	1,100	2.76
	군	400	2.65
	T		2.039*
학력	고졸 이하	776	2.68
	대졸 이상	724	2.80
	T		-2.777**
혼인 상태	미혼[a]	347	2.87
	기혼[b]	815	2.68
	이혼·별거·사별[c]	338	2.74
	F		5.398* b〈a
취업 상태	취업	1,135	2.74
	비취업	365	2.71
	T		0.6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71
	외벌이	276	2.61
	T		1.882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2.73
	200~500만원 미만	841	2.72
	500만원 이상	337	2.76
	F		0.188

주1) '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23〉 가족 간 의사소통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4점 만점)	T/F
전체		1,500	3.26	-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3.18	F=3.732** e<d
	1세대[b]	298	3.31	
	2세대[c]	632	3.29	
	3세대[d]	76	3.42	
	비친족 가족[e]	45	3.13	
성별	여성	751	3.30	T=2.120*
	남성	749	3.22	
연령	20~39세	452	3.31	F=1.514
	40~59세	599	3.24	
	60~79세	449	3.24	
거주 지역	시	1,100	3.24	T=-1.784
	군	400	3.31	
학력	고졸 이하	776	3.21	T=-2.727**
	대졸 이상	724	3.31	
혼인 상태	미혼[a]	347	3.12	F=17.495*** a<b, c<b
	기혼·사실혼[b]	815	3.36	
	이혼·별거·사별[c]	338	3.17	
취업 상태	취업	1,135	3.26	T=-0.337
	비취업	365	3.27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37	T=0.584
	외벌이	276	3.34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3.16	F=7.514** a<c
	200~500만원 미만[b]	841	3.26	
	500만원 이상[c]	337	3.37	

주1)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매우 중요하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24〉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자녀 교육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전체		448	3.91
가족 유형	1세대	-	-
	2세대	417	3.92
	3세대	31	3.81
	F		0.483
성별	여성	214	3.95
	남성	234	3.87
	T		0.996
연령	20~39세	82	3.76
	40~59세	319	3.92
	60~79세	47	4.09
	F		2.321
거주 지역	시	311	3.85
	군	137	4.05
	T		-2.358*
학력	고졸 이하	192	3.94
	대졸 이상	256	3.89
	T		0.567
혼인 상태	미혼	-	-
	기혼	443	3.91
	이혼·별거·사별	5	3.80
	F		0.083
취업 상태	취업	378	3.92
	비취업	70	3.89
	T		0.263
맞벌이 유무	맞벌이	323	3.93
	외벌이	125	3.86
	T		0.777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4	5.00
	200~500만원 미만[b]	248	3.99
	500만원 이상[c]	196	3.79
	F		6.183** c〈a, b〈a

주1) '주로 남편이 한다'=1점, '주로 아내가 한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25〉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가사 등 집안일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전체		816	4.02
가족 유형	1세대	280	4.05
	2세대	489	4.02
	3세대	47	3.91
	F		0.535
성별	여성	400	4.04
	남성	416	4.01
	T		0.483
연령	20~39세[a]	158	3.61
	40~59세[b]	402	4.02
	60~79세[c]	256	4.27
	F		34.130*** a〈b〈c
거주 지역	시	576	4.02
	군	240	4.03
	T		-0.094
학력	고졸 이하	459	4.20
	대졸 이상	357	3.80
	T		7.126***
혼인 상태	미혼	-	-
	기혼	811	4.02
	이혼·별거·사별	5	4.00
	F		0.003
취업 상태	취업	640	3.96
	비취업	176	4.23
	T		-3.707***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6	3.91
	외벌이	280	4.23
	T		-5.282 ***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99	4.31
	200~500만원 미만[b]	445	4.06
	500만원 이상[c]	272	3.85
	F		13.472*** c〈b〈a

주1) '주로 남편이 한다'=1점, '주로 아내가 한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26〉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생활비 지출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전체		815	3.14
가족 유형	1세대	280	3.23
	2세대	488	3.09
	3세대	47	3.19
	F		1.698
성별	여성	399	3.14
	남성	416	3.14
	T		-0.021
연령	20~39세	158	3.18
	40~59세	402	3.10
	60~79세	255	3.18
	F		0.755
거주 지역	시	575	3.31
	군	240	2.73
	T		8.521***
학력	고졸 이하	458	3.11
	대졸 이상	357	3.18
	T		-0.981
혼인 상태	미혼	-	-
	기혼	810	3.14
	이혼·별거·사별	5	3.40
	F		0.330
취업 상태	취업	640	3.07
	비취업	175	3.40
	T		-3.655***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6	2.97
	외벌이	279	3.46
	T		-6.422***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99	2.96
	200~500만원 미만	444	3.16
	500만원 이상	272	3.18
	F		1.890

주1) '주로 남편이 한다'=1점, '주로 아내가 한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27〉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농지, 농기계, 선박 등 임대 및 매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전체		127	1.72
가족 유형	1세대	48	1.67
	2세대	68	1.75
	3세대	11	1.73
	F		0.246
성별	여성	62	1.73
	남성	65	1.71
	T		0.162
연령	20~39세	1	1.00
	40~59세	53	1.66
	60~79세	73	1.77
	F		1.099
거주 지역	시	61	1.85
	군	66	1.59
	T		2.390*
학력	고졸 이하	124	1.71
	대졸 이상	3	2.00
	T		-0.789
혼인 상태	미혼	-	-
	기혼	127	
	이혼·별거·사별	-	
	F		
취업 상태	취업	117	1.72
	비취업	10	1.70
	T		0.086
맞벌이 유무	맞벌이	117	1.73
	외벌이	10	1.65
	T		0.48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6	1.72
	200~500만원 미만	81	1.67
	500만원 이상	10	2.10
	F		2.156

주1) '주로 남편이 한다'=1점, '주로 아내가 한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28〉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농업작목(어업 수산물) 결정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전체		127	1.88
가족 유형	1세대	48	1.83
	2세대	68	1.97
	3세대	11	1.55
	F		1.480
성별	여성	62	1.79
	남성	65	1.97
	T		-1.258
연령	20~39세	1	1.00
	40~59세	53	1.85
	60~79세	73	1.92
	F		0.717
거주 지역	시	61	2.11
	군	66	1.67
	T		3.260**
학력	고졸 이하	124	1.89
	대졸 이상	3	1.67
	T		0.468
혼인 상태	미혼	-	-
	기혼	127	
	이혼·별거·사별	-	
	F		
취업 상태	취업	117	1.90
	비취업	10	1.70
	T		0.745
맞벌이 유무	맞벌이	117	1.92
	외벌이	10	1.65
	T		1.299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6	1.81
	200~500만원 미만	81	1.89
	500만원 이상	10	2.10
	F		0.531

주1) '주로 남편이 한다'=1점, '주로 아내가 한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29〉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농업 수확물 판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전체		127	2.05
가족 유형	1세대	48	2.21
	2세대	68	2.00
	3세대	11	1.64
	F		2.230
성별	여성	62	2.08
	남성	65	2.02
	T		0.425
연령	20~39세	1	2.00
	40~59세	53	1.96
	60~79세	73	2.11
	F		0.446
거주 지역	시	61	2.31
	군	66	1.80
	T		3.461**
학력	고졸 이하	124	2.04
	대졸 이상	3	2.33
	T		-0.580
혼인 상태	미혼	-	-
	기혼	127	
	이혼·별거·사별	-	
	F		
취업 상태	취업	117	2.04
	비취업	10	2.10
	T		-0.201
맞벌이 유무	맞벌이	117	2.06
	외벌이	10	1.94
	T		0.54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6	2.11
	200~500만원 미만	81	2.01
	500만원 이상	10	2.10
	F		0.181

주1) '주로 남편이 한다'=1점, '주로 아내가 한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30〉 응답자 특성별 일·생활 균형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4점 만점)	T/F
전체		1,135	2.74	-
가족 유형	1인가구	329	2.78	F=0.912
	1세대	211	2.77	
	2세대	512	2.71	
	3세대	44	2.61	
	비친족 가족	39	2.72	
성별	여성	515	2.79	T=2.350*
	남성	620	2.69	
연령	20~39세[a]	350	2.81	F=3.125* -
	40~59세[b]	541	2.71	
	60~79세[c]	244	2.69	
거주 지역	시	549	2.70	T=-2.728**
	군	586	2.83	
학력	고졸 이하	549	2.68	T=-2.380*
	대졸 이상	586	2.78	
혼인 상태	미혼	268	2.81	F=2.194
	기혼	639	2.72	
	이혼·별거·사별	228	2.69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73	T=0.783
	외벌이	100	2.67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50	2.75	F=2.942
	200~500만원 미만	705	2.70	
	500만원 이상	280	2.82	

주1) '해당사항 없음'(365명)을 제외하고 '매우 불균형'=1점, '매우 균형적'=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31〉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30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2.22
	1세대	298	2.22
	2세대	632	2.36
	3세대	76	2.34
	비친족 가족	45	2.33
	F		1.948
성별	여성	751	2.20
	남성	749	2.39
	T		-3.912***
연령	20~39세	452	2.32
	40~59세	599	2.31
	60~79세	449	2.26
	F		0.484
거주 지역	시	1,100	2.32
	군	400	2.25
	T		1.186
학력	고졸 이하	776	2.27
	대졸 이상	724	2.33
	T		-1.122
혼인 상태	미혼	347	2.18
	기혼	815	2.34
	이혼·별거·사별	338	2.30
	F		2.922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6	2.29
	외벌이	136	2.54
	T		-3.364**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2.07
	200~500만원 미만[b]	841	2.34
	500만원 이상[c]	337	2.30
	F		5.303** a〈c, a〈b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32〉 직장일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듣는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08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1.99
	1세대	298	2.02
	2세대	632	2.14
	3세대	76	2.14
	비친족 가족	45	2.21
	F		2.485
성별	여성	751	2.01
	남성	749	2.14
	T		-3.142**
연령	20~39세	452	2.07
	40~59세	599	2.11
	60~79세	449	2.04
	F		0.776
거주 지역	시	1,100	2.10
	군	400	2.04
	T		1.332
학력	고졸 이하	776	2.02
	대졸 이상	724	2.15
	T		-2.928**
혼인 상태	미혼[a]	347	1.95
	기혼[b]	815	2.14
	이혼·별거·사별[c]	338	2.03
	F		5.769** a〈b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6	2.09
	외벌이	135	2.31
	T		-3.296**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1.90
	200~500만원 미만[b]	841	2.07
	500만원 이상[c]	337	2.18
	F		6.709** a〈c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33〉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1.81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1.66
	1세대[b]	298	1.74
	2세대[c]	632	1.89
	3세대[d]	76	1.91
	비친족 가족[e]	45	1.50
	F		5.258*** e〈d
성별	여성	751	1.83
	남성	749	1.79
	T		0.846
연령	20~39세	452	1.80
	40~59세	599	1.82
	60~79세	449	1.77
	F		0.364
거주 지역	시	1,100	1.81
	군	400	1.80
	T		0.246
학력	고졸 이하	776	1.74
	대졸 이상	724	1.85
	T		-2.417*
혼인 상태	미혼[a]	347	1.54
	기혼[b]	815	1.86
	이혼·별거·사별[c]	338	1.89
	F		15.525*** a〈b, a〈c
맞벌이 유무	맞벌이	428	1.87
	외벌이	114	1.82
	T		0.656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1.69
	200~500만원 미만	841	1.80
	500만원 이상	337	1.85
	F		1.614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34〉 가정일 때문에 직장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진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1.76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1.59
	1세대[b]	298	1.71
	2세대[c]	632	1.84
	3세대[d]	76	1.84
	비친족 가족[e]	45	1.56
	F		5.264*** -
성별	여성	751	1.79
	남성	749	1.74
	T		1.105
연령	20~39세	452	1.72
	40~59세	599	1.79
	60~79세	449	1.77
	F		1.011
거주 지역	시	1,100	1.76
	군	400	1.76
	T		-0.057
학력	고졸 이하	776	1.72
	대졸 이상	724	1.80
	T		-1.865
혼인 상태	미혼[a]	347	1.44
	기혼[b]	815	1.83
	이혼·별거·사별[c]	338	1.82
	F		22.441*** a〈c, a〈b,
맞벌이 유무	맞벌이	452	1.84
	외벌이	114	1.80
	T		0.642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1.67
	200~500만원 미만	841	1.75
	500만원 이상	337	1.81
	F		1.297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35〉 가정일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승진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1.73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1.62
	1세대[b]	298	1.68
	2세대[c]	632	1.79
	3세대[d]	76	1.72
	비친족 가족[e]	45	1.50
	F		3.290* -
성별	여성	751	1.76
	남성	749	1.70
	T		1.622
연령	20~39세	452	1.71
	40~59세	599	1.73
	60~79세	449	1.74
	F		0.187
거주 지역	시	1,100	1.71
	군	400	1.77
	T		-1.278
학력	고졸 이하	776	1.67
	대졸 이상	724	1.78
	T		-2.556*
혼인 상태	미혼[a]	347	1.50
	기혼[b]	815	1.77
	이혼·별거·사별[c]	338	1.79
	F		12.841*** a〈b, a〈c
맞벌이 유무	맞벌이	443	1.77
	외벌이	114	1.81
	T		-0.696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1.62
	200~500만원 미만	841	1.74
	500만원 이상	337	1.73
	F		1.124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36〉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돌보기 위해 가족은 일상생활이나 일을 조정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56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2.55
	1세대	298	2.57
	2세대	632	2.56
	3세대	76	2.68
	비친족 가족	45	2.27
	F		2.135
성별	여성	751	2.57
	남성	749	2.54
	T		0.564
연령	20~39세[a]	452	2.40
	40~59세[b]	599	2.58
	60~79세[c]	449	2.68
	F		15.646*** a〈b, a〈c
거주 지역	시	1,100	2.50
	군	400	2.70
	T		-4.274***
학력	고졸 이하	776	2.60
	대졸 이상	724	2.50
	T		2.516*
혼인 상태	미혼[a]	347	2.37
	기혼[b]	815	2.60
	이혼·별거·사별[c]	338	2.64
	F		14.112*** a〈b, a〈c
취업 상태	취업	1,135	2.55
	비취업	365	2.57
	T		-0.316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60
	외벌이	276	2.61
	T		-0.03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2.61
	200~500만원 미만[b]	841	2.51
	500만원 이상[c]	337	2.62
	F		3.770* -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37〉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공적 돌봄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돌봄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16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3.12
	1세대	298	3.21
	2세대	632	3.18
	3세대	76	3.14
	비친족 가족	45	3.13
	F		1.073
성별	여성	751	3.16
	남성	749	3.17
	T		-0.423
연령	20~39세	452	3.14
	40~59세	599	3.19
	60~79세	449	3.16
	F		0.683
거주 지역	시	1,100	3.20
	군	400	3.07
	T		3.352**
학력	고졸 이하	776	3.15
	대졸 이상	724	3.18
	T		-0.955
혼인 상태	미혼	347	3.13
	기혼	815	3.16
	이혼·별거·사별	338	3.22
	F		1.411
취업 상태	취업	1,135	3.13
	비취업	365	3.26
	T		-3.046**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09
	외벌이	276	3.28
	T		-3.714***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3.20
	200~500만원 미만[b]	841	3.12
	500만원 이상[c]	337	3.25
	F		4.441* b〈c

주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매우 동의한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38〉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어르신의 동의 없이도 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2.79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2.80
	1세대	298	2.73
	2세대	632	2.82
	3세대	76	2.74
	비친족 가족	45	2.84
	F		0.733
성별	여성	751	2.83
	남성	749	2.76
	T		1.665
연령	20~39세	452	2.83
	40~59세	599	2.80
	60~79세	449	2.75
	F		1.051
거주 지역	시	1,100	2.68
	군	400	3.11
	T		-10.161***
학력	고졸 이하	776	2.77
	대졸 이상	724	2.82
	T		-1.314
혼인 상태	미혼	347	2.76
	기혼	815	2.82
	이혼·별거·사별	338	2.76
	F		1.031
취업 상태	취업	1,135	2.78
	비취업	365	2.83
	T		-0.956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2.83
	외벌이	276	2.79
	T		0.647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2.85
	200~500만원 미만[b]	841	2.82
	500만원 이상[c]	337	2.68
	F		4.571* c〈a, b〈a

주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매우 동의한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39〉 향후 5년 내 이주 계획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X^2
전체		1,500	14.3	70.0	15.7	-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17.4	66.8	15.8	39.433 ***
	1세대	298	12.8	77.5	9.7	
	2세대	632	12.8	69.1	18.0	
	3세대	76	6.6	82.9	10.5	
	비친족 가족	45	28.9	42.2	28.9	
성별	여성	751	12.5	71.1	16.4	4.211
	남성	749	16.2	68.9	15.0	
연령	20~39세	452	29.9	49.6	20.6	228.047 ***
	40~59세	599	11.7	68.6	19.7	
	60~79세	449	2.2	92.4	5.3	
거주 지역	시	1,100	15.6	67.2	17.2	15.611 ***
	군	400	10.8	77.8	11.5	
학력	고졸 이하	776	4.3	85.3	10.4	195.871 ***
	대졸 이상	724	25.1	53.6	21.3	
혼인 상태	미혼	347	25.1	48.4	26.5	101.554 ***
	기혼	815	11.7	76.6	11.8	
	이혼·별거·사별	338	9.8	76.3	13.9	
취업 상태	취업	1,135	13.6	69.9	16.6	4.313
	비취업	365	16.7	70.4	12.9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10.8	78.7	10.6	3.971
	외벌이	276	13.4	72.5	14.1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9.0	81.1	9.9	24.417 ***
	200~500만원 미만	841	15.8	66.5	17.7	
	500만원 이상	337	15.7	68.2	16.0	

주) * $p<0.05$, ** $p<0.01$, *** $p<0.001$

〈부록-40〉 현재 거주지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 (4점 만점)	T/F
전체		1,500	2.99	-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2.92	F=8.580*** e〈a, e〈c, e〈d, e〈b
	1세대[b]	298	3.13	
	2세대[c]	632	2.98	
	3세대[d]	76	3.12	
	비친족 가족[e]	45	2.64	
성별	여성	751	2.98	T=-0.465
	남성	749	2.99	
연령	20~39세[a]	452	2.69	F=123.294*** a〈b〈c
	40~59세[b]	599	2.95	
	60~79세[c]	449	3.33	
거주 지역	시	1,100	2.94	T=-4.589***
	군	400	3.12	
학력	고졸 이하	776	3.16	T=10.740***
	대졸 이상	724	2.80	
혼인 상태	미혼[a]	347	2.65	F=60.607*** a〈c, a〈b
	기혼[b]	815	3.09	
	이혼·별거·사별[c]	338	3.07	
취업 상태	취업	1,135	2.98	T=-0.938
	비취업	365	3.01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08	T=-0.388
	외벌이	276	3.1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3.14	F=14.818*** b〈c〈a
	200~500만원 미만[b]	841	2.91	
	500만원 이상[c]	337	3.02	

주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 '매우 만족한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41〉 이웃과 왕래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X^2
전체		1,500	50.9	49.1	-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39.4	60.6	76.116***
	1세대	298	59.1	40.9	
	2세대	632	55.4	44.6	
	3세대	76	72.4	27.6	
	비친족 가족	45	13.3	86.7	
성별	여성	751	54.1	45.9	5.888*
	남성	749	47.8	52.2	
연령	20~39세	452	14.8	85.2	410.460***
	40~59세	599	55.1	44.9	
	60~79세	449	81.7	18.3	
거주 지역	시	1,100	46.6	53.4	30.476***
	군	400	62.8	37.3	
학력	고졸 이하	776	70.6	29.4	249.291***
	대졸 이상	724	29.8	70.2	
혼인 상태	미혼	347	10.7	89.3	293.378***
	기혼	815	63.7	36.3	
	이혼·별거·사별	338	61.5	38.5	
취업 상태	취업	1,135	48.1	51.9	14.923***
	비취업	365	59.7	40.3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59.7	40.3	10.687***
	외벌이	276	71.4	28.6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62.1	37.9	24.419***
	200~500만원 미만	841	49.7	50.3	
	500만원 이상	337	43.3	56.7	

주) * p〈0.05, ** p〈0.01, *** p〈0.001

〈부록-42〉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 변화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44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3.41
	1세대	298	3.45
	2세대	632	3.44
	3세대	76	3.56
	비친족 가족	45	3.44
	F		0.452
성별	여성	751	3.46
	남성	749	3.42
	T		0.935
연령	20~39세	452	3.43
	40~59세	599	3.43
	60~79세	449	3.47
	F		0.331
거주 지역	시	1,100	3.48
	군	400	3.26
	T		4.147***
학력	고졸 이하	776	3.44
	대졸 이상	724	3.44
	T		0.001
혼인 상태	미혼	347	3.49
	기혼	815	3.43
	이혼·별거·사별	338	3.42
	F		0.540
취업 상태	취업	1,135	3.44
	비취업	365	3.45
	T		-0.315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44
	외벌이	276	3.42
	T		0.29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3.40
	200~500만원 미만	841	3.41
	500만원 이상	337	3.52
	F		3.074* -

주1) '변화 없음'을 제외하고 '매우 감소'=1점, '매우 증가'=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43〉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22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
	1세대	298	3.20
	2세대	632	3.23
	3세대	76	3.20
	비친족 가족	45	3.00
	F		0.106
성별	여성	751	3.27
	남성	749	3.17
	T		1.695
연령	20~39세[a]	452	3.47
	40~59세[b]	599	3.11
	60~79세[c]	449	3.11
	F		16.576*** b, c〈a
거주 지역	시	1,100	3.29
	군	400	3.05
	T		4.455***
학력	고졸 이하	776	3.14
	대졸 이상	724	3.26
	T		-1.752
혼인 상태	미혼	347	-
	기혼	815	3.23
	이혼·별거·사별	338	3.15
	F		0.536
취업 상태	취업	1,135	3.17
	비취업	365	3.43
	T		-3.080**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14
	외벌이	276	3.42
	T		-3.822***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3.00
	200~500만원 미만	841	3.26
	500만원 이상	337	3.18
	F		1.128

주1) '변화 없음'을 제외하고 '매우 감소'=1점, '매우 증가'=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44〉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횟수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19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
	1세대	298	3.20
	2세대	632	3.21
	3세대	76	3.26
	비친족 가족	45	2.40
	F		16.504*** -
성별	여성	751	3.22
	남성	749	3.16
	T		1.750
연령	20~39세[a]	452	3.29
	40~59세[b]	599	3.15
	60~79세[c]	449	3.17
	F		4.554* b〈a
거주 지역	시	1,100	3.23
	군	400	3.07
	T		4.931***
학력	고졸 이하	776	3.18
	대졸 이상	724	3.20
	T		-0.374
혼인 상태	미혼	347	3.25
	기혼	815	3.18
	이혼·별거·사별	338	3.19
	F		0.615
취업 상태	취업	1,135	3.16
	비취업	365	3.31
	T		-3.348**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15
	외벌이	276	3.24
	T		-2.024*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3.13
	200~500만원 미만	841	3.15
	500만원 이상	337	3.26
	F		3.979* -

주1) '변화 없음'을 제외하고 '매우 감소'=1점, '매우 증가'=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45〉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17
가족 유형	1인가구[a]	449	-
	1세대[b]	298	3.21
	2세대[c]	632	3.18
	3세대[d]	76	3.20
	비친족 가족[e]	45	2.42
	F		19.070*** -
성별	여성	751	3.20
	남성	749	3.14
	T		1.660
연령	20~39세[a]	452	3.26
	40~59세[b]	599	3.13
	60~79세[c]	449	3.17
	F		5.041** b〈a
거주 지역	시	1,100	3.21
	군	400	3.05
	T		5.545***
학력	고졸 이하	776	3.16
	대졸 이상	724	3.18
	T		-0.517
혼인 상태	미혼	347	3.23
	기혼	815	3.17
	이혼·별거·사별	338	3.13
	F		0.873
취업 상태	취업	1,135	3.15
	비취업	365	3.26
	T		-2.905**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15
	외벌이	276	3.21
	T		-1.842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3.16
	200~500만원 미만	841	3.14
	500만원 이상	337	3.22
	F		2.411

주1) '변화 없음'을 제외하고 '매우 감소'=1점, '매우 증가'=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46〉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15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
	1세대	298	3.15
	2세대	632	3.15
	3세대	76	3.23
	비친족 가족	45	3.00
	F		0.821
성별	여성	751	3.20
	남성	749	3.09
	T		3.107**
연령	20~39세	452	3.21
	40~59세	599	3.13
	60~79세	449	3.14
	F		1.749
거주 지역	시	1,100	3.19
	군	400	3.04
	T		4.638***
학력	고졸 이하	776	3.15
	대졸 이상	724	3.15
	T		-0.016
혼인 상태	미혼	347	3.04
	기혼	815	3.17
	이혼·별거·사별	338	3.12
	F		1.885
취업 상태	취업	1,135	3.12
	비취업	365	3.26
	T		-3.175**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13
	외벌이	276	3.25
	T		-2.739**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3.17
	200~500만원 미만	841	3.15
	500만원 이상	337	3.15
	F		0.055

주1) '변화 없음'을 제외하고 '매우 감소'=1점, '매우 증가'=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47〉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09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2.95
	1세대	298	3.38
	2세대	632	3.21
	3세대	76	2.67
	비친족 가족	45	3.00
	F		1.711
성별	여성	751	3.18
	남성	749	3.00
	T		1.203
연령	20~39세	452	2.99
	40~59세	599	3.20
	60~79세	449	3.08
	F		0.981
거주 지역	시	1,100	3.13
	군	400	2.62
	T		2.016*
학력	고졸 이하	776	3.23
	대졸 이상	724	3.04
	T		1.143
혼인 상태	미혼	347	2.99
	기혼	815	3.27
	이혼·별거·사별	338	2.91
	F		2.169
취업 상태	취업	1,135	3.10
	비취업	365	3.03
	T		0.354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45
	외벌이	276	2.95
	T		2.07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3.21
	200~500만원 미만	841	2.96
	500만원 이상	337	3.24
	F		1.712

주1) '변화 없음'을 제외하고 '매우 감소'=1점, '매우 증가'=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48〉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09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
	1세대	298	3.11
	2세대	632	3.07
	3세대	76	3.15
	비친족 가족	45	3.33
	F		0.213
성별	여성	751	3.12
	남성	749	3.06
	T		0.550
연령	20~39세	452	2.85
	40~59세	599	3.15
	60~79세	449	3.09
	F		1.724
거주 지역	시	1,100	3.13
	군	400	2.81
	T		1.870
학력	고졸 이하	776	3.31
	대졸 이상	724	2.93
	T		3.325**
혼인 상태	미혼	347	3.38
	기혼	815	3.01
	이혼·별거·사별	338	3.24
	F		2.686
취업 상태	취업	1,135	3.07
	비취업	365	3.15
	T		-0.551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00
	외벌이	276	3.03
	T		-0.20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3.50
	200~500만원 미만	841	3.15
	500만원 이상	337	2.98
	F		1.872

주1) '변화 없음'을 제외하고 '매우 감소'=1점, '매우 증가'=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49〉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가족의 대화 시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08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
	1세대	298	3.11
	2세대	632	3.08
	3세대	76	3.05
	비친족 가족	45	2.82
	F		3.160* -
성별	여성	751	3.07
	남성	749	3.09
	T		-0.665
연령	20~39세[a]	452	3.14
	40~59세[b]	599	3.08
	60~79세[c]	449	3.01
	F		4.669* c〈a
거주 지역	시	1,100	3.11
	군	400	2.97
	T		4.792***
학력	고졸 이하	776	3.06
	대졸 이상	724	3.10
	T		-1.358
혼인 상태	미혼	347	3.04
	기혼	815	3.09
	이혼·별거·사별	338	3.03
	F		1.050
취업 상태	취업	1,135	3.07
	비취업	365	3.11
	T		-1.084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08
	외벌이	276	3.12
	T		-1.115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3.00
	200~500만원 미만	841	3.07
	500만원 이상	337	3.12
	F		2.462

주1) '변화 없음'을 제외하고 '매우 감소'=1점, '매우 증가'=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50〉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3.01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3.21
	1세대	298	2.97
	2세대	632	2.98
	3세대	76	2.88
	비친족 가족	45	2.75
	F		0.600
성별	여성	751	3.01
	남성	749	3.02
	T		-0.030
연령	20~39세	452	2.84
	40~59세	599	3.19
	60~79세	449	3.33
	F		4.015* -
거주 지역	시	1,100	3.05
	군	400	2.71
	T		1.452
학력	고졸 이하	776	3.26
	대졸 이상	724	2.93
	T		2.076*
혼인 상태	미혼	347	3.17
	기혼	815	2.95
	이혼·별거·사별	338	3.12
	F		0.998
취업 상태	취업	1,135	3.01
	비취업	365	3.03
	T		-0.108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3.02
	외벌이	276	2.84
	T		0.98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a]	322	3.73
	200~500만원 미만[b]	841	2.81
	500만원 이상[c]	337	3.08
	F		8.938*** b〈a, c〈a

주1) '변화 없음'을 제외하고 '매우 감소'=1점, '매우 증가'=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51〉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족의 변화-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4점 만점)
전체		1,500	1.89
가족 유형	1인가구	449	-
	1세대	298	1.87
	2세대	632	1.90
	3세대	76	1.90
	비친족 가족	45	1.80
	F		0.201
성별	여성	751	1.87
	남성	749	1.90
	T		-0.578
연령	20~39세	452	1.89
	40~59세	599	1.92
	60~79세	449	1.83
	F		0.730
거주 지역	시	1,100	1.87
	군	400	1.95
	T		-1.199
학력	고졸 이하	776	1.84
	대졸 이상	724	1.92
	T		-1.542
혼인 상태	미혼	347	1.79
	기혼	815	1.91
	이혼·별거·사별	338	1.86
	F		0.968
취업 상태	취업	1,135	1.92
	비취업	365	1.77
	T		2.255*
맞벌이 유무	맞벌이	539	1.98
	외벌이	276	1.77
	T		3.30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22	1.79
	200~500만원 미만	841	1.91
	500만원 이상	337	1.88
	F		0.937

주1) '변화 없음'을 제외하고 '매우 감소'=1점, '매우 증가'=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부록 Ⅱ. 설문지

2021 경상남도 가족실태조사 설문지

ID				

안녕하십니까?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경상남도 여성가족에 관한 정책 연구 및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2021년 경상남도 가족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경남의 가족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경상남도의 가족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를 정립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조사 주관기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성평등정책실(055-713-7085)
조사 수행기관	가온리서치 (Tel : 051-757-0837 / Fax : 0505-861-1210 / E-mail : lbj0820@hanmail.net)

조사대상 및 가족의 범위 (조사원 참조)	• 조사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20세~79세 도민 Q1. 거주지역 : 경상남도 _____ 시/군 (경상남도 거주 아닐 경우 설문 종료) Q2. 연령 : 만_____ 세(만 20~79세 아닐 경우 설문 종료) • 가족의 범위 :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을 기준으로 작성 • 가구주: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계를 실제로 책임지고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

A. 가구의 일반적 특성

A1. 귀하의 가족에 대해 다음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각 문항은 아래 보기의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가구주와의 관계	2)성별	3)학력	4)만 나이	5)혼인상태	6)취업상태	7)직업
본인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6							
가구원7							

보기	1)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 ⑥ 손자녀의 배우자 ⑦ 가구주의 부모 ⑧ 배우자의 부모 ⑨ 가구주의 형제/자매 ⑩ 배우자의 형제/자매 ⑪ 가구주의 조부모 ⑫ 배우자의 조부모 ⑬ 기타
	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3) 교육정도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⑥ 미취학 ⑦ 초등학생 ⑧ 중학생 ⑨ 고등학생 ⑩ 대학생 ⑪ 대학원생 ⑫ 기타
	5) 혼인상태	① 미혼(비혼) ② 기혼 ③ 사실혼(동거) ④ 별거 ⑤ 이혼 ⑥ 사별 ⑦ 기타
	6) 취업상태	① 취업 ② 실업(현재 무직이지만 일을 구하고 있음) ③ 비경제활동(현재 무직이며 1개월 이상 일을 구하고 있지 않음)
	7) 직업	① 관리·전문직 ② 사무직 ③서비스·판매직(자영업자 포함) ④ 생산직 ⑤ 단순노무직 ⑥ 농(어)민 ⑦ 주부 ⑧ 학생 ⑨ 군인 ⑩ 기타

- 1 -

A2.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항 목	예	아니오
1) 취업, 학업 등으로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다(주말부부)	①	②
2) 자녀 유학을 위해 부모 중 한 명은 자녀와 생활하고 있다	①	②
3) 국제결혼으로 가족 구성원이 된 사람이 있다	①	②
4) 입양한 자녀가 있다	①	②
5)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①	②
6) 어머니 또는 아버지 혼자 만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키우고 있다	①	②
7) 손자녀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①	②

A3. 최근 1년 동안 귀하 가족(함께 사는 가족 기준)의 전체 소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복수 응답)

①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② 배우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③ 자녀의 근로 및 사업소득
④ 부모의 근로 및 사업소득
⑤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지원 소득
⑥ 부동산 임대소득
⑦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등)
⑧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⑨ 연금소득(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⑩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공공부조)
⑪ 퇴직금
⑫ 전 배우자의 지원소득(양육비 등)
⑬ 기초연금
⑭ 기타 (_____)

A4. 최근 1년(2020.5.1.~2021.4.30.) 동안 가족(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월 평균 소득: 세금 공제 전 수입(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소득 등 합계)으로, 연간 총 소득을 월 평균으로 환산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A5. 최근 1년 동안 귀하 가족(함께 사는 가족)의 월 평균 지출은 얼마입니까?

▶ 월 평균 지출: 식비, 의류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전체 생활비와 부모 부양비, 사회보험료, 세금 등 가계지출 모두 포함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 미만 ④ 200~300만원 미만
⑤ 300~400만원 미만 ⑥ 400~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이상

A6. 현재 귀하 가족(함께 사는 가족)은 경제적으로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층 ② 중하층 ③ 중층
④ 중상층 ⑤ 상층

B. 가족 가치관

B1.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족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B2. 최근 가족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반영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제도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어머니의 성으로 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4) 정자은행 등을 활용해서 결혼 없이 단독으로 출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보호자 또는 유족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B3. 귀하는 이성 간 데이트나 혼인 시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남자가 주로 부담	남녀 함께 부담	여자가 주로 부담
1) 데이트 비용	①	②	③
2) 혼인 시 주택 마련 비용	①	②	③
3) 가구, 가전제품 등 혼수 비용	①	②	③
4) 예단 비용	①	②	③

C.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C1.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 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성평등이라고 한다면, 귀하가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은 성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등의 이유로 분가를 하신 경우, 귀하의 원가족(태어나서 자란 가족)은 성평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성차별'=1, '매우 성평등'=10라고 할 때 해당되는 정도를 적어주세요)

1) 현재 가족		2) 원가족 (결혼 등으로 분가한 경우)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성차별 — 보통 — 매우 성평등

C2. 귀하의 현재 함께 사는 가족에서 성차별이 있다면 어떤 차별입니까?(해당되는 사항 모두 표시)

① 교육기회 차별 ② 경제적 지원 차별
③ 가사일 편중 ④ 돌봄에 대한 가중한 부담
⑤ 재산 상속 및 증여 차별 ⑥ 가족 대소사 배제
⑦ 특별히 없음 ⑧ 기타 (_____)

C3. 귀하의 원가족에서 성차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별이 있습니까?(해당되는 사항 모두 표시) (결혼 등으로 분가한 경우 응답)

① 교육기회 차별 ② 경제적 지원 차별
③ 가사일 편중 ④ 돌봄에 대한 가중한 부담
⑤ 재산 상속 및 증여 차별 ⑥ 가족 대소사 배제
⑦ 특별히 없었음 ⑧ 기타 (_____)

C4. 귀하는 가족(따로 사는 가족까지 포함) 구성원 중 누구와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2순위까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배우자 ④ 딸
⑤ 아들 ⑥ 할머니
⑦ 할아버지 ⑧ 손녀
⑨ 손자 ⑩ 여자형제(언니, 누나, 여동생 등)
⑪ 남자형제(오빠, 형, 남동생 등)
⑫ 혈연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
⑬ 아무도 없음
⑭ 기타 (_____)

C5. 귀하는 가족(따로 사는 가족까지 포함) 구성원 중 누구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2순위까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배우자 ④ 딸
⑤ 아들 ⑥ 할머니
⑦ 할아버지 ⑧ 손녀
⑨ 손자 ⑩ 여자형제(언니, 누나, 여동생 등)
⑪ 남자형제(오빠, 형, 남동생 등)
⑫ 혈연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
⑬ 아무도 없음
⑭ 기타 (_____)

C6. 귀하는 다음의 가족(따로 사는 가족까지 포함)과의 의사소통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1) 어머니와의 대화	①	②	③	④	⑨
2) 아버지와의 대화	①	②	③	④	⑨
3) 배우자와의 대화	①	②	③	④	⑨
4) 딸과의 대화	①	②	③	④	⑨
5) 아들과의 대화	①	②	③	④	⑨
6) 여자형제(언니, 누나, 여동생)와의 대화	①	②	③	④	⑨
7) 남자형제(오빠, 형, 남동생)와의 대화	①	②	③	④	⑨

C7. 귀하는 가족 간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C8. 귀하가 가족과 의사소통하는데 장애 요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②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몸이 피곤해서
③ 일 외에도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④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⑤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⑥ 가족과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⑦ 없음 ⑧ 기타(_____)

C9. 귀하는 최근 3개월 간 가족(함께 사는 가족)과 다투거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갈등 이후 관계가 변화되었는지 골라주십시오. (해당 경우 모두 응답)

대상	해당 없음 (함께 살지 않음)	갈등 유무 (있는 경우만 응답)	갈등 있는 경우만 응답(아래 보기 선택)		
			갈등 원인	갈등 대처방식	갈등 이후 관계 변화
1) 배우자	□	□ 있음			
2) 딸	□	□ 있음			
3) 아들	□	□ 있음			
4) 어머니	□	□ 있음			
5) 아버지	□	□ 있음			
6) 형제	□	□ 있음			
7) 자매	□	□ 있음			
8) 배우자 부모	□	□ 있음			
9) 기타가족 (_____)	□	□ 있음			

<보기>

갈등원인	갈등 대처방식	갈등 이후 관계 변화
① 성격 차이	① 그냥 놔둔다	① 갈등 전과 달라진 거 없다
② 경제적 이유	②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② 갈등을 겪은 후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③ 가사일 및 돌봄 분담	③ 갈등 당사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③ 갈등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다
④ 집안 대소사(제사, 행사 등)	④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④ 갈등 때문에 가족들과 따로 사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⑤ 재산(상속 등)	⑤ 주위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갈등을 해소한다	⑤ 기타(_____)
⑥ 학업·진학·취업 등에 대한 견해 차이	⑥ 전문 기관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⑦ 기타(_____)	⑦ 기타(_____)	

C10. 귀하 가족에서는 다음의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결정합니까?

항목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 없음
1) 자녀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⑨
2) 가사 등 집안일	①	②	③	④	⑤	⑨
3) 생활비 지출	①	②	③	④	⑤	⑨
4) **[농어가 응답]** 농지, 농기계, 선박 등 임대 및 매매	①	②	③	④	⑤	⑨
5) **[농어가 응답]** 농업 작목(어업 수산물) 결정	①	②	③	④	⑤	⑨
6) **[농어가 응답]** 농업(어업) 수확물 판매	①	②	③	④	⑤	⑨

D. 일과 돌봄

D1. 귀하는 현재 자신의 삶에서 일과 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균형 ② 불균형한 편
③ 균형적인 편 ④ 매우 균형적 ⑨ 해당 없음

D2. 귀하는 일을 하면서 다음과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⑨
2) 직장일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⑨
3) 가족에 대한 책임(육아, 가사활동 등) 때문에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⑨
4)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⑨
5)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승진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⑨

D3. 귀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2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① 영아(만 0~2세) ② 유아(만 3~5세)
③ 초등학생 ④ 투병중인 환자
⑤ 장애 아동 ⑥ 장애가 있는 성인
⑦ 거동이 불편한 노인 ⑧ 치매 노인
⑨ 기타 (_____)

D4. 귀하는 가족 내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돌봄의 주체는 우선적으로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외부인 : 요양보호사 등
▶ 외부기관 : 요양병원 등을 비롯한 각종 요양시설

① 가족이 전적으로 돌본다
② 가족이 주로 돌보고 외부인(기관)이 조금 돌본다
③ 외부인(기관)이 주로 돌보고 가족이 조금 돌본다
④ 외부인(기관)이 전적으로 돌본다
⑤ 돌봄 대상에 따라 돌봄 주체도 다르다
⑥ 기타 (_____)

D5. 귀하는 가족 내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돌봄 비용을 우선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② 가족이 주로 부담하고 정부가 일부 보조한다
③ 정부가 주로 부담하고 가족이 일부 부담한다
④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⑤ 돌봄 대상에 따라 돌봄 비용 부담방식도 다르다
⑥ 기타 (_____)

D6. 귀하는 가족 중에서 부모 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① 부모님 스스로
② 모든 자녀가 골고루
③ 장남과 맏며느리
④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
⑤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
⑥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
⑦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녀
⑧ 기타(_____)

D7. 귀하는 연세가 많거나 편찮으신 부모(어르신)의 돌봄(부양)에 대한 다음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가족은 일상생활이나 일을 조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공적 돌봄(정부 제공의 돌봄 서비스)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돌봄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다	①	②	③	④
3)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어르신의 동의 없이도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E.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E1.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거주한 기간은 총 몇 년인가요? (_____)년

E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는 시군으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____) 년도에 이주했다
②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서 태어났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____)년도에 이주했다
③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주중이다

E3. 귀하께서는 향후 5년 내에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E3-1. 이동)	② 그렇지 않다 (E4. 이동)	③ 잘 모르겠다 (E4. 이동)

E3-1. 다른 곳으로 이주하신다면 어디로 이주하시고 싶으십니까?
① 경상남도 내 다른 시/군
②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등 경상권 지역
③ 전남, 전북, 광주 등 전라권 지역
④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등 충청권 지역
⑤ 강원 지역
⑥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⑦ 제주 지역
⑧ 이민 또는 해외파견 등 국외 지역
⑨ 기타 (_____)

E3-2.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본인의) 진학 등 교육적인 이유로 인해
② 취업,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로 인해
③ 이사, 계약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로 인해
④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⑤ 가구원의 분가·출생·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⑥ 자녀교육 때문에
⑦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⑧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찾아서
⑨ 건강상의 이유로
⑩ 기타 (_____)

E4.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시는 시군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만족하지 않는다 ④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E5. 귀하는 평소에 이웃과 왕래하며 교류하십니까?

① 예 (E5-1. 이동)	② 아니오 (E6. 이동)

E5-1. 귀하는 이웃과 어떤 교류를 주로 하십니까?(해당되는 경우 모두 응답)
① 택배 수령, 음식 나누기, 생활정보 교류 등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받음
② 자녀 돌봄 및 교육에 관한 도움을 주고받음
③ 운동, 모임 등 오락 및 취미활동을 함께 함
④ 가족 단위 나들이 및 산책 등을 함께 함
⑤ 동네 주민행사 참여 및 봉사에 함께 함
⑥ 기타 (_____)

E6. 귀하는 원활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동네 또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2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① 자녀 돌봄 ② 자녀 교육
③ 방범 및 안전 ④ 운동 및 취미생활
⑤ 음식 나눔 장보기 ⑥ 병원 및 교통 동행
⑦ 생활정보 공유 및 나눔 ⑧ 봉사 활동
⑨ 기타(_____) ⑩ 필요 없음

E7.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① 지역주민 행사(알뜰장, 바자회, 주민축제 등) 개최
② 지역 주민 모임 공간 마련 지원
③ 마을 동아리 및 주민 자치활동 지원
④ 이웃 간 교류 정보 홍보
⑤ 지역주민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⑥ 기타(_____)
⑦ 모두 필요 없음

E8. 귀하는 자신의 지역이 모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②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③ 부부상담, 자녀상담 등 가족관계 프로그램 제공
④ 가족 간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홍보 캠페인
⑤ 보육·돌봄 제도의 확대 보급
⑥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⑦ 학교 주변 폭력문화 근절
⑧ 인터넷 음란 및 음란·퇴폐업소의 감시 강화
⑨ 가족공원, 가족극장 등 가족 오락시설 확충
⑩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
⑪ 기타(_____)

E9. 귀하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다음과 같은 가족정책(서비스) 또는 기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이용(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가족정책(서비스) 또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해당 부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해당되는 경우만 표시)

▶ 인지도에 '있음'이라고 표시한 경우만 이용(참여) 여부 응답, 이용(참여) 여부에 '있음' 표시한 경우만 만족도 응답

항목	1)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가?	2) 이용(참여)한 적 있는가?	3) 정책(서비스) 만족도는?
1) 주거환경(공간)개선 가사지원 (저소득가구 정리수납서비스)	□ 있음	□ 있음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 만족
2)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난방연료비,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등)	□ 있음	□ 있음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 만족
3)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직업훈련비, 산전산후 요양비 등)	□ 있음	□ 있음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 만족
4) 경남 아이다누리카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 있음	□ 있음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 만족
5) 난임부부 시술비 및 진단검사비 지원	□ 있음	□ 있음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 만족
6)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있음	□ 있음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 만족
7)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 있음	□ 있음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 만족
8)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 있음	□ 있음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 만족
9)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있음	□ 있음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 만족
10)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있음	□ 있음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 만족

F.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

F1. 귀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항목	매우 감소	감소	증가	매우 증가	변화 없음
1)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①	②	③	④	⑨
2)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횟수	①	②	③	④	⑨
3) 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캠핑, 여행 등)	①	②	③	④	⑨
4) 가족의 대화 시간	①	②	③	④	⑨
5)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①	②	③	④	⑨
6)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	①	②	③	④	⑨
7)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①	②	③	④	⑨
8)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①	②	③	④	⑨
9) 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임신계획 지연 등)	①	②	③	④	⑨
10)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 변화	①	②	③	④	⑨

F2. 귀하는 코로나19 이후 함께 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일과 집안일이 분리가 안 됨
②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
③ 육아 및 돌봄 부담 증가
④ 아이들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어려움
⑤ 가족 간 사소한 다툼 증가
⑥ 경제적 어려움 증가
⑦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어려움
⑧ 가족이 아플 때 병원 이용의 어려움
⑨ 나를 위한 개인 시간 부족
⑩ 해당사항 없음
⑪ 기타(_____)

F3.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① 코로나19 이전보다 나빠짐 (F3-1. 이동)
②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짐 (F3-2. 이동)
③ 변화 없음 (F4. 이동)
④ 해당사항 없음 (F4. 이동)

F3-1.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
② 가사노동의 급증
③ 코로나로 인해 외부 만남 감소
④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 증가
⑤ 기타(_____)

F3-2.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족 간 대화 및 소통 증가
②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
③ 재난 상황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음
④ 육아 및 가사노동 분담
⑤ 외부 모임이나 음주 감소
⑥ 기타(_____)

F4.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는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가 변화하였습니까?
① 코로나19 이전보다 나빠짐 (F4-1. 이동)
②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짐 (F4-2. 이동)
③ 변화 없음 (F5. 이동)
④ 해당사항 없음 (F5. 이동)

F4-1.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의 컴퓨터/휴대폰 과다 사용 문제로 인한 갈등
② 자녀의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 부담 증가
③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습관
④ 자녀의 온라인 학습지도에 따른 부담감
⑤ 기타(_____)

F4-2.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증가
②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
③ 자녀와의 소통 및 이해 증가
④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
⑤ 재난 상황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음
⑥ 기타(_____)

F5. 귀하의 가족은 코로나19 이후 다음과 같은 가족돌봄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가 이용하였습니까? (이용한 경우 모두 체크)

구분	본인	배우자	기타 (_____)
1) 육아휴직			
2) 유급휴가(연차휴가)			
3) 무급휴가			
4) 가족돌봄 휴직/휴가			
5)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 탄력근무제 등)			
8) 재택근무			

F6.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①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
② 안전한 돌봄 지원
③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가족 지원
④ 가족 대상 놀이 여가 활동 프로그램 지원
⑤ 자녀 학습 도우미 파견 확대
⑥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⑦ 감염병 대응 임신·출산 안심병원 지정 운영
⑧ 공공 출산의료기관 및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⑨ 다양한 결혼 문화 확대(스몰 웨딩, 온라인 웨딩, 온라인 예비부부 교육 등)
⑩ 기타(_____)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본 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보고서 2021-07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방안: 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인 쇄	2021년 12월 31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 행 인	민 말 순
발 행 처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우 : 51430) Tel (055)713-7085 Fax (055)713-7093
홈 페 이 지	http://gnwff.or.kr
인 쇄 처	동아출판인쇄사 Tel (055)288-2345 Fax (055)288-2367

ISBN : 979-11-974700-6-6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